

ISKS Research Series 4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CHINA

최상록 Cui Xianglu

지정산 Ji Cheng-san

김룡철 Kim Ryong-cheol



국제고려학회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International Society of Korean Studies
Northeast Chin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SKS Research Series4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KOREAN NATION-
ALITY EDUCATION IN CHINA

최상록 Cui Xianglu

지청산 Ji Cheng-san

김룡철 Kim Ryong-cheol

연변대학출판사

1995. 연길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편집위원회

고 문	최웅구	국제고려학회 고문
	안병호	국제고려학회 부회장
주 임	최상록	국제고려학회 교육부회 위원장
위 원	(가나다순)	
	강영덕 김룡철 김명제 김영림	
	김인철 남일성 박태수 지청산	
	최상록 황도남	
주 편	최상록	지청산 김룡철
부주편	남일성	김인철 김영림

머리말

1992년 6월 연길시에서 《중국조선족교육의 특점과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있었고 1994년 6월에 역시 연길시에서 《중국 조선족언어교육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있었습니가. 이 두 회의는 모두 국제고려학회 교육부회와 동북조선민족교육 과학연구소의 공동주체로 소집되었습니다. 이 두 회의에 국내외 교육분야와 관계분야의 학자, 교육관원 그리고 일부 국외학자들이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해주셨고 아주 좋은 토론들을 발표하셨습니다.

국제고려학회의 총서출판계획에 따라 출판하게 되는 이번 총서 제4호에는 상술한 두차례 학술회의의 주요한 논문을 옮겼고 또한 이 기회에 중국조선족교육의 기본상황을 소개하려는 의도밑에 동북3성 교육행정부문의 글도 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연변을 위주로 하면서 동북3성의 교육현황과 전망을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교육일반, 중소학교교육, 직업기술교육, 사범교육 등 교육의 각 분야를 포괄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조선족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외의 독자들을 위하여 부록가운데 필요 한 통계수자, 민족교육에 관한 중국정부의 법규와 정책,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교육조례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중국조선민족의 교육과 나아가서는 그들의 생활을 이해할수 있을것이며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얼마간이라도 이해하게 될것입니다. 더욱기는 우리 학술계의 연구자들이 조선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사색하고 있으며 그들의 간곡한 심정은 무엇인가를 알게 될것입니다.

이 책이 출판된후 조선족교육을 관심하고있는 미국, 일본, 르씨야 학자들 더욱기는 조선반도에 살고계시는 조예깊은 여러 학자들

의 비교연구와 학술교류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있게 될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의 부족, 연구의 불충분성 등 원인으로 많은 미비한 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서슴없는 지적 및 비평이 있기를 바랍
니다.

주필 최상록
1995년 3월 연길에서

축하의 글

그동안 중국에서 홀륭히 교육사업에 종사해오신 여러 교육계 학자들께서 각자의 교육리론과 협장체험을 바탕으로 『중국조선민족 교육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귀중한 책을 출간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책은 현재 중국에 살고계시는 200여만 동포들이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교육을 하여왔으며 그 결과가 어떤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또한 미래의 교육사업의 목표와 전망, 방법 등은 무엇인지 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고국을 떠나 세계 각곳에 살고 계시는 500만 동포 누구나 깊이 고려하고 있는 자녀교육문제를 위한 값진 기초자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사업은 한 개인과 가정의 미래를 결정지을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 떠나아가서는 인류공영(人类共榮)에 이바지하는 기초석이라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발전의 배후에는 5, 60년대의 극심한 곤난중에서도 자녀교육에만은 아낌없이 헌신하였던 부모들의 열정과 교육자들의 헌신적봉사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좋은 인재양성이 없이 홀륭한 직장, 기업, 사회가 건설될수 없는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한 기업가이자 교육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저의 바램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가치관의 변화로 『문화적 이질감(异质感)』이나 『세대차(世代差)』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오늘날,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사업은 역시 교육사업이며 특히 교육의 진정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전인교육(全人教育)』이 실시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지와 덕과 체가 균형지게 갖춰진 인재양성을 의미하며 이런 인재야말로 사회 어느곳에서나 미래를 밝게 해줄것입니다.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교육의 헌속성, 즉 학교교육과 아울러 학교밖의 《제2의 교육》도 진행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성인교육, 평생교육 등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수 있는 재교육과정의 필요성도 느끼게 됩니다. 맑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재양성의 노력이 있어야 할것이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려면 훌륭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할것입니다. 교육환경조성은 교육자만의 일이 아니며 부모와 교사와 기업가 등 모든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바라전대, 세계 각곳에 계신 모든 동포들의 뜻이 이 사업에 힘합이 되여서 우리의 후세들이 세계 만방(万方)에 민주의 기장을 높이며 인류공영의 꽃을 피울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본서의 출간을 진실으로 환영하오며 수고하신 모든 집필자와 후원하신 국제고려학회(国际高丽学会)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독자분들께도 큰 유익(有益)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1995. 4. 25

천해재단리사장(天海财团理事长)

오수종(吳壽宗)

목 차

연변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목표	황창수(1)
길림성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황종식(12)
흑룡강성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대책	장봉섭(25)
로녕성조선족교육의 기본경험과 과제	박인훈(34)
21세기를 향한 중국조선족교육	장영덕(41)
두만강삼각주개발과 조선족교육의 차세	김인철(54)
중국조선족교육특성의 형성과	
발전법칙에 대한 재사고	허정선(66)
조선족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김영립(78)
우리 글 전용과 우리 실제	남일성(90)
조한문자 혼용교수를 두고	리만송(103)
중국조선족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사고	박태수(113)
연변조선족중학교 외국어교육의	
현상태와 출로	박태룡(124)
우리 민족 사법교육에 대한 사고	천홍범(129)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조윤덕(139)
연변조선족초급중학교 교수사업의 현황과 과제	
.....	황도남 김명제(152)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에 대하여	조예리(163)
조선문교재전설의 기본경험과 과제	김경암(173)
조선어문교원재직연수의 기본정황과 문제점	방학철(184)
연변조선족고중의 수학교수에 대한 몇가지 생각	김해창(194)

연변의 조선족교육과 조선족인구	서효성(205)
조선족 학생과 교원의 가질류형 분포 및 가변성특성	량영석(213)
부록	강승모 박봉순 계근호 리학철 조예리(223)
1. 두차례 학술회의 요지	(223)
2.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241)
3. 조선족교육에 관한 법규	(264)
4. 조선족학교교육기본정황통계표	(274)

CONTENTS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objective of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Yanbian	Huang Chang zhu (1)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Jilin Province	Huang zongzhi (12)
The present situation and policies for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Heilongjiang Province	Jang Bong-seop (25)
The basic experience and tasks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Liaoning Province	Bak In-hun (34)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China looking towards twenty-first century	Gang Yeong-deok (41)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Triangle and the position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Kim In-cheol (54)
Retrospect on formation of characteristics and laws of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China	Heo Cheong-seon (66)
Study on Korean Nationality folklore education	Kim Yeong-lim (78)
Exclusive use of our writing and our reality ——concurrently on character education	Nam Il-seong (90)
On teaching of mixed use of Chinese characters and	

Korean writing	Ri Man-song (103)
Multangular thought on bilingual education of Korean Nationality in China	Bak Tae-su (113)
The present situation and way out of foreign languages teaching in Korean Nationality middle schools in Yanbian	Bak Taek-ryong (124)
Thought on teachers training education of our nationality	Cheon Hong-beom (129)
On development of middle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of Korean Nationality	Jo Yun-deok (139)
The present situation and tasks of teaching in Yanbian Korean Nationality junior middle schools	Hwang Do-nam Kim Myeong-je (152)
On education of preschoolers in Yanbian	Jo Ye-ri (163)
The basic experience and tasks in compilation of textbooks in the Korean language ...	Kim Gyeong-am (173)
On general situation and existing problems in in-service training of teachers of the Korean language	Bang Hak-cheol (184)
Some thought on mathematics teaching in Yanbian Korean Nationality senior middle schools	Kim Hae-chang (194)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and population in Yanbian	Seo Hyo-seong (205)
Distribution of types of temperament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ability of
Korean Nationality students and teachers

.....	Ryang Yeong-seok	(213)
Appendices	Gang Seung-mo	
	bak bong-sun	
	Gye Geun-ho	
	Ri Hak-cheol	
	Jo Ye-ri	(223)
1. Important points of two conferences	(223)	
2. Laws and regulations and policies of minority nationality education	(241)	
3.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264)	
4. Statistics of general situation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274)	

연변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목표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OBJECTIVE OF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YANBIAN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위원회 황창수

Huang Chang-zhu

Education Commission Yanbian Korean
Nationality Autonomous Prefecture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연변조선족교육의 기본상황을 소개하고 교육발전과정에서 쌓은 주요한 경험을總화하였으며 금후의 발전목표를 제기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조치들을 내놓았다.

The study introduced the general situation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Yanbian, summarized main experience accumulated in the process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put forth the tasks of development in the future along with main measures to be taken to reach the objective.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의 주요한 집거지구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길림성의 동부변강에 위치해있으며 750키로메터나 되는 국경선을 사이두고 조선 및 로씨야와 이웃하고 있다. 전 주(이하 전주 혹은 우리 주는 연변조선족자치주를 가리킴)의 면적은 42,700 평방키로메터이다. 전 주의 총인구(1993년의 통계수자)는 2,138,379명인데 그중 조선족은 854,468명으로서 인구총수의 39.958%를 차지한다. 연변조선족교육은 당의 옳바른 민족정책의 빛발아래 4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완전한 민족교육체계를 형성하였다.

1. 현황

1994년의 통계에 의하면 1993년에 이르러 연변조선족교육의 기본상황은 다음과 같다.

—조선족보통초학교: 학교수는 312개소. 그중 단일한 조선족초학교가 177개소, 민족련합초학교가 135개소이다. 조선족재학생수는 83,857명이고 교직원은 5,681명이며 그중 전임교원은 4,791명이다.

—조선족보통중학교: 조선족초급중학교수는 77개소인데 그중 단일한 조선족초급중학교는 34개소이고 조선족련합초급중학교는 43개소이다. 조선족초급중학교재학생수는 8,827명이다. 조선족고급중학교(완전중학을 포함)수는 18개소인데 그중 단일한 민족고중은 15개소이고 민족련합고중은 3개소이다. 조선족고중재학생은 7,931명이다. 조선족중학교의 교직원은 4,590명이 있는데 그중 조선족초중의 전임교원은 2,853명이고 조선족고중의 전임교원은 843명이다.

—직업학교: 학교수는 18개소, 재학생은 8,709명.

—기능공학교: 학교수는 21개소, 재학생은 5,985명.

—보통중등전문학교(사범학교를 포함): 학교수는 9개소, 재학생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목표

은 6,273명.

— 성인종업원중등전문학교: 학교수는 11개소, 재학생은 3,133명.

— 대학교: 5개소.

— 유치원: 656개소.

— 특수교육: 특수교육학교 2개소, 재학생은 442명.

— 성인기술강습학교: 학교수는 1,128개소, 교수점(教学点)은 1,637개. 재학생은 114,947명.

2. 주요한 경험

조선족교육은 발전과정에서 많은 귀중한 경험들을 쌓았는데 종화회고하여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당의 민족정책 및 민족교육방침, 정책을 참답게 관철집행하고 민족교육사업에 대한 각급 당위와 정부의 령도를 강화하는 것은 민족교육발전의 근본적 담보이다.

민족교육은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관계되며 번강의 번영과 안정에 관계된다. 다년래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민족교육사업을 당의 민족정책을 관철하는 중요한 고리로 삼았고 각급 당위와 정부사업의 주요한 임무로 삼았으며 전략적지위에 올려놓고 발전시켰다.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교육조례》에서는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지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조선족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에 따라 인력, 재력, 물력 면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2) 민족교육의 발전법칙, 특성에 따라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교육의 순조로운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전제이다.

조선족교육은 문화전통, 학제, 학교운영형태, 교수용어, 교수용도

서, 교원대오, 학교운영조견 등 면에서 조선족특점을 가진 자치지방의 각급, 각 부류의 교육으로서 일반교육과 공정도 있지만 개성도 띠고 있으며 일반적인 교육발전법칙도 있지만 자체의 내재적발전법칙도 갖고 있다. 자치주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교육의 민족성, 지방성 특점에 따라 학교운영형태에서 단일한 민족학교운영형태를 취하였으며 교수용어는 본민족언어로 규정하였다.

조선족학교에서는 본민족언어를 모어(母语)로 하고 통용언어인 한어를 제2언어로 동시에 배우고 있다. 이중언어(초중부터 외국어를 배우고있기에 3중언어라고도 함)교육으로 하여 조선족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과중하고 교육질의 제고도 제약받는다. 민족교육의 이런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족교육의 특점에 맞게 학제를 개혁하였다. 1977년에 10년제를 11년제로 개혁하였으며 1983년부터 소학교5년제를 6년제로 개혁하여 12년제를 실시하였다. 1988년부터는 초중4년제 개혁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의 토대우에서 현재 5, 4, 3학제로 점차 과도하고 있다.

학제의 변화와 조선족교육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에 따르는 교과서, 교수요강, 교수참고서, 파외서적 등을 본민족 문자로 편집, 출판, 발행하였다.

(3) 민족교육의 발전은 경제발전에 기초하고 교육의 발전은 반드시 당지 경제건설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우리는 교육과 경제발전의 긴밀한 결합을 촉진하여 교육으로 하여금 당지의 경제건설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였다. 연변의 인재상황을 보면 경제건설에 수요되는 중급, 초급인재가 매우 결핍하다. 1992년 주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고급, 중급, 초급인재구성비례는 1:1:6이다. 이에 비추어 1974년 4월 《우리 주 중등교육구조개혁과 중학교발전에 관한 보고》에서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킬데 관한 방안을 제기하고 중등교육구조를 개혁하고 직업기술교육을 대폭적으로 발전시켰다. 하여 1994년말에 이르러 각종 직업기술학교 재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목표

학생수는 고중단계 재학생 총수의 62.9%를 차지하였다. 농촌교육 개혁을 촉진하여 농업, 과학기술, 교육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을 참답게 틀어쥐고 농촌개혁을 추동함으로써 농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도시, 기업소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종업원의 사상, 실무자질을 제고하였고 기업소경제발전을 촉진하였다.

(4) 두가지 기본건설을 잘 하는 것은 민족교육발전의 전제조건이다.

두가지 기본건설이란 첫째는 수량이 충족하고 질이 합격되며 안정된 교원대오를 건설하는것이고 둘째는 교육투자를 힘써 늘여 학교운영조건을 크게 개선하는것이다. 우리 주 각급 정부와 교육행정부문에서는 이 두가지 기본건설을 교육개혁과 발전의 전제와 기초로 삼고 틀어쥐었다. 교원대오건설에서 사법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사상을 수립하고 사법학교, 교원연수학교(원)건설을 강화하고 재직연수, 계속교육을 참답게 조직, 실시하였으며 사덕(师德), 사관(师观), 사혼(师魂), 사능(师能)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전 주 중소학교 교원대오의 사상, 실무자질을 제고하였다. 1994년의 통계에 의하면 조선족소학교 전임교원의 학력도달률은 98.9%, 조선족초중 전임교원의 학력도달률은 80.4%, 조선족고중 전임교원의 학력도달률은 84.2%이다.

교육투자를 힘써 늘리고 학교운영조건을 개선하였다. 각급 정부에서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교육경비의 《두가지 정성》을 담보하였다.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전 주 교육사업비는 4,550만원으로부터 14,138만원 늘어났으며 년평균장성률이 15.22%에 달하였다. 중소학교 재학생 인구당 교육사업비는 각각 99.8원에서 164.6원으로, 324.9원에서 580.8원으로 늘어났으며 중소학교학생 인구당 공용경비는 매년마다 늘어나 24.3원, 52.3원에서 각각 49.4원, 123.7원으로 늘어났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교육경비를 집금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려 1992년에만도 기초교육경

비 4,000여만원을 집금하였다.

교육투자의 증가로 하여 학교운영조건은 큰 개선을 가져왔다. 7차5개년계획이래 전 주적으로 위험한 교사(教舍) 16,9만m²를 허물어버리고 2부제수업반 538개를 해결하였으며 다시 것거나 확장한 교사면적은 52.3만m²에 달하여 수전한 교사면적은 43.4만m²에 달한다. 전 주 교사총면적은 6차5개년계획기간에 비하여 39.9만m²가 증가하였고 위험한 교사는 0.32%로 하강되었으며 벽돌로 지은 교사는 99.2%에 도달하였다. 표준화교정(校园), 교사는 77%에 도달하였다. 중소학교내부시설건설도 큰 발전을 가져와 성향(城乡)중, 소학교 《3실》건설과 교수설비장비수준도 해마다 일정한 제고를 가져왔다. 현재 전 주 실험실건설률은 중학교는 97%이고 소학교는 95%이다. 설비장비률은 중소학교가 각각 91.83%에 도달하였다. 전 주적으로 표준화 실험실이 있는 학교는 185개소이며 94개소의 학교들에서는 합격된 실험실을 건설하였다. 도서실건설률은 중학교가 99%이고 소학교가 98%이며 학생인구당 장서는 중학교는 14권이고 소학교는 9권이다. 위생실건설률은 중학교가 97%이고 소학교가 98%이다. 적지 않은 학교에서는 《신3실(언어실, 계산기실, 전기화교수실)》건설에로 나아가고 있다.

(5) 전통적관념을 전면하고 자질교육을 잘 틀어쥐는 것은 교육 개혁과 발전의 중심고리이다.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貫철시달하며 교육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중심고리는 전통적관념을 개신하고 편면적으로 진학률만 추구하는 오유적인 경향을 견결히 극복하고 점차 응시교육으로부터 자질교육에로의 전환을 이루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다년래 깊은 탐색을 진행하여 교육사상을 바로잡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육방침의 전면적관철과 교육질제고를 추동하였다. 첫째, 학교 덕육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였다. 둘째, 교수개혁을 심화시키고 학생들의 전면발전을 가져오게 하는것을 견지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개

성과 장끼를 발전시키는데 중시를 들렸다. 세째, 교수사업에 대한 상 규적 관리를 강화하여 교수질제고를 촉진하였다. 넷째, 조건을 마련하여 부족되는 교원양성사업을 다그쳤으며 중소학교 교수요강의 요구대로 여러 과목을 설치하고 수업하였다.

3. 발전목표

『교육개혁과 발전을 다그칠데 관한 중공연변주위와 주인민정부의 결정』에서는 본세기말까지 민족교육의 발전목표를 민족교육체제를 가일층 완벽화하고 조선족교육의 질과 발전정도가 길림성의 선진수준에 도달하게 한다고 규정하였다.

민족교육의 발전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아래에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개혁과 발전의 목표를 길림성교육발전목표와 대비하면서 간단히 소개한다.

본세기말까지 우리 주 인구의 평균교육접수년한을 9년(길림성은 8.5년)에 이르게 하며 새로 증가된 로동력의 평균교육접수년한을 도시, 진에서는 12년에, 농촌에서는 10년에 도달되게 한다.

전 주적으로 1997년까지 9년제의무교육(초중단계의 직업기술교육을 망라하여)을 기본적으로 보급한다. (길림성에서는 본세기말로 규정하였음)

도시, 진에서 3~6주세 아동들의 유치원입원(入園)비율을 95% 이상(길림성에서는 85%)에 도달시키고 농촌유아교육이 비교적 큰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바 그중 학년전일년교육 반 입반비율을 95% 이상(길림성에서는 85%)에 도달시키고 유아교육질이 뚜렷한 제고를 가져오게 한다. 적령장애인아동들의 입학비율을 도시, 진에서는 95% 이상에, 농촌은 85% 이상에 도달시킨다.

각 현(시)의 도시구역내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위주로 하는 고 중단계교육을 점차 보급시킨다(길림성에서는 다만 지구급시에 한해

서만 이러한 요구를 제기했음). 본세기말에 가서 전 주 고중단계 직업기술학교 재학생이 고중단계재학생 총수의 65% 이상을 차지하게 하고 진학하지 못한 보통중학교 졸업생들은 보편적으로 필요한 취직전교육을 받게 하거나 실용기술강습을 받게 한다.

문맹퇴치성과를 공고히 하고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며 농민문화기술교육을 발전시키며 《료원계획(燎原计划)》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며 여러 형식의 피복률이 높은 농민실용기술강습방을 형성하며 다수의 향진 농민문화기술학교를 나라에서 규정한 학교운영 요구에 도달하게 한다. 종업원일터강습과 계속교육제도를 완벽화하여 전민소유제, 집체소유제의 대, 중형기업소 재직종업원의 강습률을 95%에 도달시킨다. 성인고등학교, 중등전문학교는 나라에서 규정한 학교운영요구에 도달시킨다.

4. 조치

조선족교육의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1)옳바른 학교운영방향을 견지하고 민족교육사업발전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여야 한다.

교육은 혈대화를 대상하고 세계를 대상해야 한다는 정신을 참답게 시달하고 교육의 발전을 경제건설의 수요와 긴밀히 연계시키며 혈대화건설중에서의 교육의 전략적지위와 기초지위에 대한 인식을 더한층 명찰히 해야 한다. 과학과 교육으로 연변을 진홍시키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을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의식을 증강해야 하며 실제행동으로 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을 주동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변강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2)법에 의해 교육을 다스리고 발전시켜야 한다.

과거에 교육을 발전시킬에 있어서 우리는 경험과 행정수단에 많이 의지하였기에 조선족교육사업은 발전행정에서 우여곡절도 겪

있고 좌절도 당하였다. 금후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의무 교육법》, 《교원법》,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교육조례》등 법률과 법규들을 참답게 학습하고 시달하여 법에 의거하여 교육을 발전시키는 관념을 증강함으로써 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을 법제화의 궤도에 올려세우고 민족교육의 전진한 발전을 추동하여야 한다.

(3) 민족교육체계개혁의 발걸음을 다그쳐야 한다.

기초교육을 지방에서 책임지고 급을 나누어 학교를 꾸리며 관리하든 체제를 견지하고 가일충 완벽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학교운영에서 적극적이고도 온당하게 《쌍변(双边)》지구의 중소학교분포를 조절하고 거주가 분산되어 있고 거리가 멀어 학교에 다니기 곤난 하며 민족반학생수가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방에서는 기숙제와 조학금을 위주로 하는 중소학교를 꾸림으로써 9년제의무교육이 순리롭게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직업기술교육의 운영체제와 관리체제를 가일충 개혁하고 여러 업종, 기업소, 사업단위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협합하여 학교를 운영하는것을 확대해야 한다. 현, 향정부의 통일계획적능을 강화하여 농촌교육종합개혁의 발걸음을 다그치고 다공능, 높은 효익의 농촌인재양성체계와 강습체계 및 과학기술시험 보급체계를 점차 건립해야 한다. 집중령도를 실시하고 통일계획을 하여 부문별로 실시하고 종합적평가를 하여 도시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학교내부관리체계를 개혁하여 절차있게 중소학교에서 《5정(五定)》, 《4제(四制)》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4)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것을 견지하여 교육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교수사업은 학교사업의 중심고리이며 양성목표를 실현하는 기본경로이다. 예문에 각급 교육행정부문과 학교의 교장들은 반드시 교수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바싹 끌어쥐며 교수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교수령역에서의 개혁을 부단히 심화시켜 교수질을 제고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구체사업가운데서 관념을 간신히하고 교육,

교수사상문제를 해결하고 옳바른 학교운영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이중언어》교수실험의 성공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보급시켜야 한다. 조선문교재에 한자를 로출시키는 실험을 계속 친행하여 유익한 경험을 더듬어내고 총화하여야 하며 교수관리를 잘 틀어줘여야 한다.

(5)교원양성과 재직연수를 근본으로 삼고 교원대오건설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사범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을 가일충 광철하여 신임교원양성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학교 한어교원양성계획을 시급히 탁착시켜야 한다. 농촌조선족초중교원이 결핍한 곤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변대학에 정향(定向)모집, 정향(定向)배치하는 초중교원전문대학반을 꾸려야 한다. 교원연수학원(교)건설을 다그치고 재직교원연수사업을 참답게 조직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소학교교장과 골간(骨干)교원대오건설사업을 잘 틀어줘어야 한다. 교원대우를 힘써 개선하며 교원들의 사업적극성을 가일충 동원해야 하며 교원대오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6)교육투자를 힘써 높이고 학교운영조건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

교육투자의 주요경로를 담보하고 정부의 행위와 책임을 강화하여 각급 재정지출에서 교육경비가 점하는 비율을 점차 제고해야 한다. 주 재정예산내에서 교육경비가 전 주적으로 21%에 도달하게 하며 그중 주급에서는 18~20%에 도달시키며 협급에서는 35%에 도달하게 한다. 향진의 재정수입을 주로는 교육발전에 돌려야 한다. 여러 경로로 교육경비를 집금하는 새로운 체제를 전립, 전전히 해야 하며 교육경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7)민족교육과학연구사업을 틀어줘여야 한다.

민족교육과학연구기구의 건설을 다그치며 민족교육과학연구대오건설을 잘 틀어줘여야 한다. 여기서 교육과학연구에 전문 종사하는 전문가대오건설도 강화해야 하거니와 광범한 교원들이 과학연구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목표

를 중시하고 과학연구에 용약 참여하는 기제도 전립하고 전전히 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본세기 말까지 7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적극 일떠나 주위와 주정부의 지도하에서 민족교육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발달한 변강근해주와 전국 모범자치주를 전설하는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분투하여야 한다.

길림성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JILIN PROVINCE

길림성교육위원회 민족교육처 황종식

Huang Zong-zhi

Minority Nationality Education Department
Education Commission of Jilin Province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길림성조선족교육의 기본상황과 최근년래의 주요실적을 소개하고 현존하는 주요문제들을 분석하였으며 금후의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한 대책을 제기하였다.

The paper introduced general situation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and main achievements in recent years and analyzed the existing problems and put forward the prospects of development and the related policies.

1. 현황

(1) 자연상황

길림성에는 도합 44개 민족이 있는데 그중 조선족은 1,181,964명으로서 길림성 인구총수의 4.8%와 전국조선족인구총수의 61.5%를 차지한다. 길림성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장백조선족자치현 등 두개의 자치지방이 있다.

현재 길림성에는 83개소의 조선족단독중학교에 49,543명의 재교생과 4,181명의 전문교원이 있고 453개소의 조선족단독소학교에 92,346명의 재교생과 5,684명의 전문교원이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또 중동전문학교 8개소와 민족대학 4개소가 있는데 중동전문학교의 재교생이 4,635명, 교직원이 1,038명이며 민족대학의 재교생이 5,648명(그중의 70%가 조선족임), 교직원이 1,347명이다. 조선족중소학교수와 재교생수는 각각 길림성 조수민족중소학교수와 재교생수의 88%와 86.7%를 차지한다.

(2) 최근년간의 주요실적

① 우대정책의 실시

최근년래 성, 지구와 현에서는 여러 방도로 자금을 모아 조선족학교시설을 개선시켰다. 성재정에서만도 매년 민족중소학교 교사 수선보조비 100만원과 민족중소학교 교수계기보조비 8만원을 특별비용으로 지불하는데 그중의 80%를 조선족교육에 쓰고 있다. 민족자치지방에는 따로 민족중소학교 특별보조비를 조달해주는데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매년 75만원씩, 장백조선족자치현에는 매년 8만원씩이다. 그리고 성과 연변에서는 조선문교재출판에 매년 100만원씩 보조해준다. 지금 길림성내의 조선족중소학교들은 《위험한 교실이

없고 학생마다 책걸상이 있어야 한다》는 표준에 도달하였고 《3실》 조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연변의 학생당 교사면적은 $4.45m^2$ (중학교 $5.7m^2$, 소학교 $3.8m^2$)로서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을 초과했다.

대학생모집에서 둘봐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족수험생이 본민족문자로 서험답안을 쓰도록 허락하며 최저합격선을 한족보다 5점 낮추어 모집한다. 그리고 장백조선족자치현에서는 매년 20명정 원으로 접수를 낮추어 모집한다.

②교원대오건설과 교재건설의 강화

길림성내의 조선족중소학교 교원양성을 연변대학과 연변제1사범학교에서 맡고 있다. 9년제의무교육의 수요에 쫓아 연변대학에서는 1986년부터 사범전과를 증설하고 매년 200명씩 모집하고 있다. 길림, 통화와 장춘에서는 조선족중소학교 교원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응급 조치로서 당시의 사범학교에 조선족사범반을 부설하였다. 이와 동시에 재직교원에 대한 계속교육도 강화되었다. 최근년간 연변대학에서는 조선족중학교의 고등사범통신수업생 1,456명을 졸업시켰고 연변제1사범에서는 민영사범생 380명을 졸업시켰으며 길림성교육학원에서는 산재지구소학교 중등사범통신수업반을 꾸려 500여명의 조선족소학교교원을 졸업시켰다. 이에 따라 조선족교원들의 학력도달률이 뚜렷이 높아졌다. 1990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조선족중학교, 초중과 고중의 전문교원학력도달률은 92.2%, 65.1%와 77.3%에 달해 길림성평균보다 각각 10.4%, 18.5%와 24.7%가 높았다.

조선문교재의 편역, 출판사업을 강화한데서 조선문교과서, 교수참고서 등 도서의 가지수와 인쇄부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에서는 년평균 600종의 도서 810여만권을 출판하고 있어 조선족 중소학교, 사범학교와 유치원의 수요를 기본상 만족시킨다.

③이중언어를 주요내용으로 한 교수개혁의 추진

《민족중소학교에서는 본민족어문을 잘 배우게 하는 동시에 한

길림성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어문도 잘 배우게 해야 하며 또한 이를 전제로 외국어도 배우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쫓아 조선족소학교에는 조선어문과 한어문이 설치됐고 중학교에는 외국어가 더 설치됐는데 90% 이상의 중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워주고 있다. 조선족교육의 이런 특성과 실정에 비추어 이중언어교수개혁을 돌파구로 틀어잡고 전반 조선족교육의 개혁을 추진해왔다.

1984년에 성, 지구, 현 3급 교육부문에서는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에서 《조선어문과 한어문이 상호보완케 하고 읽기와 쓰기를 앞당기는》 실험을 시작하였는데 5년간의 실험을 거쳐 새 교재를 편찬해냈으며 일정한 범위에 보급시켰다. 연변에서는 1988년도에 민족교육개혁판공실을 설립하고 11개소의 조선족중소학교에서 이중언어를 중심으로 전일체적 개혁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각 지구에서는 또 조선족기숙제소학교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여 성공을 가져왔는바 기숙제소학교가 과거의 1개소로부터 12개소로 늘어났다. 이밖에 1991년초기부터 7개소의 조선족중소학교에서 《6·4》학제실험과 의무교육 새교재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정계획대로 완수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④ 민족교육관련기구와 간행물의 체계화

길림성교육위원회에서는 1978년도에 민족교육처를 증설했으며 현재 3명의 편제를 두고 있다. 길림성교육학원 민족교연부의 편제는 최초의 12명으로부터 24명으로 증가되었고 협직 13명중 9명이 조선족이다. 그리고 성교육위원회와 성교육학원에서는 조선족지도일군을 배치하여 민족교육을 주관하게 하고 있다. 길림, 통화, 장춘 등 조선족 인구가 비교적 많은 산재지구에서는 민족교육과(처)와 민족교연부를 설치했고 기타 산재지구에서는 전직일군을 배치했다. 이밖에 조선족인구가 비교적 많은 혜(시)에서도 관련기구를 설치했거나 전직일군을 배치했다. 조선족교육연구와 교수개혁실험을 강화하기 위해 1980년 이래 연변에서는 민족교육연구소와 민족교육개혁판공실을 설

립했으며 성에서는 길림성조선족중학교 조선어문, 한어문, 일어, 리파 등 학파의 교수연구회와 길림성조선족교육연구회를 설립했다. 하여 행정기구, 연구기관과 학술단체 등 관련기구가 비교적 체계화 되었다.

조선문교육간행물도 비교적 체계화되었다. 《중국조선족교육》, 《동북교육과학》, 《아동세계》, 《유아보》, 《중학생신문》, 《중국조선족소년보》 등 잡지, 신문은 교원과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교육교수사업을 지도하며 교육질을 높이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⑤ 특색 있는 활동의 전개

학생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규정한 전면발전의 요구에 도달하게 하는 동시에 본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춥득하게 하기 위하여 민족특색을 띤 여러가지 활동을 조직하였다.

1992년과 1993년에 선후로 《이중언어》기본기능(읽기와 쓰기) 경기와 《이중언어》서예경연을 현, 지구와 성 세단계로 나누어 총총이 진행하였다. 이 활동은 광범한 교원, 학생들의 홍취와 열정을 크게 불러일으켰으며 조선족중학교의 이중언어교수를 힘있게 추동했다. 이와 동시에 문체활동도 적극 진행하였다. 1991년에 길림성 조선족, 몽골족초중의 민족전통항목운동회를 소집하고 그네, 널뛰기, 씨름 등 조선족전통체육경기를 진행했으며 1991년과 1994년에 진행된 두차의 전국조선족소년아동예술절에 길림성에서는 도합 네개 팀을 참가시켜 우수한 성적을 따내였다. 상술한 문체활동의 준비과정에 체육문예활동을 폭넓게 벌립으로써 조선족학교들의 전통체육 활동과 전통예술교육을 크게 추동하였다.

⑥ 교육효과의 확대

다면간의 노력을 거쳐 조선족교육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 1993년도의 검사결과 조선족청장년의 비문맹률이 99% 이상에 달했다. 그리고 초등의무교육은 전부 보급됐고 9년의무교육도 1997년도에 기본상 보급되게 된다. 또한 교육질이 점차 올라감

길립성 조선족 교육의 현황과 전망

에 따라 조선족수험생의 대학입학비례가 인구비례를 초과하게 되었 다. 1994년도를 예로 들면 조선족수험생의 대학입학비례는 전 성의 8.6%를 차지해 조선족의 인구비례(4.8%)를 훨씬 초과했다.

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족의 평균문화수준이 높아졌다. 1990년도의 전국인구전면조사에 따르면 조선족의 평균문화정도가 길립성의 평균수준을 초과했다. 매 10만명 인구(6세 및 6세이상)의 문화정도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대학	대학전파	중등전문학교	고등	초중	소학교
조선족	2,539.9	2,254	4,092	21,227	36,927	24,605
길립성 평균	989	1,428	2,678	10,269.5	39,627	39,653

(3) 주요문제

① 교육구조의 단일화: 즉 보통교육만 기형적으로 확충되고 직업기술교육이 뒤떨어졌다. 산재지구 조선족초중졸업생 가운데 1년 이상의 직업기술교육을 받는 비례가 20%도 안되며 연변조선족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는 비례도 전성의 평균보다 훨씬 낮다. 여기에는 조선족인구가 분산된데서 인기되는 곤난도 있겠으나 주로는 직업기술교육을 경시하는 전통관념이 역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② 교원대오의 불안정과 자질저하: 농촌학교의 교원류실현상이 특히 염중하다. 무단결근하면서 장사를 하거나 도시로 전근하는 현상이 많으며 출국바람이 그칠새 없다. 장춘시 농촌학교의 정황만 보더라도 친지방문이나 로무수출 등으로 출국하는 교원의 비례가 데라도 60%나 된다. 민영, 대리교원의 류동도 빈번하여 그 비례가 점점 증가된다. 결과 교원들의 학력도달률이 급하강되고 정상교수가 보장되기 어렵다.

③ 학생 학업부담의 과중: 한족학교보다 어문파가 한파록 더 많 은데서 조선족학생들은 소학교부터 고등까지 1,000여시간이나 더

배우고 있다. 하여 학업부담이 과중하고 전반 교수질 특허는 리파교 수질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산재지구의 일부 학생들은 아예 한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집거지구의 학생들은 한어수준의 제약으로 전학과 취직에서 손해를 본다.

④ 학교규모의 형세화: 주로 농촌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반영된다. 한계 촌이나 향의 인구가 적지만 전통적인 지방관념의 영향밀에 계속 마을마다 학교를 꾸리다보니 학교규모가 보편적으로 작다. 이런 추세는 인구장성률이 낮아지고 인구류동이 많아집에 따라 더 엄중해지게 될 것이다. 학교규모가 작은 편에 정상규모의 학교보다 인력, 물력, 재력 면에서 더 많은 곤난을 겪게 되는 한편 제한된 인력, 물력, 재력의 경제적효과성도 아주 낮다.

⑤ 경비난의 가심화: 조선족교육의 특수성에 의해 교재출판, 교원양성과 재직연수, 기숙제학교운영, 도서와 문예체육기자재의 구입 등 면에서 한족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가 수요된다. 교재출판만 보더라도 발행부수가 적고 편역교재의 폐지수가 한문교재보다 40%좌우 증가되지만 해당정책에 따라 책값은 한문교재와 같기 때문에 결손이 엄중하다. 1994년도의 교재출판 결손액은 350만원이나 된다. 성에서 자문하는 민족교육특별경비만으로는 이를 미봉하지 못하는 설정이나 대다수 지구와 현에서는 특별경비를 따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비난은 조선족교육질을 제고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 전망과 대책

(1) 전망

다가오는 21세기에 길림성소수민족교육을 전국의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길림성 교육개혁과 발전의 전략적목표이다. 연변

길립성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조선족자치주에서도 전국에서 일류로 되는 조선족교육을 꾸리는 것을 교육사업의 목표로 제기하였다.

금후 10년동안 길립성조선족교육은 경제발전에 힘입어 안정적인 발전이 주선률을 이룰것이며 민족특성이 있고 구조가 합리하여 차원이 비교적 높은 조선족교육체계가 점차 확립될것으로 전망된다.

①기초교육이 가일층 강화될 것이다. 1997년도까지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공고히 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교육사업의 중점은 교육질과 학교운영효률의 제고에로 옮겨지게 된다. 초중학제는 점차 4년제로 과도하고 고중단계교육이 점차적으로 보급되게 된다.

②직업기술교육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교육구조가 더 합리해질 것이다. 중등직업학교의 학생비례수가 전성 평균수준에 접근될것이며 진학하지 못한 보통중학교의 졸업생도 1년좌우의 취직전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③《3종언어》교수체계가 더 완벽해져 그 효률이 제고될 것이다. 조선족학생들의 《3종언어》지식구조가 합리해지고 실제응용 능력이 제고된다. 조선문교재의 편역, 출판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교재질이 제고되고 교재의 가지수와 인쇄부수도 점차 증가된다.

④고등교육은 규모를 안정시키고 구조를 최적화하여 질을 제고하는 방침을 견지하게 된다. 보통대학교 본파교육을 받는 조선족 학생수가 일정하게 증가되고 전파교육을 받는 조선족학생수는 대폭적으로 늘어날것이다. 성인고등, 중등교육에 참가하는 인원수와 석사, 박사학위를 전공하는 인원수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⑤조선족고등, 중등사범학교의 조건은 가일층 개선되고 학생모집, 졸업배치제도는 조절을 거쳐 더욱 완벽해질 것이다. 조선족교원대오는 안정되고 자질이 제고될것이며 재직교원양성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본세기말에 이르러 소학교교원의 25%, 초중교원의 35%가 각기 전파문화정도, 본파문화정도에 도달하게 되며 고중

교원은 기본적으로 본파문화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⑥ 재정경비조달을 위주로 하고 민족교육특별보조비, 사회집금을 보충으로 하는 교육경비체계가 건립된다. 중외합작으로 꾸리는 학교가 증가되어 조선족교육의 경비문제가 많이 호전될 것이며 따라서 학교조전도 개선되고 교수수단도 현대화될 것이다.

⑦ 민족교육에 관한 법법사업이 강화될 것이다. 민족구역자치법, 국가교육법 및 기타 법률중의 민족교육에 관한 조항,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교육조례가 참답게 집행되며 국가민족교육법이 제정되면 질립성에서도 민족교육조례를 제정, 반포하게 된다.

(2) 대책

① 민족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민족교육에 대한 각급 행정지도일군들과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조선족교육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한 사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각급 교육행정부문에서는 민족교육사업을 당지의 교육발전계획에 넣어야 하며 민족교육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주어야 한다.

각급 교육행정부문과 교수연구부문에 민족교육관리기구와 연구기구를 설치하고 인원배치에서 적당히 돌봐주어야 한다. 조선족학교가 비교적 많은 시, 현의 교육행정부문과 교원연수학교에는 소수민족지도간부를 배치하여 민족교육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 자치지방의 교육행정부문에서는 조선족교육을 우선적인 위치에 놓아야 한다.

② 덕육사업에 중시를 돌리고 학교운영지도사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각급 각 류형 조선족학교에서는 우리 나라 덕육사업의 공통적인 임무를 완성하는 외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과 도덕전통에 대한 교육에 각별한 중시를 돌림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 민족단결, 조국통일

길림성 조선족 교육의 현황과 전망

에 관한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각 민족이 공동으로 외래침략자와 싸운 역사에 관한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조선족 교육의 발전과 개혁이 옮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며 나라의 교육 방침을 참답게 관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족 교육이 과거의 단일한 전학교육으로부터 자질 교육으로 전환되게 해야 하며 당시의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 복무하게 해야 한다.

③ 기초 교육을 강화하고 조선족 교육 질을 제고해야 한다.

1997년까지 9년제 의무 교육 보급을 기본적으로 완수한 토대 위에서 사업 중점을 교수 질과 학교 운영 효율의 제고에로 옮겨야 한다.

《3종언어》 교육과 기타 학과 사이 교수 시간 비례를 합리화하고 조선족 소학교, 초중학제를 《6·4》제로 과도 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과중한 학업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연변에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5·4》제 실현을 계속할 수 있다.

조선족 중소학교의 분포를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극히 분산된 학교는 상대적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기숙제 학교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10년 내에 50개 좌우의 기숙제 학교를 세워야 한다.

조선족 유아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조선족 인구가 비교적 집중된 대, 중 도시와 현 소재지에서는 독립적인 조선족 유치원을 세워야 하며 조선족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조선족 소학교에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집단이나 개인이 유치원을 꾸리는 것을 제창해야 한다. 10년 내에 조선족 적령어인 이들의 유치원 입학률이 90% 이상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 조선족 유치원에서는 조선어 말하기 훈련을 강화하여 본민족 학교에서 학습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어야 한다.

④ 《3종언어》 교수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3종언어 응용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3종언어》(조선어, 한어, 외국어) 교육은 조선민족 교육의 중요한 특점이며 동시에 조선족 교육 질의 제고를 제약하는 요소이기도 하

다. 《3종언어》는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는 계통으로서 그들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교수에서 상호 보완해야만 좋은 교수 과정을 기대할수 있다. 때문에 《3종언어》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3종언어》교수효률을 높여야 하며 학생들의 《3종언어》지식구조를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조선어교수는 중국조선족의 실제에 편각하여 실제용용능력배양에 모를 박아야지 맹목적으로 조선이나 한국을 따라서는 안되어 과분하게 높은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된다. 국제적인 교류와 경제장성에 따라 조선어의 사용가치가 더욱 높아질것이며 조선어학습열조가 고조될 것이다. 우리는 대중들의 학습적극성을 보호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민족어맹퇴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어문교수수준을 빨리 제고시켜 조선족고종졸업생들의 진학과 취직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조선족소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한어과를 설치하고 《문자를 배운후에 언어를 익히》는 재래식교수절차를 《언어를 앞세우고 글자를 배우》는 교수절차로 고쳐야 한다. 초중, 고중단계에서 일부 과목은 조선어로 강의하고 판서, 명사출어표기는 한자로 하는 방법을 견지하고 일부 학과목은 한어로 수업하는 실험을 벌림으로써 학생들이 한어를 접촉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조선족중소학교에서는 봉폐상태를 타파하고 소량의 한족교원을 인입하여 한어과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조선족중학교의 외국어어종설치가 단일한 현상을 조속히 개변 해야 한다. 지금 많은 학교들에서는 진학률을 추구하는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운 일본어만 가르치고 영어는 외면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미래발전과 조선민족의 자질제고에 아주 불리하다. 중국조선족은 한어를 알기때문에 영어문법과 언어학습에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조선족학교들에서는 영어과목을 설치하는 비례를 점차 증가하고 교육행정부문에서는 유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영어교원을 양성해야 한다.

이밖에 조선족학교에서는 로어파도 적당하게 개설해야 한다.

⑤ 교육구조를 조절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잔재지구에서 직업교육을 발전시키는 주요한 방식은 초중, 고 중에다 직업반을 부설하는 것이다. 이는 길립성 조선족중학교의 실정에 부합되며 직업기술교육을 대면적으로 보급하는데 유리한 것이다. 전업설치에서는 당시의 자원조건, 산업우세와 결합해야 하며 조선족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특점과 언어우세와도 결합해야 한다. 조선족중소학교에서는 교수계획에 따라 직업기술과, 로동기술과, 로동과 교수임무를 잘 완성해야 한다.

⑥ 조선족교원양성사업을 잘하여 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성 조선족중소학교의 교원양성은 주로 연변대학과 연변 제1사범학교에서 책임진다. 연변대학에서는 사범학원을 설립하고 사범전과 학생모집규모를 적당히 증가해야 한다. 각지 사범학교에 부설한 조선족사범반도 계속 잘 꾸려야 한다. 특수조치를 강구하여 조선족학교의 영어, 생물, 음악, 미술, 체육 등 학과목의 부족되는 교원을 하루빨리 양성해야 한다.

연변대학, 연변제1사범학교, 각급 교육학원, 교원연수학교에서는 조선족재직교원강습사업을 잘해야 한다. 각지 교육행정부문에서는 재직교원강습사업에 중시를 둘리고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⑦ 조선족교육에 대한 특별정책을 제정하고 참답게 관철, 집행해야 한다.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민족교육특별경비를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연변과 장백에서는 성에서 조달한 도급경비를 조선족교육에 몽땅 투입해야 하며 각 현, 시에서는 민족교육특별보조비를 설치하고 중소학교설비보조금을 증가해야 한다.

대학교학생모집에서는 소수민족학생에 대한 우대정책을 담보해야 한다.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국가의 지원과 자력갱생을 결부하여 민족학교를 잘 꾸려야 한다. 조선족대중들은 자체로 학교를 꾸리는 훌륭한 전통이 있는데 이는 계속 계창할바이다. 관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국외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인입해야 하며 해외의 벗들과 협작하여 학교도 꾸려야 한다.

흑룡강성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대책

THE PRESENT SITUATION AND
POLICIES FOR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HEILONGJIANG PROVINCE

흑룡강성교육위원회 민족교육처 장봉섭

Jang Bong-seop

Minority Nationality Education Department
Education Commission of Heilongjiang
Province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흑룡강조선족교육의 기본상황과 최근 10여년간에
취득한 성과를 소개하고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였으며 금후
발전의 기본원칙, 주요목표, 구체적임무 및 주요대책을 제기하였다.

The study introduced the general situation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Heilongjiang Province and achievements
in the last ten years and pointed out the existing problems and
put forward the basic principles, main objective, concrete tasks
and main policies for future development.

1. 흑룡강성조선족교육의 현황

흑룡강성 조선족인구는 454,091명으로서 전 성 총인구의 1.3%를 차지한다. 흑룡강성의 조선족은 문화충상, 교육충상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 교육에 중시를 둘리고 민족교육을 힘써 발전시켜왔다. 이리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조선족교육이 전 성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바 첫째로 초등학교입학률이 100%에 도달하였고 둘째로 14~45세 인구중에서 문맹이 없게 되었으며 셋째로 전 민족이 교육받은 년한(年限)이 전 성의 수준보다 높게 되었다.

1990년 전국 제4차인구보편조사통계를 보면 전 성적으로 만명당 대학본과생 67명, 대학전과생 146명, 중등전문학교생 209명, 고중생 963명인데 비하여 조선족은 대학본과생 140명, 대학전과생 190명, 중등전문학교생 278명, 고중생 1,578명이다.

재교생정황을 보더라도 전 성적으로 만명당 본과생 16명, 대학전과생 20명, 중등전문학교생 33명인데 비하여 조선족은 대학본과생 23명, 대학전과생 26명, 중등전문학교생 37명이다.

흑룡강성에는 도합 68개 현(시)이 있는데 그중 48개 현(시)에서 조선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흑룡강성조선족은 대부분이 산재되고 소부분이 집거하여 사는 형편이다. 하기에 조선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48개 현(시) 가운데서 17개 현(시)에서만 현안에서 중학교를 운영하고 기타 현(시)에서는 현(시)을 벗어나 운영하고 있다.

전 성에는 조선족중소학교가 도합 448개소가 있는데 그중 소학교가 380개소, 초급중학교가 49개소, 완전중학교와 독립고중이 19개소가 있다.

전 성 조선족중학교 교직원수는 2,576명, 중학생수는 16,925명, 조선족소학교 교직원수는 3,891명, 소학생수는 34,975명이다. 그

흑룡강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대책

리고 4개소의 조선족직업중학교가 있고 한개소의 조선족사범학교가 있으며 한개소의 성소수민족중등전문학교가 있다. 상술한 학교들 가운데 성소수민족중등전문학교를 제외하고 기타 학교들에서는 전부 조선어를 교수용어로 하고 있다.

10여년래 특히는 근몇년래 흑룡강성 조선족교육은 매우 큰 발전을 가져왔는데 주요하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초등교육이 보급되었고 초급중등교육도 기본상 보급되었다. 그리고 1997년까지 초등중등교육을 완전히 보급시킬 예정이다.

(2)학령전1년교육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족국영유치원이 매우 적은 형편에서 1987년봄부터 전 성 범위내에서 학령전1년교육을 보편적으로 실시하였다. 동시에 학전반을 소학교에 편입시키고 교육행정부문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교수요강, 교재에 한해서 구체적요구를 제기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91%의 적령아동이 학령전1년교육을 받고 있다.

(3)교원대오건설 및 인재양성면에서 기꺼운 성과를 쌓았다. 자체의 힘으로 조선족소학교교원을 양성하고 중학교교원은 길립성 연변대학에 의탁하여 양성하며 초중의 음악, 무용, 체육전공과 교원은 본성 조선족사범학교 전과반에서 양성하는 형식을 취하여 교원대오를 충실히 하였다.

재직교원학력교육에서는 흑룡강성조선족교원연수학원,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및 성내 유관 고등학교에서 꾸리는 통신학습, 연수 등 방법으로 학력교육을 틀어쥐었다. 10여년의 노력을 거쳐 전성 조선족소학교교원 학력표준도달률은 1979년의 33.7%로부터 1993년의 89%로, 조선족초중교원은 1979년의 21%로부터 1993년의 71%로, 조선족고중교원은 1979년의 36%로부터 1993년의 94%로 제고되었다.

(4)조선족학교 학교운영조례가 커다란 개선을 가져왔다. 10여년래 성 및 각급 정부에서는 조선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2,310.2

만원의 자금을 투자하였는바 그중 성에서 투자한것이 근 천만원에 달하고 지방에서 자체로 모은것과 군중이 집금한것이 도합 1,300 만원에 달한다.

(5) 조선족교육관리기구가 기본상 체계를 이루었다. 현유 성교육위원회에 민족교육처를 설치하고 할빈시 등 7개 지구(시)교육행정부문에 민족교육처, 과를 두었으며 각지 소속현(시)교육위원회에서도 민족교육과 또는 시도실(視導室)을 앉히였다. 그리고 성과 상술한 7개 지구(시)교육학원에서도 조선족교육연수부를 설립하고 유관 협(시)연수학교들에서도 조선족교육연수부를 세웠다. 이렇게 행정으로부터 업무부문에 이르기까지 조선족교육을 틀어쥐고있기에 조선족교육의 발전을 크게 떠밀수 있었다.

(6) 이중언어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전 성 조선족중소학교들에 조선어로 수업하고 동시에 한어교수를 바싹 틀어쥐게 함으로써 조선족교육이 기본상 대외개방과 인재수요에 적응되게 하였다.

(7) 교수개혁이 일정한 돌파를 가져왔다. 조선족소학교 조선어문파의 《말틀교수》, 《한자학습》, 한어문파에서의 《주음식자, 앞당겨 읽고 쓰기》교수실험 등은 조선족교수개혁에 대하여 그 영향면이 비교적 크다.

(8) 직업기술교육이 일정한 발전을 가져왔다. 몇년래의 노력을 거쳐 현유 밀산시, 탕원현, 넝안시에 조선족직업고중이 일어섰고 원활빈시조선족제2중학교를 할빈시조선족외국어직업중학교로 개진하였다. 그리고 보통중학교에 직업반을 꾸리는 방법을 취하여 직업중학교에서 조선족직업반을 꾸리게 하였다. 이밖에도 각지 직업중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조선족중학교졸업생에 한해서는 점수선을 낮추어 모집하게 하였다.

(9) 학구(學區)별계방의 조절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본성 조선족이 대부분산, 소집거한 특점에 비추어 분산된 조선족중학교를 상대적으로 집중시켰다. 80년대초기에 성내에는 조선족완전중학

흑룡강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대책

교와 독립고중이 도합 29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19개소로 축소시켰다. 현유 기숙제조학교는 2개소가 있으며 초중은 기본상 기숙제를 실시하고 있다. 밀산시에는 원래 1개소의 완전중학, 4개소의 초중이 있었는데 지금은 1개소의 독립고중과 1개소의 초급중학교로 조절하였다.

(10) 흑룡강성소수민족교육기금회를 세웠다.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공사의 대량적인 지지하에서 1987년에 본성에서 처음으로 되는 소수민족교육기금회를 세웠는데 지금 기금액이 200만원에 달한다.

(11) 일부 특수정책을 제정하여 민족교육발전을 촉동하였다.
① 1988년부터 성내 고등학교에 소수민족예비반을 설치하여 매년마다 60명의 조선족을 모집하게 하였다. ② 전성 중등전문학교, 기능공학교 통일시험에서 조선문자로 시험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학령전1년교육을 소학교에 편입시켜 관리하게 하였다. ④ 전국보통고등학교통일시험에 참가하는 조선족고중졸업생에 대해서는 그 학교 소속현(시)시험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성소속학원(학교)정향모집파고중에서 모집하는 중등전문학교 학생만은 호구소속현(시)에 가서 시험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⑤ 성내 한족사범에서 매년 계획적으로 모집하는 학생 가운데서 조선어문기초가 좋고 한어문성적이 둘출한 조선족초중졸업생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12) 1985년에 성민족교육연구회를 설립하였다. 전 성적으로 조선어문, 한어문, 일어, 수학 등 학과교수연구전문위원회를 설립하고 기타 학과는 문파, 리파로 분류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중심을 두었다. 각 지구, 시들에서도 유관 학과전문위원회를 세웠다. 그리고 가족사시에서 먼저 부근에 있는 쌍암산시, 학강시, 철대하시가 협함으로 융동지구민족교육연구분회를 세웠다. 이로 하여 조선족교원들이 본민족언어문자로 논문을 발표하고 경험을 교류하는 기회와 장소가 마련되었으며 교수연구수준도 따라서 제고되었다.

총적으로 10여년래 조선족교육사업은 기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조선족 교육을 한층 더 발전, 제고시키려면 아직도 허다한 곤난과 문제가 있다는 점도 보아야 한다.

첫째, 지구간의 조선족교육발전이 불균형적이고 교육질제고가 비교적 느리며 제고폭이 넓지 못하다. 예하면 학교규모가 작고 분산적이며 교수력량이 약하고 학교운영모식이 아직도 폐쇄식이다.

둘째, 시급히 교육관념을 개신하고 교육구조를 조절해야 한다. 근년래 조선족직업기술교육이 발걸음을 내딛기는 하였지만 근본상에서 보통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셋째, 학교운영조건이 차하고 교원수준이 높지 못하다.

넷째, 행정간부와 교장의 결책능력 및 관리수준이 제고를 가져와야 한다.

다섯째, 정보와 학술교류가 느리다.

여섯째, 학교운영경비가 곤난하다. 본성 조선족은 주요하게 농촌에 많이 거주해있는데다가 농촌규모가 작기에 집금하여 학교를 꾸리는데 애로가 많다. 특히 조선족학생들은 기숙생이 많기에 학교경비소모가 큰 모순이 매우 둘출하다.

2. 발전 대책

90년대 본성 조선족교육사업발전의 기본원칙과 주요 목표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기본원칙:

- (1) 각 지구의 부동한 정황에 비추어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본 지구의 특점에 맞게 계획하는 원칙.
- (2) 조선족교육이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위해 복무하는 원칙.
- (3) 질을 추구하고 효익을 따지는 원칙.
- (4) 법에 의해 학교를 다스리고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분급관리

흑룡강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대책

하는 원칙.

(5) 민족교육을 적극 부축하는 원칙.

각급 각 류형 조선족교육사업 발전의 주요 목표:

(1) 기초교육

① 도시와 현, 진에서는 기본상 유치원 교육을 보급한다. 농촌에서는 계속하여 학전1년교육을 공고발전시키고 조건이 성숙된 향, 촌에서는 점차적으로 유치원(반)을 꾸린다. ② 계속하여 초등교육을 공고, 제고하는 토대우에서 1997년에는 초급중등교육을 보급하고 2000년에 가서 소학교졸업생합격률을 95% 이상에 도달시키며 초중 졸업생합격률을 90% 이상에 도달시킨다. ③ 규범화학교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규범화된 초중과 소학교를 90% 이상에 도달시킨다. ④ 중등교육구조를 조절한다. 원래 29개소 보통고등을 19개소로 조절한 토대우에서 계속하여 10개소 더 나아가 7~8개소로 축소하여 2000년좌우에 조선족교육을 기본상 고중까지 보급한다.

(2) 직업기술교육

당면 조선족직업기술학교(반) 학생수와 보통고중재교생비례는 2:5좌우이다. 2000년에 가서 이 비례를 4:6으로 한다.

(3) 사법교육

원래 오상현에 있던 성조선족사법학교를 할빈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1997년도까지 이 사업을 기본상 마무리지으며 2000년에 가서 표준화된 조선족사법학교로 꾸려져 한다.

상술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잘 완성해야 한다.

(1) 학전교육

학전반을 반드시 소학교에 편입시켜 관리하게 하고 교육교수지도를 강화하며 특히 개별적인 촌들에서 계절에 따라 학전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을 돌려세워 학전1년교육을 공고히 하고 교수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시(현) 교육행정부문에서는 학전반

교양원편제를 참답게 락실해야 한다.

(2) 소학교교육

우선 초등교육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급시켜야 한다. 특히 자연 조건이 차하고 경제가 곤난한 촌의 조선족소학교에 한해서는 그학교의 소학교졸업생합격률을 제고시키고 소학교단계 의무교육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큰힘을 들여 학교운영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각급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축하는 동시에 각지에서는 자체로 자금을 모아 교육경비가 곤난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3) 이중언어교육

우리 당의 민족어문정책에 근거하여 조선족학교들에서는 반드시 이중언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조선족은 본민족의 언어문자를 잘 배워야 할뿐만 아니라 한어문도 착실히 배워야 한다.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족학교학생들은 의무교육단계의 학습을 마친후 한족지구에서 사업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원대오건설

1~2년내에 민영교원비례가 너무 많고 교수지도력량이 박약한 국면을 기본상 둘려세워야 한다.

① 신임교원양성. 소학교교원은 본성에서 양성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이를 위해 조선족사법학교의 거시적관리를 강화하고 착중하여 사법생들의 능력을 배양하며 교단에 갖 올라선 교원에 한해서는 성유관 규정에 쫓아 신임교원양성계획을 완성해야 한다. 중학교교원은 길립성과의 합성을 통하여 학생모집과 졸업생배치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졸업생은 주요하게 조선족중학교에 배치해야 한다.

② 학력교육, 과외학습, 통신학습, 정규연수 등 형식을 통하여 교원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규정한 학력표준에 도달하게 한다.

③ 《전업합격증서》교육. 학력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계획있고 조직있게 강습을 조직하고 시험을 거쳐 상응한 층차의 《전업합격증서》를 발급한다. 하여 중소학교교원들이 2000년에

혹통강조선족교육의 현황과 발전대책

가면 대부분이 《전업합격증서》를 타게 한다.

④계속교육. 국가교육위원회의 통일적인 요구에 비추어 금후 교원강습사업의 주요임무는 광범한 중소학교교원들의 정치자질과 교육교수능력을 제고시키는것이다. 신입교원은 1년에 120시간의 일터강습을 받게 하고 매학기마다 적어도 40시간이상의 연수활동에 참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 청년골간교원 및 고급직함을 가진 교원들중에서 일부를 선발하여 5년 시간을 들여 자체로 학습하고 집중하여 연수하는 등 형식으로 그들을 각급 교육교수전문가로 배양한다.

료녕성조선족교육의 기본 경험과 과제

THE BASIC EXPERIENCE AND TASKS
OF KOREAN NATIONALITY EDUCA-
TION IN LIAONING PROVINCE

료녕성교육위원회 민족교육처 박인훈

Bak In-hun

Minority Nationality Education Department
Education Commission of Liaoning Province

[론문요지]

본문은 집거, 산재지구의 조선족교육은 한족교육과도 구별되고
집거지구의 조선족교육과도 부동한 특점을 갖고있다는 시각에서 료
녕성조선족교육의 현황을 소개하고 10년래의 경험교훈을總화하였
으며 당면한 과제들을 제기하였다.

This paper introduced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Liaoning Province and summarized
experience and lessons of the last ten years and put forward
manifold tasks starting from the point of view that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regions where Koreans live together with
other nationalities or live scattered differs from education of Han
Nationality and also from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where
Koreans live in compact communities.

료녕성조선족교육의 기본경험과 과제

료녕성에는 조선족인구가 23만명이 있는데 12개 시, 31개 현(시)에 분포되어 있다.

료녕성경내에 있는 조선족유치원은 46개소인데 학생이 3,671명이고 교직원이 218명이다. 단독으로 설립된 조선족초학교는 152개소(그중 기숙제초학교가 6개소)이고 한족초학교에 부설된 민족반은 52개소인데 재학생수는 18,468명(그중 기숙생이 255명)이고 교직원수는 2,409명(그중 전직교원이 2,066명)이다. 조선족초중은 19개소인데 재학생수는 6,995명(그중 기숙생이 2,526명)이고 교직원은 966명(그중 전직교원이 715명)이다. 조선족고중은 11개소인데 재학생수는 2,236명(그중 기숙생이 1,089명)이고 교직원수는 457명(그중 전직교원이 306명)이다. 이외에 직업고중 1개소에 재학생 98명, 교직원이 21명이고 중등사범학교 1개소에 재학생이 505명, 교직원이 92명이며 민영대학 1개소에 재학생이 318명이다.

1. 료녕성조선족교육의 기본경험

료녕성조선민족교육은 당시의 한족교육과 부동한 특점을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조선족집거지구의 교육과도 구별되는 특점을 띠고 있다. 근 몇년래 료녕성조선족교육은 민족특점을 살리면서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필자는 다년간의 민족교육사업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경험을 총화해내였다.

(1) 민족교육에 대한 교육사업일군들의 인식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 나라 민족교육은 교육내용면에서 한족교육과 공통한 일면도 있고 부동한 일면도 있으며 교육운영면에서 자체의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거시적결책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며 동시에 민족교육의 특점과 형식에도 중시를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형식을 부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정하게 되고 따라서 민족교육의 소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소수민족교육의 특점과 형식에 중시를 돌리는 문제는 민족집거지구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잡거지구의 소수민족은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있기에 홀시당하기 쉬우며 교육행정부문의 정책집행에서 민족교육의 특점을 무시하고 일반화하는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민족집거지구교육사업의 중점은 민족교육이 기때문에 큰 중시를 받고 있으며 인력, 물력, 재력 면에서 많은 우선권을 갖고 있고 큰 혜택을 받는다. 잡거지구에는 한족이 대다수이고 한족교육이 주도적地位를 차지하고 있기에 민족교육이 서야 할 위치를 잊어버리기 쉽다. 민족집거지구의 교육행정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소수민족으로서 본 민족의 언어문자, 풍속습관, 역사전통, 민족특점에 대한 이해가 깊다. 잡거, 산재지구의 각급 행정지도자는 대부분이 한족으로서 민족교육의 정황, 특점에 대한 이해가 적고 민족교육의 중요성, 긴박성, 특수성이 대한 인식이 깊지 못하다.

교녕성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성민족사무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족교육사업참관학습단을 조직하여 신강위클자치구, 강숙성, 내몽골자치구의 민족교육사업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고찰기간에 이런 지방에서 당의 민족정책을 락착시킨 경험을 따라배우는 것과 결부시켜 민족리론과 민족정책을 학습하였다. 이 활동을 통하여 우리 성 교육행정부문지도자들의 민족정책관념이 높아지게 되었고 당의 민족정책을 착실히 집행하는 자각성이 제고되었다. 1981년과 1987년에 소집된 전 성 민족교육사업회의와 민족교육좌담회에서 성의 주요지도자들은 민족교육사업에 중시를 돌리고 특수한 중시와 배려를 돌릴 것을 지시하였다.

지난 10여년간 성과 각급 지방정부에서는 민족교육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 실체적인 지원을 보내주었다. 1981년부터 경비도급제를 실시한 후 성에서는 공용경비표준을 민족소학교에 매인당 5원씩, 민족중학교에 매인당 20원씩 증가하여주었으며 기숙생들의 조학

로녕성조선족교육의 기본경험과 과제

금을 매일당 30원씩 더 보조해주었다. 1986년에는 5개의 민족자치현에 교수청사수리비 56만원을 추가해주었고 6년제의무교육보급보조비 251만원을 조달해주었다. 각급 지방정부에서는 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12만평방메터에 달하는 민족학교교수청사를 신건 또는 확장하였고 7백여만원을 투자하여 2만여평방메터에 달하는 민족학교기숙사를 새로 건설하였다.

소수민족교육에 대한 특수정책에 힘입어 로녕성조선족교육은 큰 발전을 가져왔다. 조선족소학교는 1978년의 136개소로부터 29개소가 더 늘어나 21.3% 증가되었고 조선족중학교의 분포도 비교적 합리해졌다. 현재 조선족적령아동들의 입학률은 97%, 공고률은 98%, 소학교졸업생 합격률은 95%, 보급률은 90%, 중학교진학률은 94%에 달한다.

(2) 민족교육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민족정책을 참답게 라실해야 한다.

산재, 잡거지구의 조선족학령전어린이가운데서 약 30%는 환경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민족어맹》으로 되였다. 로녕성에서는 본민족언어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하루속히 본민족언어를 배울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족유치원건설을 대대적으로 계창하였다. 1983년도 학기부터 조선족소학교들에서는 예비반을 설치하고 《민족어맹》어린이들을 모집하여 조선족학교에서 학습할수 있는 언어기초를 다져주고 있다. 성교육위원회에서는 조선족소학교의 예비반을 교육사업계획에 넣어 조선족소학교교육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확립시켰다.

로녕성교육위원회에서는 산재지구조선족학생들이 민족학교에 다니는데 편리를 제공하는 조치로 기숙제소학교를 꾸리게 하였다. 1985년 심양시 동릉구 전진향 망화촌에 기숙사, 식당, 샤워실 등 각종 시설이 완벽한 첫 기숙제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에는 세탁기, 텔레비, 가구, 각종 문화용품까지 구전히 갖추어놓았다. 이리하여 32개촌에 흩어져있는 100여명 조선족어린이들이 민족학교에서 공부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어 1986년도에는 대련시에 조선족기숙제소학교가 세워졌다.

민족교육정책이 더욱 잘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료녕성정부에서는 민족학교의 학급당 편제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민족중소학교는 단독으로 학교를 꾸리고 단독으로 학급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10명이면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책을 풀어주었으나 많은 자방에서는 학생수가 적어 학교를 꾸리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지역계선을 타파하고 여러개 촌, 향, 현(市)에서 연합으로 학교를 꾸리게 하고 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였다. 즉 여러개 행정구역이 연합으로 학교를 꾸리면 그 관계는 한 굽 높은 행정기관에 소속시켜 지도를 받게 하였다.

료녕성에서는 또 대학교, 중등전문학교 학생모집에서 소수민족 학생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 즉 소수민족자치현에 호적이 등록된 소수민족학생은 10점을 더해주며 비록 민족자치현에 호적은 없지만 《이중언어》로 교수하는 민족학교졸업생이면 5점을 더해준다. 또 사법대학과 성소속 고등사법학교에서는 일정한 수량의 소수 민족계약생을 모집한다.

(3) 여러가지 형식으로 재직교원양성을 강화하여 교수질을 높여야 한다.

한 시기 민족학교에서는 교원수가 모자라는데다 실무자질까지 낮아 교수질이 하강선을 긋는 진통을 겪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료녕성정부에서는 조선족중등사법학교를 회복하고 1981년도에 짐양에다 새 교수청사를 세워주었다. 이외에 길림성에 위탁하여 민족사법대학생을 양성하고 있다.

료녕성에서는 또 재직교원양성사업에 큰 중시를 둘리고 있다. 많은 교원들이 연변대학 통신학부와 성교육학원 민족교연부에서 조직하는 여러가지 양성반에 참가하고 있다. 료녕성에서는 각 학과별 교수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였는데 료녕성교육학원 민족교연

료녕성조선족교육의 기본경험과 과제

부의 조선어문, 한어문, 문파, 리파교연설에서는 각 학파교원들에 대한 실무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 시와 일부 현(시)의 교원연수학교 민족교연부(실)에서도 자체설정에 알맞게 각종 교수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 조선족소학교교원들의 학력표준도달률은 1982년도의 47%로부터 86.3%로 상승하였고 초중교원들의 학력표준도달률은 1982년도의 23%로부터 77.45%로 상승하였으며 고중교원들의 학력표준도달률은 1982년도의 49%로부터 78%로 상승하였다. 중소학교교원들의 교수합격률은 1980년도의 32%로부터 8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2. 료녕성조선족교육의 당면한 과제

민족교육의 개혁과 발전은 비록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당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1) 경비가 엄중하게 모자란다. 지금 전성적으로 신진 또는 수진해야 할 중학교가 5개소이고 신진, 수진해야 할 기숙사가 4개이다. 민족중소학교의 학교운영조건이 보편적으로 차하고 특수비용(민족문자교재의 심사, 번역, 인쇄, 출판과 교원양성, 교수연구 등 민족교육특점으로 인한 지출)이 많이 부족된다. 중앙에서 소수민족교육특별보조비를 설치하도록 지시했지만 료녕성에서는 아직 락실되지 못하고 있다.

(2) 민족학교의 분포와 구조가 불합리하다. 일부 조선족학교는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적기에 학교운영효율이 낮다. 민족교육의 구조가 불합리한바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이 굽뜨다. 많은 학교의 졸업생은 일단 진학가망이 없으면 취직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3) 민족학교의 관리체계와 학교운영형식이 서로 적응되지 않

는다. 조선족학교에서는 민족언어문자로 수업하기에 부득불 학교를 접종하여 설치해야 한다. 여러개 촌 또는 향(진),현(구)에서 혼합으로 학교를 꾸리고 지역계선을 벗어나 학생을 모집하며 《3개 행정급별에서 학교를 꾸리고 2개 행정급별에서 관리》하는 관리모식은 많은 문제점을 앓고 있다. 예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밀거나 회피하는 현상이 비일비재이다. 이는 민족교육발전의 큰 장애가 아닐수 없다.

(4)중학교의 《이중언어》교수를 담당할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기지가 전무되지 못하였다. 당면에 교수질제고는 민족교육의 가장 중대한 과업이다. 교수질제고의 관건은 교원의 자질인데 지금까지도 교육성에는 민족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기구와 기지가 없다. 연변대학에 위탁하여 교원을 양성하는것만으로는 민족교육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다. 지금까지도 20%정도에 달하는 중소학교 교원들의 학력수준이 국가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일부 교원들은 비록 학력수준요구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교수실기에서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5)민족교육정책이 제대로 판철,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성정부와 관계부문에서는 민족교육에 관한 많은 정책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의 지도자가 교체되면서 일부 민족교육정책은 제대로 시달되지 못하거나 또는 혼속성이 없게 되었다. 이는 민족교육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로 된다. 이런 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기대하려면 반드시 법률성적인 규정이 안받침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교육성조선족교육의 당면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자면 지난시기의 기본경험을 잘 섭취하고 참다운 연구를 거쳐 효과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1세기를 향한 중국조선족교육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CHINA LOOKING TOWARDS TWEN- TY-FIRST CENTURY

연변민족교육개혁판공실 강영덕

Gang Yeong-deok

Yanbian Office of Reform of Nationality
Education

〔론문요지〕

본문의 내용은 중국조선족교육을 보는 네가지 부동한 시각, 조선족교육의 현황에 대한 분석, 향후 발전목표와 대책 등으로 이루어졌다. 서술방식면에서는 주로 학문적인 견지로부터 작자의 견해를 총론적으로 기술하였다.

This study contained four different approaches towards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China and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perspectives of development and policies of education. The author elaborated his viewpoints in general way in terms of academic approaches.

본고는 21세기를 향한 중국조선족교육의 향후발전구상을 위하여 교육을 보는 시각, 교육현황, 교육발전대책 등 과제를 탐색하고 그에 대한 견해들을 총론적으로 기술한다.

중국조선족교육을 보는 시각

중국조선족교육은 그의 다층차적 성격에 착안하여 국가적, 민족적, 지역적 여러 측면에서 그를 바로 잡을것이 요청된다.

1. 중국조선족교육은 중국교육의 한 구성부분이다. 이에 착안하면 중국조선족교육은 전국교육의 통일성과 민족교육의 특수성의 변증법적 통일, 즉 공성의 제약속에서 개성의 체현, 개성을 통한 공성의 체현속에서 자기의 발전을 기한다.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국가로서 교육도多元一体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철학적 견지에서 보면 사물의 다양성은 사물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물발전추진력의 소재로 된다. 물론 이것은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전제로 한다. 민족교육은 그 존재의 객관적 필연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다른것으로 대체할수 없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의 발전은 통일성과 다양성의 관계처리를 규범하는 준칙——정책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 민족문제의 장기성, 랭전결속후 민족문제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은 민족사업 및 민족사업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는 민족교육사업에 각별한 중시를 돌릴것이며 기성 정책을 견지할것으로 믿어진다. 하지만 변화가 급속한 현실에서 정책도 안정중에서 변화를 피할수 없게 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 경제체제의 전환에 따라 소수민족교육에 대한 일부 정책은 그 특수성과 영활성을 상실하고 있다. 바탕히 변화된 정황에 적응하여 정책에 대한 필요한 조절, 수정사업이 진행되어여야 하며 정책의 완벽화와 법제화에로의 발전을 기함으로써 교육면에서의 민족평등권리가 절실히

보장되고 국가의 지원이 실제적으로 탁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소수민족으로 말하면 교육발전의 기첩을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두어야 한다. 세상에는 지원에 의해 선진이 된 민족이 없다. 소수민족은 자신에게 부여된 평등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여 민족 내부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의식과 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경제체제의 전환에 따라 리익의 주체가 다원화되고 권한과 책임이 개체(개체로 구성된 집단)에게 전이되는 시기에 주체성은 현대정신의 핵심적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일계획에 간단히 준하기만 하면 되는 예는 지났다. 중국조선족교육은 국가의 지원이나 외부의 추동력을 내생력(内生力)으로 전환시켜 민족자신의 주관능동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때야만이 소기의 목적에 도달될 것이다.

2. 중국조선족교육은 다민족국가에서의 소수민족교육이다. 이에 착안하면 중국조선족교육은 날로 가심해지는 부동한 배경문화충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더 적절히 말하면 국외적으로는 서구문화, 국내적으로는 한(汉)민족문화의 이중적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도전－응전－승리－발전》이라는 문화운동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도전이 엄중할수록 더 큰 승리와 발전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전에 응전하는 옳바른 자세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다. 도리대로 말하면 민족전통문화를 대함에 있어서는 복고주의나 허무주의를 반대해야 하고 외민족문화를 대함에 있어서는 배타주의나 교조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보존, 계승, 흡수, 정합(整合)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달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천은 쉬운 일로 되여있지 않다. 주지하는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전통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서구문화도 그 거대한 배타속에서 전면적으로 파악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민족문화의 영향은 중국인구의 0.17%(1990년의 통계에 의거함)에 지나지 않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적절한 융합점을 찾아 소화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하고 충격적이다. 이로 하여 지금 우리는 외민족문화를 대함에 있어

서 피상성과 류행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상실위험의 증대와 문화적미아(迷儿)로 전락될 위험앞에서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느끼고있기도 한것이다.

교육과 문화의 불가분의 관계로 보면 민족교육의 발전은 민족문화의 확장과 승화를 의미하며 민족문화내용수준은 민족교육발전 수준과 비례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조선족교육은 주체성과 창조성에 의한 원숙한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할것이다.

3. 중국조선족교육은 과경민족(跨境民族)의 교육이다. 이에 착안하면 중국조선족교육은 민족성과 더불어 국제성이란 특성을 갖는다. 시공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조선족교육의 국제성특성은 다른 과경민족의 교육에서보다 더 선명한 성격을 띤다. 지난 100여년이래 중국조선족의 민족특성에는 비록 특정된 환경에 의한 변화가 생겼으나 조선반도의 모체민족과 의연히 국적이 다른 동일 민족으로서 상호간에는 강렬한 친근감과 확인감(认同感)을 갖고 있다. 행진결속후 우리와 그들과의 거래는 남북으로 다 개통되었다. 최근년간에 연변만해도 연인수 10여만에 달하는 조선족이 한국으로 다녀왔고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와의 접촉이 집중되는 발해만지역에 동북경내의 수만명 조선족이 이동되어갔다. 이같은 거래는 교육에도 류동인구자녀의 교육, 로부수출인원양성, 국제리해교육, 언어차이의 해소 등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호리용의 기회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다. 언제든 실현될 조선남북의 통일은 중국조선족 및 그의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대사로 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에서는 과경민족교육의 국제성특성에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조심과 경계를 앞세워야 했던 요인들이 지금은 정보, 기술, 자금과 기자재인입을 위한 자연적, 인문적 우세로 변했다. 폐쇄된 벽지가 개방된 창구로 변하자 우리의 교

육은 참조계가 확대되고 안계가 트이고 세계진출의 교두보에 다가선 것이다. 우리는 중화민족의 모범적인 구성원이 되면서도 중국파조선, 중국과 한국 관계발전과 상호리익확대의 교량역할을 높아야 하며 아울러 국가를 통한 교류, 협력을 적극강화하여 세계에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다그쳐야 한다.

4. 중국조선족교육은 중국의 지역교육이다. 이에 착안하면 중국조선족교육은 21세기의 지역 사회, 경제발전을 주도할 절높은 신인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사회, 경제의 발전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중국의 200여만 조선족의 40%에 해당되는 인구가 연변에 집거해 있다. 연변은 바로 두만강하류지역의 다국적합작개발로 미래의 동북아경제권내의 요충지로 부상될 전망이다. 지금 훈춘을 통두로하고 연길에 의탁한 전방위적인 개방구도가 서서히 펼쳐지고 있다. 세계경제흐름의 급변, 중심축이 동아시아에로의 전환은 동북아금삼각에 자리잡은 우리 민족을 도약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와 우승렬태(优胜劣汰)로 판을 짓는 준엄한 도전앞에 내세우고 있다. 다국합작개발의 뒤편에서는 자국의 실리를 앞세운 경쟁이 열풍을 일것이며 그 와중에서 여려 민족의 자질이 시험받게 될것이다.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 뒤떨어진 국가는 영락없이 남의 기술배급에 순응해야 하는 기술적민지로 밖에 될수 없고 지적자질이 못한 민족은 남의 뒤바라질이나 해야 하는 후근부대로밖에 될수 없다.

우리는 이미 남에게 뒤떨어졌다. 남은 벌써 첨단기술산업중심의 제3물결시대에 들어섰는데 우리는 이제야 공업위주의 제2물결시대에 처해있다. 국내적으로도 연해지구와의 차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전 민족의 명운을 걸고 비정한 결심으로 조속히 일떠서야 할 시기이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고는 착각이다. 우리는 중국에서 제일 잘사는 민족으로 될것을 굽굽히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높은 문화와 교육 수준을 가진 민

족——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목표이다. 다가오는 사회에서는 지식, 정보가 경제의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된다. 지식으로 무장된 두뇌가 있으면 없는것도 있게 된다. 미래을 대비하여 그에 맞는 할때 른 적응력을 구비하는 지름길은 오직 교육진흥 이 한길이다.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

1. 중국조선족교육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취를 거두어 민족발전의 원동력이 되여왔다. 중국 55개 소수민족의 교육에서 전열에 섰다고 인정되어있고 세계에 산재한 500만동포의 교육에서 《민족특성을 확보한 전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먼저 국내적으로 타민족교육과 비교해서 찾아보면

(1)조선족은 현행통용언어문자와 풍부한 민족전통문화재를 갖고있었다.

(2)본세기초엽에 민족자생자결의 정신으로 일대 성황을 이룬 근대학교교육전통을 갖고있었고 건국(1949. 10. 1)전에 주로 민중의 힘에 의하여 이미 다른 민족보다 높은 교육발전기첩을 마련하였다.

(3)조선족의 남달리 높은 교육열이 교육발전을 뒤반침해주었다.

다른 나라에 산재해있는 동포들의 교육과 비교해보면

(1)거주지역의 개척과 정권전취를 위한 거대한 희생과 기여에 안반침된 민족적자긍심과 주인공의식으로 교육의 민족화를 집요하게 추구했다.

(2)평등, 단결, 공동번영, 민족지방자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민족정책의 담보가 있었다.

(3)연변과 같은 집거구(민족자치지구)가 있는 지정학적우세가 있었다.

2. 80년대이래 중국조선족교육은 개혁개방속에서 일련의 새로

21세기를 향한 중국조선족교육

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1) 교육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를 전사회적으로 확립, 약착하고 있다.

(2) 교육체제(학교운영체제, 관리체제, 학생모집제도와 졸업생 배치제도, 로동인사제도 등) 개혁을 통해 고도의 집권제에서 집권과 분권의 결합으로 전환하고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면서 전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교육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3) 교육구조개혁을 통해 보통교육위주의 단일화상태를 개변하고 다양화에로 나아가면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와 개인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4) 교육내용, 방법개혁을 통해 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교육목표와 내용을 일종 정선하고 구조화하였으며 현대 교수사상을 구현한 교수방법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3. 지금 중국조선족교육은 9년제 의무교육을 기초로 한 기초교육, 직업기술교육, 성인교육, 고등교육을 망라한 민족교육체계를 기본적으로 전립하였다.

4. 미발달국인 중국의 조선족교육은 교육재정의 형세와 부족, 교원수준의 저하와 교원대오의 불안정, 학교시설과 설비의 빈乏, 교수사장과 내용 및 방법의 친부, 교육체제와 학교운영기제의 경직 등 전국 공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외에 남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그것을 요약하면

(1) 교육관의 오도. 조선족의 높은 교육열은 민족의 귀중한 정신적 재부이면서도 정신적 부담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교육을 요란스레 하는데는 힘들어하지 않지만 교육을 바르게 하는데는 힘들어한다. 지금 일련의 고질화된 교육적 병리현상으로 남보다 더 큰 진통을 겪고 있다.

① 입시경쟁과열과 과외공부과열. 교육본래의 가치관구현에는

등한시되고 교육의 도구적인 가치추구에 치우치는 데서 학부모와 자녀들은 과열한 입시경쟁과 과외공부에 지치고 있다. ②인조신동(人造神童) 열. 원래 친족공동체의식이 강한 우리 민족 학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분신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적성이나 흥취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을 강요하면서 인위적인 신동제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③직업기술교육경시. 전통적인 사농공상의 신분제와 천역경시사장의 인습에 젖어 직업기술교육경시풍조가 남보다 더한 편이다.

(2) 교육질제고의 완만성. 최근년간의 유관 통계분석에 의하면 기초교육단계에서 조선족학생들의 학과성적상승폭이 한족학생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껏 조선족교육은 향적성장에 치우치고 질적내실을 위한 사업이 미흡했다. 거주조건, 언어조건 등으로 인한 정보획득의 자연성, 학과부담의 과중성 그리고 경제발전수준차이에서 오는 교육수요, 교육여건차이 등 제 인소들의 제약으로 인한 민족교육질제고의 간거성이 점차 명시되고 있다.

민족교육질의 저하상태는 민족교육자체의 존립과 발전에 각종 위협을 제시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 소수민족이 《대잡거, 소집거》의 분포상태에 처해있는 중국에서 여러 민족학교들은 일반적으로 한 지역내에 병존되어 있으며 상호간에는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흡인력에서 경쟁성을 띠게 된다.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인간주체성정신의 강화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상승이동경쟁이 가심해지고 대학위주의 학력사회으로 남 먼저 치달아오를 추세를 보이는 조선족에게는 학교교육의 질적수준에 대한 요구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의 학교선택은 민족계선을 초월하게 되어 질적수준이 남보다 낮은 학교는 점차 자기 민족에게서도 도외시되면서 나중에는 생존위기에까지 빠질 수 있다.

(3) 교육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여가 미흡. 조선족의 문화인수비례는 전국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나 문화인구의 지식구성은 매우 불합리하다. 조선족이 접거한 연변의 1991년도 민족별 전업기술통계

에 의하면 전업기술인총수에서 조선족이 49.07%를 점하나(인구비례는 39.49%) 부분별로 보면 기업부분에서는 41.33, 사업부분에서 58.94%, 당정기관에서는 58.97%를 점했다.(자료래원: 1992년 연변통계년감) 조선족은 타민족에 비해 기업부분에 종사하는 전업기술인이 적고 특히 공정기술인이 적으며 생산일선의 축련공과 다기능공이 적다. 이로 인하여 교육은 남보다 발달했다고 하나 경제발전 수준상에서는 남에세 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민족교육행정관리의 박약성. 조선족교육행정관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황에 봉착하고 있으나 상용한 대책이 장구되지 못하고 있다.

① 조선족의 인구장정률은 남먼저 문화되어 인구피라미트는 전국을 앞서 항아리(壺)형에 접근하였고 낸소인구의 비중이 현저히 저하되면서 교육인구수효상에서는 더욱 소수에 처하고 있으며 또 사회에 따른 인구류동으로 인하여 인구분포가 분산되고 있다.

② 남보다 각성이 빠르고 문화수준이 높았던 조선족은 각급 정부행정요직에 있은 간부가 많았으나 지금은 대체로 인구비례에 맞추어 감소되고 이에 따라 기층교육행정간부력량도 약화되었다.

③ 동북3성을 대상한 조선족교육실무기구들이 새롭게 많이 출현되었으나 행정권한의 한계로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④ 민족자치지방의 교육행정은 자치민족교육사업관리를 그의 주요한 임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통일교육임무수행이 날로 번망해져서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상술한 정황에 대응책이 따르지 못하여 조선족교육행정관리는 지금 전문성과 효률성이 약화되고 있다.

향후 중국조선족교육발전의 주요대책

1. 중국조선족교육발전방향

중국조선족교육이 소망하는 미래의 실상은 바로 민족적인 현대교육, 현대적인 민족교육이다. 다변성, 불확정성, 가선택성이 도를 더해가는 시기에 중국조선족교육은 확고부동하게 이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화와 민족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교육의 현대화는 당대세계교육발전의 공동추세이며 세계교육의 선진수준에 도달하는 필연적요구이다. 이는 민족현대화의 기초로서 그에 앞서야 한다. 교육의 민족화는 현대교육의 기초이며 교육발전의 내재적규정성의 요구이며 인류문화의 풍부화를 위한 수요이다.

2. 중국조선족교육발전목표

(1) 주로 민족문화의 차원에서와 현재의 민족성원에 결여된 소질인소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향후의 교육받은 인간상을 특히 강조한다. ㄱ, 민족전통윤리수양과 시대적주체성이 있는 《사람됨이 인간》. ㄴ, 리성적판단을 앞세우고 남파 《여불어 사는 인간》. ㄷ, 새로운 지식, 정보 및 기술을 장악하고 창조성이 있는 《슬기로운 인간》. ㄹ, 국제리해가 있고 교제에 능한 《열린 인간》. ㅁ, 말은 일의 가치를 알고 책임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인간》.

(2) 2000년에 이르러 구조가 합리하고 규모가 적합하며 수준이 높고 활동으로 충만된 특색있는 민족교육체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여 전국 1류의 민족교육수준에 도달하고 국내 발달된 지구의 교육수준에 접근한다.

2010년에 이르러 세계중등발달국가교육수준에 도달한다.

(3) 상기의 발전목표를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 ㄱ, 문화를

중상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 ㄴ, 비교적 진실한 교육기초. ㄷ, 독특한 자연적, 인문적 우세. ㄹ, 우수한 민족자질. ㅁ,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교육수요의 증대와 물적, 기술적 교육여건의 개선. ㅂ, 민족교육에 부여된 자치권리를 행사하는 높은 능력.

3. 교육발전 전략과 책략

(1) 초상규적 발전전략의 채취. 중국조선족교육의 발전측도는 자지방내 타민족 교육과의 비교에 있는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민족교육과의 비교에 있다. 한민족과의 비교에서 우리는 소수라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으므로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남에게 멀어지게 되고 남과 같은 방법으로서는 사실상의 평등을 생취할수 없다. 그러므로 평등하지 않는 특수한 조치와 초상규적인 발전전략을 해해야 한다.

(2) 정체적 최적화와 부분적 최량화(最良化)의 결합. 중국조선족교육체계는 완전히 독립된 민족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민족성과 지방성의 결합체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각급 각 티형 교육의 정체적인 최적화를 도모하면서도 다른 민족의 교육우세를 충분히利用하고 자신의 힘을 헤아리여 다른 민족의 교육으로 대체할수 없는 부분, 민족문화성격이 강한 부분에 혁량을 집중하여 질적교도화를 실현함으로써 민족교육의 특색을 보유하고 성장을 높이고 흡인력을 확보하며 교육에서의 민족응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기초교육의 우세확보. 중국조선족교육은 천방백계를 다하여 기초교육의 우세를 회복하고 확보해야 한다. 민족교육존속의 명근과 발전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기초교육에서 특히 이중언어교육의 효율화, 과학교육진흥, 기술교육침투, 컴퓨터교육도입, 일어교육위주에서 영어교육위주으로 전환, 민족력사교육과 민족전통윤리교육의 정식납입 등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4) 고등교육의 특색보유, 특정분야의 질적교도화 보장. 민족고

등 교육은 규모효과성 제고, 교육 기회의 총량 규모 계속 확대, 질적 내실화, 특색 보유, 특장 발전, 특정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 도달, 국내 1류 민족 고등학교 수준 확보 등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날로 증대되는 민족 고등 인재 수요에 부응하며 민족 문화 발전에서의 통일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5) 교원 자질 제고의 우선 순위 확보. 민족 교원 자질 제고 사업을 일차적 순위에 놓고 중등사범 교육을 대학사범 전과 교육으로 승급, 교원 양성, 연수 체계의 완미화, 교원 양성 교육의 질 향상, 교원 계속 교육의 정 규화와 효율화를 실현하며 당면에는 영어 교원 양성, 직업 기술 교육 교원 양성 기지 건립, 한어문 교원 민족 구성 조절, 초급 중학교 교원 대오 강화 등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함으로써 교원 양성, 연수 사업이 민족 교육 발전에서 지주(支柱)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4. 특히 강조되어야 할 몇 가지 조치

(1) 민족 교육 열의 옮바른 인도. 민족 교육 열의 지속적인 고양과 교육에 대한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를 확보하면서도 가정, 학교, 사회의 결합 형식으로 광범위한 여론, 설득 그리고 필요한 행정 수단 등으로 입시 위주 교육 등 거듭되는 교육 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교육이 오도됨을 방지해야 한다.

(2) 교육 운영의 개방화. 지역적, 인문적 우세를 백분 활용하여 동북 3성 및 내몽골 자치구의 조선족 교육 상호간에 개방하며, 전국 각 민족 교육을 대상하여 개방하며, 조선, 한국 및 타국에 산재한 동포들의 교육을 대상하여 개방하며, 세계 각국 교육을 대상하여 개방하는 이른바 4유 개방(四维开放)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 과학 연구 강화. 전국 교육의 발전 추세와 세계 교육의 발전 궤도에 맞추어 민족 교육 혁신과 발전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복잡하고 심각한 리론 문제와 실제 문제에 대한 연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그 성과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남이 대신하여 해줄 수

21세기를 향한 중국조선족교육

없는 일로서 향후 중국조선족교육발전의 필수적인 요인으로 된다.

(4) 민족교육행정관리의 개선과 강화. 현재 진행중의 각 지구 조선족교육간의 합작은 교재합작에서 교육합작으로, 동북3성합작에서 전국범위내의 합작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기구를 전립해야 한다. 민족교육행정은 공성에 편중하고 개성을 흘시하며 지어 지방의 교육으로 민족교육을 대체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전문성과 효률성을 높여야 한다.

두만강삼각주개발과 조선족 교육의 자세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TRIANGLE AND THE POSITION
OF KOREAN NATIONALITY EDUCA-
TION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김인철

Kim In-cheol

Northeast Chin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두만강삼각주개발의 의미와 중국조선족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와 관련해 중국조선족교육에 요청되는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조선족교육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사상의 현대화, 내용의 시대화와 민족화, 형식의 다양화, 구조의 합리화, 규모의 최적화, 계통의 개방화 등 면으로 본술하였다.

The article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Triangle and its influence on Korean Nationality in China and put forward tasks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in relation to this development. The article also elaborated the position that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had to take in regard to the development, i. e., ideology, contemporary and

nationalitycontents, multiple forms, rational structures, optimum scope, openness of system etc.

세 가지 의의를 떠는 두만강삼각주개발을 두고 경제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활발한데 비해 민족적, 교육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미약한 점이 문제시된다. 두만강삼각주개발이 중국의 조선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기반으로 되는 조선족교육에는 어떤 파업이 요청되는가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이에 기초해 조선족교육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하여 론의해보고자 한다. 단 조선족 전반에 관한 통계자료가 결핍한 실정에 비추어 주로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넘두에 두면서 본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1. 두만강삼각주개발의 의미와 영향

1. 1 1991년 10월 24일, UNDP에서는 유엔총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중국, 조선, 르씨야 삼국집 경지대의 두만강삼각주에 대구 경제기술합작개발구를 세우게 된다고 선포하였다. UNDP의 찬조밀에 20년간에 300억 달라를 투자, 두번째로 데르담 혹은 홍콩을 건설할 것이라고 지적돼 그 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1. 2 1992년 2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UNDP 두만강류역개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훈춘, 라진과 뾰시에트를 세국으로 하는 1,000km²의 《작은 삼각》을 두만강경제구(Tumen River Economic Zone)로 연길, 청진과 울라치보스포크를 세국으로 하는 10,000km²의 《큰 삼각》을 두만강경제개발구(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로 규정하고 TREZ를 20년간의 개발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1992년 10월에 북경에서 열렸던 동 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여러가지 개발모식 중에서 중국, 조선, 르씨야 및 한국, 일

본과 몽골 등 나라가 공동히 개발하고 공동히 관리하며 공동히 수익하는 공동개발모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두만강삼각주개발의 조작정의가 더 명확해졌다.

1. 3 두만강삼각주개발의 의의는 자못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보면 두만강삼각주개발은 《유럽공동체통일시장》,《북아메리카자유무역구》와 겨룰할수 있는 동북아세아 지역경제그룹의 형성을 의미한다. 동북아세아지역에 속하는 중국(동북지구),로씨야(원동지구),조선,한국,일본과 풍물은 자연자원,로역,자금,기술,제품,시장 등 면에서 뚜렷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어 발전예비가 크다. 동북아세아지역의 기하적 중심에 위치한 두만강삼각주에 대한 공동개발을 통해 상술한 6개국간의 호상 리해와 합작이 더 강화될것이며 지역경제그룹이 조만간에 형성될것이다. 특히 세계의 정치,경제무대에서 당당한 발언권이 있는 중국,로씨야와 일본 그리고 2차대전후의 마지막 국토분단국인 조선과 한국 등 나라의 공동합작은 세인의 주목을 끌게 될것이다.

국내적으로 보면 두만강삼각주개발을 통해 길립성과 혼통강성의 수출입무역조건(시간,거리,운임 등)이 크게 개선되고 대련항구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며 국외의 자본과 기술을 흡인할수 있는 훌륭한 투자환경이 마련되어 전반 동북지구 특히는 연변의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수 있다.

1. 4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두만강삼각주개발의 관건은 두만강항해통로의 회복이다. 중국에서 조선동해로 직접 나들수 있는 이 유일한 수장통로가 또다시 열림에 따라 조선족의 거주환경은 장기간의 달한 상태에서 열린 상태로 전변되게 될것이다. 또한 방천항구와 대외수출입무역기지가 새롭게 일어서고 혼춘,연길 및 도문이 경제중심지로 새롭게 부상됨에 따라 조선족의 거주환경은 점차 도시화에로 전변되게 될것이다.

1. 5 두만강삼각주개발에 의해 제공되는 편리한 교통체신조건

두만강삼각주개발과 조선족교육의 차세

과 일련의 우대정책에 의해 국외의 자본과 기술이 대량 인입되고 3자기업소가 격증될것이며 외향형경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제3산업이 크게 발전될것이다. 또한 도시건설도 크게 추진될것인바 2010년에 가서 연길은 70만 인구, 훈춘은 100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 부상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선족의 인구분포와 직업구성도 상용한 변화가 일어날것이다. 종적으로 보면 농촌인구가 도시에로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질것이며 제1산업의 로력이 제2산업과 제3산업으로 전이하는 비례가 크게 늘어날것이다. 연변의 정황을 보면 1985년도에 비농업인구가 51.2%에 달해 처음으로 농업인구를 통과했으며 1993년도에 와서는 58.2%로 증가했고 인구수로 말하면 농업인구보다 35만명이나 더 많아졌다. 3차산업의 로력구성을 보면 1981년도에는 제1, 제2, 제3산업의 로력이 각각 46.1%, 36.5%와 17.4%였으나 1993년도에는 각각 36.0%, 37.5%와 26.5%로 변화되어 제1산업의 비례가 뚜렷이 줄고 제3산업의 비례가 뚜렷이 늘어났다. 상술한 추세외에 로무수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진출인원도 크게 증가될것으로 짐작된다.

1. 6 두만강삼각주개발과 더불어 사회가 갈수록 개방되고 생활질수가 갈수록 빨라지며 경제활동이 갈수록 국제화됨에 따라 특히는 본민족문화, 한족문화와 외래문화 등 다종문화가 병존함에 따라 조선족의 전통적관념의식은 긍정적측면과 부정적측면에서 심한 충격을 받게 될것이다. 긍정적측면에서 보면 평균주의사상, 소생산의식, 자나친 모방성과 의회성, 경제거래에서 법적수속보다 향심과 의리를 더 중히 여기는 친리, 대학에 가야만 인재가 된다는 인재관, 대학에 학생을 많이 보내야 가치가 있다는 교육관 등 계획경제시대의 뒤떨어진 관념의식이 점차 동요, 와해되고 현대사회에 적응되는 새로운 관념의식이 점차 형성될수 있다. 부정적측면에서 보면 금전만능주의, 극단적개인주의, 향수유일주의 등 불량한 사상의식이 잠식하여 근검절약, 간고분투, 자아현신, 호조호애 등 재래의 훌륭한 전통

이 미약해지거나 지어는 소실될수 있다.

1. 7 두만강삼각주개발은 조선족에게 있어서 천재일우의 기회로도 되며 또한 준엄한 시련으로도 된다. 문제의 관건은 두만강삼각주개발의 참뜻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있다. 두만강삼각주개발의 의미는 결코 경제의 급성장과 생활의 유족화를 실현할수 있다는데만 그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를 계기로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보다 넓은 세계와의 호상교류속에서 시야를 넓히고 품위를 높여 국내의 선진민족으로부터 국제상의 선진민족으로 도약할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개발의 가능성은 의심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점점 뒤떨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것이며 또 개발의 진행과정과 2010년의 실현정도에만 주목하면서 그에 수용하는 태세밖에 갖추지 못한다면 기껏해야 《경제적인 인간집단》으로 되고마는 아쉬움을 낳게 될것이다. 우리에게 필요되는것이라면 세계적인 안목으로 개발의 의미와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조선족의 발전목표 및 그에 알맞는 대안을 선정함과 아울려 일심협력하여 실천해나가는것이다.

2. 조선족교육에 요청되는 과업

2. 1 두만강삼각주개발을 계기로 조선족의 발전템포를 빨릴수 있는가 없는가의 관건은 전반 민족의 자질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렸다. 높은 자질을 소유한 민족으로 되여야만 날로 치렬해지는 경제상의 경쟁에서 성공을 이룩할수 있고 다종문화의 호상침투속에서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킬수 있으며 민족의 단합과 발달을 실현할수 있다. 그러나 민족자질은 자원, 자금, 기술, 설비처럼 남에게서 인입할수 없다. 오직 그 민족자체의 교육에 의해서만 민족자질향상이 이룩될수 있는것이다. 때문에 조선족 교육은 민족발전행정에서 자못 중요한 역사적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두만강삼각주개발과 조선족교육의 자세

2. 2 교육은 미래지향성을 띤 인간재생산활동으로서 양성목표의 선정이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선다. 사회발전의 추세와 민족발전의 수요로부터 볼 때 조선족교육에는 기존목표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1)국제적인 인간: 즉 국제적 사고력이 강하고 국제리해가 깊으며 인류공영의식이 짙고 국제교류에 능란한 인간.

(2)민족적인 인간: 즉 민족문화에 익숙하고 민족자부심이 강하며 민족의 단합과 발달을 위해 혼신적으로 일하는 인간.

(3)주체적인 인간: 즉 주체적인 자아의식과 자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강하여 창발적으로 사고하고 독창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간.

(4)진취적인 인간: 즉 원대한 리상과 강인한 의지가 있고 구지욕과 탐구정신이 강하여 언제나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인간.

(5)효률적인 인간: 즉 과학적인 사고력과 설계능력이 구비되고 정보처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강하여 맡은 사업에 일심전력하면서 보다 적은 투입으로 보다 많고 좋은 효과를 얻을 줄 아는 인간.

2. 3 새로운 양성목표의 제기와 더불어 조선족교육에는 그에 상응한 새로운 임무가 맡겨지게 된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생각해볼수 있다.

(1)필요한 관념의식의 주입: 시기시기에 따르는 사상정치교양도 진행해야 하지만 미래사회에 어울릴수 있는 관념의식을 심어주는것이 더 절박한 임무로 나선다. 그 주요한 내용들로는 ①옳바른 가치관과 인생관. ②개방의식, 국제의식, 시대의식과 위기의식. ③민족의식과 주체의식. ④시장경제의식, 법제의식, 질의식과 효률의식 등이다.

(2)지식교육의 완벽화: 현대적인 인간, 민족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간양성의 수요에 적응되던 재래의 협소한

지식교육을 보다 넓고 보다 완전한 지식교육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보다 완전한 지식교육의 구성요소들로는 ①일반지식교육. 이를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식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교육. 주로는 최신과학기술지식교육과 실용기술교육을 의미한다. ③민족문화교육. 주로는 민족역사교육, 민속교육, 민족예술교육, 민족체육교육 등을 말한다.

(3) 능력배양의 강화: 입시경쟁을 위한 지식암기교육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인간발전의 수요에 따르는 능력배양에 보를 더 박아야 한다. 그 주요한 내용들로는 ①기본적인 학습능력과 강한 응용능력. ②독창적인 사고능력과 과학적인 탐구능력. ③합리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숙련된 조작능력. ④세련된 표달능력과 능란한 교제능력 등이다.

3. 조선족교육이 갖춰야 할 자세

3.1 사상의 현대화

여기에서는 조선족교육에 가장 절박히 수요된다고 인정되는 두 가지만을 지적하고 싶다.

(1) 발전창조의 사상: 발전창조의 사상은 무엇을 위한 교육으로 꾸릴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꾸릴 것인가 하는 두 가지 합의를 내포하고 있다. ①발전과 창조를 위한 교육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이다. 발전과 창조를 위한 교육이란 인간개체를 품성, 지식, 기능, 심리, 신체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민족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및 새로운 사회환경의 창조를 위해 효과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조선족교육은 아직까지도 진학유일사상에서 완전히 해탈되지 못하였으며 창조성의 배양보다 단순한 지식전수에 치중하고 있으며 민족자질의 제고 및 민족경제문화의 발달을 위해 주동적으

두만강삼각주개발과 조선족교육의 차세

로 복무함이 부족하다. ② 발전창조적으로 교육을 꾸려야 한다는 사상이다. 발전창조적으로 교육을 꾸려야 한다는 것은 형식 면에서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사회발전의 추세에 맞게 창조적 자주적으로 꾸려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족교육은 이 려저려한 주관적, 객관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지껏 획일적인 모식에서 해탈되지 못하였으며 남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면이 많다.

(2) 개방의 사상: 개방의 사상이란 교육을 고립적인 밀폐식계통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타 계통과 유기적으로, 동태적으로 협계되어 있는 개방된 계통으로 인정하고 주동적으로 사회 각 계통과 교류하는 동시에 교육내부의 부동한 충차, 부동한 류형들간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활력을 증강하고 교육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사상이다. 그러나 조선족교육은 사회 각 계통과의 교류가 결핍하고 국내외 교육계와의 교류도 미약하며 좁은 울타리속에서 제나름대로의 전통적모식을 보존하고 있다. 하여 정보전달이 늦고 시야가 좁으며 발전템포가 더디고 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요에 잘 적응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발전창조의 사상, 개방의 사상을 수립하는 것은 조선족 교육의 질적향상을 이루함에 있어서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3. 2 내용의 시대화와 민족화

내용의 시대화와 민족화란 시대의 발전추세와 민족발전의 수요에 따라 교육내용을 부단히 조절하고 풍부히 함을 말한다. 조선족 교육은 현행 교육내용을 더 깐지게 짜고 들어야 할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민족문화, 외국어 등 교육을 보통, 강화해야 한다.

(1) 과학기술면에서: ① 생물공학, 신형소재, 신형에너르기, 항공기술, 해양기술, 환경보호 등 새로운 과학기술성과와 국제성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 이는 특강의 형식으로 취급할수 있다. ② 컴퓨터를 과정으로 설치해야 한다. 당면에 컴퓨터가 그다지 보급되

지 못한 형편에 비추어 최소한 그의 기본원리와 조작방법을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각종 실용기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배 학생이 최소한 한가지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2) 민족문화면에서: ① 조선어문을 종합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선어문은 그 자체가 곧바로 민족문화의 중요한 내용일뿐만 아니라 또 민족문화의 기타 내용을 학습하는 기초도구파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국의 통일적인 교육과정중에서 조선어문이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는 점이다. 때문에 조선어문을 단순한 언어도구파로부터 종합교육파로 개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문화의 기본 줄거리를 료해하게 해야 한다. ② 민족역사와 민족을 전문과정으로 설치해야 한다. 민족역사는 민족의 발전과정을 동해적이고 전면적으로 반영해주는 동시에 민족의 앞날을 시사해준다. 민족역사를 잘 알아야만이 민족문화를 체계적으로 장악할수 있다. 민족은 민족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징으로 되며 민족문화의 기반으로 된다. 민족은 물질민족, 사회민족, 언어민족, 정신민족 등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속에는 민족심리와 민족정신이 승배여 있다. 때문에 전문적인 민족역사교육과 민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③ 민족예술, 민족체육 등을 혼합과정으로 설치해야 한다. 민족예술과 민족체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라적으로 예술, 체육교육이 부진상태에 처한 실정을 감안하여 현유의 음악, 미술과 체육 등 과목에 하나의 독립된 부분으로 설치하여 가르치는것이 합당하다. ④ 민족예술과 민족체육을 선택파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 방면에 애착과 기질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수기능배양을 중점으로 할수 있다.

(3) 외국어교육에서: ① 조선족의 우세항목인 일어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실제응용능력을 더 잘 키워주어야 한다. ② 세계통용어로 되고있는 영어에 큰 중시를 둘려 영어교육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③ 민족국인 동시에 세계의 강국의 하나인 로씨야와의

두만강삼각주개발과 조선족교육의 차세

장원한 관계를 고려해 역사적인 기초가 있는 로어교육을 회복, 발전시켜야 한다. 종족으로 말하면 금후 10년내에 영어, 일어와 로어의 비중을 각각 40%, 55%와 5%로 되게 하며 20년후에 가서는 각각 60%, 30%와 10%로 되게 하는것이 리상적이다.

3. 3 형식의 다양화

부동한 충차, 부동한 류형, 부동한 직업의 수요에 따라 교육형식의 다양화를 실현해야 한다.

(1) 시간면에서: 기초교육단계의 중소학교, 중등전문학교와 대학교의 정규생에 한해서는 계속 전일제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사회의 부동한 수요에 따라 반일제학교, 계절학교, 야간학교, 통신학교 등도 활발히 꾸려야 한다.

(2) 성격면에서: 국가의 재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정황하에서 공영학교를 계속 잘 꾸리는외에 사회단체와 개인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켜 민영학교, 사립학교도 적당히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외의 유지인사들과 협작하여 합자학교, 합작학교, 독자학교 등도 꾸려야 한다.

3. 4 구조의 합리화

교육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도를 대여 불합리한 교육구조를 조절하여야 한다.

(1) 류형면에서: 주로 중등교육단계의 보통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의 구조를 합리하게 조절해야 한다. 중등직업기술교육의 부진상태는 조선족교육의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되고 있다. 고중졸업생의 다수가 대학에 가지 못하는 실정에 비추어 보통교육을 점차 줄이고 직업기술교육을 점차 늘여야 한다. 금후 10년내에는 보통고중과 직업고중의 비례를 6:4로, 20년후에는 4:6으로 만들면 비교적 합리하다.

(2) 충차면에서: 주로 대학교단계의 본과와 전파의 비례를 조절

해야 한다. 발달한 나라의 경험에 의하면 본과생과 전과생의 비례는 1:3이 비교적 합리하다. 그러나 조선족의 대학교육을 보면 본과생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조선족초중교원을 양성하는 사범전과교육은 그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사범전과교육을 비롯한 대학전과교육을 크게 발전시켜 본과생과 전과생의 비례가 기본상 어울리게 해야 한다.

(3) 학과면에서: 주로 대학교단계의 사회학파와 자연학파, 기초학파와 응용학파의 비례를 조절해야 한다. 조선족의 인재구조를 보면 사범, 의학, 농업, 문예 등 학파의 비중이 크다. 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연학파와 응용학파를 더 강화해야 하며 공정기술, 대외무역, 대외경제, 기업관리, 항해기술, 관광업, 언어번역 등 학파를 중설해야 한다.

3.5 규모의 최적화

교육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규모의 최적화를 실현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농촌학교는 규모가 너무 작고 도시학교는 규모가 너무 크다. 하여 교육질과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기 어렵다. 금후의 조절목표는

(1) 소학교: 도시소학교는 학교당 학생수를 1,200~1,800명으로 통제, 농촌소학교는 400~600명을 확보.

(2) 초중: 도시초중은 학교당 학생수를 900~1,200명으로 통제, 농촌초중은 600~900명을 확보.

(3) 고중: 학교당 학생수를 900~1,200명으로 통제.

(4) 대학: 대학교의 예비를 적극 파내고 투자를 적당히 늘여 학교당 학생수를 5,000명 이상으로 확대.

3.6 계통의 개방화

『사상의 현대화』부분에서 언급하다시피 조선족교육은 개방된

두만강삼각주개발과 조선족교육의 차세

계통으로 되여야만 활력을 증강하고 질적향상을 가져올수 있다.

(1)국내외 교육계와의 교류: 여기에는 학술성과교류, 정보자료교류, 방문학자와 류학(현수)생의 상호파견, 학적항목의 개발 등이 포함된다.

(2)사회 각 계통과의 교류: 주로 경제계통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요와 추세를 제때에 료해, 장악하고 그에 따라 교육을 부단히 조절, 개진함을 말한다.

이밖에 교육수단의 현대화, 교육방법의 효률화도 실분 필요하나 지면의 제약으로 더 전개하지 않기로 한다.

참고자료

- ①리용 주필:《동북아 금삼각의 열점》(한문), 길림인민출판사 1992년판.
- ②국제지역간교류중심, 연변대학:《동북아지역과 연변경제개발 연구론문집》(한문), 연변인민출판사 1995년판.
- ③최통학:《동북경제개론》(한문), 연변대학출판사 1993년판.
- ④연변조선족자치주통계국:《연변통계년감》(1994), 1994년판.

중국조선족교육특성의 형성과 발전법칙에 대한 재사고

RETROSPECT ON FORMATION OF
CHARACTERISTICS AND LAWS OF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
TY EDUCATION IN CHINA

연변대학 허청선

Heo Cheong-seo

Yanbian University

〔론문요지〕

조선족교육의 특성은 아주초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조선족 교육의 기본특성은 조선교육의 계승성, 교육목적의 이중성, 교육관계의 세계성, 언어교육의 이중성, 학교분포의 변강성과 분산성, 교육내용의 공통성과 특수성, 학교형식의 단일성과 다양성, 인민대중의 높은 교육열 등으로 귀납할수 있다. 조선족교육은 자체의 발전법칙에 토아 발전되어야 한다.

Characteristics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began to form from the early stage of immigration into China. The principle characteristics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could be summarized as being inheritance of education of Korean nation, duality of objective of education and language instruction, schools distribution in the border areas, common and diversified centers of

중국조선족교육특성의 형성과 발전법칙에 대한 재사고

education, unified and multiple school structures, educational zeal of the masses of Korean Nationality. The education of Korean Nationality must be developed according to its own laws of development.

중국조선족교육의 특성과 그 발전법칙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은 조선족교육의 역사적 실상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자체의 특성에 맞게 민족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향한 조선족의 교육개혁에서도 실천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 본문에서는 조선족교육의 발전역사에 착안하여 그 특성과 발전법칙에 대해 사고한 바를 적기로 한다.

오늘의 조선족은 19세기 60년대부터 조선에서 중국에 천입한 조선민족의 후예이다. 중국조선족교육특성은 천입한 이후로부터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조선교육의 계승성: 조선족은 천입 이전에 이미 유구한 문화력 사전통을 가지고 있은 안정된 민족·공동체이다. 이에 기초하여 조선족은 천입 이후 조선에서 형성된 자기 민족의 문화교육전통을 부단히 계승하고 발양하여 왔다. 20세기 초엽부터 근대적 학교들에서는 《조선어문》, 《조선역사》, 《조선지리》, 《음악》, 《무용》, 《미술》 등을 과목으로 교수하고 민족전통미덕교육을 출판·진행하였다. 전국 후에는 1953년 11월까지 본 민족의 언어 문자를 가르치는 과목을 《한글》이라 하다가 그 후부터는 《조선어문》으로 개칭하였다. 《조선역사》와 《조선지리》는 1953년 10월까지 단독과목으로 가르치다가 중앙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조선지리》는 《세계지리》에서, 《조선역사》는 《세계역사》에서, 《중국조선족역사》는 《중국역사》에서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년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조선족역사》가 꼳 단독과목으로 배정되게 된다.

학교 운영에서는 유치원으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소학교로부

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본민족언어문자로 수업하는 단일한 조선족학교를 꾸리고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대학교는 1959년 후부터 조선족지구의 여러 민족 인재 양성의 수요에 의해 여러 민족이 같이 학습하는 학교로 되었다. 연변대학에서는 1959년부터, 연변의 학원과 연변농학원에서는 1960년부터 조선족학생을 위주로 모집한 외에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도 모집하였고 교수용어는 조선말 한가지 면례로 부터 조선어와 한어 두 가지로 되었다.

조선족교육 문화 배경의 다민족성: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그리하여 일체다원성(一体多元性)의 문화특점을 이루고 있다. 조선족교육은 이런 특정된 사회문화 배경 하에서 점차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교육이라는 성격을 띠고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의 조선족은 조선에서 천입한 후 중화민족문화 특히는 선진적인 한문화(汉文化)를 흡수, 개조, 소화, 융합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민족문화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왔고 조선족교육은 중화민족문화 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문화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해방 전 조선족교육 목적의 이중성: 특정된 사회력 사태 경하에서 1906년에 첫 근대적 반일사립학교인 《서전서숙》이 통정에 설립되었고 그 뒤를 이어 반일사립학교가 우후죽순 마냥 도처에서 일어섰다. 하여 조선족교육은 유교의 봉건률리도덕을 핵으로 하면 교육으로부터 첫째로는 조선의 독립, 둘째로는 중국의 해방을 위하여 반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구민주주의 교육으로 전변되었 다.

1919년 조선의 《3. 1》 운동, 중국의 《5. 4》 운동, 신문화 교육 계몽운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조선족교육의 신민주주의 맹아가 나타났다. 1931년에 조선족공산주의자들이 대량적으로 중국공산당에 가입했고 그해 3월부터는 중국공산당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항일투쟁을 진행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족교육은 구민주주의 교육으로부터 신민주주의 교육으로 전변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족교육은 우선 중국의 해방을

위하는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다음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하는 데 그의 취지를 두었다.

해방후부터는 조선족학교교육목적이 단일성을 떠게 되었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혁명과 전설이란 이 공동한 목표를 위하여 인재를 양성하는것으로 되었다.

조선족언어교육의 이중성: 중국은 한족을 주체민족으로 하고 있는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한족은 전국 총인구의 93.3%를 차지하고 있고 한족의 문화는 중국에서 주도적역할을 놀고있으며 한어는 중국의 통용언어로서 여러 소수민족의 제2언어로 되고있다. 조선족학교에서도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언어문자를 잘 배우는 동시에 한어도 잘 배우는것을 중요시하고 강화하여왔다.

해방전 중국의 혁내의 통치계급은 민족동화를 목적으로 하여 한어학습을 강요하고 조선어학습을 제한하는 언어교육에서의 불평등정책을 취했다.

1915년 6월중순에 연길도윤 도빈은 《회일간민교육판법(划一垦民教育办法)》을 제정하였다. 이 교육판법에서는 조선족사립학교에서 《중국어를 매주일에 최소로 12시간씩 가르쳐야 하며 중국국가를 불려야 한다.》,《교과서는 중국정부측에서 편찬한 중국교과서를 사용하고 3,4학년의 〈중국지리〉,〈역사〉,〈수신〉,〈리파〉 등 학과목은 중국어로 교수하여...》라고 규정하였다. 이 법에 순응하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였고 위반하면 지어 조선족학교를 강제적으로 폐교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조선족교원들은 이 판법을 반대하여 교과서는 전부 조선어로 번역하고 교수하게 할것, 중국어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씩 할것 등을 정부측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았다. 1930년 8월 길림성교육청에서 작성한 《연변간민교육변통법》 제5조에서는 조선어학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①조선인사립학교는...조선어를 하급학년에서는 매주 4시간씩 가르치고 상급학년에서는 《조선역사》와 《조

선지리》를 매주 두시간씩 가르친다. ② 공립학교에서는 ... 조선어를 매주에 과외로 네시간씩 가르치고 상급학년에서는 《조선역사》와 《조선지리》를 과외로 두시간씩 가르친다. 이 규정에서 볼수 있는 바 《조선어》과목의 위치는 《중어》과목에 비하여 유명무실하였다.

해방후 중국공산당의 언어평등정책에 따라 우선 조선어를 학습하여 동시에 자원원칙하에 한어도 잘 학습할것을 요구하였다. 계획을 들면 1948년에 작성한 중학교과정안을 보면 초급중학교는 매주 일에 한글(韓語) 6시간, 중어(汉语) 3시간, 고급중학교는 매주일에 한글 4시간, 중어 3시간으로 배정하였다.

조선족교육의 세계성: 민족교육의 세계성은 한개 나라의 민족 교육과 다른 나라 교육과의 관계를 말한다.

① 해방전 중국교육과의 관계적측면에서

조선리씨왕조의 통치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파산된 농민과 애국지사들은 자기의 생존과 혁명의 길을 찾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로 련속부질히 천입하였다. 하여 폐쇄적인 국면이 점차 타파되게 되었다.

중국 동북지구에 천입한 조선족은 한문화교육 특하는 30년대 후부터 중국공산당의領導하에 선진적인 한문화를 흡수, 융합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문화와 교육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다.

민족문제의 철저한 해결은 《인류해방》에 의존한다. 중국근대사 회의 주요한 모순은 중화민족과 제국주의사이의 모순이였다. 이 모순은 압박과 반압박의 대항성성격을 띤다. 당시에 동북지구를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족의 모순은 어느 민족보다 더욱 침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족인민들은 신민주의혁명의 전투에서 결사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교육분야에서는 봉건교육과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타파하고 신민주주의교육체계를 건립하는것으로 체현되었다. 이런 역사배경에서 조선족교육은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과의 투쟁 중에서 교육의 민족성을 보존하고 민족의식과 민족에 대한 혁사적

책임감을 불려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

② 해방전 외국종교문화와의 관계적측면에서

외국의 종교문화는 일찍부터 조선족교육에 침투되었다. 연변지구는 20세기초부터 구미제국주의 열강들이 침화자선(侵华慈善)을 감행하는 곳으로 되었고, 롱정은 그런 침화자선기지의 하나로 되었다. 연변에 침입해온 외국선교사로서는 카나다 장로파와 독일 천주교파들이 있었다.

1926년 통계에 의하여 외국인선교사들이 연변에다 설립, 운영한 조선족학교가 19소나 되었다. 적지 않은 선교사들은 반일정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반일정서를 고취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본세기 2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조선족사립학교는 링스-헤닌주의를 선전하는 기지로 되었다. 동북지구의 진보적인 조선인들은 로씨야 10월사회주의혁명에 참가했던 조선인, 《5·4》운동에 참가하여 링스-헤닌주의를 접수한 조선인들을 통하여 100여종의 링스-헤닌주의서적과 간행물을 재빨리 전파하였다. 하여 학교들에서는 링스-헤닌주의연구소조가 설립되고 종교를 반대하는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서 조선족교육은 종교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③ 개혁, 개방이래 외국교육과의 관계적측면에서

조선족교육은 중국의 개혁과 개방에 따라 특히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따라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 73개 나라에 500만 우리 겨레들이 널리 살고 있다. (조선반도는 포함하지 않았음) 이는 중국조선족의 문화교육면에서의 국제교류와 협작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고 있다. 예하면 조선학국제학술모임, 조선학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국제학술모임, 연수생과 유학생의 파견 등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협작하여 조선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외국의 대학교

와 친선교류협정을 맺고 학술, 도서 등을 교류하고 있다. 외국인들 중에서 조선족학교에 물질적으로 적지 않은 후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조선족교육분포의 변강성과 분산성: 청조정부에서는 1885년에 동북지구에 대한 봉금령을 취소하고 이민실변정책(移民实边政策)을 실시하였다. 그 주요원인은 짜리로씨야의 동북침략을 경계하며 군인들의 양식과 봉급을 해결함으로써 조정의 재정곤난을 감소하자는데 있었다. 하여 도문강 북쪽의 연해지구를 한인(韓人) 개간구역으로 정하고 월간국(越垦局)을 설립하였다.

조선족이 천입하기전에 동북변강지구는 황무지였다. 이는 파산된 조선족농민들이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데 유리한 지리적환경으로 되였다. 하여 조선족농민들은 변강지구에 자리잡게 되였고 따라서 조선족교육의 변강성도 형성되게 되였다.

학교분포의 분산성은 역사적으로 조선족농민들의 류동성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적수공권으로 월경하여온 극빈한 조선족농민들은 평원에서는 땅세와 가령잡세가 많고 산골에서는 토비와 군대의 소동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부득불 류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북만지구의 201호 조선족거주민들의 류동정황을 조사한데 의하면 《9.18》사변이전에 류동하지 않은 호수는 2호, 1~4차 류동한 호수는 87호, 4~8차 류동한 호수는 99호, 9~13차 류동한 호수는 13호였다.

1948년 12월의 불완전한 조사통계에 의하면 류동성의 13만 조선족은 19개 시, 현에 분산되어 거주했는데 324개소의 소학교에 2, 200명의 학생이 있었다. 신빈, 장백 등 8개 현의 1,375명의 학생은 각기 215개 학교에서 학습하였다. 그중 학생이 300명이상 되는 학교가 1개소, 100명이상 되는 학교가 39개소, 30명이하 되는 학교가 62개소로서 학생이 평균 61명정도로 있었다.

지금 도시와 진(镇) 이외 지구의 조선족학교가 분산된 것으로

중국조선족교육특성의 형성과 발전법칙에 대한 재사고

하여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농촌인구가 도시으로 류동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일부 농촌학교의 학생래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마땅히 중시를 들려야 할바이다.

조선족교육내용의 질적인 변화와 민족형식의 회복과 발전: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로 하여 국내외의 민족압박과 차취제도가 소멸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전립됨에 따라서 교육내용상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해방전에 일제가 조선족학교에서 일본어, 일본력사, 일본지리를 강제적으로 가르치도록 한것과 전국후에 조선족학교에서 조선어를 비롯한 민족문화를 자주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것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수 있다.

사회주의중국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형식은 민족구역자치의 정치제도를 실시하는것이다. 이 제도는 공통성과 특수성의 통일, 당과 국가의 방침정책과 소수민족지구의 구체적인 특점의 결합, 소수민족이 자기민족내부의 사무를 관리하는 권리에 대한 존중과 담보, 민족의 평등, 단결과 호조 및 공동번영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이런 제도에 의해 조선족도 자기의 자치주, 자치현, 자치향을 가지게 되였고 자치지방의 교육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였다.

중국에서 민족교육은 사회주의현대화를 내용으로 하고 민족의 진보와 발전에 유리한 민족형식을 취한다. 공성을 전제로 하여 자기민족의 특성, 민족지구의 특성을 구현할수 있는 사회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조선족교육은 역사상 전례없이 발전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사회주의력사시기의 근본적인 과업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것이다. 현대생산력은 지력의 물질화로 표현되며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현대화의 판전은 과학기술에 있으며 과학기술을 현대화하는 기초는 교육에 있다.

조선족은 역사적, 사회적인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민족교육에서 기술교육을 큰 템포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는바 기술교육은 혁

사적으로 문과, 리과교육에 비하여 박약한 고리로 되었다. 그 결과 기술개척형의 인재는 과학탐구형의 인재에 비해 매우 결핍하다. 이는 조선족지구의 현대화건설에서 침 예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에 적응되는 인재양성을 강화함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을 훌시하는 경향성도 표현되는데 이는 우리 교육의 민족성을 약화시키는 오유적 경향이다.

조선족교육운영형식의 단일성과 다양성: 해방전 조선족교육에서 는 단일한 조선족학교운영형태를 취하였다. 해방후 교육면에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되고 학생모집에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왔다.

조선족학생들은 자기의 민족대학에서 학습하는 외에 일반대학, 일반대학교의 민족예비학급, 민족학원, 중앙민족대학 등 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다. 이는 선진적인 한문화를 학습하고 조선족문화교육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고 있다.

기초교육단계에서는 지금도 기본상에서 단일한 조선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민족연합학교를 운영하거나 한족학교에 조선족학급을 단독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 특하는 대도시의 조선족후대들중에서 이어져온 원인으로 하여 자원적으로 한족중소학교에서 한어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다.

조선족인민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드높은 교육열의: 조선족은 예로부터 문화교육을 중시하는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일찍 고구려시기에 지방마을마다에 경당(扃堂)을 설립하고 자제들이 미혼전에 주야로 여기서 독서하고 활쏘기를 배웠다. 이는 조선사학(私學)의 시초라고 할수 있다. 구당서와 신당서(新唐書)에도 그 풍속에 서적을 사랑하여왔다는 기록이 있다. 외국의 어떤 학자가 조선은 북의 나라, 일본은 칼의 나라였다고 평론한바 있다.

문화를 중상하고 교육을 중히 여겨온 조선족들은 후대들에게

중국조선족교육특성의 형성과 발전법칙에 대한 재사고

돈과 재물을 남겨줄것이 아니라 글을 남겨주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공동언어로 되었다.

해방전 조선족의 대부분은 극빈한 농민들이었는데 아무런 정치, 경제권리가 없었다. 하기에 후대들에 대한 교육은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민영형태를 취하는것이 유일한 출로였다. 아주초기에 우리 민족은 조반석죽이나마 끼니를 아울수 있게 되면 먼저 서당을 설립하고 자녀들을 교육하였다.

해방후 한시기 정부에서는 《민영공조(民办公助)》의 학교운영방침을 취했는데 조선족인민들의 드높은 교육열의를 불러일으켰다. 1949년 4월의 통계에 따르면 길림성에 조선족학교가 622개소 있었는데 그중 민영학교가 576개소로서 87%를 차지하였으며 조선족중학교가 40개소 있었는데 그중 민영학교가 25개소로서 62.5%를 차지하였다. 보다깊이 조선족의 드높은 교육열의는 조적족교육발전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상술한 특성은 조선족교육 자체의 발전법칙에 의하여 파생된 것이다. 교육법칙은 교육내부의 재발·요조사의 관계, 교육과 사회발전사이의 본질적인 연계 및 교육발전변화의 필연적인 추세를 말한다.

민족교육의 연변(演變), 발전법칙을 보면 민족교육의 형성, 발전, 융합의 과정을 통하여 민족이 없는 《대동세계(大同世界)》의 교육으로 되는것이다. 현단계 세계상의 민족교육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민족교육내용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침투된다. 때문에 민족교육은 부동한 역사시대와 부동한 조건에 따라 부동한 성격과 형식을 가지게 된다. 정치제도는 민족교육의 성격과 발전방향을 결정한다. 민족압박과 착취제도하에서의 민족정책은 교육분야에서 주체민족이 다른 민족을 자기에게 동화시키는 민족교육의 불평등정책으로 나타난다. 해방전에 조선족인민들은 반동화투쟁중에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서 교육의 민족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왔으며 항일과 정권탈취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였다. 해방후 옳바른 민족정책 하에 민족교육을 마음껏 발전시킬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오직 사회주의정치제도하에서만이 민족교육이 번영,발전할수 있다는 역사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다.

생산력발전수준은 교육발전정도를 결정한다. 조선족은 자급자족의 소농경제에서 오래동안 해탈하지 못했다. 조선족지구의 공업생산이 발전하지 못했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교육에서는 과학기술교육의 빈약성이 초래되었다.

우리 나라의 현대화건설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로동자의 자질을 제고하는데 의거한다. 경제분야에서의 경쟁은 과학기술의 경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과학기술의 경쟁은 과학기술교육에서 표현된다. 지금 21세기를 향한 조선족교육앞에는 과학기술교육의 현대화란 과제가 나서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과학기술의식을 높이고 고도의 슬기와 지혜로 이 과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와 정치,과학기술체계개혁의 수요에 적응하는 조선족교육체제를 건립하고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방침을 드립없이 관철,집행해야 한다.

조선족교육은 중국사회주의교육의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때문에 조선족교육에서는 사회주의현대화의 공동한 목표를 교육내용으로 체현시키고 조선족의 진보와 발전에 유리한 민족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이는 공성과 개성,모순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구현한 것이다. 개성은 공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의 민족정책과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애국주의,집단주의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법칙은 특수한 법칙을 떠날수 없다. 즉 공성은 개성을 떠날수 없다. 소수민족을 떠난 중화민족은 존재할수 없다. 그렇다면 소수민족의 특성과 그 지구의 특점에 따라 민족교육을 발전시켜

중국조선족교육특성의 형성과 발전법칙에 대한 재사고

야 할 것이다. 조선족교육도 민족적특성과 지역적특점에 험각하여 자체의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민족지구의 교육정책, 교육발전전망계획, 학교운영형식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교육이 민족의 발전과 당지 경제건설 및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족교육발전의 유일한 출로는 개혁과 개방에 있다. 조선족의 우수한 문화교육전통을 토대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교류를 확대하며 인류문명발전의 일체 우수한 성과를 대담하게 흡수하여 그를 거울로 삼아 조선족문화교육의 민족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해야 한다.

조선족교육의 보급과 제고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보급의 토대우에서 제고하며 제고의 지도하에 보급하는 것이다. 조선족교육은 보급면에서 전국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질제고면에서 그 폭도가 크지 못하다. 이는 하나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되고 있다.

교육질제고의 관건은 교원대오건설에 있다. 교원대오건설은 주로 사범교육과 교원재직연수에 의거한다. 조선족교육의 발전을 가속화하려면 사범교육을 선행시키고 교원재직연수를 잘해야 하는바 조선족특색이 있는 사범교육체계, 교원재직연수체계를 세워야 한다.

참고문헌:

- ①《맑스Engels 민족문제를 둔함》(한문), 민족출판사 1986년판.
- ②장건 주필:《동소평교육사상연구》(한문), 질강교육출판사 1991년판.
- ③박규찬 주필:《중국조선족교육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1년판.
- ④《조선족략사》(한문), 연변인민출판사 1986년판.
- ⑤《소수민족교육사업문집선편》(한문), 내몽골교육출판사 1991년판.

조선족민속교육에 관한 연구

STUDY ON KOREAN NATIONALITY FOLKLORE EDUCATION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김영림

Kim Yeng-lim

Northeast Chin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본문요지〕

본문에서는 민속교육의 합의, 당위성과 실리성을론술한 토대
우에서 조선족민속교육의 현황을 내용, 형식, 기술, 실천 등 면으로부
터 고찰하고 현존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민속교육의 제도화와
전일체화, 민속교육자원의 개발, 민속교육연구의 선행 등으로 금후과
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laborated significance, necessity and practicality
of folklore education and observed the present situation of
education of Korean Nationality in terms of contents, form,
technique, practice etc. and analyzed existing problems. Besides, the
author put forward the future tasks such as systematization and
unification of folklore education, development of folklore
resources, research on folklore etc.

조선족민속교육에 관한 연구

민속은 한 민족의 기반적생활문화로서 민족성을 떠나 민족을 구별짓는 표징으로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민족교육에서의 민속에 관한 교육은 민족문화인양성과 민족문화발전에서 자못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며 그에 대한 리론적, 실천적 면에서의 탐구 역시 아주 의의 있는 작업으로 된다. 민속교육을 조선족교육의 한 구성부분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필자는 민속교육의 합의, 당위성, 실리성을론술하고 조선족민속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며 나아가서 그 문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1. 조선족민속교육을 위한 리론적 연구

(1) 민속교육의 합의

민속교육의 합의에 대해서는 연구자사각의 차이로 인하여 부동한 풀이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하면 민속자체의 교육적 기능에 착안하여 그 합의를 밝히는것이나 비제도적, 비규범적인 교육이라는데 착안하여 풀이하는것과 같은것이다. 필자는 민속에 관한 교육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민속교육은 민속지식, 민속사실과 현상, 민속을 통해 체현되는 민족심리 내지 민족정신에 관한 교육이라고 인정한다.

여기에는 세가지 합의가 포함된다.

첫째로 민속지식에 관한 교육이다. 민족학교에서의 민속교육은 우선적으로 민속에 대한 기초적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예하면 민족의 내포, 특점, 분류, 작용, 발전, 계승과 개혁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민속지식은 민속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고 또 학생들의 심신발전에 맞게 정리, 가공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한 민속지식을 말한다. 이러한 민속지식은 학생들이 민속사실과 현상을 파악하는 기초적지식으로서 민속교육에서의 중요한 요소로 된다.

둘째로 민속사실과 현상에 관한 교육이다. 민속은 민족의 존속과 함께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계승되며 또한 미래에도 있을 한 민족의 기반적 생활문화이다. 하기야 민속교육은 기존 민속사실을 알려주고 민족의 유래와 과정을 밝혀주는 교육으로 된다. 예하면 조선족소학교의 《조선어문》에는 《5월 단오》라는 과문이 있는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인 단오를 소개하면서 그 유래와 풍속 및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과문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존 민속사실을 알게 된다.

민속은 물질민속(거주, 복식, 식생활, 생산, 교통, 무역 등), 사회민속(가족, 친족, 부락, 사회직업집단, 통파의례, 세시풍속 등), 언어민속(신화, 전설, 민간이야기, 민요, 동요, 속담, 수수께끼 등), 정신민속(무속, 종교, 신앙, 금기, 도덕, 폐의, 민간놀이 등) 등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현상으로 민족생활주변에 자리잡고 있다. 민속교육은 바로 이런 다양한 민속현상을 꼭넓게 파악하게 하는 교육인 것이다.

셋째로 민족을 통해 체현되는 민족심리 내지 민족정신에 관한 교육이다. 민족의 장구한 역사발전과정에서 민족에는 해당 민족의 민족심리 내지 민족정신이 침적되게 되며 반대로 이런 것들은 민족을 통해서도 체현된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족놀이인 《농악놀이》를 살펴보면 조선민족의 락천적인 성격이 내비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속교육현장에서 펼쳐지는 《농악놀이》는 바로 조선민족의 락천적인 성격을 감수, 표현, 충상하게 하는 교육으로 되는 것이다. 보다깊이 민속교육의 깊은 핵의는 바로 이처럼 민족심리 내지 민족정신에 관한 교육이라는데 있다.

(2) 민속교육의 당위성

① 다민족국가의 민족교육측면에서 보는 민속교육의 당위성.

우리 나라의 각 민족은 모두 자체의 독특한 민속을 갖고 있다.

하기에 민속은 민족성을 떠여 민족을 구별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되기도 한다. 다민족국가에서의 각 민족이 자체의 민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여 민족교육의 문화배경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매개 민족의 민족교육은 민속문화의 다원성을 외면하지 못하게 됨을 쉽게 보아낼 수 있다. 특히 한족교육을 제외한 기타 민족교육이 소수민족교육이라는 것을 넘나들 때 민속의 민족적 특수성에 관한 교육은 소수민족교육에서의 불가결의 요소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민족교육이 민족교육의 한 구성부분으로 되어야 함은 당위적인 것이다.

② 민속문화의 계승과 개혁측면에서 보는 민족교육의 당위성.

한 민족의 민속문화는 사회생산력의 발전과 사회생활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변천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리하여 민속에는 성질이 부동하거나 성분이 부동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민족발전에 유리한 민속을 계승하고 불리한 민속을 개혁해야 할 과제가 해당 민족 앞에 나선다. 한 민족을 놓고 볼 때 좋거나 비교적 좋은 민속을 계승하고 나쁘거나 유해한 민속을 개혁하는데서의 효과적인 경로는 민족교육 특히는 민족교육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목적, 의식적인 민족교육을 통해 민족후대들에게 민속가운데서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줌으로써 민속문화의 전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민족교육은 당위적인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

③ 민족교육의 민족문화기능측면에서 보는 민족교육의 당위성.

민족교육의 민족문화기능에는 민족문화기능도 포함되고 있다. 민족교육은 시간적으로 민족문화를 헌속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민족문화를 확장시키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민족교육은 민족문화의 맥락을 이어주는데서 효과적인 경로로 될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생존공간》을 넓혀주는데서도 효과적인 경로로 된다. 나아가서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 역시 민족문화의 계승자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통하는 것이 바탕직한 경로로 된다. 하기에 민속

교육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한다.

(3) 민속교육의 실리성

① 민족 학생들로 하여금 본민족의 민속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데서의 실리성.

민족이 기반적생활문화로 되기에 민족의 후대들은 성장과정에서 많거나 또는 적게,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민속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민족의 후대들이 가정, 사회로부터 민속문화에 대한 감성적 경험을 쌓게 되는것이지만 그것은 아직 지적, 리성적 사고의 높이에 오르자면 거리가 있게 된다. 이런것은 민속교육을 통하는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민속교육을 통해 선택되고 정리, 가공된 민속문화를 전수하기에 학생들은 본민족민속문화를 보다 광범위하고도 심도있게 이해할수 있다. 이런 이해는 본민족민속문화를 사랑하는 토대로 된다. 민속문화에 대해 이해한 토대위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민족문화발전에 유리하므로 민속교육이 실리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② 학생들의 민족심리를 키워주는데서의 실리성.

민족이 민족성을 갖는다는것은 민족심리가 민족속에 침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민족심리로 하여 해당 민족은 민족성을 가진 민족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 반대로 민족은 민족심리를 형성시키고 온정시키며 강화하여준다.

당대 각 민족의 실리심충에는 본민족의 민족을 보존, 발전시키려는 욕망이 숨쉬고있다. 민족후대들이 이런 욕망이 반영된 민속교육을 받게 되면 본민족민속문화에 대한 강렬한 확인감과 친절한 귀속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민속교육은 단지 민속문화를 알게 하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민족심리를 형성시키고 키워주며 강화하여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민속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민족심리와 더불어 민족얼을 키워줄수 있으므로 실리성을

갖게 된다.

③타민족의 민속을 존중하고 민족단결을 촉진하는데서의 실리성.

민속은 민족관계에 대하여 말하면 흘시할수 없는 오소로 된다. 왜냐하면 민속에는 민족심리감정이 반영되기에 민족간의 상호교제에서 부동한 민족의 민속을 여하히 대하는가 하는것은 민족관계에 상용한 영향을 일으키기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민족의 풍속습관은 의연히 민족관계중의 하나의 비교적 민감한 문제로 되고있는바 민족의 풍속습관을 정확히 대하는것은 민족평등과 단결에 관계되는 대사로 되고있다. 이런 정형에서 민속교육은 본민족과 타민족의 민속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라는 과업을 짊어지지 않을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민속교육이 다원문화배경에서 성장하고있는 학생들에게 타민족의 민속을 존중하게 하는데 이바지된다면 각 민족의 단결을 촉진할수 있으므로 실리적인것으로 된다.

④민속문화를 계승하여 민족경제를 진흥시키는데서의 실리성.

문화소비학의 각도에서 보면 민속문화는 문화소비의 자원으로 될뿐만아니라 민족경제개발의 자원으로 된다. 오늘날 제3산업 특히는 관광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민속문화를 자원으로 한 민족경제개발은 점차적으로 열기를 띠고있다. 조선족행면과 조선족짠지의 판로가 동북3성은 물론 북경, 상해에까지 넓혀지고 있는것과 같은것들이 이를 설명해주는 실례로 될수 있다. 이려고 보면 민속교육은 교육적의의뿐만아니라 경제적의의도 갖고있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민속교육을 통해 민속을 익숙히 하게 되면 민속문화의 계승에서뿐만아니라 민족경제개발에 기여하는데도 유리하다는것이다. 때문에 민속교육은 또 하나의 실리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2. 조선족민속교육에 관한 실천적 연구

1) 조선족민속교육의 현황

본 론고에서는 조선족중소학교를 중심으로 조선족민속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내용: 부분적인 민속을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다. 조선족 중소학교의 교수요강과 교과서를 통해 보면 민속교육내용은 주로 조선어문,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로동기술 등 6개 과목에 배치되어 있는데 과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①

① 조선어문: 민속명절지식(《5월 단오》), 전설(《행주치마》), 설화(《토끼전》) 등.

② 체육: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체육종목(씨름, 그네, 널뛰기).

③ 음악: 노래와 감상에서 조선민족민요가 40%를 차지함.

④ 미술: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예술기법.

⑤ 무용: 조선민족무용의 기본적인 기초동작.

⑥ 로동기술: 민속음식물만들기(밥, 냉면, 불고기 등).

이상의 것을 개괄적으로 분류하면 민속명절지식, 민속문학과 예술, 체육성민속놀이, 민속음식물만들기 등이 교육내용으로 도입되었다.

(2) 교육형식: 여러 가지 교육형식을 통하여 민속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내수업형식(예하면 조선어문파에서 《5월 단오》와 같은 과목을 교수함), 과외활동형식(예하면 과외로 조선족 속담이나 수수께끼를 수집하는 것), 민속박물관참관형식, 민속축제 형식 등이 있다.

(3) 교육제도: 민속교육이 제도적, 규범적 요소를 띤 것이 있다. 예하면 조선어문파에서 과문으로 《5월 단오》를 가르치는 것이나 음악

과에서 조선민요, 조선동요를 가르치는 것은 제도적, 규범적 요소를 떠 것이다.

(4) 교육기술(교육매체): 일부 민속도구가 교육매체로 개발되어 쓰이고 있다. 《조선말자모화투》를 그 일례로 들 수 있다. 《조선말자모화투》는 료녕성 청원조선족중심소학교교원들이 조선말 말하기 교수를 연구하고 개혁하는 가운데서 개발하였는데 재래의 민속놀이가 새로운 교육내용을 담고 교육에 도입되었다.^② 연길시태평소학교에서는 현대적 교수수단인 록화기를 이용하여 조선족 풍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민속교육을 진행하였다.^③

(5) 교육실천: 여러 학과목에 민속교육 내용을 침투시킨 것은 민속교육에 대해 일정한 중시를 돌리고 있음을 시사해주며 아울러 민속교육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조선족민속교육은 일정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 예하면 길림성 룽정시 조양천제1중학교는 전국민족체육선진집체로 표창받았고 이 학교의 림미선 학생은 전국소수민족운동회에서 그네뛰기 경기 종목의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민속교육의 성과를 과시하였다.^④ 1992년도 《6·1》 국제아동절에 연길시 중앙소학교에서는 조선족 민속을 제재로 하여 꾸민 대형집단무용 《나래치라, 연변이여》를 출연하였는데 몇 만명 관중들의 대절찬을 받았다.^⑤ 이로부터 민속교육 실천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선족민속교육의 문제점

조선족민속교육은 일정한 성과도 올렸으나 아직 적지 않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그 주요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조선족민속교육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민족이 부분적 학과의 교수내용으로 도입되었으나 내용면에서 보면 조선족 민족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고 민족을 통체적으로 파악하여 설정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조선족 민족의 내포, 특점, 분류, 작

용, 계승과 개혁 등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으며 둘째, 민속을 전일체 적각도에서 고려하여 설정하지 못하였는바 주택, 복식, 식생활, 가족, 친족 등 풍습이 잘 체현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민속교육내용의 비약성문제는 민속교육의 제도화와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민속교육내용을 여러 학파에 분산시키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조선족민속교육을 학과목과정제도로 담보하여주지 못하는 문제에 귀결된다.

(2) 조선족민속교육의 귀중한 자원이 잘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민속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전통과 심리정감 및 심미추구가 것들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교육자원으로 개발되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지금 조선족농촌중소학교에서 체육성민속놀이인 출당기기를 학교운동대회에 인입하지 않고 있다. 벼짚단을 모아 동아줄을 끄고 편을 갈라 출당기기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협동심, 단결심, 애학심을 길러주는 체육성민속놀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교육에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수 없다.

(3) 소학교로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열성이 약하고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협동성이 차하다. 예를 들면 종적으로 소학교조선어문교과서에 몇개 과문으로 민속에 관한 것이 배치된 후 중학교에서는 맞물려 이어주지 못하고 있다. 횡적으로 여러 학과목에 나뉘여져 있는 민속교육내용이 잘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 예하면 음악과에서 《도라지》나 《아리랑》과 같은 우리 민족의 민요를 곡에 치우쳐 가르치고 어문과에서 민요가사에 착중하여 가르쳐서 협동적으로 교육을 이끌어야 하겠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에서의 민속교육은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민속교육에 수요되는 민속부장이라든지 민속도구의 준비는 학부형의 밀접한 배합을 요구하지만 어떤 학부형들은 이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민속교육에 대한 사회력량의 지지, 특히 사회경제력량의 대폭적인 지지와 후원이 절실히 수

요되지만 아직 민족사회의 마땅한 중시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협동성이 약한 표현들이라고 생각된다.

3) 조선족민속교육의 과제

(1) 조선족민속교육의 제도화

오늘날 조선족민속교육내용면에서 보여지는 기초성, 종체성문제는 조선족민족파의 설치를 통해 풀어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족민족파에 조선족민족에 관한 기초지식, 민족사실과 현상에 관한 지식 등을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기초성, 종체성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리해로부터 민족교육내용의 완정성을 기해야 하는바 민족교육을 자주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조선족민속교육자원의 개발

민족문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므로 민족문화를 교육자원으로 삼고 윤리적, 지적, 심미적, 건강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교육요소를 잘 발굴해야 하며 다음으로 교육적수요에 맞게 정리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시대적수요에 맞게 승화시켜야 한다. 여기서 《조선족령면》을 꿰로 설명해보자. 식사할 때 이상분께 먼저드리는 풍습에서 효도의 윤리적요소를, 산좋고 물맑은 자연풍토에 농동적으로 적응하여 《령》으로 내연화시킨 술기와 지혜에서 지적요소를, 뿔깃풀깃한 《면》의 《맛》(생리적쾌감)을 연합을 강함으로 느껴 승화시키는 《벗》(심미적미감)의 차원으로 옮겨 《외유내강》의 성격미를 감수하게 하는데서 심미적요소를, 몸밖의 《령》으로 몸안의 《열》을 제압(음과 양의 대립통일 및 신진대사)하는데서 건강적요소를, 조미료를 《매개》로 시원한 《령》에 뿔깃풀깃한 《면》을 조화시키는 작식법에서 기술적요소를, 나아가서 《조선족령면》작식기술로부터 《조선족

행면》기술경제에로 넘어가는데서 경제적 요소를 발굴, 정리, 승화시키는 것과 같이 민속문화유산이 우리 민족후대들에게서 빛을 뿌리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선족민속교육의 전일체화

조선족민속에서 발굴, 정리, 승화된 민속교육내용을 조선족민속파를 중심으로 소학교로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계렬적으로 배치하여 조선족민속교육을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종적으로 계렬화되게 배치하는데 주의해야 할뿐만 아니라 횡적으로 여러 학과목에 연결되게 배치하는데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민속교육을 활성화, 개방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민속문화개화발달의 좋은 사회적문화풍토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례로 정부차원에서 개최한 《92 중국연변조선족민족절》을 들수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민속교육을 더욱 개방화하여야 한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중소학교에서의 제도화, 계렬화,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활성화, 개방화를 통하여 그리고 현대과학문화교육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조선족민속교육을 전일체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조선족민속교육연구의 선행

조선족교육연구에서 민속교육연구는 미개척지로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태가 조속히 개변되어야 한다. 민속교육의 역사와 현상태를 조사연구하여 민속교육실천에서의 경험교훈을 찾으며 민속교육실천파의 현계속에서 연구를 이끌고 나가면서 민속교육리론체계를 세워야 한다.

민속교육연구에서는 민족의 역사적, 현대적 성격을 잘 파악하여야 할 과업이 나선다. 역사적으로 전승되어온 전통적인 문화로서의 민속문화는 역사적 성격을 가지며 다른 한편 현대사회에 잔존하는 당대문화의 한 부분으로서의 민속문화는 현대적 성격을 가진다.^⑩ 이

조선족민속교육에 관한 연구

리고 보면 민속교육은 우리 민족학생들로 하여금 좋거나 비교적 좋은 민속을 계승하고 나쁘거나 유해한 민속을 개혁하도록 이끄는데 이바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속교육연구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창도되어야 한다.

주해:

- ①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에서 1985년~1991년사이에 출판한 해당 학과목의 교수요강 혹은 교과서를 참조.
- ②김영애:《학령전학급어린이들의 조선말회화능력제고를 위하여》,《중국조선어문》1991년 제4호.
- ③송영철,황영희:《파외활동을 민족특색이 질게》,《중국조선족교육》1994년 제5호.
- ④정은택:《군중체육 민족체육 어깨나란히》,《연변일보》1992년 12월 14일.
- ⑤《21세기 해돋이를 우러려》,《길림신문》1990년 6월 2일.
- ⑥손인수:《한국인의 교육세시풍속》,문음사 1991년판 제163페지.

우리 글 전용과 우리 실제

——겸하여 한자교육문제를 론함

EXCLUSIVE USE OF OUR WRITING
AND OUR REALITY—CONCURRENTLY
ON CHARACTER EDUCATION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남일성

Nam Il-seong

Northeast Chin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50년대초에 조한문자혼용을 폐지하고 조선문자전용을 실시하게 된 근거를 밝히고 조선, 한국과 다른 중국이란 이 실제로부터 계속 조선문자전용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으며 한자문제는 한어문과에서 한자를 배우는 우세를 빌어 조선어문과의 어휘교수방법을 개진하는것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견해를 논술하였다.

This study elaborated the basis of stopping mixed use of Korean writing in the early 1950's. Starting from the fact that we were in China, not in DPRK or in ROK, the author insisted on exclusive use of Korean writing. As to the characters, the author explained that there were advantages of teaching the Chinese language, and through improvement of instruction methods of

우리 글 전용과 우리 실체

Korean vocabulary, characters could be easily learned.

80년대 말부터 중국에서 우리 글(한글)전용이냐 아니면 조한문자혼용이냐 하는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으로 모으는 하나의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그것이 우리 민족의 서사생활과 문자체계 나아가서는 후대교육과 금후 민족언어발전에도 직접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톤전 역시 자연히 열띤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50년대초에 우리 글에서 전용을 실시한 것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학교에서 한자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중국에서는 1952년에 이르러 조선문신문잡지와 일반도서 그리고 중소학교의 학생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자혼용을 폐지하고 우리 글 전용을 실시하였는데 지금까지 40여명이 된다. 그런데 현재 어떤 이들은 당시 우리가 한자혼용을 폐지하고 우리 글 전용을 실시한 것은 하나의 실책으로서 그것은 주로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조선문자전용방침을 실시하였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따른데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맹목적이였다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확실히 우리보다 3년 먼저 1949년 봄에 한자혼용을 폐지하였고 또 당시 우리는 조선파의 협회가 밀접했으며 교육과 기타 문화면에서 우리에 대한 조선의 영향이 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한자혼용을 폐지하도록 촉진한 하나의 객관적 원인으로 되기는 하나 결코 결정적 요인은 아니였다. 거기에는 우리 자체의 모색과정과 근거가 있었다.

《8. 15》해방으로부터 50년대까지는 바로 우리 민족이 자기의

글과 문화를 신속히 보급하고 발전시키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인민군중에게 우리 글과 문화를 보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난제는 한자였다. 그것은 한자가 배우기 힘들고 서사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한자사용문제와 학교에서 한자교육문제가론의 되었다.

1948년 12월 『교육통신』(창간호)에 실린 한편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우리 한글은 지금 겨우 스물네자를 가지고도 우리 말을 적는데 꼭 알맞아서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가장 발전한 날소리글자다.» 동시에 일본과 독일의 정황을 비교하면서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한자때문에』 학생들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수요되는 많은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연변일보』에서는 1948년 4월부터 1949년 11월까지의 사이에 즉 우리 글 전용을 실시하기 전에 벌써 여력차례(연변대학 김상원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모두 7차)에 걸쳐 우리 글만 쓰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예로는 모든 글을 순 우리 글로만 쓰기도 하고 예로는 제목에만 한자를 혼용하면서 그옆에 우리 글로 읽기를 달아주기도 하였다.

50년대초에 우리 글에서 한자혼용을 폐지할 때의 확실한 기록에 대해서 현재 찾아보기 어려우나 당시 조한문자혼용과 한자교육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들을 모두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것은 우선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 글이 있는데 하필 『제글도 아닌』, 어렵고 대중화되지 못한 『탁후한』 한자를 쓸 필요가 있는가하는 것이였다. (적어도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여기에는 민족적자주의식과 자부심이 작용한것도 사실이다)

다음은 학생부담문제였다. 1948년부터 중학교과정안에 한어(당시 중어라고 함)과를 정식으로 설치하여 가르쳤고 1950년에 이르러서는 소학교고급학년(즉 5학년)부터 한어를 가르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족학교학생들에게는 한족학생들에 비하여 수업부

우리 글 전용과 우리 실체

담이 더 많은 문제가 갈수록 돌출해지게 되었다. 예하면 1950년 연변조선족중학교 한어파총시수는 816교시, 같은해 교육성은 중학교만 하더라도 1,177교시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시기는 외국어파목을 취소하거나 적은 시간으로 가르치고 매주 교수총시수를 늘이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런 정황하에서 제기된 것은 한어파에서 배우게 되는 《한자》를 굳이 조선어분파에서 다시 우리 말로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한어수준이 보편적으로 낮았던 당시 상황에서 우리 말 한자를 배운다는 것은 도리여 불리한 일면도 있었다. 학생들이 한어파에서 배우는 한자어를 우리 말로 발음하는 것과 같은 혼란이 나타났기 때문이였다.

그외 출판부문에서도 계열이 다른 두 가지 문자를 쓰는 것으로 하여 시끄러움이 많았다.

이상과 같은 주객관원인과 우리 자신이 모색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 드디어 1952년에 한자혼용을 폐지하고 우리 글 전용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후 우리 민족의 교육과 문화를 보급발전시키고 민족의 전반 자질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민족적 자존, 자신, 자강 정신을 기르고 발양함에 있어서 일으킨 역할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시 우리가 한자혼용을 폐지한 것을 떠어놓고 《남》을 추종한 맹목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또 여기서 마땅히 지적해야 할 것은 당시 정황과 지금의 정황이 다르고 또 당시 논의된 문제들에는 이미 앞에서 말하다셨이 전면적이 못되는 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2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지난날과 같이 계속 우리 글을 전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도 한국의 신문잡지나 책에

한자를 써어쓰듯이 한자를 혼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우리의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미 《중국에서 우리 글 전용과 한자교육문제》(《중국 조선어문》1991년 제4기)란 글에서 50년대초에 우리가 한자혼용을 폐지하고 우리 글 전용을 실시한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중국 이란 이 실체에 부합되며 우리 민족언어의 전전한 발전과 우리 민족교육의 계속적인 발전에 유리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남북조선이나 기타 외국과 다른 특수한 언어환경에서 생활하고있기때문》이며 또 그렇기때문에 《금후 남북조선에서 학생용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에 한자를 혼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점(우리 실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필자는 지금도 의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있다. 그것은 어떠한 문제의 해결이든 자 모두 자기의 실체를 떠날수 없기때문이다.

그럼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의 실체는 어떠하며 우리 민족의 언어환경은 어떠한가?

바로 중국에 사는 우리 조선족은 한족이 전국인구의 절대다수 (92%)를 점하고있는 나라에서 한개 소수민족으로 생활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인구는 근근히 2백만으로서 전국인구의 1,000분의 1. 7밖에 되지 않는다. 거주면에서 보면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기본상 《대잡거 소집거》의 국면을 이루고 있는데 잡거현상과 산재현상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특히 80년대초부터 상품경제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조선족이 자기 집거구거나 농촌마을을 떠나 내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조선족집거구에 한족을 비롯한 다른 민족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 인구가 적고 이동이 많으며 잡거현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한족인구가 많고 그들이 경제면에서와 문화면에서 우세인 것으로 하여 그리고 족체언어가 한어인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한어화

한문화의 영향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발전에 유리한 방면이 있는가하면 또 다른 면에서 불리한 면도 가져다주게 된다.

현재 우리 민족중에는 본 민족의 언어를 상실하는 현상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또 우리 민족언어에 한어의 명사출어와 어구들이 그대로 직수입되어 사용되는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민족언어의 계승과 그것의 순리로운 발전에 불리하여 민족교육의 발전에도 불리하다. 현재 상당한 문화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작품명이거나 과학기술전문출어뿐 아니라 일반생활언어에 이르기까지 한어의 많은 말들을 우리 언어생활에 그대로 옮겨쓰고 있다. 예하면 《조구(照顧)해주오》, 《원보(温饱)문제의 해결》, 《코치(口气)가 매우硬(硬)하다》, 《쟈유잔(加油站)이 있다》 등등. 뿐만아니라 또 공자(工资), 동사장(董事长), 형진(零件), 록취(录取), 장파(上课), 필업(毕业)등과 같은 한어의 많은 낱말 (1988년 《조선말어휘편람》에 초보적으로 접계된것만 하더라도 무려 1,600여개에 달함)들을 그대로 우리 조선말 한자로 직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언어를 상실하는 현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언어가 갈수록 한어화되어가고 있는 경황에서 자기 민족언어를 보존해야 할뿐아니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자혼용문제거나 기타의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 언어의 이러한 실체를 명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한국이거나 조선은 이와 정황이 다르다. 그들은 모두 단일민족국가로서 그들에게는 조선어가 바로 민족언어이자 국어로 된다. 다시말하면 조선어는 전 민족에게 사용되고 전반 국민에게 통용되는 국가적언어로서 그것은 크게 외적인 제약이 없이 자유로이 발전할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글에 한자를 혼용한다하여 그것을 한어로 받아들이거나 민족언어의 《한어화》를 촉진하지는 않는

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어의 한자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상황에서 한자를 섞어쓰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필자는 이미 앞에서 말한 글(《중국에서 우리 글 전용파 한자 교육문제》)에서 우리 글에 한자를 혼용하도록 한다면 《조선어의 한자어와 한어의 단어가 마구 뒤섞여 쓰이게 되고 우리 말 발음파 한어발음이 한데 뒤섞여 사용》될것이며 지어는 《我的祖国》(나의 조국), 《我厂의 領導班子》(우리 공장의 지도부)와 같은 《한어식 표 탈구까지 마구 쓰이게 되여 나중에 우리 민족언어에는 몇개의 토박에 남지 않게 될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민족언어의 규범화거나 그것의 순리로운 발전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 민족언어는 그 자체의 특점과 그 존재의의까지 상실하고말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자혼용문제를 두고 론의하는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또 실제로 있어서 우리 글에 한자를 혼용한다고 할 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수 있다고 말하게 되는것은 그 어떤 억측이거나 가상만은 아니다.

《연변일보》 1994년 1월 23일과 30일, 3월 6일과 27일부의 《경 제주간》판에 한자를 혼용한 일부 정황만 보더라도 그것을 가히 알 수 있다. 예하면 《出血热을 流感으로 보지 말아야》, 《肌体저항력을 증강하는 功效를 갖고있다》, 《民用飛機》, 《〈3자〉기업소劳工保护憂思綠》, 《外贸企业에서》, 《效果性奖을 수여》, 《客户와 관계를 전립》, 《招商引资활동을 전개》, 《海纳百川, 有容乃大》등인데 여기에서 보면 한어의 명사출어와 현대조선어의 한자어, 고대조선의 한자어 지어는 한어의 성구와 구절까지 마구 쓰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특히 이상의 문장에는 우리가 평시에 구두어에서 많이 쓰던 한어의 낱말들이거나 한어문장의것들을 그대로 옮겨 서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언어는 수용할수 없는 일대 혼란에 빠져 우리 말이 아닌 우리 말, 우리 글이 아닌 우리 글로 되고말것이다.

어떤이들은 언어란 하나의 도구로서 사회발전에 적극적이고도 유익한 역할을 일으키면 되지 않겠는가고 말할 뻔지 모른다. 그러나 언어란 바로 일정한 사회성원들에게 약정된 음성수단 또는 기호로서 그려한 약속과 규범을 어기고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면 사회교제와 정보전달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여 교제에 혼란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또 어떤이들은 이상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오래동안 한자사용을 폐지하고 한자교육을 중지한데서 나타난 것으로서 학교에서 우리 말 한자교육을 하고 신문이나 잡지에서 시범을 보이고 옳게 이끌기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고 여길 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한어가 절대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언어적환경에서 그것도 사람들의 언어가 날로 한어화되어가고 우리의 입말과 글말에 한어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이미 앞에서 든 사실이 바로 그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국이나 조선에서 글에 한자를 섞어쓸 때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서사어면에서까지 한자혼용을 실시한다면 《혼용》이 곧 《혼란》으로 되고 말 것이다. 일부 개별적인 의례어에 대해서는 규범이 일정한 역할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일단 한자혼용을 실시한다면 규범이 큰 역할을 일으킬 수 없거니와 그 자체의 약속력마저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나 조선과 혈통이 같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 보고 그들과 같이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로부터 나타나게 될 각종 문제를 미연에 침답하고도 심입되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민족언어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오늘 까지 계속 존재하고 건전히 발전할 수 있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사어면에서 우리 글 전용을 실시하고 문자면에서 한자의 혼용을 폐지하여 《단일성(즉 순결성)》을 확보한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문

에 우리가 서사어면에서 한자혼용을 폐지한것을 『실책』이라고 말할 수 없거니와 또 금후 중국이란 이 특수한 언어환경과 문화환경에서 우리 민족의 언어와 교육을 계속 건전히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서사어면에서 민족문자자체의 『순결성』을 확보(즉 우리글 전용을 실시)해야 할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남북조선과 다른 점이며 또한 우리의 실제이다.

3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들에게 우리 말 한자를 가르쳐야 하는가,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글에 한자를 혼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한자교육은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또 천자문식으로 일일이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무엇때문에 우리 글에 한자혼용을 반대하면서 또 한자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것은 우리 글에 한자를 혼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학생들에게 한자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우리 민족 언어문자의 발전력사와 한자어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것이다.

한 민족의 언어란 그 민족의 발전행정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바 그것은 자연히 혁사성과 사회성을 띠게 된다. 주지하다싶이 우리 선조들이 제일 처음 사용한것은 한자였다. 그들은 벌써 훈민정음이 창제되기전에 1천여년동안이나 한자를 빌려썼고 또 우리 문자가 창제된후에도 오래동안 한자를 사용하였다. 바로 이러한 기나긴 행정에 우리 언어에는 대량의 한자어가 들어와 고착되었다. 이는 우리의 언어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한자 자체는 우리 민족이 창제한것이 아니라하더라도 한자에 기초한 한

자어는 오래동안 우리 민족언어에 들어와 사용되고 조화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이미 우리 민족의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한자어는 우리 민족언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우리 민족의 언어생활 중에서의 역할 역시 매우 크다. 특히 학술적이고 리론적인 개념과 표현은 거의 한자어를 떠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생활의 실제에 있어서 한자어를 몇개의 외래어처럼 취급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또 그려한 한자어를 이루고있는 한자가 우리 글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있다는것이다. 우리 문자가 표음문자라면 한자는 표의문자이다. 그 공통점은 모두 형태와 음을 갖고있는것이고 다른 점은 표의문자가 뜻을 갖고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 표의문자에서 온 한자어는 그 글자의 형태가 머리에 떠올라야 그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할수 있게 된다. 예하면 우리 글로 《결빙기》나 《담소》라고 할 때 우리 머리속에 《结冰期》, 《谈笑》란 한자어가 떠오른다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수 있다.

그리므로 우리 글에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는 한자에 대한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한자를 교육할것인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교육의 실제와 학생의 실제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우리의 우세를 충분히利用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 학생들은 벌써 소학교2학년(1993년부터는 소학교1학년)부터 한어파를 통하여 한자를 배우는데 소학교단계에서 1,300자, 초중단계1,200자, 고중단계500자 도합 3,000자를 배우는데 소학파 초중까지만 하더라도 2,500자를 배운다. 그리므로 그들은 소학교로부터 초중에 이르는 사이만 하더라도 한어나 조선어에 쓰이는 상용한자를 기본상 다 배우는데 이것은 한국이나 조선의 학생들이 천자문을 통하여 배우는 한자보다 훨씬 더 많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초

급증학교(부분적으로는 소학교고급학년)부터는 과외로 대량의 한문 서적에 접촉하게 되는데 특히 수학, 물리, 화학 등 학과목의 참고서는 거의 한문으로 된것을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것들은 남북조선의 학생들에게 없는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자어교육이거나 그 취급에서 이 점을 충분히利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하면 얼마전 필자가 고급중학교학생 10명에게 조한문자혼용으로 된 한편의 글을 읽혀보았는데 그들은 한자로 표기된 128개 한자어중에서 상당히 많은것들을 우리 말로 음독하고 이해할수 있었다. 물론 이런것들은 비교적 쉬운것들로서 예를 들면 骨豐制, 改变, 见解, 普遍, 途述, 视察, 實施, 国策, 确定, 展望 등이였다. 그들이 읽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것들을 보면 한어파에서 배우지 않았거나 배웠다하여라도 그 사용빈도가 적은것들이였고 또 조선어에서 쓰이는 한자어와 한어에서 쓰이는 어휘가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였으며 그외 또 알기 어려운 정자였다. 예하면 编纂, 契期, 削除 등은 한어파에서 배우지 않았거나 그 사용빈도가 적고 비교적 어려운것들이였으며 始作, 完遂, 语匯, 退治 등은 한어말어휘와 서로 다르게 쓰였거나 접촉해보지 못한 어려운 정자였다. 천자문을 전혀 배워보지 못한 학생들이 이와 같이 많은것들을 자체로 읽고 이해할수 있다는것은 한어파에서 배운 한자와 한자어휘의 도움을 입고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학생들이 한어파를 통하여 한자의 형태와 뜻을 알고있다는 것은 우리말 한자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우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자와 한자어휘를 한어로 배우고 그 뜻을 이해(鮮血—선지피, 선혈, 麦—밀, 欢乐—즐겁다 식으로)할뿐 그것과 우리 글 한자어와의 내재적련계, 우리 말 음독법, 우리 말 한자어의 결합법칙을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은 한어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선어문화에서 학생들이 한어파를 통하여 배운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우리 말 한자어교육에서 순 조선말사전식풀이에 그치고 한자와 전혀 접촉시키지 않

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이미 한어과를 통하여 한자의 형태와 뜻을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시금 많은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면서 일일이 한자의 뜻과 음을 가르치는 방법 즉 천자문식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한자(또는 한자어) 교육문제는 비교적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테면 조선어문과에서 한자어지식 단원을 앉히고 한자어에 관한 지식을 간단히 주고 평시 우리 말 한자어취급에서 교원이 한자로 판서하며 뜻을 가르치거나 한자를 읊은 어휘풀이집(또는 학생용사전)을 주어 가르치는 것이다. 특히 교원이 한자로 판서하고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방법은 50년대 후기까지 조선어문과의 어휘교수에서 비교적 널리 쓰인 방법이였는데 그때 학생들의 한어수준이 지금보다 꽤 낮았지만 당시 그려한 방법이 학생들의 조선어한자어리해와 한자리해에 효과가 매우 컸다. 그리고 현재 산재지구의 일부 교원들도 조선말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우리 말 한자(또는 한어)로 판서하여 단어의 뜻을 리해시키고 있는데 그것 역시 우리 말 한자어를 정확하고도 빨리 리해, 장악시키는데 있어서 좋은 방법으로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한자어를 취급한다면 순 우리 글로 표기된 문장에 접촉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한자와 번역시켜 리해할 수 있고 또 한자를 혼용한 옛글이나 한국의 신문잡지들에 접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말로 쉽게 읽어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말 한자어(또는 한자) 교육문제는 조선어문과 교수에서 어휘교수방법을 개진하기만 하면 구태여 천자문식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사법교육과 같은데서는 문제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자를 전혀 모르는 남북조선의 학생들 경우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더 첨부하여 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교육내용을 연구하든지 언제나 학생부담문제를 넘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부담문제는 교육학의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그것을 경감시키는 문제는 현대교육연구중의 하나의 중대한

파제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소수민족교육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민족교육은 민족성과 지방성의 특점을 갖고있을뿐아니라 중화민족교육의 한부분으로서 공동성과 통일성도 갖고있는데 이러한 이중성으로 하여 학생부담은 자연히 많게 된다. 즉 우리는 학생들에게 본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도록 교육해야 하고 중화민족의 보편문화와 한어도 가르쳐야 하고 현대적과학문화와 외국어도 가르쳐야 한다. 현재 전국 대도시의 적지 않은 학교에서 외국어를 소학교부터 가르치고 있고 일부 조선족소학교에서도 그러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은 또 어려서부터 계산기를 배워야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보통학제보다 수업년한을 1년연장하였다 하더라도 금후에 부담이 많은 문제는 예전히 제기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쉽게 해결할수 있는것을 학생들에게 부담을 더 주면서까지 천자문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우리 글 전용의 필요성과 필연성이 나아가서 학교에서의 한자교육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또 우리 글 전용을 실시한후 문제가 없다는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인명,지명,사업단위명,새로운 개념,준말 등을 우리 글 전용의 전제하에서 어떻게 취급하여 사람들의 이해와 사용에 편리를 도모해주며 시대적요구에 적응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금후 계속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조한문자혼용교수를 두고
ON TEACHING OF MIXED USE OF
CHINESE CHARACTERS AND KOREAN
WRITING

연변민족교육개혁판공실 리만송

Ri Man-song

Yanbian Office of Reform of Minority
Nationality Education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연변의 조선족중소학교들에서 진행한 교수실험의 성과를 주요의거로 삼고 조한문자 혼용교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술했으며 조한문자 혼용교수에서 얻는 리득과 피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밝히고 금후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제기하였다.

This paper expounded necessity and practicality of teaching of mixed use of characters and Korean writing on the basis of achievements of teaching experiments carried out in Yanbian Korean Nationality middle and primary schools. The author also pointed out the advantages of mixed use of characters and Korean writing. He recommended solutions to problems, which were difficult to avoid in teaching.

본세기 80년대 후기부터 조선족교육계에서는 조선문자체제를 둘러싸고 의논들이 있었다. 조선문자전용과 조한문자혼용의 찬반 쟁에서 선호하여 흑룡강, 료녕성 등지의 조선족학교들에서 조한문자혼용 교수실험을 하였다. 연변에서는 1990년부터 4개소의 조선족소학교와 3개소의 조선족초급중학교에서 선호로 한자교육, 조한문자혼용교수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은 조선어에 한자어가 대반이 넘는 실정을 고려하고 조선족학교교육의 실제수요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실험에서는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의 조선어문교재에 출현된 한자어들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조어력이 강한 기초교육상용한자 2,000자에 대해 소학교 4학년부터 음독, 새김(訓)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적절적인 목적을 두었다. 필자는 본문에서 조한문자혼용교수실험과 결부하여 사고한 바를 적기로 한다.

1. 조한문자혼용교수를 통해 얻는 리득

(1) 조선어문의 독해력, 발표력, 사고력을 키우는데 유리하다.

① 한자뜻을 바르게,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교재에 일부 한자어를 한자로 로출시키면 한자의 시각성, 표의성이 선명히 드러나고 한자의 새김과 음을 가르치면 조선문자표기로 학습할 때보다 한자어의 고유한 뜻을 바르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지어 로출된 한자의 새김만 알면 한자의 고유한 뜻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도 적지 않다. 한자어를 조선문자로 표기해 가르치니 어음형식만 전달된뿐 시각적 표의성이 없어지고 영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단어짜임법칙이 보이지 않고 고유한 뜻이 안겨오지 않아 정확한 이해와 치밀한 사고, 준확한 판단에 불리하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휘빈곤의 원인의 하나가 한자어를 조선문자표기로 배운데 있다.

② 동음이의어를 식별하고 활용하는데 유리하다. 한자어에는 동

음이의어가 매우 많다. 소학교 4학년에서 《军器》를 《军旗》로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이 대비반은 53명 중 10여명이였으나 실험반은 1명도 없었다. 한자어에는 동음이의어 말고도 《사감, 사기, 사제, 사직 ...》, 《가사, 공사, 면사, 장사...》와 같은 한자어들이 많은데 이런것을 조선문자표기로만 뜻을 안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③앞글자가 같고 뒤글자가 다르거나 뒤글자가 같고 앞글자가 다른 한자어의 의미적차이를 한자의 시각적분별성에 의해 바르게 리해할수가 있다. 예하면 《雄伟, 雄安, 雄心, 雄建; 惜别, 永别, 离别, 告別》등과 같은것들이다.

④한자는 놀라운 조어력을 갖고있다. 중학교용기초한자 900자가 앞에 놓여 이루어지는 한자어가 62,374개, 뒤에 놓여 이루어지는 한자어가 9,855개라고 한다. 한자의 이런 놀라운 조어력에 비추어보면 조선어문교육에서 한자교육을 해야 된다. 조한문자혼용교수를 통해 학생들은 주어진 한자를 모태로 하여 조성된 기타 한자어들을 대량으로 알게 된다. 조한문자혼용교수는 어휘를 많이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준다.

⑤발음법을 정확히 지킬수가 있다. 한자어에는 수만개의 동철이음어(同綴異音語)가 있는데 이런 동철이음어에는 발음의 장단뿐 아니라 편소리냐 아니냐로 구별되어 있다. 예로 《定价》는 진소리고 발음은 《까》이나 《情歌》는 짧은 소리고 발음은 《가》이다. 《史的》은 긴소리고 발음은 《적》이나 《私的》은 짧은 소리고 발음은 《쩍》이다. 이런 동철이음어들을 조선문자로만 적으면 뜻은 고사하고 제대로 읽을수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한자로 로출시키고 발음법을 가르치면 배우지 않은 《高价》, 《知的》등과 같은 단어들의 발음도 알수 있게 된다.

⑥맞춤법을 지키는데 유리하다. 조한문자혼용교수는 일부 소학생들이 《생면부지, 곤난, 중앙대청, 망원경》 등 한자어들을 《생명부지, 골란, 주앙대청, 만원경》으로 쓰고 글짓기에서 《접심》을 《정심》

으로, 《주추돌》을 《지추돌》로, 《복용통》을 《모깡통》으로 쓰던 현상 을 극복시키고 맞춤법을 지키게 하였다. 그것은 한자의 고유한 뜻과 음이 넘두에 있기에 철자가 틀리지 않게 된 것이다.

⑦량독속도를 점차 빨릴수 있고 어감을 살릴수 있어 량독을 정서적으로 하는데 리롭다. 물론 혼용교수의 초기에는 한자어음독으로 하여 량독속도가 늦어지나 점차 한자에 익숙해지면 보는 순간의 미파악을 할수 있어 독해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한자어의 특성에 의해 감정정서를 표착할수 있고 어감을 살려낼수 있다. 예하면 《박장대소》와 같은 단어를 《拍掌大笑》로 표기하면 한자가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주기에 단어의 어감을 제대로 살릴수 있어 량독을 정서적으로 할수 있다.

⑧한자어의 의미적 기억을 오래 유지할수 있다. 기억에서는 러해된것이 더 장구해지는 법이다. 한자의 표의성, 시각적감수성은 결합되어 표상을 이루므로 조선문자로 배울 때보다 의미적기억이 머리에 깊이 남게 되고 또 쉽게 상기될수 있어 공고률이 높아질수 있다.

⑨학생들의 현상, 상상을 계발해주고 자유를 활약시켜주며 한자어뜻을 추리,판단,개괄하는 능력을 높여준다. 한자는 표의성, 표음성특성을 갖고있을뿐만아니라 표상성특징도 갖고있는데 이미 뜻을 지니고있는 글자끼리 합해져 새로운 글자가 되는것이 많다. 이 점은 한자어학습시에 사람의 추리력,판단력,상상력을 길러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된다. 실험반학생들은 생소한 한자어에 숙자(熟字)가 있고 생자에 아는 편방부수(偏旁部首)가 있어 그중 한개 글자만 알면 벌써 그 단어의 절반의 뜻을 아는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예로 《论》자를 알면 《论评, 异论, 议论》을 쉽게 이해할수 있었다. 이처럼 한자어의 공부는 사리에 따라 이해하는 정신활동이기에 한자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추리,판단,개괄하는 능력과 현상,상상의 능력을 키울수 있어 지능개발에 유리하다.

조한문자혼용교수를 두고

⑩ 교재의 구절, 자연단, 편장의 독해력을 높일 수 있다. 조선어문 교재 중의 구절, 자연단, 편장에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그 지위와 역할이 자못 중요해 흔히 핵심적인 단어로 출현되는 때가 많다. 이런 한자어들을 정황을 헤아려 한자로 가르치면 고유한 뜻을 바르게 리해할 수 있어 독해력을 높일 수 있다.

⑪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관련되는 언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보다 많은 낱말을 장악하는 것은 언어능력 신장에서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조선어문학습의 지름길은 어휘를 풍부하게 장악하는데 있다. 조한문자혼용교수를 통해 의미적 차이를 파악함으로서 그리고 동의어, 류사어, 반의어 등 한자어의 장악량을 늘인 데서 듣기와 읽기, 말하기와 쓰기 등 정보의 수입, 수출에서 제고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자는 낱자가 모두 뜻을 가지고 있어 긴 내용의 말을 몇자로 축약할 수 있기에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에 말하기와 쓰기에서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

⑫ 고전문학작품 열독에 유리할 수 있다. 고급중학교 조선어문 제 1권에는 한자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 고구려 건국신화, 농가월령가 등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학유산의 열독은 조한문자 혼용을 절박히 요구하고 있다. 당면 중소학교 조한문자 혼용교수는 고중진학 후 조선어문을 잘 학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2) 각 학과목 학습에 유리하다.

각 학과목 전문용어들은 과학적 개발, 법칙을 반영한 핵심어로서 지식습득의 기초로 되는 단어들이다. 각 학과목의 전문용어들이 거래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문자 표기로 가르치니 학생들은 지식습득의 기초로 되는 개념을 모호하게 리해하거나 쉽게 망각하게 된다. 결과 리해, 추리, 판단 등 사고활동에 지장을 주어 각 학과목의 교육효과를 보다 높일 수 없게 된다.

조한문자 혼용교수는 각 학과목의 전문용어에 대한 리해를 가속화하기에 지식습득과 기억에 유리했다. 따라서 각과 교재를 예습

해보려는 의욕을 불러일으켰고 학과목성적도 제고를 보였다. 조한문자혼용교수는 각과의 교원들이 먼저 한자어를 해석해야 하던 비능률적인 현상을 개별시켰다. 조한문자혼용은 조선족교육의 길을 제고시킬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게 된다. 초중3학년 49명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보면 《반식민지》를 한자로 쓰지 못했거나 틀리게 쓴 학생이 45명이나 된다. 그중 《反》, 《食》, 《植》, 《实》자를 쓴 학생이 몇명이나 된다. 《北宋》의 《宋》을 《松》으로 잘못 쓴 학생이 9명, 《元朝》의 《元》을 《圓》, 《京》, 《远》, 《涼》자로 잘못 쓴 학생이 몇명된다. 전문용어자체가 추상적이여서 조선문자로 접촉할 당시에는 알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난후 다시 접촉할 때면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 하여 이미 배운 《반직선》을 《선분》으로 《선분》을 《반직선》으로 이해하는 현상까지 출현하였다. 자연과에서 나오는 《목본경》, 《초본경》을 학생들은 외우기는 했지만 체를 들라니 한개 학급에서 옳게 든 학생이 2명밖에 없었다. 교원이 한자를로 출시키자 폐가 틀린 학생이 1명도 없었다.

(3)한어문화학습에 도움이 된다.

(4)자습능력을 키우고 공구서를 펼치고 단어의 뜻을 알아내는 좋은 학습습관을 길러주게 된다.

(5)문화생활에 적응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조선문자전용교육을 실시한 초중의 49명 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보면 《도문》을 《图门》으로 쓴 학생이 25명이나 되고 《왕청》을 《王青》으로, 《도문해판》의 《판》자를 《管》, 《官》, 《馆》, 《观》자로 쓴 학생들도 있었다. 지어 어머니 성 《申》자를 《伸》으로 쓰고 이름 《복자》를 《服子》로 쓴 학생도 있었다. 그리고 《연변일보》독해력검사결과 조선문자로 표기한 《연변주재》라는 단어를 49명 중 5명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검사단위》를 22명이 정확히 해석했을뿐이다.

지금 조한문자혼용교수를 받는 실험반학생들은 부모이름, 정당, 사회단체, 행정구역명칭 등을 제법 옳게 쓰고 있으며 식당간판, 상

조한문자혼용교수를 두고

점간판 등에 쓰인 글자를 음독하고 무슨 뜻이라는것을 읊미하고 있다.

(6) 조한문자혼용교수를 받게 되면 초중까지 교육기초한자 2천여자의 음과 훈(训)을 알게 되고 단어량을 대폭 늘일수 있으므로 이는 우리 말과 글에서 한어차용어를 섞어쓰는것을 줄일수 있고 동족파의 교제에서 시공간적으로 한어차용어 대신 조선어를 쓸 기회를 더 마련해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선어사용을 시공간적으로 더 당보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7) 앞으로 새로 생겨나는 어휘에서 한자가 주요한 조어원(造语源)으로 될것인바 조한문자혼용교수를 받게 되면 새로 출현될 한자어를 이해하는데 유리할것이다.

(8)우리와 지정학적으로 다른 조선,한국,일본 등 한자문화권 내의 학생들도 모두 한자교육을 받고있는 실정파 국제화,정보화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들과 문화교류,정보교류를 진행하는데 리로울 것이다.

(9)전통문화의 계승파 발전에 기여할수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에는 한자로 된 서적이 적지 않다. 이런것을 옳게 이해하고 그 정화를 흡수하여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조한문자혼용교수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 조한문자혼용교수에서 피면키 어려운 문제

(1)중소학교단계에서 조한문자혼용교수를 통해 사용빈도가 높고 조어력이 강한 교육기초한자 2천여자의 음과 훈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부담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자기 민족어인 조선어를 바르게,쉽게,빠르게,잘 배우기 위해서는 이 부담은 피하기 어려운 부담이며 한어문식자교육과 달리 해결되어야 할 식자내용이라 생각된다. 물론 2천여자(이속엔 한어문파에서 배운 생자가 대부분을 포

함)의 한자음, 훈을 가르치는데는 부담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 부담은 2천여자로 조성되는 몇만개의 한자어를 조선문자로 표기하여 교원이 가르치고 해석했다 하더라도 학생이 바르게 깨치지 못하고 땅각하는 비능률적인데 비한다면 그 부담이 훨씬 적은것이라 생각된다.

(2)우리 조상들은 정자를 사용하여 풍부한 전적(典籍)을 후세에 남겼다. 조한문자혼용교수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미 한어문을 통해 학자를 배우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 정자를 배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부담에 더 큰 짐을 지우는것으로 된다.

(3)혼란을 피면키 위해 일자다음(一字多音), 일자다의(一字多义)의 한자는 로출을 피면하거나 중학교교급학년에 가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몇가지 생각

(1)우리 민족은 2천여년동안 한자문화권속에서 살아왔다. 한자는 훈민정음이 제정되기 이전에 불편하게나마 우리 말을 적어온 글자임에 틀림없고 훈민정음창제로 한자는 우리 글과 함께 우리 말을 적어온 공용문자(公用文字)가 틀림없었다. 한자그대로 또는 그 음이나 훈을 리용하여 우리 말을 적어온 역사와 고유한 한자음, 한자를 리용하여 만든 한자어를 생각하면 한자는 우리 민족화한 우리 민족글자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자와 조선어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조선어어휘구성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에 대한 교육을 한자로 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 조선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한자교육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자교육은 무엇보다도 조선어의 정확한 이해와 표현을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는것이며 전통문화의 계승이나 동양문화권내에서의 생활을

조한문자혼용교수를 두고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2) 문자는 학습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활용과 효과면이다. 문자 자체로 볼 때에는 장점만 갖춘 문자도 없고 또한 단점만 가진 문자도 없다.

이와 같이 가장 리상적인 문자는 없으나 중요한 요소인 활용면에서의 문자의 리상적 경지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로 놓고 말하면 이것이 곧 조한문자혼용이다. 한자는 사물의 뜻을 정확히 담아낼 수 있는 반면에 우리 글은 표현의 자유로움을 지닐 수 있다. 우리 조선어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성되었는데 필요에 따라 표음문자만으로 써야 할 때는 조선문자로 쓰고 조선문자와 표의문자를 혼용해야 할 때는 조선문자와 한자를 섞어씀으로써 두 가지 문자의 우세를 발휘시켜 상호 보완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조한문자는 각기 장단점이 있는 바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해 혼용하는 것이 리상적이라고 생각된다.

(3) 한어문파를 배우기 때문에 조한문자혼용이 필요없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깊지 못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한어문교수에서의 적자교육은 어디까지나 한어음독법칙과 한어어휘구성법칙에 따라 진행되지만 조선어한자어교육은 조선어고유의 음독법과 새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자의 형태와 뜻, 그리고 이런 한자로 조성된 한자어의 공통한 점을 통해 교수에서 어떻게 서로 보완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성질이 다른 문제이다.

(4) 교육용기초한자, 한자어선정기준을 잘 제정해야 한다. 한자, 한자어선정기준을 잘 제정하는 것은 조한문자혼용교수의 질을 담보함에 있어서의 대사이다. 교육용기초한자, 로출시킬 한자어선정기준을 과학화하여야만이 무력대고 한자를 로출시키는 것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고 혼란현상을 피할 수 있으며 학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5) 조한문자혼용교수실험을 전지하고 과학적이고도 실제에 부합되는 교수방안과 교수방법을 탐색해야 한다. 지금 조한문자혼용교

수실험반의 교원과 학생들은 조한문자혼용교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많은 학부모들이 이에 찬동을 표시하고 있다. 소학교4학년 실험반의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조한문자혼용교수가 좋다는 학부모가 48명, 나쁘다는 학부모가 2명, 모르겠다는 학부모가 1명이다. 초중실험반 39명 학부모에 대한 조사를 보면 혼용교수를 찬성하는 학부모가 28명이다. 그외 10명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나 좋겠지요》라는 태도거나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태도였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실험은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고 또 사회적인 소개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아울러 실험을 잘 총화한 기초상에서 조속히 교육용기초한자, 한자어선정기준집필진영을 뚫고 금후 몇년내에 우리의 실제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조한문자혼용교수방안을 세워야 하며 조한문자혼용교수방법을 실천속에서 계속 탐색해야 한다.

한자어교육은 기초교육상용한자 선정방안에 따라 한자를 보이는 병용식이거나 과외한자교육을 각 학과목교수와 결합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그 어느것의 선택이나 실체로부터 출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조선족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사고

MULTIANGULAR THOUGHT ON
BILINGUAL EDUCATION OF KOREAN
NATIONALITY IN CHINA

연변대학 박태수

Bak Tae-su

Yanbian University.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언어와 사유, 언어와 심리, 언어와 사회, 언어와 정보(信息), 언어와 민족간의 관계에 대한 리론에 기초해 조선족이 중언어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마땅히 주의를 돌려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를 지적함과 아울러 연구방법과 해결방도를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based on the theory of relationship of language and thinking, language and psychology, Language and infomation, Language and society and language and nationalities, analyzed reality of bilingual education of Korean Nationality and pointed out several important problems,to which attention must be paid, and recommended their solutions.

이중언어문제는 세계성문제로서 이는 비단 언어학과 사회학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일뿐만 아니라 교육학과 실리학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특히는 당면 우리 나라 소수민족교육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하고도 복잡한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중요하다고 함은 그것이 비단 민족교육사업의 발전에 관계되는 문제일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이를 복잡하다고 말함은 언어문제 그것 이외에도 기타 많은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에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중언어교육은 소수민족교육의 기본특점으로서 소수민족교육의 기타 여러가지 특점과 많은 문제점들은 바로 여기에 의해서 파생된 것들이라는 것을 점차 더 심각히 느끼고 있다. 하여 이 몇년래 조선족교육일군들은 조선족 이중언어교육에 대해 아주 큰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이중언어교육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여러 면의 조사연구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일련의 개혁조치를 내여 일정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1988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민족교육개혁판공실이 성립된 이래 우리 민족교육의 특점과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이중언어교육개혁을 중심으로 하고 기초교육의 질제고를 목표로 하여 진행된 정체적개혁실험은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필자는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와 개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개 방면으로부터 천박한 견해를 이야기하려 한다.

(1)언어는 사유의 《물질적결웃》 혹은 《물질적외각》으로서 사유의 직접적인 현실이다^①. 언어는 사유의 담당자일뿐더러 사유의 체현자로서 언어는 사유의 발전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당면 동북3성 산재지구의 적지 않은 조선족학교에서는 생활언어가 불안정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조선족학생들의 사유와 각종 능력발전에 영향주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되고 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심지어 학급회의에서 하는 발언에서도 거의 한자를 쓰지만 교수용어는 조선어이기에 학생들은 실내수업에서

두가지 언어의 교란을 받아 반응이 더디고 리해력이 차하다. 하여 교수질에 영향을 준다. 이는 적지 않은 조선족학생들이 한족학교에 가 공부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된다. 이러한 정황은 도시와 편僻한 농촌에 산재해있는 조선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더 엄중히 반영되고 있다.

연변지구의 일부 기능공학교, 직업중학교의 교재와 교수용어에도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 예하면 일부 전업교재는 한어문이지만 교수용어는 조선어로 하고 판서는 또 한어문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학교에서는 조선족과 한족을 한데 모여놓고 한어로 교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다 조선족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과 사유능력의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산재지구에서는 민족유치원과 학전반을 잘 꾸려 좀 일찍 민족언어로 교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조선족학교교수에서도 단계를 나누어 다양한 교수용어형식을 취함으로써 언어가 진정으로 사유의 담당자와 체현자의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중국의 조선족학교에서 한어는 하나의 목적어로 사용될수 있을뿐만 아니라 교수용어로도 사용될수 있다. 이 역시 언어를 배우는 적극적인 수단이다.

(2) 인간의 사유는 언어적인 사유이다. 인간은 현실에 대한 반영과 표달에서 모두 언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언어행위란 곧 언어에 대한 개체의 실제적 장악과 운용행정을 가리킨다^⑨. 이에 인간은 언어에 대한 감지, 이해, 헌습, 공고, 표달, 활용 등 복잡한 행정이 수요된다. 그러므로 언어의 습득과 배움은 또한 복잡한 심리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느때부터 제2언어를 배우는것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는 심리학범주에 속하는 문제로 된다. 당시 기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국제, 국내에서 의론은 분분하였지만 지금 옳고 그름을 가르기 곤난하다. 유네스코에서도 두차례나 되는 전문성국제회의^⑩를 소집하였지만 의연히 만족스러운 답안을 찾지 못했는데 이는 바

로 이 문제의 복잡성을 설명한다.

심리언어학은 신경심리학각도에서부터 언어학습의 여러가지 《린접기간》(《관전기간》 혹은 《가장 좋은 기간》이라고도 함) 리론을 제기하였다. 이 리론에 의하면 청춘기가 시작되기전에 사람의 데뇌는 인내성 혹은 《가소성》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언어학습활동에 더 적합하다고 한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언어중추의 가소성은 점차 감소되다가 나중에는 소실된다. 각종 언어능력에도 다 자기의 《린접기간》이 있다. 그러나 어떤 언어능력의 린접기간은 짧지만 어떤 언어능력의 린접기간은 길다. 예하면 언어능력의 린접기간은 짧고 어법능력의 린접기간은 길다.

설천이 증명하는바 성인은 제2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아동보다 곤난이 더 많은데 특히 어음을 배움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한 견해에는 두가지 부동한 관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학습에서 환경이 중요하므로 가장 좋은 년령단계라고 하기보다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것이 낫다고 인정한다. 어떤 사람은 또 제2언어학습이란 각도에서 볼 때 가장 좋은 년령단계를 찾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한 년령단계의 사람들이 언어를 학습하는 특점을 이해하는것이라고 인정한다. 장점을 리용하고 단점을 미봉하고 며 경제적으로 제2언어교수를 조직하려면 어느 년령부터 배우는가를 볼것이 아니라 학습에서 시간을 얼마 들였고 그 시간을 어떻게 리용하였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③.

조선족학교의 한어파를 어느 학년부터 설치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7차의 변경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1학년부터 설치하고 있다. 이는 40여년래 조선족학교한어교수의 실천경험과 중국조선족교육에서 한어문파가 차지하는 특수지위, 역할 및 특수한 언어환경에 근거하여 제기한것인데 일정한 도리가 있다. 만약 우리가 부동한 언어능력에 부동한 린접기간이 있다는 리론과 부동한 년령의 사람들이 언어를 학습하는 특점이 있으며 또 한어문교재의 편찬과 각 학년의 교

수에 부동한 중점, 난점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돌린다면 우리는 실험에서 꼭 성공할 것이다. 금후 조전이 구비되면 우리는 또 학령전아동에 대한 이중언어 혹은 삼중언어 교수실험도 할 수 있다. 물론 이중언어교육과정에서 사회심리요소를 흘사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일종 언어를 장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그(남 혹은녀)가 그 군체를 확인하는 념원과 학습자의 동기, 수요와 더 많이 관계된다》⁶⁾고 하기 때문이다.

(3) 언어는 교제도고로서 일종 사회적현상이다. 일종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언어는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경우에 지리환경, 인구 및 가정구성, 경제조건, 정치상황(특히는 민족정책), 사회심리(주요하게는 언어태도, 군체를 인정하려는 념원과 수요) 등 여러가지 요소의 제약과 영향을 받게 된다. 언어에 대한 정치와 경제요소의 영향과 제약을 사람들은 비교적 심각하게 체험하고 비교적 옳바르게 인식하고 있지만 흔히 기타 요소를 흘사하거나 중요시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전원회의 아래 우리 당은 민족사업에 대한 방침과 정책을 재천명하였거나 다시 제정하고 우리 나라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가운데 민족문제에 대한 해당 법률성조목을 냈다.

이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의 정면과 반면의 경험을 총화한 토대위에서 이룩한 성과로서 우리가 민족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법률적의거로 된다.

그러나 몇십년래의 민족사업의 기본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다 싶어 당과 국가의 각항 방침정책을貫철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본 민족의 실정과 결부시켜야 한다. 우리는 조선족교육질천가운데서 이중언어교육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연구해야지 《한 칼에 똑같이 배듯이》 하여서는 안되며 더구나 감정적으로 일 을 처리하여서는 안된다는 도리를 인식하게 되었다.

예하면 연변과 동북3성 산재지구의 적지 않은 조선족학생들이 한족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문제이다. 일부 학생들이 민족언어를 상실하는 문제는 지금 엄중할뿐더러 약간년후이면 더 엄중해질 것이다. 여기에는 비록 민족정책을 시달해야 할 등 요소가 존재하지만 그중 조선족거주환경의 변화, 인구의 휴동, 가정의 변화, 사회적심리 요소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집양의 서탑구와 할빈의 도리구는 이전에 조선족이 비교적 집거된 지구로 알려졌다. 그러나 몇십년의 변천, 특히는 이 몇년래 도시건설에서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후부터 원래 집거해있던 조선족들이 이미 분산되어 한족주민구역에 이사갔다. 이러한 변화로 하여 언어사용면의 변화(주요하게는 자녀)가 초래되었는데 이 지역의 민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와 가정구성, 가정언어사용정황의 변화도 한개 원인으로 된다. 조선족인구의 장성은 빠르지 않지만 세대수효는 적지 않게 불어났다. 조사에 따르면 흑룡강성 밀산현의 밀산진에는 《문화혁명》전에 조선족가정이 400여세대 있었지만 지금 600여세대로 늘어났어도 인구는 얼마 불어나지 않았다. 도시에서 3대나 4대가 함께 사는 집이나 인구가 5~6명 혹은 7~8명 되는 가정이 감소되고 인구가 3~4명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재지구의 도시가정에서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선어를 사용하고 35~50세 되는 사람들은 조, 한 이중언어를 사용하며 30세좌우의 사람들은 대부분 한어를 사용하는데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유치원학생이나 소학교저급학년학생들의 학부형들이다. 산재지구의 도시 가정에서 어린이가 한어를 사용하면 부모는 조선어, 한어 두가지 언어를 사용한다. 조선족이 비교적 집중된 농촌거주민들의 제1언어는 아직도 본민족언어이지만 한족지구에 산재해있는 가정에서 어린이(특히는 대도시)의 제1언어는 실제상 한어이다.

『자녀가 우세적언어를 배우게 부모가 도와주는 것은 장래 생활

에서 기지를 받지 않고 사회지위를 높이게 하기 위함이며, 자기 자식이 본지구에서의 생활능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⑩ 그러므로 사회언어학가들은 언어환경과 언어태도가 시종 이중언어제도화에서 사람들이 어느 언어를 배우거나 어느 언어를 선택사용하겠는가 하는것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인정한다.

때문에 우리는 민족교육개혁, 특히 이중언어교육개혁에서 상술한 해당 요소에 주의를 돌리고 고려해 보아야 하며 또한 우리의 대책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오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4)언어는 일종 부호계통이며 또한 일종 정보운반체이다. 정보계통으로서의 언어는 개혁, 개방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며 정보시대는 세계를 작게 변화시켰는데 《세계는 실제상 지구촌》으로 되었다. 상품경제의 발전, 개혁의 심입 및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민족과 민족사이, 지역과 지역간의 계선이 이미 타파되고 정보가 날따라 특수하고도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기본상 한어문으로 정치, 과학기술, 문화 등 면의 대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어문을 정보전달의 주요언어정보운반체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조선어문과 기타 외국어문이 정보운반체역할을 논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직접 외국어로 정보를 접수할 수 있지만 범위가 제한되고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였으며 본민족의 언어문자로 가장 쉽게 최대의 정보량을 전달할수 있지만 번역행정이 수요된다. 이렇게 되면 필경 시간상(정보는 이 면에서 극히 중요함), 재력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본민족언어를 잘 배우는 동시에 민족어문을 발전시키고 민족어문의 지위를 담보하기 위해, 조선족교원, 학생과 한족교원, 학생간에 부동한 경로(신문, 간행물, 서적, 방송, 웹비디오, 영화 등)를 통해 정보를 이해하고 접수하는 차이를 축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한어문을 장악하여야 하며 이중언어를 겸통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것은 우리는 조선어, 조선문자와 한어, 한자의 과학성과 우월성 및 두 언어, 문자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협계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한어문학습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조선문자전용과 조한문자혼용의 실험 및 대비연구를 계속하여 중국이란 이 환경속에서 이중언어를 겸통하고 우리 민족문화를 더욱 잘 발전시킬수 있는 더욱 좋은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한자의 장악정도가 우리 민족의 어문수준, 전반 문화지식수준 및 사유능력의 발전과 아주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5) 언어는 민족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서 민족문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 민족은 자기의 역사, 환경에 대한 반응의 각종 경험을 다 자기의 언어에 옹집, 침적시켰으며』^⑦, 『언어구조와 단어에서, 개념과 사상을 언어로 표달하는 능력에서 그 민족이 세계를 관찰하고 사고하는 방법이 반영되고 있다』^⑧. 따라서 언어를 통해 민족문화의 보존, 전달, 발전변화의 역사행정을 보아낼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본민족언어의 역사지위와 작용에 대해 낫게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지방(연변지구와 동북3성 산재지구를 포함)에서나 본 민족어문교수를 훌시하는 경향을 극복하기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민족어문교수를 견지하고 민족어문을 잘 배우게 하는 것은 민족교육을 꽝고, 발전시키고 민족교육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이는 우리가 몇십 년의 민족교육실천가운데서 총화해낸 귀중한 경험으로서 민족교육의 일부 법칙을 반영하였다. 이 면에서 우리는 절대 동요해서는 안된다.

본민족어문은 민족특징, 민족문화, 민족교육사업 등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는외에 이중언어교수면에서도 특수하고도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있다. 본민족어문은 비단 기타 학파를 배움에 있어서의 도구와 토대로 될뿐더러 제2언어를 배우는 토대로 되기때문

에 전반 이중언어교육의 토대로 된다. 본민족어문교수질의 좋고 나쁨은 이중언어교수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심리언어학과 학습심리학리론이 보여주다시피 본민족언어는 제2언어학습에서 이중성을 구비하고 있다. 즉 《정천이》(본민족언어가 제2언어학습을 촉진함을 가리킴)와 《반천이》(본민족언어가 제2언어학습을 교란함을 가리킴) 역할을 일으킨다. 인지심리학리론에 의하면 학습자의 인지구조(즉 학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수량 및 조리화정도 혹은 내부 인식계통을 가리킴), 학습자가 새 지식을 배울 때 원유의 지식과 현유의 인지구조를 연계시키는 정도 및 학습자의 주동성(즉 의식적으로 연계함을 가리킴)은 학습에 영향주는 3개 중요한 요소이다^⑤.

예문에 조선어문이 한어문학습에 대한 《정천이》작용을 어떻게 발휘시키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학생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여 이미 구비한 조선어문지식과 새로 배우는 한어문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데서 표현되는데 이로써 학생들이 두가지 언어의 부동한점을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며 상호간의 교란을 배제하게 해야 한다. 이중언어교수실험이 증명하는 바 본민족언어교수를 잘 할수록, 학생들의 본민족어준준이 높을수록 본민족어효과성이 더 크며 본민족어의 교란이 더 적고 한어문학습의 효과도 더 좋다. 동시에 학생들이 한어, 한자를 장악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민족어의 학습, 이해와 운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파거의 봉폐적인 조선족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교육모식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바가 없다. 그러나 조선족이중언어교육의 목표(조, 한문을 다 잘 아는 것)에 한해 말하면 중요한 문제는 이중어문시간의 비중, 순서의 배정 및 어느 때, 어느 어문에 치중하는가 혹은 어떻게 치중점을 전이시키는가 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이중언어교수를 진정 유기적이고 변증적으로 결부시켜 상호 리용하고 상호 촉진하고 상호 효과를 보게 하는가 하는데 있

다. 그러므로 조선어문교수와 한어문교수의 교재편찬으로부터 교수요강, 교수방법의 제정, 나아가서는 교원의 교수준비에 이르기까지 서로 긴밀히 맞물려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도달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수연구에서 조선어와 한어의 대비연구를 시종 견지해야 한다.

이중언어교육실천이 증명하는바 소수민족학생들이 한어를 배움에 있어서 그 어려운 교수법을 취하면서 교원과 학생은 언제나 본능적으로 한어와 본민족언어의 대비를 진행하게 된다. 언어대비방법은 비단 가장 기본적인 이중언어교수방법의 하나일뿐만 아니라 이중언어교육의 전반 행정에 시종 관통되는 교수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대비는 번역과는 다르다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언어대비는 실제상 언어를 연구하는 일종 과학이며 언어교수의 토대로 된다. 우리 조선족의 조선어문, 한어문사업일군들은 조선어, 한어(어음, 단어, 어법 등이 포함됨) 대비연구방법의 토대와 실력을 갖고 있으며 응용가치가 큰 리론연구성과도 비교적 풍부하다. 우리는 반드시 조선어, 한어의 대비연구에 계속 중시를 돌려 조선어와 한어대비연구의 리론과 현대교수방법리론을 응용하여 조선어와 한어 교재를 함께 잘 편찬하여 조선족이중언어교육특정에 부합되는 교수요강과 교수계획을 제정함으로써 이중언어교육실천을 지도해야 한다.

물론 조선족이중언어교육의 정체적개혁과 그 목표의 진정한 실현은 중국조선족교육의 정체적개혁과 갈라놓을 수 없다. 예하면 사범교육을 개혁하지 않고 이중언어를 다 정통한 각 과목의 교원을 대량적으로 양성하지 못하고서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서 더 자세히 논술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중언어교육은 아직도 여러 면으로 더 연구, 탐색하여야 한다. 이중언어문제를 연구하는 어느 한 학자는 이중언어사용을 제창한이래 이중언어문제는 실제상 이미 그중 어느 한 언어를 상실하는 문제로 되었다고 지적하였다¹⁰⁾. 제7차 응용언어학국제학술회의에서는

중국조선족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사고

문화동화와 언어대비간의 상호관계문제, 이중언어사용가정의 부모의 태도가 아동의 조기이중언어사용에 영향주는 문제, 이중언어가 개성·심리의 형성에 영향주는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⑩. 이러한 문제는 조선족이중언어실천에서 이미 봉착하였거나 장래에 봉착할 문제에 속하는데 앞으로 반드시 계속 연구, 해결하여야 할바이다.

주해

- ① 주지현, 림승덕:《사유발전심리학》(한문), 북경사범대학출판사 1971년판 제342페이지.
- ② 동상서.
- ③④⑨ 계시춘:《심리언어학》(한문), 상해외국어교육출판사 1985년판 제222페이지, 제226페이지, 제242페이지.
- ⑤⑥⑩⑪《민족연구정보자료》(한문), 1986년 6월호 제10페이지, 1986년 4월호 제12페이지, 1987년 2월호 제11페이지, 1986년 3월호 제21페이지.
- ⑦ 장사초:《역사의 지평선에서》(한문), 인민출판사 1986년판 제227페이지.

연변조선족중학교 외국어교육의 현상태와 출로

THE PRESENT SITUATION AND WAY
OUT OF FOREIGN LANGUAGES
TEACHING IN KOREAN NATIONALITY
MIDDLE SCHOOLS IN YANBIAN

연변교육학원 박택룡

Bak Taek-ryong

Yanbian Educational College

〔론문요지〕

이 글에서는 연변조선족중학교의 외국어교육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들을 분석하고 교원양성과 재직연수를 강화할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발전방향의 선택에서 마땅히 영어위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과 연변의 실정에 비추어 일어의 일정한 비례를 유지하고 로어도 적당히 설치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mainly analyzed major problems in foreign languages teaching in Yanbian Korean Nationality middle schools and suggested teachers' training and in-service refreshment. The author recommended, in regard to the orientation of future development, the English language take the leading position and at the same time, starting from the reality in Yanbian, the Japanese language continue taking a certain proportion and the

Russian language be taught in some schools.

외국어교육은 우리 연변의 조선족중학교언어교육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개방화, 국제화의 시대적 안목에서 보면 민족교육에서의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뚜렷해지고 있는 바 지역적 체한성을 벗어나 국제무대에서 활약할수 있는 조선족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외국어교육이 이바지되어야 함은 더 의심 할바 없다. 두만강삼각주개발이 우리 연변의 조선족들에게 점차 현실로서 점근해오는 상황에서 조선족중학교의 외국어교육현상태를 점검하고 그 출로를 찾는것은 매우 현실적의의를 가지는 일이라 할수 있다.

1

60년대초기에 연변의 조선족중학교에서는 당시의 역사적조건과 지리적환경에 의해 로어파를 설치하였고 70년대후기에 와서는 국제관계의 변화와 연변의 교원상황에 근거하여 대다수의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서 일본어학파를 설치하였다. 80년대초기부터는 부분적 학교에서 일본어외에 영어파도 설치하였다. 본격적으로 외국어학파를 설치한것은 80년대초기부터이며 일본어와 영어가 비례상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학교들에서 동시에 설치하였다. 현재의 정황으로부터 보면 조선족중학교에서 일본어를 설치하는것과 영어를 설치하는것이 병진하는 상황이 금후 일정한 기간 지속될것으로 예견된다.

2

중학교의 다른 학과목에 비하여 외국어학과목은 연변조선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학과목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새로운

학과목인 까닭에 실제 교육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다.

70년대 말기부터 80년대 중기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조선족 중학교의 외국어 교수를 담당한 교원들은 그 절대 다수가 30년대와 40년대에 일제의 노화교육에 의해 일본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로교원들이였다. 전 연변의 530명 외국어 교원들 가운데서 그들이 90% 좌우를 차지하였다. 년령을 놓고 말하면 그들은 모두 60세 좌우의 로교원들이였지만 외국어 교수 경력을 놓고 말하면 근근히 5~6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외국어 교육에서는 로교원이라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바로 그들이 연변 조선족 외국어 교육에서의 공신들이였다.

조선족 중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외국어 교원 대 오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역사적 원인과 교원 양성에서의 계획성의 부족으로 단종이 생기게 되었다. 교육 행정부문의 배려와 로교원들의 노력으로 연변 각지에서는 20대의 청년 교원들이 성장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초기에 청년 교원의 수가 전반 외국어 교원수의 10%밖에 되지 않았으나 몇년 후에는 30%에 도달하게 되었다. 약 7년이 지난 후 80년대 말에 들어서서 로교원들이 륙속 정년 퇴직하게 되자 90년대 초에 와서는 청년 교원들만 남게 되었다. 하여 40대와 50대의 외국어 교원이 거의 없다 싶이 되고 30세 좌우의 청년 교원들이 절대 적우 세를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면의 외국어 교육을 놓고 말하면 불리한 면이 있지만 장원한 관점으로 보면 유리한 면이 더 많은 것이다. 문제는 이 청년 교원들의 학력과 교수 수준이 어려가 하는 것이다.

연변조선족중학교 외국어교육의 현상태와 출로

이 근근히 5%밖에 되지 않으며 대학외국어통신학부졸업생이 15% 좌우가 되며 단과졸업생이 5%, 중등전문학교 일본어과의 졸업생이 25%좌우가 된다. 그외의 외국어교원은 전부 고급중학교졸업생으로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서 배운 외국어밀천으로 중학교외국어교수에 종사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어교원가운데의 근 75%되는 사람이 상용한 학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이다. 이는 연변의 외국어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 있는가에 적절 관계되는 큰 문제로 나서고 있다. 대학입시와 고급중학교입시성적이 해마다 저하되는 원인가운데의 하나가 교원들의 낮은 학력과 교수능력의 저수평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원인을 해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젊은 세대들의 자질을 높여 주고 교수능력을 제고하게 하겠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 연변의 530명 외국어교원가운데서 고급직함을 가진 교원이 영어파에 2명, 일본어파에 1명밖에 없다. 이는 놀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연변의 외국어교육이 어떤 상태에 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어교원들의 자질을 높혀주고 교수능력을 제고하게 하는것이 당면 연변외국어교육에서의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외국어교원을 양성하여 재보충하는 한편 재직연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단기, 장기연수반을 꾸리거나 교수법연구센터를 세운다든가 등등 여러가지 방도를 데여 교원의 실력을 높여야 하며 새로운 교수리론, 새로운 교수모식을 제때에 도입하고 탐구함으로써 외국어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연변에서 외국어학과목의 어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대부분 학교에서 일본어를 선택하고 일본어를 전수하여왔다. 이것은 당시 조

전하에서 형세에 적응하기 위해 취한 응급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입학시험에 외국어가 시험과목으로 결정되고 조선족들도 외국어시험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때의 연변의 정황을 놓고 말하면 로어교원이나 영어교원은 물색하기 힘들었지만 일본어교원을 찾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또한 어종관계를 놓고 말하면 조선어와 일본어는 한개 어계에 속한다는 확실한 결론은 없지만 비슷한 점이 많아 조선족학생들이 배우는데 유리한 점이 많았다. 이것이 당시에 일본어를 외국어학과목으로 선택한 원인이였다.

외국어교육에서 어종선택방향은 한개 나라, 한개 지역에서의 당면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결정할것이 아니라 그 언어의 국제적지위와 교제성능의 대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싶이 영어는 바야흐로 국제어로 등장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성언어인 영어를 배우는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연변의 조선족중학교외국어교육에서 영어를 위주로 하고 지리적환경과 연변의 외국어교원대오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일본어와 로어를 적당한 비례로 배정해야 한다고 여긴다. 지금 조선족학교에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 20%,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이 80%인데 금후 몇년 내에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 60%,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과 로어를 배우는 학생이 40%좌우로 되게 하여 점차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 차지하는 비례가 70~80%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어교육에서의 어종선택에서 국제적지리환경과 그 민족자체의 교육상황의 실체를 면나 단일성만 추구하는것은 편면적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 사범교육에 대한 사고 THOUGHT ON TEACHERS TRAINING EDUCATION OF OUR NATIONALITY

연변대학 천홍범

Cheon Hong-beom

Yanbian University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조선족사범교육의 발전력을 서술하고 금후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입학생의 질답보, 학제의 연장, 류형별 교원양성기지의 건립, 재직교원훈련중심의 설립, 민족의식교육의 실시, 사범생 지식면의 확대, 사범생전업훈련의 강화 등을 제기하였다.

This paper elaborated the history of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ty teachers training education and suggested measures for further development such as guarantee of qualifications of newly admitted students, extension of period of schooling, establishment of teachers training centers of various classifications, and teachers inservice trainig centers, implementation of education of nationality consciousness, extension of knowledge of students of teachers training schools, and strengthening their specialty training etc.

교육의 발전 그리고 학생의 학습질은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우리 민족 교육연구에서 사범교육은 하나의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되여야 한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 교육연구에서 사범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거시적인 연구가 거의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21세기를 대상하여 조선족교육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민족사범교육의 개혁과 발전이 앞서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따라서 민족사범교육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발해져야 할것이다.

1

사범교육의 임무는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사범교육체계의 건립과 대규모적인 발전은 최근 백여년래의 일이다. 정규적인 사범교육은 현대교육의 산생과 발전에 따라 산생하고 발전하였다. 현대생산의 발전에 따라 선진국가에서는 19세기중엽으로부터 선후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여 적령아동의 입학률이 높아졌고 교육대상이 확대되어 교원에 대한 사회의 수요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사회적수요에 의해 중등사범학교가 산생되고 발전되었다. 소학교교육의 보급은 중학교교육의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중학교교육의 발전은 고등사범교육기관인 사범학원의 발전을 촉진하였면바 그의 대발전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있었다.

중국의 조선족은 조선에서 천이해온 민족이다. 조선은 근대에 와서 그 발전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라들에 비해 물시 뒤떨어졌다. 조선은 1886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근대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후 1895년에 정부에서 《사범학교령》을 반포하고 근대교육에 수용하기 위해 교원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사범학교령》에 의하여 처음 세워진 사범학교가 한성사범학교였다. 이 때로부터 조선의 정규적인 사범교육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민족 사법교육에 대한 사고

조선이 이려하였으니 중국조선족의 사법교육이 어떠하였겠는가는 가히 상상할수 있을것이다. 1906년 근대학교인 서천서숙이 통정에서 창립되었다.

서천서숙의 뒤를 이어 조선의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영향하에 반일성격을 띤 민족사립학교가 중국의 조선족거주지역에서 우후죽순마냥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교원에 대한 민족사회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였다. 하지만 전민족이 일떠나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구국이 암도적인 정치임무로 나선 당시의 사회역사환경에서 우리 민족교육은 정치계몽에 치중하지 않을수 없었다. 당시에는 민족사법교육에 대해서 크게 고려할 여가가 없었다.

그런데 중화민국정부에서는 이 기회에 자기의 정치적수요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족교원을 양성하는데 중시를 돌렸다. 민국정부는 1914년에 연길현 간민훈장강습소를 꾸렸다. 1917년에는 도립사법학교에 간민교원강습과 한개 학급을 부설하고 간민부교원(垦民副教员)을 40명 모집하여 조선족소학교교원으로 양성하였다. 그리고 1927년에 길림성립제4사법학교에 간민교육강습소를 설치하였으며 해마다 조선족학생 100명씩 모집하여 조선족소학교교원을 양성하였다.

그후 일제(日帝)강점시기인 1933년에 원래의 길림성립제4사법학교는 길림성 국자가사법학교로 고쳐졌고 1938년에 와서는 국립간도사법학교로 개편되었다. 민국시기 길림성제4사법학교는 한족사법학교였다면 일제강점시기 이 학교는 개편을 거쳐 점차 일본제국주의의 노화교육을 위한 조선족소학교교원양성기지로 되였다. 연변 이외 할빈제2사도학교, 목단강사도학교, 길림사도학교, 통화사도학교, 류하사도학교, 봉천제3사도학교 등 한족사도학교에서도 얼마간의 조선족학생들이 사법교육을 받았다.

이상에서 알수 있는바 청조말기, 민국시기, 일제강점시기에 우리 민족의 사법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민족사법교육의 산생과 대발전은 해방 이후에 있은 일이다.

해방이 되자 일제시기에 억눌리웠던 우리 민족의 교육열의는 충천할 정도였다. 이런 열의로 하여 우리 민족 거주지역에서 군중성적인 학교설립운동이 일어나 촌마다 소학교가 있게 되었고 구(지금의 향)마다 중학교가 있게 되었다. 해방초기 조선족학교의 대다수 교원은 일제강점시기에 노예교육에 종사했던 지식인 혹은 기타 직종에 있었던 지식인들이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 중소학교교육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교원들이 민족교원대오에 보충될것이 수요되었다. 이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교육에서는 비정규적인 사법교육과 정규적인 사법교육을 병행시켰다.

비정규적인 사법교육: 1946년부터 전국전까지 방학을 이용하여 중소학교 교원강습반, 교원훈련반을 현속적으로 조직했으며 또 학제가 6개월인 단기적인 교원훈련반을 꾸려 중학교에 부속되는 교원을 양성하였다. 이런 조치를 대였기에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수질서가 담보될수 있었다.

정규적인 사법교육: 연변에서는 해방이 되자 즉시로 위만시기의 간도사도학교를 접관하고 개조하여 우리 말로 교수를 진행하는 민족중등사법학교——연길사법학교(후에 연변사법학교로 개칭)를 창립하였으며 1950년도에는 소학교한어교원이 수요되는 정황에 근거하여 연변한어사법학교(당시는 연길현어문진수학교였음)를 설립하였다(지금 이 두 학교는 합병되어 연변제1사법학교로 되었음).

흑룡강성에서는 1948년에 송강성조선족사법학교(지금의 흑룡강성오장조선족사법학교)를 창립하였고 료녕성에서는 1952년에 청원조선족사법학교(지금의 료녕성조선족사법학교)를 창립하였다. 그 외 일부 조선족중학교에서도 사법부를 부설하고 소학교교원을 양성하였다.

조선족중등사법교육은 발전의 길에서 민족교육에 커다란 기여

우리 민족 사법교육에 대한 사고

를 하여왔다.

연변제1사법학교에서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중등사법생 1,133명, 유아사법생 427명, 한어사법생 349명, 민영사법생 749명을 양성하였다.

흑룡강성 오상조선족사법학교에서는 1978년부터 10여년 사이에 중등사법생 1,496명, 단과생 464명, 고등사법학교통신생 110명, 중등사법학교통신생 1,550명을 졸업시켰다.

로녕성조선족사법학교에서는 1978년부터 중등사법생 971명, 중등사법통신생 1,184명을 양성하였다.

소학교교육의 보급에 따라 중학교교원의 태원문제가 돌출하게 제기되었다. 1949년에 창립된 연변대학에서는 동북지구 조선족중학교교원에 대한 대량적인 수요에 만족주기 위하여 1950년에 문학부와 리공학부를 합병하여 4년제 사법학부로 고치고 정치, 조선어문, 역사, 지리, 로어, 수학, 물리, 화학 등 전공학과를 설치하였으며 1951년도에는 2년제 사법전문학과를 증설하였다. 40여년래 연변대학에서는 1만 7천여명의 조선족중학교교원과 민족간부를 양성하였다.

교육이 정구화궤도에 오른후 우리 민족교육은 재직교원의 자질제고에 대해서도 커다란 중시를 둘렸다. 연변대학에서는 1956년부터 고등사법통신학부를 설치하였는데 40여년래 동북3성과 내몽골 조선족중소학교의 재직교원 1만여명의 학력수준을 높였다. 그외 민족집거지구인 연변에서는 교육학원, 교원연수학교를 세웠고 산재지구에서는 교육학원과 교원연수학교에 민족교육연수부를 두어 조선족중소학교교원들의 자질을 높였다.

이상에서 서술한것이 우리 민족의 정규적인 사법교육이다. 보는바와 같이 해방후에 사법교육을 시종일관하게 중시함으로서 우리 민족교육은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50년대에 이미 소학교교육이 보급되었다(연변은 1952년에, 료녕성은 1954년에, 흑룡강성은 1957년에 보급).

초급중학교는 1958년에 연변과 조선족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산재지구에서 보급되었고 현재는 완전히 보급되었다.

고급중학교도 초급중학교의 보급에 따라 상응하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각종 류형의 중등전문학교, 직업기술학교, 성인학교가 상당하게 발전하였다.

고등학부로는 연변대학을 비롯하여 연변의 학원, 연변농학원, 길림성예술학원연변분원 등 민족성을 맨 고등학부가 있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농민대학——여명농업대학도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우리 민족교육에서 사법교육의 작용이 잘 발휘되었기에 우리 민족교육체계 즉 소학교교육으로부터 대학교육, 비정규적인 교육으로부터 정규적인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체계가 순리롭게 형성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우리 민족 인구의 문화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우리 민족의 자질도 크게 높아졌다.

2

해방이래 특히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제11기 3차전원회의 이래 우리 민족교육은 전례없는 발전을 가져왔고 또 가져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혁개방이후 특히는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への 전환시기 즉 신구체제의 전환시기에 처한 오늘에 있어서 우리 민족교육은 과거의 우세가 점차 소실되고 질적제고가 상대적으로 금떠가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국면을 타개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법교육이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다면 우리 민족사법교육은 금후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

(1) 민족중등사법학교, 고등사법학교에서는 우수한자를 선택하는 것과 추천자를 접수하여 입학시키는 제도를 결합하여 입학생의 질을 담보해야 할뿐만 아니라 학생레원의 분포를 합리하게 해야 한

다.

지금 초중, 고중의 1~2류 졸업생들이 민족사법학교나 사법성을 띤 민족대학에 지원하여 하지 않는게 이런 상황이 개별되어야 한다. 교육행정부문과 중학교의 지도자 및 교원들은 우수한 졸업생들을 민족중등사법학교, 고등사법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고 중등, 고등 사법학교에 선책여지가 있게 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을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려해야 할 문제는 학생래원의 분포를 조절하는 문제이다. 우리 민족교육의 중점과 난점은 농촌에 있다. 즉 어떻게 농촌중소학교의 교육질을 제고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둘출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금 도시와 농촌의 기초교육의 질차이는 현저하다. 도리대로 말하면 도시와 농촌학교의 질차이가 작아져야 하겠는데 근년에 와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그 차이가 현저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민족사회의 마땅한 중심을 일으켜야 할 문제이고 특히 민족교육분야에서 고도의 중심을 돌려야 할 문제인 것이다.

도시와 농촌학교의 질차이가 생기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농촌중소학교에 학력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자질이 낮은 교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개변시키려면 사법류입학생의 질을 담보하는 전제하에서 중학교의 학생을 추천하는 제도를 취하고 그들이 졸업한후에 제고장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

(2) 민족사법교육의 학제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생산력과 과학기술의 진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보급에 따라 중소학교교원에 대한 질적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농촌과 산재지구의 학교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기에 한 교원이 여러 개 학년에서 같은 학과의 교수임무를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사회적 수요와 민족교육의 실체로부터 보면 우리 민족사법교육에서 《통재(通才)》식 교원을 양성하여 농촌과 산재지구 민족교육의 수요에 만족주어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통재》식 교원을 양성하자면 민족사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법학교의 학제가 한족사법학교보다 좀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각급, 각 류형의 조선족학교교원을 양성하는 기지가 구전하게 마련되어여야 한다.

현재 조선족교육에서 소학교와 보통고등의 교원을 양성하는 기지(基地)는 비교적 구전하지만 소학교한어교원, 초급중학교교원, 직업중학교전공파교원 등을 양성하는 기지는 결여되었거나 구전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를 가급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① 소학교한어교원을 양성하는 독립적인 기지가 있어야 한다. 연변제1사법학교에서 모집하는 한어사법반으로서는 오늘의 현실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한어사법학교를 회복하여 독립적으로 꾸려야 한다.

② 초급중학교교원을 양성하는 기지가 구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당면에 우리 민족의 사법교육에서 큰 문제로 되는 것은 초급중학교교원양성기지가 구전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연변의 농촌중학교와 산재지구의 중학교에는 대량의 사법전문대학학력을 가진 교원이 수요된다. 이런 정형에서 만약 초중교원양성기지가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초중교육의 질제고에 영향을 줄것이며 고중단계의 여러 특형 교육의 질제고에도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③ 직업중학교의 전공파교원을 양성하는 기지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민족교육에서 직업중학교의 전공파교원을 양성하는 기지가 없는것이 큰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전공파교원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연변대학에서는 전업면을 넓히고 새로운 전업을 충설하여 주동적으로 중등교육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변의 학원과 연변농학원에서는 사법반을 설치하여 중학교생물교원과 농촌직업중학교 농림전업교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④ 사법단과학력을 가진 조선족소학교교원을 양성하는 기지가 예견성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생산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유치원

우리 민족 사법교육에 대한 사고

교양원과 소학교교원이 대학학력을 가질것을 요구하는바 이는 세계 교육발전의 추세이다. 물론 이 면에서 우리의 기점은 낮으나 지금부터 예견성있게 그 기지를 마련하여 앞으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높은 질을 담보해야 할것이다. 이 기지는 오랜 고등사법교육의 혁사를 가지고 있는 연변대학에 마련되는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4) 전 동북적으로 조선족중학교 재직교원훈련중심을 세우고 조선족중학교의 골간교원, 사법학교교원, 직업기술학교교원(전업파교원을 포함)에 대한 훈련임무를 맡아야 한다. 하여 재직교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을 부단히 흡수하여 지식체계와 지식구조가 사회 발전과 사법교육의 발전추세에 적응되게 해야 한다.

(5) 민족의식교양을 진행하여 사법생들의 민족의식을 높여줌으로써 민족후대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법생들에게 있어서 민족의식은 민족의 후대들을 잘 교양할 수 있는 하나의 힘으로 될수 있다. 때문에 우리들은 사법생들에게 대한 사상정치교양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식에 대한 교양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사법생들로 하여금 민족교육 사업을 더욱 열애하게 할수 있고 민족교육사업에 종사할 신념을 더욱 굳게 해줄수 있다.

(6) 사법교육에서 기초과교수를 강화하고 사법생들의 지식면을 넓혀주어야 한다.

우리 사법생들의 기초지식 장악여하는 금후의 교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사법생들에게 기초리론, 기본지식, 기본기능을 잘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 이해야만 그들이 자체로 지식을 개신할수 있고 부단히 새것을 배워낼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법생들에게는 지식구조가 단일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발전추세에 부합되지 않는다. 사법교육과정계획에 선택과를 증설 한다든가 전문제목특집강좌를 조직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방식으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로 사법생의 지식면을 넓혀주어 현대교육발전의 수요에 적응되도록 해야 한다.

(7) 경상적으로 교육전업훈련을 강화하여 사법생들의 실무자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교육전업훈련은 사법정학교가 기타 부류의 학교와 구별되는 주요한 표징이다. 고등, 중등사법학교의 교육전업훈련에는 교수참관, 교육겸습, 교육실습, 교육과학연구 등이 포함된다. 우리 민족 사법생들에 대한 교육전업훈련을 강화하여 교수능력, 교육관리능력, 교육과학연구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모두어 말하면 거시적, 미시적 면에서 우리 민족의 사법교육을 잘 꾸려야만이 합격된 교원을 양성할수 있고 민족교육사업을 위하여 둔튼한 토대를 닦아놓을수 있으며 민족학교의 교육질제고에 기여할수 있다.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ON DEVELOPMENT OF MIDDLE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OF KOREAN NATIONALITY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조운덕

Jo Yun-deok

Northeast Chin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과정을 회고하고 그 기본경험을總화했으며 현존문제와 그 주요원인을 분석하고 시장경제법칙에 맞는 운영기제와 관리체제의 건립, 자체의 특성에 맞는 발전모식의 탐색 등 금후 발전과정에서 마땅히 해결해야 할 몇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middle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of Korean Nationality and summarized basic experience and analyzed existing problems and their causes. The author also recommended several topics to be solved in the future development such as establishment of management and operational system in compliance with laws of market economy and development patterns with own characteristics etc.

중등직업기술교육은 고중단계의 농업학교, 직업학교, 기능공학교와 일반고중에 설치한 직업반 등을 가리킨다.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은 개혁개방이래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1.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

해방후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은 《두가지 교육제도, 두가지로동제도》의 정신하에서 이미 큰 성취를 거두었다. 그러나 《문화대학명》때에 이르러 중지되었거나 취소당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은 다시 발걸음을 뗄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5년 중등교육구조를 개혁할때 관한 중공중앙의 결책이 시달되고 경제체제개혁이 심화되고 사회주의적상품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은 10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일정한 규모를 갖추었다. 흑룡강성에서는 1985년에 밀산시에 처음으로 되는 조선족독립직업고등을 세워서부터 선후로 할빈시조선족제1중학교에 3년제 음악유아반(85년 3월), 해림현조선족중학교에 직업기술반(87년 3월)을 꾸렸으며 벌리현조선족중학교에서는 1986년부터 정식으로 보통중학교의 과정안에 직업기술과를 증설하였으며 연수현농업기술고중에 민족반을 시험적으로 설치하였다. 하여 직업기술교육을 받은 조선족학생수는 고중단계의 조선족학생 총수의 6%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1994년) 흑룡강성에는 밀산시, 탕원현, 영안시조선족직업고등이 있고, 할빈시에는 조선족외국어직업중학교가 있으며 조선족직업기술학교(반) 학생수는 조선족보통고중 재학생수의 18%를 차지한다.

료녕성에서는 1983년에 심양시조선족제4중학교에 직업고등반을 설치하고 《민족복장》과 《가정용전기》두개 전업학과를 설치하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고 민족직업기술교육의 첫 발자국을 뗄였다. 현재(1994년)로 병성에는 민족독립직업교중이 1개소가 있으며 재학생수는 98명이다.

길림성산재지구에서는 1985년 10월 대하구시2중에 조선족직업고중을 부설하고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길림성산재지구에는 1개소의 직업고중과 2개소의 조선족중학교에 부설한 직업반이 있다.

연변지구에서는 1979년 4월 주교육국의 《우리 주 중등교육구 조개혁과 중학교사업발전에 관한 보고》에서 직업교육을 발전시킬 때 관한 방안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9월에 주당위와 주인민정부에서는 왕청진에서 회의를 열고 직업교육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80년 길림성의 비준을 걸쳐 연길시, 도문시, 연길현, 돈화현에 기능공학교를 각각 세웠다. 1981년 5월 화룡현 통문공사에서 현지회의를 열고 교육부문과 해당 사업부문이 협력하여 농업중학교를 꾸린 현의 경험을 선전하고 농촌에서 직업교육을 발전시킬 경로를 연구하였다. 이해 전 주 각 류형의 중등직업학교 학생수의 비례는 7.2%에 달하였다. 1993년도에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직업기술학교의 학생모집수는 고중단계 학생모집수의 59.7%(한족을 포함)에 달하고 재학생수는 고중단계 학생수의 53%(한족을 포함)에 달하였다.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은 10여년의 발전과정에서 많은 보거한 경험들을 쌓았다.

1) 협합하여 직업기술학교를 꾸렸다.

조선족의 거주특점은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정한 학교 규모를 유지하고 운영효익을 높이자면 반드시 협합하여 학교를 꾸리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조선족산재지구에서는 중등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처음부터 학구를 확대하여 협합발전의 길로 나아갔다. 흑룡강성 린산시에서는 민족독립직업교중을 세운 후

련근 시, 현과 횡적 연계를 강화하여 학구를 확대하였다. 1988년부터는 폭단강시교육국의 지지하에서 전 시적 범위내에서 학생을 모집하였다. 길림성 애하구시 2중에서는 조선족직업고등을 부설하고 학생을 접안시, 통화시, 통화현, 류하현, 휘남현, 애하구시 및 쌍양현 등지에서 모집하였다. 민족지구에서는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학구계선을 타파하고 협합하여 학교를 꾸림으로써 조선족직업학교에서 학생태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력, 재력, 물력을 집중하여 사용함으로써 투자효률을 높이었으며 교육질제고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연변지구에서는 처음에 직업기술학교를 꾸릴 때 각 현, 시마다 전업설치에서 공백이 없고 만사(万事)에서 남에게 의뢰하지 않는 학교운영방식을 취하였는데 발전과정에서 전업의 중복설치로 하여 학생태원이 적어 학교규모효률이 낮았으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인력, 재력, 물력의 험비를 조성하였으며 교육질제고에도 불리한 영향을 일으켰다. 이에 비추어 주교육위원회에서는 각 현, 시의 자연자리우세, 경제특점, 교원력량, 학교시설에 근거하여 각 현, 시의 중점전업을 확정하고 해당 전업은 전 주 범위내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하였다.

잡거지구와 산재지구에서는 거주환경의 특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단독으로 민족직업고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구에서는 한족직업고등과 협합하여 한족직업고등에 민족반을 설치하고 조선족학생들이 한족직업고등에 들어가 직업기술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조선족학생들이 학교가 없어 직업기술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2) 사회의 수요에 따라 형편하고도 다양한 학교운영방식을 취하였다.

로동력시장의 수요는 곧바로 직업기술교육의 동력이며 로동력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직업기술교육의 목적이다. 조선족중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등직업기술학교에서는 시장의 수요에 근거하여 장기, 중기, 단기 및 기타 여러가지 형식을 취하여 각종 류형, 부동한 충차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재시장의 수요에 만족을 주었다.

학교관리체제에서 정부에서 모든것을 끌어안고있던 작법을 개혁하여 정부, 기업, 업종, 사회, 개인이 학교를 꾸리는것을 결합시켜 여러 부문에서 협력하여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직업기술교육에 활기를 부여하였으며 전방위적인 개혁과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3) 여러 경로로 집금하여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켰다.

민족중등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단순히 정부의 투자에만 의존한것이 아니라 학교기업을 경영하고 외자를 유치하여 공장, 기업과 협계를 맺고 유상복무(有償服務)를 실시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집금하여 자금난을 해결하였다.

4) 교수질제고에 힘을 기울였다.

직업교육의 생명력은 교육질에 있다. 민족직업기술학교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종 교수질을 제고하기에 노력하였다. 민족직업기술학교에서는 교수질제고를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금을 모아 교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었고 수준이 높은 교원을 초빙하여 교수를 담임하게 하였다. 예하면 삼양시실험직업중학교에서는 삼양대학, 삼양사범대학, 료녕대학, 동북대학 등 대학교에서 강사, 교수를 초빙하여 교수를 담임하게 하였다. 또한 외국과 합작하여 학생을 국외에 연수보내는 방법으로 학습질을 제고시켰다. 훈춘시직업고중에서는 로씨야와 협계를 맺고 우수한 로어전업학생들을 선발하여 외국에 연수보내도록 학생들의 학습질을 제고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창조하였다.

2.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은 10여년의 발전을 거쳐 이미 일정한 성취를 이루하였다. 그러나 다른 민족, 다른 지구에 비하면 아직도 그 발전속도가 떠디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을 제약하는가?

1) 경제발전의 제약을 받는다.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절대 대부분이 자연조건이 차하고 중심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경제발전의 기반이 낮고 경제 구조가 단일하여 대, 중형기업소가 거의 없다싶이하다. 최근년래 민족지구의 향진기업이 일정한 발전을 가져왔으나 그 발전속도가 떠디고 규모가 작다. 연변지구의 정황을 보면 향진기업소가 49,804개 소가 있는데 종업원수는 129,290명밖에 안된다. 민족지구의 기업은 발전속도가 떠디고 규모가 작을뿐만아니라 기술수준도 뒤후하다. 아직도 전통적이고 뒤후한 기술이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향진기업을 보면 기본상에서 기술적요구가 높지 않은 교통운수법, 상업음식업, 봉사업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변지구의 향진기업소중에서 상출한 업종의 기업소가 향진기업총수의 62%좌우를 차지한다. 농업생산은 생산책임제를 실시한후 가정을 단위로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연변지구의 농촌정황을 보면 농업과학기술옹용률은 근근히 26%밖에 점하지 못한다. 민족지구의 경제발전속도가 떠디고 발전수준이 낮기에 취업의 기회가 적으며 경제발전중에서 과학기술이 일으키는 작용이 크지 못하다. 때문에 과학기술의 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수요도 박절하지 않다. 따라서 과학기술교육도 중시를 받지 못하며 수요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도 크지 않다. 거기에 자금난, 교원부족 등 원인으로 하여 직업기술교육은 부진상태에 처하여 있게 된다. 직업기술교육이 침체상태에 처하여있기에 응용성, 실용성인재가 결핍하고 로동자들의 과학기술자질이 낮고 새로운 기술, 정보를 수입하고 소화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생산효률이 높지 못하고 경제발전이 저애받게 된다. 상술한 민족지구의 경제발전과 교육발전의 악성순환은 경제발전을 저애할뿐만 아니라 직업기술교육의 진일보 발전을 제약한다.

2) 직업기술학교운영에서 직업기술교육의 특점과 우세를 살리지 못한다.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직업기술교육의 법칙과 특성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직업기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연히 정규적인 보통교육의 운영모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농업고중의 부진상태가 이 점을 충분히 증명한다. 조선족지구에서 농업고중을 꾸리는 과정에 보통교육의 모식에 따라 정규적인 장기학제를 실시하고 교육내용, 전업이 농촌실제와 탈리되었을뿐만 아니라 통일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배치하는 보통교육의 모식을 그대로 옮겨놓으려 하였다. 결과 교육의 내용, 전업이 농촌실제수요와 탈질되었을뿐만 아니라 졸업생배치에서 곤난에 봉착하자 농촌직업고중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었고 부진상태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업기술학교에서 자기의 인재우세, 기술우세를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공장, 기업과 손잡고 유상복무를 실시하고 기업도 꾸려나가야 한다. 그런데 민족직업학교에서는 기다리고 의뢰하는 사상에서 완전히 해탈되지 못하였다.

3) 학교를 꾸리는 조건이 차하다.

한 민족의 문화수준의 높고낮음, 고급인재의 수량은 모종 의미

에서는 그 민족의 생존과 관계되어 기타 민족들속에서 그 민족의 위신과도 관계된다. 하여 우리 민족은 시종여일하게 전학교육을 중시하며 학교운영조전이 보다 좋은 학교들을 계속 보통고중으로 발전시키고 전학경쟁력이 약하고 교육시설, 설비가 차하여 교원력량이 약한 2류 혹은 3류의 학교들을 직업기술학교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직업기술학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교시설, 설비가 결핍하고 뒤후하다.

직업기술학교는 역사적으로 남겨놓은 선천적부족과 경제발전수준의 제약으로 하여 교육시설, 설비가 의연히 뒤후하며 교수에 필요한 기본설비가 결핍하며 현대화설비는 더욱 결핍하다. 직업기술학교에서는 교수설비가 결핍하고 뒤후하기에 부득불 리론에 치중하게 되며 전업설치에서 많은 학교에서는 될수 있는한 기존의 설비를 리용할수 있고 자금과 기술요구가 높지 않은 전업을 선택하게 되기에 전업설치에서 중복이 많고 설치한 전업은 보편적으로 제3산업에 유관된 전업이 많고 제1, 제2산업에 관련된 전업은 매우 적다. 실험, 실습설비가 부족할 뿐만아니라 생산현장의 실제수준보다 뒤후하기에 학생들의 실제조작능력이 차하고 이미 습득한 생산경험은 생산 일선의 경험과 차이가 생기기에 실제생산활동중에서의 역할이 크지 못하다.

——교원력량이 박약하다.

직업기술교육교원대오를 보면 수량상, 질상에서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수요와 거리가 멀다.

직업기술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은 절대 대부분이 보통중학교에서 장기간 교수에 종사하면 교원들로서 직업기술교육, 교수의 특점에 대한 이해와 인식, 경험이 결핍하여 직업기술교육, 교수의 특점을 살리지 못한다. 특히 직업기술교육교원대오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야 할 전업파교원의 수량이 적고 질이 차하다. 현유의 전업파교원들은 절대 대부분이 립시로 전업을 바꾼 보통 중학교교원인데 이 부류의 교원마저도 결핍하다. 그리고 풍부한 실제생산실천경험을 소유하고 기술을 숙련하게 장악한 교원은 더욱 결핍하다.

——학생들이 기본자질이 차하다.

직업기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진학경쟁에서 밀려났거나 진학에 희망이 없는 보통중학교에서의 2류 혹은 3류에 속하는 학생들로서 기초가 낮고 기본자질이 차하다. 연변지구에서 보통고중과 직업고중의 접수선은 200점좌우의 차이가 있다. 기타 민족지구에서도 대동소이하다. 학생들의 기본자질이 차하고 기초가 낮기에 직업교육과정을 제때에 소화하기 어려워하거나 전혀 받아들지 못한다. 때문에 교육질제고에 직업 영향을 주게 된다.

——심리상의 장애가 있다.

직업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진학경쟁에서의 실패자가 아니면 기초가 낮아 진학을 완전히 포기한 학생들이 절대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기에 우리 민족이 고유하고 있는 《사, 농, 공, 상》계종사상의 영향하에서 천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들어왔기에 실패감, 자비감, 위축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전도에 대하여 비관설망하게 되며 학습과 생활에서 쉽게 자포자기하며 학습동기가 명확하지 못하고 적극성이 높지 못하다.

3. 대책

- 1) 정부의 투자와 여러 경로로 집금하여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을 결합시켜야 한다.

개혁이 심화되고 시장경제에로 전면적으로 전이함에 따라서 교육도 필연코 시장경제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체제가 발전하고 완벽화됨에 따라서 로동력도 상품화되어 시장으로 진입할 것이며 점차 로동력시장도 완벽화될 것이다. 금후 기업에서는 로동력 수요를 주요하게 시장을 통하여 만족시킬것이고 사회생산활동에 적절 종사하는 로동자를 양성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실시하는 직업기술교육과 시장의 험계가 더욱 밀접하게 될것이며 학교운영방식에서 자연히 시장경제운영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나라에서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직업기술교육에서 학교로써 학교를 꾸려나가는 길로 나갈것을 제창하고 있으며 금후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점차 줄이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민족직업기술교육은 선천적인 후유증과 경제발전수준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경쟁력이 약하고 투자효률이 높지 못하여 발전의 동력이 부족하다. 만약 민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서 완전히 시장경제법칙에 근거하여 자원을 재분배하고 학교로써 학교를 꾸려나간다면 민족직업기술교육은 경쟁 속에서 밀려날것이며 혹심한 경제난으로 하여 그 발전이 엄중히 저해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민족중등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축과 우대정책이 수요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부축임과 우대정책에만 의지할것이 아니라 직업기술교육운영기제와 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을 다그치여 주동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적응하는 학교운영기제를 건립하고 교육내부의 개혁을 심화시켜 교육질을 제고하고 투자비용효률을 높이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여러 경로로 점검하여 민족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2) 민족지구특점에 맞는 중등직업기술교육발전모식을 탐색하여
야 한다.

현재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식을 보면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보통중학교에 직업반을 설치하는 모식, 민족독립직업고중을 꾸리는 모식, 한족직업고중에 민족반을 설치하는 모식, 고중단계에 분류를 진행하는 모식, 보통교육과정에 직업교육과를 증설하는 모식 등이 있다. 이런 모식들은 기본상에서 학교분위의 모식으로서 정규적인 학교운영방식을 취하고있기 때문에 학교경영과정에서 시장의 수요에 근거하여 전업, 학제, 교육내용 등을 신속히 조절하고 개변하는 적응능력이 차하다. 일단적으로 중, 장기인재예측에 근거하여 학교의 규모, 전업설치를 확정하기에 일단 경제발전 및 기타 원인으로 하여 인재 예측결과가 실제수요와 차이가 생길때에는 직업기술교육은 피동에 빠지게 되며 탐비를 초래한다. 더욱이 우리 민족직업기술교육에서는 학교시설, 설비, 교원력량, 경비 등 원인으로 사회발전에서 수요하는 인재규격과 수량에 의거하여 학교규모를 결정하고 전업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자기 학교실체로부터 출발하여 전업을 설치하고 학교규모를 결정하기에 사회수요에 적응하는 능력이 차하여 직업기술교육에서 맹목성, 피동성이 많으며 탐비현상도 염중하다.

우리는 금후 민족중등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기업체와 학교가 협력하여 직업기술학교를 꾸리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기업과 협력하여 학교를 꾸림으로써 학교에서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전업을 설치하고 학교규모를 확정하게 되기에 기업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고 학생들의 취업문제도 해결할수 있게 될것이며 직업기술교육발전에서 맹목성과 피동성을 극복할수 있다. 기업에서 수요하는 인재, 규격에 맞는 대량의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체에 수송하기에 기업체들에서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필요성, 절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될것이며 직업기술학교를 꾸리는 적극성을 동원하게 될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기업의 발전에도 유리하겠지만 직업기술학교에서 자금난, 실험, 실습기지문제도 쉽게 해결할수 있게 될 것이다.

3) 직업기술교육과 보통교육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직업기술교육과 보통교육의 관계는 호상 의존하고 호상 보충하는 관계이다. 보통교육은 직업기술교육의 기초이다. 성공적인 직업기술교육은 반드시 성공적인 보통교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발전과정에서 일면적으로 전학교육만 중시하면서 전체 학생에 낫을 돌린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학에 희망이 있는 학생만 중시하였으며 전면적질제고를 홀시하였다. 보통교육에서는 기초가 낫고 진학에 희망이 없는 학생들을 직업기술교육에 떠밀어주고 있으며 직업기술교육을 보통교육의 뒤수습을 하는 보통교육의 부속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족경제발전은 대량의 각종 류형, 다층차, 각종 규격의 인재를 수요하며 인재결구로부터 보더라도 인재결구는 경제결구에 적응하여 고급, 중급, 초급인재의 합리한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중등직업기술교육은 웅용성, 조작형 인재를 대량적으로 양성하여내는 기관으로서 민족경제발전의 차원에서 보나 인재의 합리한 결구로부터 보나 다 홀시할수 없다. 금후 우리는 보통교육에서는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貫철집행하여 학생의 전면발전을 촉진하여 직업기술교육에 합격된 학생을 수송해야 하며 직업기술교육에서는 보통교육의 성과를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4) 직업기술교육의 질제고에 힘을 기울려야 한다.

교육의 질제고를 제약하는 요소는 여러 방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원요소는 판전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금후 사업에서 수량이 충족하고 수준이 높은 직업기술교원대오의 전설에 전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하루빨리 직업기술교육교원양성기관을 건립해야 하며 다른 한방면으로는 재직교원에 대한 실무연수를 참답게 조직하여 그들의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교원인입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여 우수한 인재를 많이 직업기술교원대오에 유인함으로써 교원대오를 충실히 해야 한다.

조선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교육의 질은 종국에 가서는 양성하여낸 산품인 학생에게서 체현된다. 때문에 직업기술교육에서 교육의 중점을 학생들의 전면질제고에 두고 모든 정력을 몰부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표준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질표준에는 일반적으로 튼튼한 문화과학지식기초, 일반적인 직업지식과 직업기능, 전업지식과 전업기능, 이밖에 창조성 능력, 건강한 심리발전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질표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여야만 교수에서 목표가 명확하고 그에 따라 교수내용을 설정하고 알맞는 교수방법을 선택할수 있는것이다.

총적으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은 민족직업기술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였으며 또 민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에 훌륭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어두고 민족교육의 특점, 거주, 경제발전의 특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중등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개혁을 다그치며 민족지구의 특점에 맞는 직업기술교육의 발전모식을 탐색하여 민족중등직업기술교육의 발전을 촉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①《외국교육자료》(한문), 1995년 제1호.
- ②《민족교육연구》(한문), 1994년 제4호.
- ③최범수 등 편저:《흑룡강조선족교육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3년판.
- ④박규찬 주필:《중국조선족교육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1년판.
- ⑤박규찬 주필:《연변조선족교육사》, 연변인민출판사 1987년판.
- ⑥《교육통계자료(1993~1994년)》,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위원회 편.
- ⑦《연변통계년감》(1990년).

연변조선족초급중학교 교수사업의 현황과 과제

THE PRESENT SITUATION AND
TASKS OF TEACHING IN YANBIAN
KOREAN NATIONALITY JUNIOR
MIDDLE SCHOOLS

연변교육학원 황도남 김명제
Hwang Do-nam Kim Myeong-je
Yanbian Educational College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연변조선족초급중학교 교수사업의 기본상황을 소개하고 당면에 존재하는 주요문제들을 분석하였으며 교육관념의 갱신,《세가지 언어》교수개혁의 실입,교원자질의 제고,학교모식의 다양화,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의 전승 등 금후과제를 제기하였다.

This paper introduced the general situation of education in Yanbian Korean Nationality junior middle schools and analyzed the existing problems and made several recommendations, e. g., renewal of education concepts, deepening of reform of the three-language teaching, enhancement of teachers' qualifications, multiple patterns of schooling, inheritance of outstanding nationality culture etc.

1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연변의 조선족초중교육은 비교적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고 1958년도에 이미 기본상 보급되었다. 1993년 현재 연변에는 도합 90개소의 조선족초중이 있는데 그중 단독 설치된 학교가 35개소이고 한족과 함께 우리는 민족련합학교가 48개소이며 초중과 고중을 함께 우리는 조선족완전중학교가 7개소이다. 재교생은 도합 33,644명으로서 1958년보다 배로 증가되었다. 재직 전문교원은 2,627명인데 그중 여교원이 1,220명으로서 전문교원총수의 46.4%를 차지한다.

조선족초중에서는 한어문을 제외한 기타 과목을 모두 조선말과 글로 가르치고 있다. 민족련합초중에서도 조선족과 한족이 제각기 학급을 편성하고 본민족의 언어문자로 교수하고 있다.

조선족초중의 학제는 3년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몇몇 학교에서 4년제 실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 4년제로 과도하게 된다.

9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1993년 초기의 초중신입생부터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의무교육 새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단조선어문, 한어문, 일어, 음악, 미술, 체육등 과목의 교재는 여전히 자체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한다. 지금 조선족초중에서는 아래의 과정 안에 표시된 바와 같이 14개 과목의 교수와 두 가지 내용의 과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조선족초중 과정안

과 시 학 간 수 정		1학년	2학년	3학년	3년간 총시간수
과 목	사상정치	2	2	2	200
	조선어문	4	4	4	400
	한어문	4	5	5	466
	수학	5	5	4	467
	외국어	① (3)	(3)		(204)
	②	4	4	4	400
	체육	2	2	2	200
	지리	3/2	2		153
	물리		2	3	164
	화학			3	96
활 동	생물	2/3	2		153
	체육	2	2	2	200
	음악	1	1	1	100
	미술	1	1	1	100
	로동기술	2	2	2	200
	주당총시간수	32	34	33	3299
	학급, 공청단활동	1	1	1	100
	과학기술, 문체활동	3	3	3	300
	주당시간수	4	4	4	400
계		36	38	37	3,699

의무교육의 보급에 따르는 교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년래 연변에서는 여러 면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첫째, 재직교원강습을 강화하였다.

자연법칙에 따라 교원들이 륙속 회적함에 따라 신교원의 비례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연변교육학원에서는 몇년래 신교원강습반을 꾸리고 한주일내지 두주일간의 집중강습을 진행하였다. 강습을 통해 교수요강, 교수일정규칙과 기본적인 교수법을 장악하게 하고 중학생들의 심리특성, 교수개혁의 최신동태와 교수연구의 기본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신교원들의 교수능력재고에 힘쓰기

하였다.

1993년 초기부터 9년제의무교육의 새 과정계획과 새 교재를 사용함에 따라 새 교재에 대한 강습이 절박한 임무로 나서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미 문전을 발부하여 모든 초중교원은 새 교재에 대한 강습을 거쳐 시험에 합격되어야만 교단에 오를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새 교재에 대한 강습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풀간교원대오를 뚫어세우기 위해 1989년부터 조선어문, 수학, 물리, 자리, 한어문 등 과목의 풀간교원강습반을 9차 꾸렸고 1994년도에는 또 물리, 역사, 화학 등 과목의 풀간교원강습반을 꾸렸다. 본세기 말까지는 모든 과목의 풀간교원강습반을 2~3차 꾸려 강습받은 교원이 전체교원수의 25%에 도달되게 하려 한다.

이밖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강습도 진행하는데 폐하면 새 지식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한 단기강습, 교수개혁을 둘러싸고 진행하는 계렬강습, 교외활동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강습 등이다.

둘째, 교수관리를 제도화하였다.

교수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우선 《중학교교수사업에 대한 약간한 규정》을 제정하고 교수관리일상규칙, 교수일상규칙, 교수사업의 평가내용과 표준, 교수개혁실험성과에 대한 평가표준 등을 상세히 밝혔다. 《규정》의 요구에 따라 각 학교들에서는 구체적인 제도와 조치를 내왔으며 이에 따라 교수사업은 기준이 있게 되었다.

《규정》을 실제에 떨구기 위해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각 학교의 교수사업을 검사,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일상규칙연구토론회, 경험교류회, 협장학습 등 활동도 조직하여 각 학교들에서 서로 비기고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각 과목의 교수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연조건설을 바싹 틀어쥐고 있다. 소학교와는 달리 초중부터 각 과목별로 교연조를 설립하고

해당과목의 교수를 진행하고 있는 바 교연조는 초중교수사업의 유일한 집행기구이다. 교연조건설을 잘하기 위해 교연조건설연구모임, 교연조건설경험교류회, 우수교연조평의활동 등을 경상적으로 조직한다.

학교관리수준의 관점은 교장의 사업능력과 수준의 높고낮음에 달렸다. 교육학원 간부훈련부에서는 몇년래 수차의 교장강습반을 꾸리고 교육학, 심리학, 학교관리학, 교육정책과 법규 등 과정을 계통적으로 학습시킴으로써 교장들의 자질을 크게 높여주었다.

셋째, 개혁실험을 추진하였다.

개혁으로 질을 제고하고 실험으로 효률을 높인다는 사상을 침으로 하고 다년간의 개혁실험을 진행하여 일정한 성적을 쌓았다.

교육개혁실험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민족교육 개혁판공실을 전문 설치했으며 주, 현, 학교의 3급 실험망을 건립했다. 이 기초장에서 실험과제를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실험계획을 엄밀히 짰으며 실험과제에 대한 관리를 중시하였다. 이미 실험을 기본장 끌마쳤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는 항목은 성급 항목 5개, 지구급 항목 32개, 협급 항목 200개 이가.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자기의 실험항목들을 갖고 있다.

상술한 실험항목중에서 성과가 비교적 뚜렷한 것들로는 초중4년학제실험, 물리과의 목표교수실험(이 항목은 1994년도 길림성우수연구성과 일등상을 받음), 조선어문화의 《자습능력배양을 중심으로 한 네가지 기본능력의 전면제고》실험, 사상품성과의 《지식, 능력, 품성 3위일체》실험, 화학과의 《수업류형 최적화》실험 등이다.

다년간의 노력을 거쳐 초중교수사업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두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허다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초중의 전반 교수질이 낮고 학생들의 향국분화가 심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려저려한 원인이 있으나 폭전과 금후 한시기 동안에 큰 힘을 들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관념개신과 자질교육으로의 전환

조선족초중에서는 아직도 응시교육모식의 지배밑에 학부모와 사회의 압력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학교명예를 확보하려는 가치추구 등의 작용하에 중점고중입시경쟁에 열을 내고 있다. 그 주요한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① 진학시험파목만 중시하고 기타 파목은 홀시하면서 국가에서 규정한 과정계획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② 진학에 가망이 있는 소수학생만 중시하면서 교수기점을 높이고 학업부담을 증가시켜 향국분화를 조성한다. ③ 시험점수만 중시하면서 성적순차 배렬에 열심하고 학생들의 종합자질제고를 고려하지 않아 《점수는 높으나 능력이 약한》 후파를 초래한다. ④ 실내수업만 중시하면서 과외활동을 제대로 조직하지 않아 학생들의 시야가 좁고 실제기능이 차하다. ⑤ 가르치는 것만 중시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방법지도를 홀시하여 죽은 글을 읽는 로보트로 만든다.

때문에 반드시 응시교육의 고질에서 해탈되어 자질교육으로 넘어가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낡은 교육관념을 버리고 옳바른 교수관념, 질관념과 인재관념을 수립해야 한다. 옳바른 교수관념이란 교수과정을 글을 가르치는 동시에 참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동시에 지력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키워주며 자질을 높여주는 과정으로 보며 또 교원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태적인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옳바른 질관념이란 교원의 교수수준도 보아야 하지만 더구기는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학습특정도를 보아야 하며 시험성적만 볼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종합자질을 더 중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옳바른 인재관이란 글을 많이 읽고 점수도 높게 맞으나 실제능력이 약하고 상급의 지시나 책의

정답에만 추종하는 사람보다도 현대적 의식을 갖추고 용감히 개척하는 정신이 강하여 배운 지식을 효과적으로 써먹을줄 알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일해나가는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옳바른 교수관념, 질관념과 인재관념을 수립하고 자질교육으로 전환해야만 우리의 초중교육은 출로가 있게 된다.

둘째,《세가지 언어》교수개혁의 강화

언어와 문자는 인간사유의 외파이며 도구이다. 뿐만아니라 조선족교육은 특수한 문화적 배경과 혁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세가지 언어(조선어문, 한어문, 외국어)를 잘 장악하게 하는 것은 중국조선족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 문화적 기둥으로 된다.

민족언어와 문자는 민족문화의 적재물이며 민족교육도 언어문자를 통해 실시된다. 때문에 민족교육의 발전은 언제나 본민족어문 교육과 밀접한 연계를 가진다. 당면에 중국의 중학교어문교수(소수 민족어문교수도 포함)에는 입시경쟁에 응부하기 위한 읽고 쓰기 훈련에만 치우치고 듣고 말하기와 사유훈련을 흠시하는 경향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즉 아직까지도 문자와 언어교수단계에 머물려 있으며 『문자——언어』형으로부터 『언어문자——사유훈련』형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시간은 많이 허비하나 실효가 적은 폐단이 산생된다. 상술한 폐단은 조선족초중의 조선어문교수에서 엄중히 존재한다. 그 주요한 표현으로는 교수요강과 교재에서 기본지식에 대한 배비계렬이 엄밀하지 못하고 기초지식과 기본기능을 지역발전, 능력배양과 유기적으로 현계시키는 교수목표체계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다. 하여 시간허비가 많고 실효가 적으며 실효가 적을수록 시간을 더 들이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때문에 초중조선어문교수에서는 보다 적은 시간내에 보다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이며 절약해낸 시간을 한어문과 외국어의 교수에 돌려야 할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명지한

선택이며 21세기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진민족의 대결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오직 일심협력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조선어문교수의 합법적성을 떠들어댄다면 초중이 4년제로 넘어선 후 초중단계에서 조선어문교수임무를 완성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고중단계에 가서는 그대신 세계문화감상이거나 번역과를 설치할 수 있다.

한어문교수에서는 중국이라는 이 훌륭한 한어문화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정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론리사유법칙에 따라 가르치고 초중생들의 한어문실력을 높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시야를 넓히고 지식을 풍부히 하며 전학과 취직의 수요에 적응되게 해야 한다.

외국어교수에서는 어종선택면에서 눈앞의 리익만 따지는 단기 행위를 극복하고 미래와 세계를 내다보면서 점차적으로 영어의 비중을 늘여야 한다. 동시에 일어를 설치하는 주관적, 객관적인 우세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제능력에 맞게 부동한 어종을 설치해야지 어느 한가지로 다른 한가지를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교원자질제고의 가속화

민족진흥의 회방은 교육에 있고 민족교육진흥의 관건은 교원 대오의 자질에 달렸다. 의무교육이 보급됨에 따라 초중교원대오건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히 나선다. 연변조선족초중교원대오의 주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① 직업사상이 확고하지 못하며 심리소질이 차하다. 교원은 우선 교육사업을 열애하고 학생을 사랑하며 혼신적으로 일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연길시의 조선족중학교의 188명 교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적이 있는데 그중 《기꺼이 교원사업을 한다》와 《교원으로 되기 원한다》가 49.3%밖에 안되었으며 《조전이 허락되면 직업을 바꾸겠다》, 《조전을 창조해 직업을 바꾸겠다》와 《어떻게 해서든지 직업을 바꾸겠다》가 50.7%나 되었다. 이는 조선

족교육대오의 직업사상이 확고하지 못하고 심한 불안정상태에 처해 있음을 표명한다.

상술한 문제의 산생에는 교원의 사회적지위와 경제적 대우가 낮고 사업조건이 차한 등 일반 원인외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 하나는 개혁개방의 실시, 시장경제체제의 전립파 더불어 사람들의 가치관념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교원도 예외없이 그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조선족은 한족보다 한가지 언어를 더 장악한데다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해외관계가 있음으로 출국방문, 류학 및 보따리장사를 할 기회가 급증되었다. 이는 조선족교원들에게 불안정의 불씨로 되었으며 그들의 사업심을 동요시키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학교지도층에서 교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착실히 틀어쥐지 않는 것이다. 특히는 학교기풍, 교수기풍, 학습기풍을 둘러싸고 칙실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데서 학교자체의 훌륭한 전통과 특색을 갖추지 못해 흡연력이 적다.

② 실무자질이 차하다. 2,627명의 현직 전문교원중에 학력표준에 도달된 비중이 74%밖에 안되어 농촌초중은 60%도 안된다. 더욱 근심스러운것은 학력수준에 비해 실무자질이 더 낮은것이다. 그 주요한 표현들로는 교수기본기능이 차하고 교수가 규범화되지 못하며 교재를 다루는 능력이 차하고 과학연구의식이 차하고 교수연구 능력이 약한것 등이다.

상술한 정황이 산생되는 주요한 원인은 교원들의 사법전문화 정도가 낮은데 있다. 연길시 모 초중의 리파교원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전문적인 사법과정수료자가 수학 31. 6%, 물리 32. 5%, 화학 39. 4%, 생물 12. 7%로 나타났다.

조선족초중의 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법》을 참답게 시달하여 교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주고 대우를 높여주는 동시에 사법교육을 더한층 강화, 발전시켜 조선족초중교원들의 학력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야 한다. 또한 일부 실험학교와 시범학교

에 학자형의 교원태도와 전문가형의 교장을 양성해줌으로써 전 주초중교육의 본보기로 되게 해야 한다.

넷째, 학교모식의 다양화

당면 연변조선족초중은 도시와 농촌, 집거지역과 산재지역 전반에 걸쳐 모두 통일학제, 통일과정과 통일운영모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질제고에 불리하다.

① 학제를 개혁하고 학교운영모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9년제의 무교육단계의 《6. 3》학제를 점차 《5. 4》학제로 교쳐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부동한 실체에 따라 보통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 농촌에서는 《초중4학년에서 분류》하는 모식과 《4+1》모식을 취하는것이 좋다.

② 학교분포를 조절하고 규모효과를 높여야 한다. 조선족이 비교적 집중된 향,진에서는 계속 1개소의 초중을 잘 꾸려야 한다. 조선족이 분산된 향,진에서는 몇개 향,진에서 협합경영하거나 현(시)에서 꾸리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학생래원과 일정한 교수규모를 보장하고 학교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③ 과정안과 교재를 개혁하여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진정 덜어 주어야 한다. 조선족초중의 현행 과정안과 교재는 량이 많고 난도가 크기에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중해지고 량극분화가 일어나고 중퇴생이 산생되게 된다. 때문에 전국의 개혁보조에 발맞춰 수학, 물리, 화학 등 과목의 난도를 낮추어야 하며 조선어문을 간소화하고 교수방법을 개진하여 단위당효률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의 전승

① 조선족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갖고 있고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적미덕이 있으며 역경속에서도 고심히 연찬하여 인재로 되는 고상한 정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바탕히 학부모, 사회와 일심협력하여 상술한 전통문화, 전통미덕과 민족정조를 계승, 발양해야 한다. 한편 놀고먹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며 동무간의 의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결치례와 과소비에 열중하는 등 민족의 나약성이 학생들에게 영향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전통예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조선족은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민족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조선족유치원과 소학교의 예술교육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초중단계에 이르러 예술교육이 기본상 중단되어버렸다. 초중에서는 반드시 유치원, 소학교와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음악, 미술, 무용, 서예 등 예술교육과를 과정안대로 가르쳐야 하며 각 학과교수에 미숙을 침투시켜 학생들의 심미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③ 신체, 심리건강교육과 교정사업을 질해야 한다. 초중단계의 학생들은 청춘기에 처해있는바 신체와 심리상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만일 상응한 대책이 따르지 못한다면 위기가 산생되어 학업에 영향줄수 있다. 때문에 계획적으로 신체건강교육과 심리건강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체형, 체질에 대한 조절과 심리자문 등 사업을 잘함으로써 조선족청소년들이 신체상, 심리상에서 활력있고 건전하게 성장되도록 해야 한다.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에 대하여 ON EDUCATION OF PRESCHOOLERS IN YANBIAN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조예리

Jo Ye-ri

Northeast Chin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연변조선족유아교육의 발전과정을 회고하고 민족유아교육체제의 확립, 예술교육의 발달, 본민족문화교육의 실시 등 6가지 특징을 개괄하였으며 존재하는 주요문제들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해 해결대책을 제기하였다.

The study reviewed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ty preschoolers' education and generalized six features of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ality preschoolers education,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teaching of nationality culture etc. and analyzed existing problems and suggested policies to solve them.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은 전략성을 띤 민족기초교육의 한개 구성부분으로서 학교교육의 예비단계이다. 그러므로 조선족유아교육의 발달정도는 중소학교교육과 전반 민족교육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방후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은 량적인 확충과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에 점차 자체의 특징을 갖게 되었고 아울러 전반 민족교육체계내에서 자기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물론 그 발전과정에서 일부 허점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러한 허점을 제때에 지우고 평생교육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21세기를 지향한 민족교육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자기존재를 과시할 때 우리 민족 교육은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본문에서 해방후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의 발전을 더듬으면서 그 특징을 개괄해내며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도를 제시하려 한다.

1. 해방후 연변조선족유아교육의 발전

연변은 1945년에 일제하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때 진보적인 인민대중들은 민영형태의 탁아반, 유아반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해방초기 여성로동력의 해방은 유아교육사업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탁아반, 유아반은 점차 발전하여 탁아소, 유치원으로 되었다.

정부와 사회의 여러 면에서 유아교육사업에 중시를 돌리고 힘쓴 결과 50년대초기에 유아교육사업은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고 유치원도 상당한 수로 늘어났다. 유아교육사업의 발전은 50년대 연변에서의 조선족초등교육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아래의 통계표를 보면 이 시기의 유아교육상황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다.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에 대하여

[표 1] 1956년 연변유치원 통계

	유치원 수	학급수	재원 유아수	교직원수
교육행정부문운영	1	6	128	8
공장광산자체운영	61	63	2,562	67
기관, 단체 및 기타 운영	1	2	23	7
민간운영	284	657	19,182	700
합계	347	728	21,895	782

(1956년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 교육처 통계)

우의 통계표에서 보다실이 민간운영의 유치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당시 인민대중들이 드높은 교육열로 유아교육사업을 떠밀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1962년에 와서 전국적으로 1958년 《대약진》중의 착오를 시정하기 위해 《조절, 공고, 충질, 제고》의 방침을 실시할 때 이를 잘못 이해하고 대량의 유치원을 해산시키거나 국영유치원과 합병시켰다. 아래의 표는 1965년 유치원정황을 보여준다.

[표 2] 1965년 연변유치원 통계

교직원수	유치원수	학급수	재원유아수
285	69	180	3,375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 교육처제공)

《문화대혁명》시기 유아교육사업은 기타 교육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지, 반정지상태에 처해있었다.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1978년 말에 있은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전원회의 후 개혁, 개방의 열조속에서 유아교육은 또다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특점이라면 ①농촌에서 도거리농사를 하게 되자 유치원을 떠 빨전시키고 공고히 할 것이 수요되었다. ②도시와 농촌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개체유치원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③산아제한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기지역개발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강렬해졌고 따라서 조기교육열조가 일어났다.

이리하여 유치원이 계속 증가되고 그 운영조건이 점차 개선되었으며 교육질도 전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80년대와 90년대의 유아교육발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개체유치원의 발전속도가 급속한 것이다. 아래의 표는 1985년과 1994년 개체유치원정황을 보여준다.

[표3] 1985년, 1994년 연변조선족개체유치원정황

	유치원수	학급수	유아수	교직원수
1985년	54	65	1,389	95
1994년	258	376	7,578	567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위원회 유아교육처 제공)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아교육사업은 교육행정부문과 사회 여러 면의 적극적인 추동하에 민족교육체계에서 중요한 한자리를 차지하고 발전속도를 다그치게 되었다. 1994년까지 연변의 조선족유치원수(민족현합유치원 포함)는 815개소로 늘어났으며 적령아동(3~6주세)의 입원률은 87.3%에 달하였고 학전반입학률은 도시는 99%, 농촌은 80%에 달하였으며 교직공총수는 2,643명에 달하였다.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에 대하여

해방후,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은 양적확충과 질적향상을 추구하면서 발전의 궤적을 그어왔다.

2. 연변조선족유아교육의 특징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은 발전과정에서 자체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 특징을 개괄해보면 아래와 같다.

(1)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은 전반 민족교육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고있다. 연변의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유아교육사업을 민족교육사업의 한부분으로 간주하고 유아교육관리, 유치원시설, 교양원양성, 교재출판 등 여러 면에서 중시를 둘리며 전반 민족교육사업의 기초공사로 치부한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서 주교육위원회와 그 산하 교육행정부문의 유아교육처(과)에서 유아교육사업의 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하게 하고 유아교육교원대오건설을 책임지게 하였으며 유아교육사업전망계획을 작성하게 하였다. 1984년에 주와 각 시, 현에서는 선후로 탁아소, 유치원사업지도소조를 설립하고 지도사업을 강화하였으며 1988년 4월 2일 주인민정부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개체유치원관리세칙(시행)》을 제정하고 개체유치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사업이 전반 민족교육체계의 한부분으로 된 결과 민족교육발전이 더욱 튼튼한 토대를 갖게 되고 따라서 유아교육사업은 더욱 빠른 발전템포를 갖게 되었다.

(2)조선족인민대중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유아교육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연변의 조선족인민대중은 예로부터 문화를 숭상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하기에 연변의 유치원보급률은 비교적 높고 입원률도 높다. 연변의 110개 향과 진에 모두 중심유치원이 있고 촌마다 유치원이 있으며 그외 개체유치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아교육사업은 인민대중들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추진되는것이 특징적이다. 혜를 들면 화룡현 동성향 태동촌의 조선족로인독보조에서는 손수 채마발을 가꾸어 판 돈 1천여원을 전부 촌유치원에 헌납하였고 화룡현의 부홍촌에서는 전민이 농한기에 흙을 파고 돌을 캐어 300평방메터되는 벽돌집을 지었으며 그네, 미끄럼대 등 유희기자재도 갖추어놓았다. 유아교육사업을 중시한 결과 화룡현은 중앙으로부터 《유아교육의 한멸기 꽃》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었다. 그외에도 농민, 노동자, 지식인들이 유치원에 기증하여 유아교육을 받들어준 설혜들은 아주 많다.

(3) 유치원에서 우리 말과 글로 교수하며 민족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족유치원에서는 교수활동과 기타 모든 활동을 우리 말과 글로 조직할뿐만 아니라 우리 말과 글을 학과목교수내용으로 가르친다. 유치원에서는 윤리도덕교양에 중시를 둘려 혜절바르고 인사성있도록 어린이들을 교양하며 위생을 지키도록 강조한다. 경상적으로 우리 민족의 전설, 민간이야기, 동화, 우화 등 민간문학작품으로 어린이들의 심령을 감화시킨다. 근년에는 유치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것도 각광받고 있다.

(4) 조선족유아교육에서 예술교육이 보편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노래의 고향, 춤의 고향》으로 불리우는 연변에서 우리 민족이 민족유아교육에 부여한 특수한 사명일지도 모를만큼 예술교육은 보편적으로 중시를 받고 있으며 문화적풍토를 이루고 있다. 혜하면 우리 민족이 즐기는 동요 《고향의 봄》, 《기차놀이》 등은 도시나 농촌이나 할것없이 많이는 유치원예술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보급되는 바 참으로 조선족유치원은 민족예술교육의 요람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조선족유치원에서 높은 차원의 예술교육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혜를 들면 연길시소년궁유치원에서는 예술교육에 자못 큰 중시를 둘리고있는바 이 유치원의 김설령, 박해연어린이는 전국적인 전자풍금, 피아노연주경연에서 각기 1등의 보좌에 올랐었다. 이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에 대하여

현 정파들은 조선족유아교육에서 예술교육이 발달되어있고 또 앞으로 예술교육을 계속 발달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5)조선문유치원교재와 아동도서를 자체로 편집, 출판하며 교양원을 민족사범계통에서 양성하고있다. 조선족유치원의 교재와 아동도서는 주로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에서 말아 조선문으로 편집, 출판한다. 이 출판사에서는 이미 유치원의 소반부터 대반까지의 교재와 학전반어린이들의 교재 및 교수참고자료를 편집출판하였다. 국립경제《7·5》계획기간에만 해도 77종의 유아교재와 아동도서 198,484책을 출판했고 《유아교육요강(시행)》,《유아교육학》 등 교수용책을 출판하였다. 이처럼 자체의 출판계통에 의거하여 유아교재와 아동도서를 출판하는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연변제1사범학교(조선족중등사범학교)에서 유치원교양원을 양성하는데 1983년부터 1994년까지 도합 427명을 졸업시켜 유아교육현장에 내보내였다.

(6)연변에는 높은 사업열정을 지닌 조선족교양원,보육원대오가 있다. 유아교육사업을 사랑하는 몇천명 유아교육일군들은 대우가 낮고 사업조건,교육설비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해왔고 또 하고있으나 유아교육사업에 대한 열정은 매우 높은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실례들도 아주 많다. 매번 유아교육회의나 방학간의 강습이 있을 때면 그 참가인수는 꼭 오청자수보다 많은데 학습의욕이 강함을 설명해준다. 많은 교양원,보육원들은 기자재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 모으고 만들고 하면서 교수를 하고있으며 어린이들 모두가 건실히 성장하도록 열심히 일하고있다.

상술한 특징이외에도 근년에는 현대화시설을 갖춘 고급차원의 유치원 혜하면 연길시의 《귀동자유치원》과 같은것이 많이 나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치원의 현대성특징이 강화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3. 연변조선족유아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도

(1) 문제점:

① 교양원자질문제

첫째, 교양원들의 학력은 높으나 학전교육(学前教育)을 전문 받은 사람이 적다. 아래의 표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표4] 1992년 연변의 유치원교양원학력조사통계표

총수	대학, 전문대학	중등전문	고등	유아 사범	직업 사범수료	고등 초중 졸업	초중 졸업	학전전업 수업자합계
2,293	506	634	313	315	373	93	59	1,333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위원회 유아교육처 제공)

우의 표에서 보면 직업사범이상의 학력자는 93.4%를 차지하고 고등수료생이나 초중졸업생은 6.6%밖에 차지하지 않으며 학전전문훈련을 받은자는 58.7%이다. 이런 통계수치를 넘두에 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ㄱ.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학전전업졸업자가 극히 적다. 통계에 의하면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가운데서 80~90%는 기본상 연변대학 조선어문통신학부거나 자습대학 졸업자이다. ㄴ. 고등졸업후 전문훈련을 받지 않고 유아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ㄷ. 중등사범 졸업자가 많으나 유아교육전업이 아니므로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상은 학력은 높으나 유아교육전업졸업자가 아닌 것으로 하여 제기되는 교양원자질문제이다.

둘째, 적지 않은 개체유치원 교양원의 실무수준이 현실요구보다 낮다. 개체유치원의 교양원 대부분은 정년퇴직한 소학교교원이거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에 대하여

나 가정주부 또는 사회구직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정년퇴직한 교원은 소학교교수경험은 있으나 유아교육경험이 결핍한 터으로 유아교육을 『소학화』하는 현상이 많다. 이와 반대로 가정주부는 유치원을 『탁아소』로 만드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구직청년들은 열정은 있으나 제멋대로 가르치는 현상이 있다. 이상은 모두 개체유치원교양원들의 실무자질문제이다.

②유치원시설문제

일부 유치원(특히 일부 개체유치원)의 시설,환경,위생 등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어떤 유치원에서는 설립조건,운영여전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어린이들을 돌볼 공간만 겨우 있으면 마구 유아들을 받아들이는데 국가의 규정에도 맞지 않고 어린이들의 성장에도 불리하다.

③유아교육에서 형식화,성인화,소학화하는 문제

어린이들을 어떤 기정된 둘에 접아 넣으려 하고 암기식교육파 그에 따르는 성과를 자력발전의 상징으로 보는것이 많다. 학전반에서는 글을 많이 가르치고 글을 많이 아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소학교처럼 어문,수학을 집중하여 가르치는 현상이 존재한다.

(2)문제의 해결방도

①유치원교양원과 보육원들의 자질을 제고하는것을 급선무로 내세우고 조치를 대야 한다. 우선 직업도덕교육을 강화하여 교양원들의 사상수양을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교양원의 품질,수양,행동거지,웃침 등은 모방성이 강한 어린이들에게 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교양원들의 문화자질,실무자질을 높여야 한다. 연변대학,연변교육학원,연변제1사범학교 등 학교들에서는 여러가지 형식으로 유아전업교육과 재직연수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치원교양원자격심사제도를 나오고 정기적으로 시험을 쳐서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단기강습반을 꾸려 유아교육에서의 새로운 리론,새로운 경험을 보

급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아무튼 조선족유아교육발전의 전제는 교양 원대오전설에 있다는것을 인식하고 교양원들의 자질제고에 큰 힘을 들여야 한다.

②유아교육에서의 형식화, 소학화, 청인화문제도 가급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유아교육은 자체의 법칙성을 갖고 있는것으로서 그 법칙을 따라야 한다. 어린이일반에 대해 말하면 관찰력, 기억력, 존재주, 독립성(그것이 빈약한것이라도 할지라도), 교제기능 혹은 의사표达능력 등을 배양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읽고, 쓰고, 말하며 계산하는 기초라 하겠지만 결코 학교교육에서처럼 직접 달성해야 할것은 아니다. 유아교육에서는 오락성, 유희성, 취미성을 그赖以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자연스럽고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천진란만성을 제창하고 키워주어야 한다.

③유치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공력을 들여야 한다. 조선족유아교육의 현대화는 유치원시설의 현대화도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므로 각급 지도부문에서는 유치원시설의 현대화에 각별한 중시를 돌리고 자금투입증대를 담보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부문과 개인을 망라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모아 우리 민족 어린이들의 《보금자리》——유치원을 동화세계처럼 꾸며주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조선족의 유아교육은 전반 학교교육의 토대로 되며 평생교육의 중요한 고리임을 꼭 명기해야 한다.

모두어말하면 연변의 조선족유아교육은 비교적 뚜렷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민족교육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여 발전하는 과정에 자체의 특징을 갖게 되였다. 그 특징들을 살려나가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발전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소함으로써 21 세기를 향한 조선족유아교육의 발전템포를 빨려야 할것이며 평생교육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자기의 존재가치를 과시하게 하며 새로운 세기의 교육지평선우에 민족유아교육의 기발을 휘날려야 할것이다.

조선문교재건설의 기본경험과 과제

THE BASIC EXPERIENCE AND TASKS
IN COMPIRATION OF TEXTBOOKS IN
THE KOREAN LANGRAGE

전국조서문교재심사위원회판공실 김경암
동북3성조선문교재협의조조판공실

Kim Geong-am

Office of
National Korean Language Textbooks
Examination Committee Northeast Three
Provinces Korean Language Textbooks
Agreement Group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조선문교재건설의 발전력을 회고하고 그 기본경험을 귀납한 토대위에서 교재의 단일화를 극복할 문제, 본민족작품을 위주로 할 문제, 학업부담경감문제, 번역교재의 질문제, 교재의 가치수문제 등을 분석하고 해결방도를 제기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the development history of compilation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after summarizing the basic experience, analyzed the related problems of overcoming monotony of textbooks, introducing nationality works as main

part, lightening of burden on students' study, quality of translated textbooks, kinds of teaching materials etc.

우리 나라 조선민족교육은 비록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었으나 없는데로부터 있는데로 낮은데로부터 높은데로 점차 발전하여 오늘과 같이 전국의 소수민족들 가운데서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민족교육이 이와 같은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은 교육에서 3대요소의 하나인 교재건설과도 잘라 놓을 수 없다. 조선민족교육에서 현대화건설에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반드시 교재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교재건설을 진일보 강화하려면 반드시 지난날의 경험을 잘 총화하고 오늘의 실패를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결방도와 전망이 있게 된다.

본 론문은 상술한 문제들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 조선문교재 건설의 경험

조선문교재(여기서는 주로 조선민족 중소학교, 유치원교재를 두고 말함)건설은 근 50년의 굴곡많은 역사과정에서 풍부한 경험들을 쌓았다.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다음과 같다.

(1) 교재건설을 잘 하려면 반드시 상용한 기구들을 건립해야 한다.

《8. 15》해방을 맞은 우리 겨레들은 방방곡곡에서 일떠나 학교를 꾸리고 자식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재가 없어 곤난이 막심했다. 하지만 당시는 해방전쟁이 한창이고 또 나라마저 아직 세우자 못한 형편이였다. 바로 이런 때 동북3성의 우리 겨레들은 분분히 일떠나 쌀과 의연금을 모아 1947년 3월 24일에 우리 나라에서도 해방후 처음으로 되는 전문적인 교육출판

기관 ——연변교육출판사(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의 전신)를 창립하였다. 바로 이와 같이 하여 조선민족교재건설은 자기의 서막을 열게 되었으며 연변교육출판사는 조선민족교육의 요람, 교재건설의 기지로 되었다. 그때로부터 조선문교재건설은 조선민족교육과 운명을 같이 하였는바 교재건설사업이 발전할 때면 조선민족교육도 발전을 가져왔고 교재건설사업이 좌절을 당할 때면 조선민족교육도 좌절을 당했다. 그러나 종적인 추세는 발전이였다. 건국후 나라에서 교육출판사를 직접 운영하면서부터 더욱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개혁개방 후에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문화대혁명전에 겨우 200종 교재를 편집출판하는데로부터 개혁개방후 제일 많을 때는 근 700여 종의 교재를 편집출판하여 조선민족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중국의 조선민족은 주로 동북3성에 분산되어 살고 있으며 3개 성의 행정기구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문교재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지도함에 매우 불리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5년 7월 30일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재협의기구인 동북3성조선문교재협의소조를 건립하였다. 동북3성의 교육행정 지도일군들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지도일군들이 협의소조의 성원으로 되었다. 이듬해 2월 17일에는 협의소조의 상설기구인 동북3성조선문교재협의소조판공실을 정식으로 건립하고 전문인원을 파견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협의소조의 주요한 임무는 교재출판계획을 수립하고 교재 편집, 출판, 인쇄, 발행 등 면에서 걸린 문제들을 상의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협의소조 회의는 2~3년에 한번씩, 사무회의는 매년에 한번씩 열어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동북3성조선문교재협의소조의 건립은 조선문교재건설을 유력하게 추진하였다. 조선문교재건설의 수요에 의해 전립된 이 기구는 조선민족교육이 발전됨에 따라 점차 교재를 중심으로, 과정계획, 교육과학연구, 교수연구, 교육 신문과 잡지 등 다방면

을 포함한 교육협의소조로 발전하고 있다.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려면 교재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재의 질을 높이려면 단지 교육출판사의 편집일군들에만 의존해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제약적인 기제가 있어야 하며 엄격한 심사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래야만 여러 학자, 전문가, 교원들의 지혜를 모아 교재의 질을 떠 한층 높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사기구를 전립하는 것이다. 이에 1985년 7월 15일에 국가교육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역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재심사기구인 전국조선문교재심사위원회를 전립하였다. 교재심사위원회는 설립된 이래 근 300종에 달하는 교재를 심사하여 교재 질제고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교재실험, 우수교재평선, 장려 등 활동을 벌려 교재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켰다.

(2) 조선문교재건설을 잘 하려면 반드시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

사회주의초급단계는 각 민족이 공동히 번영발전하는 역사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각 민족이 공동히 번영, 발전하는 길에서 멧밋이 평등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자기 민족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후대들에게 자기 말과 글을 가르쳐야 하고 자기 민족의 문화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민족자존심을 키워주어 그들로 하여금 멧밋이 자기 민족을 위해 복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상술한 내용을 《민족성》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조선문교재건설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러한 《민족성》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문교재 건설에서는 국가로부터 제정한 과정계획의 지도사상을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 《민족성》을 살리려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면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이중언어교육을 잘 진행해야 한다. 본 민족의 언어와 문

자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하거니와 한어문도 잘 가르쳐야 한다. 이 두가지 언어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도 훌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둘이켜 보면 매차의 정치운동,급변하는 형세일 때마다 조선어문과의 지위는 혼들리거나 취소될 경지에까지 이른 때도 있었다. 때문에 언제나 조선어문을 잘 가르치는 전제하에서 한어문도 잘 가르쳐야 한다. 이 기초상에서 외국어도 잘 가르쳐야 한다. 조선어문을 잘 가르친다는 표준은 각자가 다를수 있으나 최저한도로 도구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르쳐야 할것이이다. 지금 중소학교성적이 내려간다고들 하는데 조선어문파가 도구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

둘째, 본 민족의 문화재를 잘 가르칠뿐만아니라 인류의 공동한 문화재와 과학지식도 잘 가르쳐야 한다. 민족교육이라 할때 우선 본 민족의 문화재를 잘 가르쳐야 한다. 우리 민족은 풍부한 문화재를 소유하고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전에는 그것이 가련할 정도로 우리 교재에 적게 취급되었다. 1983년도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조선어문파에서 본민족작품이 지난날 25% 지어는 15%까지 내려간 역사사실에 비추어 민족작품을 위주로 하는 방침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에 노력했다. 다음으로 체육,음악,미술 세 학파에서 지난날의 전국통용교재를 번역해 쓰던 국면을 타파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세학파의 교수요강을 제정하고 교재에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학생들의 인식수준에 맞게 계통적으로 구현하기에 노력하였다. 이렇게 편찬된 교재는 사생들과 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물론 우리는 민족배타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공동한 문화재와 과학지식을 우리의 교재에 취급함에 있어서 역시 조금도 게으름없이 하여왔다.

셋째,교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자존심과 자부심을 키워주어야 하며 몇몇이 자기 민족을 위해 복무하려는 마음을 키우주어

야 한다. 그러나 협애한 민족주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애국주의교양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다.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자기 부모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애국주의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교재에 우리 민족의 생산과 생활, 사상감정, 인정세태, 풍속습관, 영웅인물들을 구현한 작품 및 기타 문화재들을 계통적으로 앉혀야 한다. 이래야만 학생들 가슴속에 민족애가 생기고 민족자존심과 자부심이 생기며 나아가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분투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상술한 세 가지 내용은 조선민족교육의 특징으로 된다. 이 특징을 떠나서는 조선민족교육이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3) 조선어문교재건설을 잘 하려면 반드시 자체로 편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민족교육을 발달한 나라의 교육과 어깨 나란히 하려면 기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이외에도 교재건설에서 반드시 자체로 편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첫째, 교재의 민족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교재를 우리 자체로 편찬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생산과 생활, 사상감정, 인정세태, 풍속습관, 영웅인물들을 반영한 작품 및 문화재들을 교재에 취급 할 수 없다. 오로지 자체로 편찬해야만이 민족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둘째, 조선민족학생들의 인식법칙과 특성에 맞는 교재를 편찬하기 위해서이다. 통용교재는 한족학생들의 인식법칙과 특성에 의해 편찬되었기에 어떤 학과교재는 조선족학생들에게 잘 맞지 않는다. 일어교재가 그 실례로 된다. 통용일어교재에서 취급된 중점과 난점들이 조선족학생들에게는 적지 않게 아무런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어문법이 조선어문법과 류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도리여

통용교재에서 홀시된 부분이 조선민족학생들에게는 중점과 남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학파교재는 자편해야만이 조선민족학생들의 자유법칙에 맞게 할수 있다. (초중일어교재는 이미 자편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우리 민족교육은 우리 민족특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교재를 자체로 편찬하지 않고서는 과정계획, 과정설치, 수업시간배정 등을 우리 민족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짜거나 처리할수 없다. 개혁개방전에는 번역교재가 위주였기에 교육부에서 제정한 과정계획을 별로 변동시키지 못하고 집행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체로 편찬하는 교재가 많아짐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고 우리 민족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4) 교재건설을 잘 하려면 반드시 그와 유관된 대오건설을 앞자리에 놓아야 하며 과학연구사업을 동반하여야 한다.

교재건설대오에는 편집일군, 교재편찬에 참여하는 교원과 교재심사일군, 교재건설을 조직, 지도하는 사람들이 망라된다. 교재의 질여하는 이들의 수준여하에 의해 결정된다. 훌륭한 교재를 만들어 내자면 교재건설대오의 성원들이 당파 국가의 로선, 방침, 정책을 잘 알아야 하며 연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자기 맡은 학파에 정통해야 하며 과학적인 태도, 높은 책임감과 고도로 되는 개괄분석능력, 교수실천에 대한 투철한 료해, 최신 과학연구성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넓은 틀에서 벗어나 과감히 창조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며 시대정신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이는 또한 교재건설대오의 수준을 검증하는 표준이기도 하다. 개혁개방이래 상술한 제방면에서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기때문에 교재의 질도 훨씬 제고되었다.

또 상술한 제방면에서 커다란 진보를 가져오게 된것은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한것과 갈라놓을수 없다. 개혁개방이래 넓은

범위에서 교재연구활동을 벌렸으며 단파교재실험 혹은 교재를 중심으로 한 정체적인 실험을 진행하여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교재의 질과 교재건설대오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대하여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

총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교재건설에서 이미 자체의 특색을 뻔 교재건설의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아낼수 있었다.

2. 문제점과 해결방도

조선문교재건설은 비록 경험도 풍부하고 성과도 역시 뚜렷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1)《소화불량》과 《배고픈》문제

중국의 조선민족은 그 거주특집으로 보아 집거지구와 산재(잡거)지구로 나눌수 있다. 이러한 거주조건에 따라보면 자연적으로 소학교 입학시기에 집거지구는 조선어기초가 높고 한어기초가 낮으며 산재(잡거)지구는 반대로 조선어기초가 낮고 한어기초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교재는 같은 하나를 쓴다. 때문에 집거지구의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교재를 편찬하면 잡거지구의 학생들이 조선어파에서는 《소화불량》에 걸리고 한어파에서는 배불리 먹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며 잡거지구의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편찬하면 반대로 집거지구 학생들이 조선어파에서는 《배고픈》문제가 생기고 한어파에서는 《소화불량》에 걸린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가지 교재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한 수준의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수가 없었다. 이와 류사한 문제는 한족들에게도 존재한다. 한족들도 성향사이, 빨탈한 지구와 락후한 지구사이의 학생들의 수준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줄곧 한가지 교재를 전국적으로 통용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교재를 편찬하면서 《일강다본(一纲多本)》의 방침

을 제기했다. 즉 통일적인 교수요강하에 자기 지방에 맞는 교재를 편찬하여 쓴다는 것이다. 한족들도 이 방침에 따라 여러가지 교재가 편찬되고 있다. 조선문교재는 한족들처럼 다양하게는 하지 못할망정 두가지만은 편찬해야 할것이다. 몇년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번 좌담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그 요구가 매우 박절하였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본민족작품 위주》를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

1983년도에 조선어문교수요강을 제정하면서 《본민족작품 위주》의 방침을 제기했다. 이 방침에 따라 편찬된 교재들은 본 민족 작품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비례를 놓고 말하면 《위주》가 실현되었으며 민족화의 발걸음도 크게 내디뎠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찬된 교재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 원인은 중국의 조선민족작가들이 쓴 작품이 수량적으로 적은데다 교재에 앉힐 작품이 더욱 적기에 할수없이 이웃 나라의 민족작품을 많이 선재하여 교재에 앉혔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사회주의나라의 조선민족 작품이지만 중국의 조선민족과 동질성도 있고 이질성도 적지 않아 우리 학생들의 생활과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그후에 편찬한 교재들에는 부득불 이런 작품들을 적게 선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또 본민족 작품이 자연히 줄어들어 《위주》는 공중루카이 되고 말았다. 바로 이처럼 《위주》를 실현못하는 원인은 선재배원이 결핍한데 있었다. 선재배원만 해결하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선재배원을 해결할것인가? 우리와 같은 조선하에서는 수상법을 쓰는것이 가장 좋다. 해마다 현상옹모활동을 벌여 작품을 투적해야 한다. 10년만 투적한다면 선재배원이 꼭 해결될것이다. 이 문제를 구상한지도 벌써 퍼그나 오래다. 만약 그때부터 착수했더라면 지금쯤은 《위주》를 실현한 보다 훌륭한 교재를 편찬해냈을것이다. 그러나 역시 경비문제로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3) 교재의 분량이 많고 수준이 높아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과중한 문제

이 문제는 자편교재에도 나타나고 통용교재에도 존재한다. 자편교재의 문제는 주로 편찬과 심사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용교재의 영향이 매우 크다. 편찬 혹은 심사과정에서 흔히 분량이 좀 많고 수준이 좀 높은것을 느끼면서도 통용교재의 영향으로 그대로 두고만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과중한 문제가 여론계의 열점으로 되고있고 또 사업시간제도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교재를 조절하거나 다시 편찬해야 하므로 꼭 해결되거나 완화될것이며 자편교재도 분량을 훨씬 줄이고 수준도 적당히 낮출것으로 전망된다.

(4) 번역교재의 번역질 문제

조선문교재에서 번역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상당히 큰바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번역수준의 여하는 조선문교재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심사를 통해 볼수 있는바 어떤 교재의 번역은 비교적 잘 되였다. 그러나 이런 교재는 극히 소수였다. 대부분 번역교재들에는 물론 큰 원칙적문제는 없으나 번역질에는 이리저러한 문제가 있다. 어떤 교재에는 오역이 적지 않았고 또 어떤 교재에는 오역은 아니나 단어선택과 사용이 타당하지 못하여 내용리해에 곤난을 조성해주는 폐단이 있었으며 또 어떤 교재에는 적역이 많은바 어떤 문장은 그 결과가 한어식조선말이 되여 내용을 리해하기 까다로웠다.

상술한 문제가 생기게 된것은 일부 편자들의 번역수준이 낮은 외에도 번역교재의 번역사업이 항상 창출간에 끌마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인민교육출판사(중앙)의 교정고를 가져다 번역해야 하므로 어떤 교재는 추고할새도 없이 인쇄에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번역교재에 대한 심사도 따라가지 못했다.

그 해결방도는 교재번역일군들의 번역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과 번역교재에 대한 심사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번역질을 높일 수 있고 교수수준도 높일 수 있다.

(5) 교재의 심사사업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무릇 실내수업에서 쓰고 있는 모든 교재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은 교재는 실내수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대로 한다면 매년 80~90종의 교재를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몇년래 심사하는 교재는 30종상하에서 맴돌고 있으며 그것도 주로 자편교재들이다. 자편교재도 교과서 이외에는 심사하지 못하여 번역교재는 5~6년간에 한권도 심사하지 못했다. 그 원인 역시 경비부족에 있다. 관계부문에서는 이 문제를 중시하기 시작하였으며 경비도 증가해줄 뜻을 보이고 있다.

(6) 교재종수가 줄어드는 문제

조선문교재건설은 1989년도만 하더라도 년간교재출판종수가 근 700종에 달하여 전국 소수민족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몇년래 풀가와 로임이 부단히 올라감에 따라 결손액이 해마다 늘어나 비록 동북3성교육행정의 노력하에 보충액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역시 결손액의 증장폭을 따르지 못하여 해마다 교재 출판 종수가 줄어들어 지금은 600종까지 내려가고 있다. 문제는 매우 염중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이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안으로 제기되었으니 불원간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어문교원재직연수의 기본정황과 문제점

ON GENERAL SITUATION AND
EXISTING PROBLEMS IN IN-SERVICE
TRAINING OF TEACHERS OF THE
KOREAN LANGUAGE

연변교육학원 방학철

Bang Hak-cheol

Yanbian Educational College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조선어문교원 재직연수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풀어
하고 재직연수의 기본내용과 여러가지 형식을 소개했으며 교원의
민족적사명감문제와 언어규범화문제, 연수의 면을 확대할 문제와 연
수를 통일적으로 조직할 문제 등을 제기, 분석하였다.

This study expounded importance and necessity of in-service
training of teachers of the Korean language and introduced the
basic contents and forms of the training and analyzed the
teachers' consciousness of mission, standerdization of language,
extension of fields of training, unified organization of training
etc.

조선어문교원재직연수의 기본정황과 문제점

한 나라, 한 민족의 교육수준은 교원의 능력수준에 달렸다는 이 말은 교원양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주고 있다.

조선민족교육에서 주간을 이루는 기초도구파로서의 조선어문파의 교수에서도 그 질을 선속하고도 대폭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교재와 교수사상, 교수방법 면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조선어문교수에 대한 높은 사명감을 지니고 고상한 품덕수양을 갖추고 높은 문화지식과 업무능력을 소유한 교원대오를 건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은 과학기술에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재에 의거하며 인재는 교육에 의거하고 교육은 교원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변의 조선어문교원대오의 현상태를 살펴보면 10년동안의 교란과 파괴로 하여 친정으로 합격된 교원이 부족되고 대가 끊어지는 형편이다. 하여 최근년간에 교원가운데서 사법통신생수를 증가하여 모집했고 각종 형식의 단기학습반을 꾸리였으며 각 현(시)별로 사범반을 꾸려 몇기의 졸업생들을 각급 학교에 보내주었다.

1978년부터 우리 나라에서 대학, 중등전문학교의 학생모집시험제도를 회복한후 고등 및 중등사법교육을 받고 나온 교원들의 지식 구성면에서와 능력자질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정치, 경제형세의 변화발전, 세계상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교육, 교수면에서의 새로운 리론과 사상의 출범, 조선어문자체의 지식체계의 변화와 연구방법의 변화, 발전 등을 제때에 료해, 장악하고 부단히 지식을 갱신하여야만 이 변화발전되는 시대적수요에 적응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수요에 적응되는 조선어문교원대오를 건설하기 위하여 몇년래 연변교육학원과 각 현(시)교원연수학교들에서 중소학교(유치원도 포함) 조선어문교원(교양원) 재직연수사업을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1) 초급중학조선어문율간교원연수반:

주로 35세 이하의 1급교원들 가운데서 시험을 쳐서 모집한다음 집중강의와 자습을 결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학제는 2년인데 한개 학과목 학습이 끝나면 시험을 친다. 2년사이에 8개 학과목 시험에 다 통과되고 졸업논문까지 합격되면 졸업증을 발급한다. 연수학과목은 《현대교수론》, 《어문교수심리학》, 《어문지식분류와 목표교수》, 《습작학》, 《학습방법론》, 《어휘교수방법》, 《교수기획정보》, 《교수실천 및 전학》, 《교수론문을 어떻게 쓸것인가?》 등이였다.

2) 소학교원계속교육재직연수

자습을 위주로 하고 집중강의를 결합하는 이 연수는 《교육학》, 《심리학》 등 공동학과목을 제외하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나누어 《현대조선어》, 《조선어문교수와 실천》, 《어문지식분류와 목표교수》, 《조선어문교수심리학》, 《습작학개론》, 《학습방법론》, 《어휘교수방법》 등 학과목을 배운 다음 시험을 쳐 합격되면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고급반은 대학전과정도의 학습이다. 이 계속교육연수반은 그 면이 아주 넓은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에 전 주적으로 도합 5,067명이나 참가하였다.

3) 유치원교양원, 소학교교원 대학전과정도자습시험연수반:

이 연수반은 전 성적으로 통일시험을 쳐서 모집하였는데 연변 지역의 소학교교원 가운데서 1,900여명이 이 연수반에 참가하였다. 학제는 3년으로서 배우는 학과목은 《교육학》, 《심리학》,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 등 공동학과목 외에 《현대조선어》, 《문학개론》, 《아동문학》, 《문선습작》, 《조선어문교수법》, 《현대교수론》 등이 망라된다. 이 연수반은 일그대로 자습을 위주로 하고 집중강의를 결합하는 형식으로 학습하는데 한가지 학과목 학습이 끝나면 끝나는 쭉쭉 시

조선어문교원자격연수의 기본정황과 문제점

험을 친다. 모든 학과목이 다 합격되면 졸업증을 발급한다.

유치원교양원 대학전과정도자습시험연수반에는 전 주적으로 670명이 참가하였는데 배울 학과목은 소학교의 공동파목외에 《유아교육리론》, 《유아심리학》, 《유아언어발전과 교육》 등 학과목이 더 추가되었다.

4) 졸업합격증서발급연수반:

길림성교육위원회의 통일적포치에 따라 해당학력표준에 도달되지 못한 유치원교양원, 소학교원, 중학교원들이 해당 충차의 《교육학》, 《심리학》 등 공동학과목과 《현대조선어》, 《조선어문》(교과서), 《조선어문교수법》 등 전업파목을 학습한 기초상에서 시험을쳐서 합격되고 또 교수실기검사에서 통과되면 합격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 증서가 있어야 각 단계학교의 교원자격을 승인받고 진급 또는 로임평정의 의거로 삼을수 있다. 때문에 이 부류 교원들의 재직 학습의 적극성이 아주 높다.

5) 조선어문교재학습반:

조선어문교재가 새로 편찬될 때마다 꾸리는 학습반인데 중학교는 전 주적으로, 소학교는 각 현(시)별로 진행하고 있다. 학습반에서는 교수요강, 신편교재의 편찬의도, 교수요강정신의 체현, 교재의 구성특점, 교수방법제시, 교수전의 등 내용을 강의해줌으로써 교원들로 하여금 교재의 특점을 터득하고 교수중점과 난점을 파악하고 교수방향을 옳게 확정할수 있게 하였다.

6) 전문문제단기강습반

교수개혁의 발전수요에 근거하여 무엇이 필요되면 무엇을 보충해주는 원칙에 따라 연수내용을 정하고 강습반을 꾸리고 강의를 조직하는 것이다. 예하면 《교원주도와 학생주체에 관하여》, 《어문자습

능력 배양에 관하여》,《창조적 사유 능력 배양에 관하여》,《작문교수의 계열화문제》,《교수안 작성에 관하여》,《전주 어문교수개혁의 현황》,《위서생 어문교육사상》 등 전문문제를 가지고 특강을 조직해줌으로써 조선어문교수질을 높이고 교원들의 자질제고를 위해 리론적무기와 경험들을 제공해주었다. 이런 형식의 강습반은 시간적으로는 짧지만 효과가 좋았다.

7) 기라 형식의 재직연수.

조선어문교원들의 실무능력과 자질, 교수능력과 연구능력을 높이고 기본기능을 향마시키기 위하여 연구수업, 교수개혁실험, 학회활동, 각종 경연활동들을 연수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실천가운데서 제고를 가져오게 하였다.

(1) 여러가지 연구수업을 통한 실무능력의 제고.

조선어문교수개혁에서 제기되는 연구과제에 근거하여 주, 시(현)급의 중, 소학 조선어문연구수업(시범교수, 공개교수 등)을 학기마다 조직, 지도함으로써 골간교원들뿐만 아니라 참가교원들의 실무능력과 교수리론 학습을 실천적으로 제고시켰다. 연구수업을 조직, 지도하는 과정에 연구과제에 대한 리론분석지도, 교수방법지도를 시종 중시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교수경험과 교수방법을 평범위하게 선전, 보급할 수 있었다.

(2) 교수개혁실험을 통한 제고

1985년부터 《자습능력 배양을 위한 수업형태의 탐구》,《어휘교수에 모를 박고 어문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킬 문제》,《작문교수에서 사유능력 발전에 관하여》,《발하기를 주선으로 한 조선어문종합자질제고를 위한 수업모식의 탐구》,《목표교수와 대면적질제고》,《조선어문교수에서 학생들의 개성을 발전시킬 문제의 연구》,《조선어문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특장배양》,《빨리읽기에 대한 연구》 등 연구과제에 따라 주, 시(현)급실험점을 정하고 3년을 한개의 주

조선어문교원재직연수의 기본정황과 문제점

기로 교수개혁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담당교원 50여명에게 실험파제의 설정, 실험의 목적, 의의, 실험인자, 실험의 통제조건, 비교실험의 요령, 실험종화에서의 탐화관리 등등 리론적지도와 교수실천지도를 하여주는 가운데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해당 학교 지도부성원들의 리론수준과 교수능력, 연구수준까지도 현저히 제고시켰다.

(3) 중소학조선어문교수연구회(학회)활동을 통한 제고

1982년 5월 연변중소학조선어문교수연구회가 설립된 이래 시(현), 주, 성, 3성, 전국급의 교수연구회 년차회의에서 교수를 대놓거나 론문교류를 하는 등 형식으로 자기의 교수실천, 교수리론연구, 교수경험 등을 교류하고 학습하였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론문쓰기, 경험종화, 연구파제에 대한 탐구능력이 현저히 제고되었다. 지금까지 상기한 주급이상의 년차회의에 참가한 인수가 800여명이나 된다.

(4) 각종 경연을 통한 제고

성, 주, 시(현)교원연수학교에서 교원들의 업무능력과 기본기능 제고를 위하여 중, 소학교교원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경연을 벌리였다. 이를테면 글짓기경연, 교수안쓰기경연, 탕송탕독경연, 이야기경연, 철판글쓰기경연 등 단항 경연들이다. 그리고 각종 신문과 잡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연을 조직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전체 교원들의 업무자질제고와 기본기능제고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우수수업평의》, 《청년교원우수수업평의》, 《이음식 교수경연》, 《륜환식 교수경연》 등 활동을 통하여 교수수준과 실무수준제고를 추동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어문교원재직연수는 교수리론, 어문지식, 교재와 교수실천 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경로를 통하여 교원들에게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성과가 비교적 뚜렷하다.

그러나 금후의 연수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들도 있

다.

1) 조선어문교원으로서의 특수한 사명감을 자각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 몇년래 조선어문재적교원연수내용을 보면 주로 업무를 위한 리론지식과 교수방법론에 치우치고 조선어문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풍모와 태도면에 대한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였다. 즉 민족교육에서 조선어문학파목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 나아가서 민족문화의 발전, 민족의 존재와 발전에서 일으키는 역할을 맑스주의의 리론적높이에서 알도록 교육함이 부족하였다.

사람들은흔히 교원은 인류의 문명을 전파하고 인류의 지혜를 개발하고 인류의 평온을 부각하고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신성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조선어문교원은 이러한 일반적의미에서뿐만아니라 본 민족의 언어, 문자를 정확히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한편 흔히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애와 민족적자아의식을 길러줌으로써 금후 민족의 존재와 발전에 크게 영향을 일으킨다는 점을 명기하여야 한다. 또 교원들이 이러한 민족적자부심과 책임감을 자각할 때야만이 교수사업에서 최대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원연수를 통해서 그들자신이 깊어진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도록 하는것은 교원의 자질제고에 있어서나 교육실천에서 성과를 올림에 있어서 모두 큰 동력으로 된다고 본다.

2) 연수내용의 면을 보다 넓혀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한 연수내용을 둘이켜보면 교수실천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현대교육과학리론연구성과와 새로운 교수방법들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때문에 현대교수리론의 정수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줄 수 없었고 더욱기 역사적으로 훌려내려온 교수론의 유산과 방법들을 훌시하는데서 교원들의 사로를 넓혀줄수 없었다.

조선어문교원재적연수의 기본정황과 문제점

민족문화발전의 전초진지이며 민족교육의 주간을 이루는 조선어문교수사업에 종사하는 조선어문교원들 가운데 적지 않는 이들은 중국이주후의 민족문화발전사거나 민족교육, 조선어문교육발전사에 대해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되면 교수연구에서 새로운 돌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수에서는 교육, 교수리론에 대한 역사적고찰, 시대적고찰, 민족적고찰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돌려 지식면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3)연수의 통일배치를 잘하여 집중강의 시간을 늘여야 한다.

몇년래 진행한 각종 형식의 연수에서 주로 교수강위를 떠나지 않고 자습형식으로 학습한 기초상에서 간단한 집중강의를 받도록 하였기에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은 우점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교원부담이 큰 형편에서 자작적으로 자습을 견지한다는것이 간단치 않다. 대부분교원들은 시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습을 들격적으로 하기때문에 진정으로 깊이 있게 배워내지 못한다. 하기에 요구가 비교적 높은 연수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시간의 집중강의가 있어야 그 연수질을 보장할수 있다.

연수체계를 과학적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각 연수관리부문—통신학습관리부문, 계속교육관리부문, 자습시험판공실 등에서 서로 배합을 잘하여 통일적으로 규획하고 잘 배치해야 한다. 이것이 잘 되면 여러가지 연수반 학습기일이 중첩되는 폐단을 극복할수 있으며 연수질도 높일수 있다. 예하면 소학교교원계속교육연수와 대학전과정도자습시험연수반의 학원은 모두 소학교교원으로서 거의 100%의 교원들이 참가하는데 이런 학습반이 동시에 진행되면 학교의 수업에 영향이 크게 된다. 그러므로 연수의 질을 보장하고 학교교수에도 영향을 적게 주려면 한가지 연수가 끝나면 다른 연수를 하도록 배치하는것이 높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4)언어규범화에 힘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현대적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정보소통에서의 구두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수내용이나 연수과정에서 이 점을 강조하여 들어줘지 못하였다.

어릴 때부터 규범적이고 혜절이 바른 말을 배워야 일생동안 훌륭한 언어기초를 닦을수 있다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연변의 언어환경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비규범적이고 혜절이 없는 말과 한어식조선말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단계에서 언어교육을 더욱 중시하여 들어줘어야 한다. 그런데 유치원, 학교교육에서 이 영향을 시정반을 데신 가짐화되고있는 형편이다. 적지 않는 교원들은 비규범적인 생활용어와 교수용어를 마음대로 쓰기에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이 좋지 못하다. 학교교육에서 사투리, 한어말, 상스러운 말, 잡탕말들이 마음대로 범람하고있다. 연변의 학생들이 구두표달능력이 낮는 그 주되는 원인은 어휘교수와 말하기훈련을 흘시한데도 있지만 평상시 생활용어에 대한 지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교수용어가 혼란한것파도 갈라놓을수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의 기본기능을 교원들로부터 갖추게 요구해야 한다.

5) 연수재료가 결핍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재직교원들의 자질과 능력제고는 주요하게 책을 많이 보는데서 해결된다.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들에서는 경제난으로 하여 필요 한 신문잡지도 제대로 사서 볼수 없는 형편이다.

출판부문에서는 조선어문교원들이 볼수 있는 학습재료를 찍으려하여도 출판부수가 적기에 찍어내지 못하여 조선어문교원들이 볼수 있는 재료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우에서 말한 몇가지 연수형식에서 사용하는 연수교재도 자체로 편찬하거나 편역하여 찍어야 하므로 정력이 많이 들고 시간적인 보증을 할수 없으며 출판 부수가 적으므로 그 원가가 높랄 정도로 높아 학원들의 경제적부담이 크다.

이런 문제들은 상급의 행정부문에서 크게 고려해야 할바라고 인정한다.

조선어문교원재직연수의 기본정황과 문제점

이외에도 조선어문교원들의 현대화교수수단에 대한 인식과 장
악이 약한것 등으로 하여 현대교수리론, 현대교수평가 등을 정확히
장악, 처리할수 없다. 계속 이렇게 나아간다면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교원으로 될수밖에 없다고 인정한다.

연변조선족고중의 수학교수에 대한 몇 가지 생각

SOME THOUGHT ON MATHEMATICS
TEACHING IN YANBIAN KOREAN NA-
TIONALITY SENIOR MIDDLE SCHOOLS

연변교육학원 김해창

Kim Hae-chang

Yanbian Educational College

[론문요지]

이 글에서는 연변조선족고중 수학교수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고중수학교수의 새로운 요구에 텁각해 교수내용, 교수모식, 학습방법지도, 총복습, 수학경연 등 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 작자의 견해를 피력했다.

This study analyzed reality of mathematics teaching in Yanbian Korean Nationality senior middle schools and, starting from the new requirement of mathematics teaching in China, put forward several urgent problems in terms of contents of textbooks, teaching patterns, instruction of learning methods, general review, mathematics competition etc.

1. 서론

연변조선족고중의 수학교수에서는 《교원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며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것인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40여년간의 탐색과 실천을 거쳐 일정한 경험을 쌓았고 자기의 우세를 이루었으며 교수수준도 비교적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수업시간에 기초를 닦고 써클에서 사로를 넓히며 경연에서 기교를 높이는 수학영재교육은 남들의 공인을 받고있다. 매차의 전국수학경연에서 조선족고중생들이 출전 우수한 성적을 따냈고 대학입시에서 조선족응시생들의 수학평균성적과 우수률이 항상 앞자리를 차지해 왔다. 하여 조선족응시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높이고 해마다 20명좌우씩 청화대학, 북경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에 갈수있게 하는 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지금 연변의 조선족고중에는 150여명의 수학교원이 있는데 국가수학올림피고급지도원을 비롯하여 실력이 비교적 강한 교원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조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90년대에 들어선 후 우리의 수학교수개혁은 진척이 더디였고 교수질도 한시기 하강 추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80년대말까지 대학입시 수학성적에서 출전 우세를 차지했으나 91년도부터 평균점수가 한족보다 낮아지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형세는 준엄하다. 특히 출업자격시험제도의 개혁, 교재의 개혁,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등이 우리에 대한 충격은 아주 크다. 때문에 새로운 형세하에서 연변지구의 경제발전과 인문환경의 실정에 맞아 고중수학교육목표를 실현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새길을 탐색해내는것은 우리앞에 높인 중요한 과제이다. 오직 이 과제를 제때에 잘 풀어나가야만 21세기의 연변경제건설과 민족발전을 주도해나갈 조선족인재를 양성해낼수 있다. 아래에 이 과제를 둘러싸고 몇가지 문제를 토론하려 한다.

2. 교수내용문제

1996년 초기부터 새로운 교수요강에 의해 편집된 새 교재를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교수내용은 증가되나 교수시간수는 줄어들며 교재난도는 낮아지나 대학입시요구는 높아지는 모순이 초래된다. 대학입시의 수학시험을 레로 들면 1993년도부터 《기초지식을 전면적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수학능력을 치중하여 검사한다.》는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다. 이는 시험문제가 지식형으로부터 능력형으로 변했음을 말해준다. 1994년도의 대학입시 수학시험문제는 이 변화 특점을 충분히 체현하였다. 즉 새로운 문제정경을 설정하여 수험생의 수학응용의식과 창조정신 및 개성품성에 대한 검사를 《응용문제, 열독리해문제와 탐구성문제》속에 침투시켰다. 난도는 커지지 않았으나 수험생의 수학수준과 소질에 대한 요구가 뚜렷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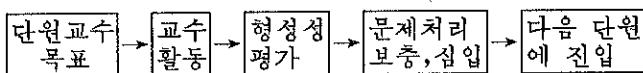
상술한 새 정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조선족고중들사이의 수준차이가 큰 실재에 험각하여 수학교수의 목표체계를 확립하고 목표수준에 따라 자격시험수준, 대학입시수준, 수학경연수준 등 세개급으로 나누어야 한다. 연변1중, 통정고중, 화룡고중, 훈춘제2고중 등 조건이 팬찮은 학교에서는 이 세개 급별의 목표를 다 완성해야 하며 기타 고중에서는 처음 두개 급별의 목표를 완성해야 한다.

목표가 확정된 후 《요강》과 《교재》, 《시험설명》에서 제기한 지식, 기능과 능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지식계렬, 혼련계렬과 시험계렬을 포함한 완전한 교수내용체계를 세워야 한다.

구체적인 조작에서는 자격시험수준을 기초로 하고 대학입시수준을 중점으로 하며 경연수준을 돌파구로 삼아야 하며 이 삼자를 상호보완, 상호추동하는 유기적인 결합체로 되게 함으로써 총목표에서 부동한 교수특색과 다채로운 교수풍격이 끊임없이 형성되게 해야 한다.

3. 교수모식 문제

그 어떤 모식이든지 언제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산생되고 역할을 발휘하게 되는만큼 어느때나, 어디에나 다 맞는 유일정확한 모식이 있을수 없다. 문제의 관점은 자체의 설정에 알맞는 교수모식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있다. 우리는 조선족고중생들의 수준차이가 큰 설정에 비추어 교수질을 대면적으로 빨리 높일수 있는 모식을 선택해야 할것이다. 목전에 있어서 『단원목표교수』모식의 응용에 중시를 돌릴 필요가 있다. 이 모식의 기초리론은 시카코대학의 교수B·S·Bloom이 설계해낸것인데 『목표→형성평가→습득학습→과정론』으로 개괄할수 있다. 우리는 이 리론에 기초하고 고중수학교수와 대학입시의 요구에 촉아 지식,방법,능력 등 삼자를 결합시켜 고중수학교수의 총목표를 높히 측정할수 있고 조작할수 있는 목표군으로 전환시키고 그에 상응한 단원목표교수모식을 다음과 같이 내용수 있다.



교수모식문제와 더불어 당면 수학교수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싶다.

(1) 학생들에게 수학학습흥취와 애호를 키워주어야 한다.

고중수학이 학생들의 중시를 받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수학을 즐겨배우는 학생은 많지 않다. 수학을 즐겨배우게 하려면 수학미에 대한 감상능력배양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학의 미는 그의 고도로 되는 엄밀성과 합리성의 결합체로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내적인 어울림을 이루고있다. 따라서 수학의 미는 내적미이며 조화적미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수학미를 발견하고 감상하는 방법을 가르쳐줌으로

써 그들고 하여금 수학자체의 매력에 끌려들어가 수학을 잘 배우려는 흥취와 욕망이 생겨나게 해야 하며 스스로 열심히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수학을 잘 가르칠수 있고 잘 배우게 할수 있는 관건이다.

(2) 학생들을 이끌어 수학교수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세 가지 기초》를 실속있게 다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늘 부딪치는 문제라면 학생들이 기초지식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절로 문제를 푸는데 숙련되지 못하며 지어는 틀리게 푸는것이다. 수학사유방법도 다 배워주고 연습시켰지만 문제를 풀때면 생각나지 않거나 응용하지 못한다. 또 수학능력을 배양했다고는 하지만 새 정경에 부딪치면 속수무책이 된다. 이는 주로 학생자신의 사유와 활동을 거치지 않고 교원의 강의에 의해 지식, 기능, 방법, 능력을 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주동적으로 교수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테면 계산기능 기교의 배양에서 훈련문제를 알심들여 설계하는외에 학생들을 지도하여 문제를 정성껏 풀게 하고 계산과정을 참답게 쓰게 해야 하며 산적과 산법을 잘 응용하여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 평시교수에서 이와 같은 훈련을 엄격히 틀어씀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집열부터 해답과 검산에 이르기까지의 문제풀이 전반과정을 독자적으로 완수하게 해야 하며 그가운데서 계산기능과 능력을 발전시키게 해야 한다.

(3) 수학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교수를 중시해야 한다.

조선족고중은 한족고중에 비해 수업과목이 많고 시간이 적기 때문에 1년이란 복습시간을 짜내기 위해 2년반에 배울 수학내용을 2년에 배워주고 있다. 하여 반년이란 정상교수시간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든 부분이 바로 지식형성과정의 교수를 진행해야 할 시간이다.

연변조선족고중 수학교수에 대한 몇가지 생각

그 결과 학생들은 수학지식 형성과정이 결여되고 수학사상방법을 구체적인 수학내용에 침투시킬 기회를 잃게 되었으며 다만 문제류형과 률에 맞춘 풀이방법을 암기하고 문제더미속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수학지식과정의 교수를 며나서는 학생들이 지식의 산생과 발전과정을 진정으로 이해할수 없고 지식의 갈래 및 기타 지식간의 내적연계와 총체중에서의 지위,작용을 파악할수 없으며 새 지식을 기존지식의 계통에 넣을수 없으며 인식구조를 점차 완벽화할수 없다. 수학지식과정을 떠난 교수는 기초를 제대로 닦아줄수 없으며 탐구능력배양은 더구나 운운할수 없다. 때문에 반드시 지식 형성과정 교수를 강화하고 완벽화하여 과정을 틀어쥐고 질을 높여야 하며 탐구의식과 탐구능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4) 의식을 키워주고 사유를 발전시키며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능력배양은 최근년래의 인기화제로 되고 있다.'수학능력의 함의, 구성요소, 배양수단과 방식 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것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능력배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간 이해하고 있다. 즉 수학교수활동을 통하여 『세가지 기초』를 장악시키는 과정에 초보적이나마 과학적인 태도(질사구사하며 근거있고 조리있게 서술하며 진리를 견지하고 오류를 시정하는것 등)를 구비할수 있고 좋은 학습습관(합리한 문제해결방법, 간단명료한 표달방식, 준확한 검증방법 등)을 양성할수 있으며 우수한 개성품성(견강한 의지, 완강한 의력, 고심연찬하는 정신 등)과 탐구능력을 키울수 있다. 이 모든것은 다 평시의 수학교수중에서 모를지기 감수되고 날마다 투辄되면서 점차 의식적으로 형성,제고되는것이다. 때문에 평시교수에서 수학응용의식의 배양을 강화해야 하며 수학지식의 형성, 운용과정에 중시를 돌려 관찰, 분석, 종합, 추상, 개괄 능력을 배양하고 사유품성을 제고, 개선시켜야 한다. 또한 평시교수에서 일부 탐구성문제와 응

용성문제를 제기하고 적당한 정경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탐구성사유 활동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탐구의 방법을 배우게 하고 탐구성 사유 능력을 높이게 해야 한다.

(5) 교수예술을 높여 교수를 활약시켜야 한다.

교수활동은 교원과 학생이 공동히 참여해야만 진행될수 있다. 교수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교수조직을 활약시켜 교원과 학생의 호흡이 맞아떨어지게 해야 한다. 문제의 관건은 어떤 《학습집단》을 형성하고 집단동력학적인 효능을 어떻게 발휘시키는가에 있다. 이 《학습집단》은 시간과 공간의 자연집합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사이, 교원과 학생사이에 서로 계발하고 서로 보완하며 서로 주동할수 있으며 집단중의 모든 사람의 사유를 유발, 훈련, 형성시킬수 있는 유기적인 조직체이다. 이러한 집단을 형성시킴에 있어서 교원의 주도작용과 창조성이 결정적요소로 되며 그것은 또 교수예술로 표면화된다. 일본의 교육가인 사이또 요시히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가 보전대 교원은 예술가이다. 교원의 가장 중대한 사업은 교수이다. 교수가 진정으로 창조적이고 탐구적인 활동으로 된다면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여 사람들에게 예술적 배력을 주게 될것이다. 오직 이러한 교수로 되여야만 아동이나 교원이나 다 만족될수 있고 진보할수 있으며 자아변혁을 가져올수 있다.』 때문에 교원은 개척정신과 창조성이 강해야 하며 교수예술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3. 학습방법지도문제

수학을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학생이 교수활동에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주동적으로 참여하는것이다. 지금 적지 않은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수업전 예습을 제창하면서 예습제강을 내준다

연변조선족고중 수학교수에 대한 몇가지 생각

거나 수업시간에 정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주동성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을 피동의 국면에서 해여나오게 할수 없으며 기껏해야 이제 배울 내용을 대충료해하거나 시간의 강의를 좀 더 귀담아 듣는 효과를 볼수 있을뿐이다. 뿐만아니라 자칫하면 이미 보았다는 이유로 교원의 강의에 흥취를 느끼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을 훌려보내면서 지식을 제대로 뒤울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교재와 교원의 강의를 하나의 요소로 삼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주동적으로 사고하며 창조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요구와 거리가 멀다. 학생들을 학습의 주동으로 되게 하려면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1) 학생들로 하여금 《앞선 자유》를 진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앞선 자유》란 한 수학개념이나 정리가 제기되면 학생자체로 먼저 정의를 내려보거나 증명을 해보며 한 문제가 제기되면 학생자기로 먼저 관찰, 분석, 해답해보고 자기로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가 등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요컨대 학생이 자기의 머리로 교원의 강의거나 교재의 서술에 앞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철사 큰 템포로 멀리 앞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원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한것인가라고 추측할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수활동중에 학생들은 직접 그 정경속에 들어갈수 있고 과정의 전후관계를 똑똑히 파악할수 있으며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속득이 온고할수 있게 된다. 예문에 교원은 수업시간에 급급히 결론을 내리거나 정답을 줄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충분히 사색할 기회를 주어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 분석하고 해결방식을 찾을수 있도록 지도해주어야 한다.

(2) 학생들로 하여금 교수활동중에서 과감히 선생님에게 《도전》할수 있고 난제를 제기할수도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을

평가할수도 있게 해야 한다.

교원의 결론이 언제나 정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광범위히 교원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들이대도록 제창해야 하며 교원이 내린 결론을 부정해볼수 있도록 고민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교원의(혹은 교재의) 모종 결론을 부정해보는 가운데서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반면으로부터 개념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수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역량사고방식은 능력발전에 아주 유리하다.

(3)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절로 수학학습방법을 총화, 귀납, 개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기초장에서 학생들간에 서로 교류하게 해야 한다. 이는 자기의 독립적인 학습능력을 키우고 더욱 높은 수준으로 부상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4. 총복습문제

대학입시에 대응하기 위한 수학총복습에서 우리는 세단계로 나누어 복습을 조직하는 좋은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자격시험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이 경험이 새로운 정황에 맞지 않는다는것이 알려지고 있다. 총복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대학입시에서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따내려면 자격시험에 끝난다음의 복습을 어떻게 꾸미는가가 난점이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참다운 연구를 거쳐 올해안으로 우리 학생들의 실제에 알맞는 자료를 편찬하는것이 급선무로 나서고 있다. 자료편찬에 있어서 《수학시험설명》의 요구에 쫓아 자료의 질과 수준을 높이면서도 문제의 종량을 적당한 범위로 통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부담을 경감하는 전제하에서 배운 지식을 더 튼튼히 닦고 사유와 능력을 더 잘 키우도록 해야 한다.

5. 수학경연문제

수학 지혜와 미의 경연이 끝 수학올림픽(IMO)이다. 1982년도부터 전국고중수학경연에 참가한이래 연변조선족고중에서는 기꺼운 성과를 따냈다. 하여 《성내에서 앞자리를 굳히고 국내에서 이름을 날렸다》는 찬양과 공인을 받았다. 그중 연변1중에서는 1988년도부터 성내의 제1위를 확보해왔고 해마다 전국수학겨울철올림픽에 참가했으며 국가수학올림픽집중훈련팀에도 수차나 선수를 보냈다. 그리고 1991년도부터 단체상을 설치한이래 세차의 단체1등과 한차의 단체2등을 따냈다.

우리의 목표는 IMO의 금질상이고 세인들에게 연변조선족의 지혜와 재능을 충분히 과시하는것이다. 이하자면 수학올림픽학교가 수풀처럼 일어서고있는 현실에서 우리도 지도교원대오의 자질을 전국의 1류수준으로 제고시켜야 하며 학생선수들의 훈련조건과 훈련방식을 개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애로와 곤난에 직면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관건적인것은 강유력한 경제적지원이 결핍한것이다. 방방곡곡의 유지인사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연변조선족고중의 수학교수론건설을 틀어쥐고 청년교원들중에서 학자,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것을 부언하고싶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교원들에게 연수의 조건을 마련해주고 단련할 기회를 창조해주어야 하며 대담히 중임을 떠맡기여 교수실천가운데서 하루빨리 성장되게 해야 한다.

참고자료

- ①조재한, 채금법: 《수학교육학개론》(한문), 강소인민출판사
1989년판.

- ② 임장희:《수학사유론》(한문), 광서교육출판사 1990년판.
- ③ 《중국대백과전서》(교육)(한문), 중국대백과전서출판사 1985년판.
- ④ 종계천:《현대교수론의 발전》(한문), 교육과학출판사 1992년판.

연변의 조선족교육과 조선족인구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AND POPULATION IN YANBIAN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서효성

Seo Hyo-seong

Northeast Chin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론문요지〕

본문에서는 조선족교육과 조선족문화자질간의 관계, 조선족교육과 조선족인구장성간의 관계, 조선족인구류동과 조선족교육발전간의 관계를 분석했으며 조선족인구의 감소와 류동에 주의를 돌리고 그에 상응한 대책을 대야 한다는 건의를 내놓았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Nationality education and cultural qualities, education and increase of population, movement of population and educational development. The author suggested attention be paid to decrease of

Korean Nationality population and migration and related measures be taken to solve these problems.

장기간 사람들은 교육과 인구를 갈라놓고 그의 발전, 변화를 연구하여왔다. 그러나 전반 사회발전력을 둘이켜보면 교육과 인구는 밀접한 연계가 있으며 양자는 서로 촉진하고 서로 제약한다. 교육의 발전은 인구의 자질과 증감에 영향주며 반대로 인구의 증감은 교육의 발전에 영향준다. 때문에 교육을 인구와의 상호 연계속에서 연구하여야 한다. 본문에서는 연변조선족의 실제정황으로부터 조선족교육의 발전과 조선족인구문화자질과의 관계, 교육과 조선족인구 출생률간의 관계, 인구증감이 조선족교육발전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후 두가지 전의를 제기하기로 한다.

1. 조선족교육의 발전과 조선족 인구의 문화자질

교육은 인구의 문화자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교육이 보급되면 될수록, 교육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구의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인구의 평균문화정도와 자질이 높아지게 된다.

문화중상, 교육중상의 전통을 지닌 조선족은 아주하여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130여년간에 남달리 교육에 중시를 돌리고 민족교육을 발전시켰으며 민족교육발전을 통하여 민족인구의 문화자질을 높였다.

연변의 조선족은 본세기 50년대에 벌써 소학교와 초중교육의 기본적인 보급과 청년, 장년가운데서의 문맹퇴치사업을 완수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비교적 완전한 민족교육체계를 이루하였다. 1992년도에 이르러 연변에는 조선족소학교(민족현합학교 포함) 356개소에 재학생이 81,466명이 되고 조선족중학교(민족현합학교를 포함) 108개소에 재학생이 42,055명이 되었다. 그리고 연변대학, 연변의 학원, 연변농학원, 길림예술학원연변분원, 연변새벽농민대학 등 5개소의 대학이 있게 되고 연변제1사범학교, 연변재정무역학교 등 9개소의

연변의 조선족교육과 조선족인구

중등전문학교가 있게 되었으며 연변량식종업원중등전문학교 등 11개소의 성인중등전문학교가 있게 되었다. 보다깊이 조선족교육의 발전은 조선족인구의 문화자질제고를 촉진하게 되었다.

지금 연변조선족인구의 문화정도는 전주 총인구의 문화정도보다 훨씬 높다. 1990년도의 연변조선족가정 4,000호에 대한 전분조사에 의하면 25세이상의 인구중에서 대학문화정도가 3%, 전과 및 중등전문학교문화정도가 4%, 고중문화정도가 22.6%, 초중문화정도가 39.4%, 소학교문화정도가 21.47%, 문맹이 0.8%를 차지한다. 지역적으로 보면 도시조선족인구의 문화정도가 농촌조선족인구문화정도보다 높다.

연변조선족인구문화정도구성을 보면 대학문화정도인구구성은 우리 나라의 3배이며 이탈리아, 원 렌방독일과 비슷하다. 고중문화정도구성은 우리 나라의 3.8배이며 문맹, 반문맹구성은 근근히 0.8%로서 전국 수준보다 훨씬 낮다. 문화정도구성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상승하였는데 대학문화정도는 45~49세가 6.25%, 40~44세가 4.21%이고 30~39세의 대학문화정도구성이 비교적 낮다. 35세 이하의 각 연령 단계의 고중문화정도비례는 상승되고 반면에 초중문화정도비례는 하강되고 있으며 조선족인구문화정도가 점차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문맹은 50세이상에 집중되어 있고 10~44세 각 연령단계의 문맹비율은 1%이하, 25~34세에서의 문맹은 0.1%이하이다. 이상에서 보다깊이 전국후 연변조선족교육의 신속한 발전으로 하여 연변조선족의 인구문화정도는 많이 높아졌다.

2. 조선족교육과 조선족인구출생률

교육의 보급은 사람들의 문화정도를 제고시키고 문화정도의 제고는 인구출생률에 영향준다. 특히 부녀들의 문화정도의 높고낮음은 영아출생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출생률의 상승 혹은 하강

은 인구발전에 영향을 준다.

우리 나라에서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한 이래 연변조선족인구의 영아출생률은 뚜렷이 내려갔고 반면에 외자녀률은 현저히 상승되었다.

1994년 말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연변의 총인구는 235.5만명으로서 1993년 말보다 1.6만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서 85.5만명은 조선족인데 자연장성률은 0.74%, 장성률은 평에 접근하였다. 전주 조선족영아출생률은 8.7%이고 도시와 농촌의 영아출생률은 각기 7.6%, 8.3%이다. 출생률의 높고 낮음은 그 당시 사회경제배경, 사회문화생활과 관계되지만 교육정도의 높고 낮음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1) 문화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과학지식을 배우고 기능을 편마하는 과정에 안계가 날로 넓어지게 되고 리상과 사업에 대한 신심이 커지게 되는데서 극력 늦게 결혼하고 늦게 생육하며 적게 생육한다. 생육년차도 비교적 긴데 그 주요원인을 보면 혼인과 자녀로 인해 자기의 발전이 저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문화정도가 높을수록 평균결혼년령이 연장된다. 많은 청년들이 가정경제가 허락되는 조건하에서 보다 높은 학력교육을 받기 위해 혼인을 뒤로 미루고 늦게 결혼하는데 이로하여 결혼년령이 연장된다.

(3)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문화정도가 높으면 과학적으로 갖난애를 간호하고 보살필수 있기에 갖난애의 사망률이 현저히 하강된다. 이 역시 아이 하나만 키우고 더 생육하여 하지 않는 원인으로 된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는바 교육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지며 문화정도가 제고됨에 따라 영아출생률은 내려간다.

3. 조선족인구의 증감과 조선족교육

인구학의 각도에서 보면 사회인구의 부단한 발전, 변화에 따라 교육도 부단히 발전, 변화한다. 최저한도의 인구는 교육활동의 존재와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조건으로 되는바 인구수호의 많고 적음은 교육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일정한 지역사회 인구수호의 많고 적음은 인구의 자연적증감과 기계적증감에 의해 좌우지된다. 인구의 자연적증감이란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인구의 장성 혹은 감소를 가리키고 인구의 기계적증감이란 인구류동(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가리킴)으로 인한 인구의 장성 혹은 감소를 가리킨다.

(1) 인구의 기계적증감이 조선족교육에 주는 영향

경제발전은 인구류동을 촉진하고 인구류동은 인구의 재분포를 초래한다. 인구의 재분포로 하여 해당 지역사회에는 유리한 일면도 있고 불리한 일면도 있게 된다.

개혁, 개방이래 연변조선족들의 인구류동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류동인구가운데서 자신의 문화자질을 더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에 류학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정경제를 쭈세우기 위해 고향을 떠나 경제가 보다 발달된 연해개방도시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으며 로무일군으로 외국에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런 빈번한 인구류동으로하여 조선족 성인교육과 기초교육이 영향받고 있다.

① 인구류동은 성인교육에 영향준다.

성인교육은 사회경제발전과 과학기술진보의 필요한 조건이다. 성인교육을 크게 발전시켜 로동자의 과학문화자질을 제고시키는것은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자못 중요한 현실적의의가 있다.

조선족의 류동인구에서 청장년인구가 가장 많은데 종류동인구의 90%를 차지한다. 지역적으로 보면 농촌인구가 도시인구보다 많으며 문화구성을 보면 초중문화정도가 많다. 연변을 떠난 성인들이 1년이상으로 내지 혹은 국외에 가 있다보니 성인교육학생태원이 감소되고 성인교육운영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연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성인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하여 문화자질을 더 제고할 기회를 잃는것은 물론 성인교육의 규모효과가 높지 못한 결과도 초래하게 된다. 이로부터 보면 연변조선족의 인구류동은 지역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많은 유리한 점을 갖다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인교육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된다는것도 간파할수 없다. 평생교육의 각도에서 이 문제를 소홀히 대할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②인구류동은 기초교육에 영향준다.

ㄱ. 농촌기초교육에서

우리 연변은 연해지구에 비해 경제가 그리 발달하지 못했고 조선족농촌의 생활수준도 그리 높지 못하며 농촌가정의 경제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개변하기 위해 농촌사람들은 온가정을 이끌고 도시로 진출하여 장사를 벌리거나 기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인구의 류동으로 하여 지금 어떤 농촌조선족중소학교의 학생태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한해전녀 모집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일부 학급은 학생이 남지 않은 상태에 처하여 있고 어떤 학교는 학생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부득불 다른 학교와 합병하지 않으면 안되고 있다. 현데 합병후의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기숙제를 실시하기에 적지 않는 학생들이 경제난으로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사회로 나간다. 이는 모두 의무교육보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ㄴ. 도시기초교육에서

지금 우리 연변조선족의 인구류동을 보면 연변을 벗어나 대도

연변의 조선족교육과 조선족인구

시에로, 국외에로 나가는 외에도 연변내의 시, 전에 모여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길시에 들어오는 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 민족의 접거를 축진하여 유리한 접도 갖다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육면에서 일련의 문제를 초래시킨다. 지금 연길시 중소학교의 학생수가 많이 불어나고 있다. 결과 교실이 부족되어 어떤 학교에서는 부득이 2부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 인구의 자연적증감이 조선족교육에 주는 영향

다민족국가에서 소수민족은 전반 사회적으로나 지역사회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본민족의 전통문화를 더욱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본민족의 언어문자를 더욱 잘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라고 보면 인구의 자연장성률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은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유리하다.

지금 연변의 조선족영아출생률은 내려가고 인구장성률은 령에 접근하고 있다. 지역사회별로 보면 일부 지방은 인구수효가 감소되고 있다. 1994년의 통계에 따르면 통정시인구는 미누스자연장성이이고 통정, 화룡, 왕청 3개 시, 현의 35개 향, 진이 미누스장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누스장성폭은 39.13%이다. 이는 우려를 자아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술한 현상은 민족교육발전에 불리한 점을 갖다주기도 한다. 인구감소로 하여 어떤 곳에서는 학교를 운영해나갈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고 중소학생들은 부득불 먼곳의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곤난과 부담이 조성되어 의무교육의 보급이 영향받게 된다.

4. 두 가지 건의

(1) 농촌인구의 맹목적인 류동을 통제해야 하며 농촌청장년들

의 문화자질을 데한 총 제고해야 한다. 농촌인구가 도시에로 류동하는 것은 사회발전과정의 필연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농촌인구의 맹목적인 류동은 일련의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특히 농촌학교의 학생래월이 줄어들게 하여 민족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인구류동을 사회발전의 수요에 맞게 적당한 규모로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응한 정책을 제정, 실시하는 한편 농민들에 대한 실용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농민기술학교를 잘 꾸려야 한다. 이런 강습을 통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당시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치부하게 함으로써 농촌인구를 상대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2) 영아출생률의 하강에 중시를 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진파 시교의 영아출생률이 비교적 낮다. 그 주요한 원인을 보면 어떤 가정에서는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 둘을 돌볼 여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적지 않은 농촌 가정들에서도 아이 하나만 키우고 있다. 이로 해서 연변의 조선족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우대정책을 강구하여 민족인구정책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영아출생률을 담보하게 함으로써 인구규모와 인구구성의 정상화 및 교육의 상대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족 학생과 교원의 기질류형 분포 및 가변성특성

DISTRIBUTION OF TYPES OF TEMPERAMENT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ABILITY OF KOREAN NATIONALITY STUDENTS AND TEACHERS

흑룡강성오상조선족사범학교 량영석

Ryang Yeong-seok

Wuchang Korean Nationality Normal
School, Heilongjiang Province

[논문요지]

조사연구한 결과로 보면 소학생단계에서는 담즙질이 우세를 차지하다가 중등사범생후기부러는 대혈질이 절대적우세를 차지하게 되며 중소학교교원시기에 들어선후에는 기질류형이 기본상 안정된다. 기질류형변화의 초점은 사회생활환경의 제 요인과 개체의식간의 결합점에 있다. 기질류형의 분포는 민족성을 띤다.

This paper, reviewing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reported that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choleric temperament was dominant, while among students of normal school students sanguine temperament took absolute dominance and when they became teachers of primary and middle schools, their

temperaments were stabilized. The main cause of change of types of temperaments lay on the combining point of social life factors and individual consciousness. Obviously, distribution of types of temperaments had nationality characteristics.

1. 연구목적

기질과 기질류형에 대한 연구는 일찍 2,000년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심리학자들은 기질이란 《인간의 감정, 행위 및 지능과 심리활동에서 표현되는 동력적 특징》^①으로, 기질류형은 《한부류의 사람들이 공동히 가지고있거나 혹은 그와 서로 순응되는 심리적 특징의 전형적인 결합》^②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기질은 사회나 사업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사업의 진전, 사업성과의 획득, 사업효과의 제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질연구에 대한 선인들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거니와 기질에 유관된 새로운 연구를 부단히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 민족교육의 특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족 소학교학생과 중등사범학교학생(년령단계는 청년초기), 중소학교교원(중학교교원은 초급중학교교원을 위주로 함)의 기질류형의 분포정황과 기질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합법칙적인 변화과정 및 그가 변성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중등사범학교교육에 의거를 제공해주며 동시에 조선족중소학교의 교수, 교양사업에서 학생들의 기질특성을 틀어쥐고 건강한 성격을 배양하는데 심리학적의거를 제공하는것을 취지로 한다.

상술한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는 오장조선족사범학교 과외《인격조사조》를 내오고 1989년 5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장착기(張拓基), 진회창(陳會昌)의 《기질류형조사표》에 근거하여 소학교학생,

조선족 학생과 교원의 기질류형 분포 및 가변성특성

중등사범학교 학생과 중소학교 교원에 대한 기질조사기수를 정하고 조사일군들에 대한 비교적 엄밀한 조작기술훈련을 진행하였다. 또 그 조작요령을 시험해보고 그것을 총화한 토대우에서 당시의 오상현, 헤림현, 상지현, 벌리현과 내몽골 등 지역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조사대상으로는 9개소의 조선족 소학교 학생 343명 (4~6학년), 오상조선족 사범학교 학생 350명 (4년제 학교의 3학년 학생), 그리고 8개소의 조선족 중소학교 교원들과 흑룡강성 조선족 교원 연수학원 연수생 (모두 재직교원들임) 및 리적퇴직했거나 휴양중에 있는 교원들 중 351명을 선택하였다.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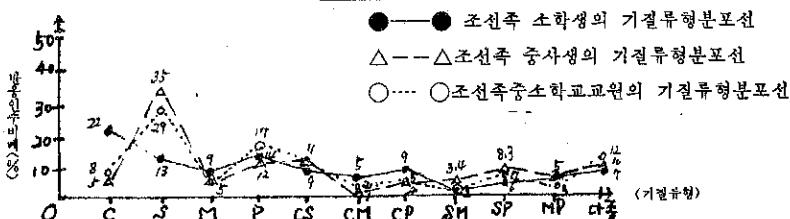
(1) 기질류형의 분포정황

표 1: 기질류형의 분포와 χ^2 검험

방 법 기 질 류 형 비 례 도	기질류형 분포비례												합계									
	급급형			우울형			경력형			급우형			경우형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인수 (%)						
소	75	22	43	13	31	9	18	14	30	9	16	5	31	9	22	21	5	17	26	7	343(101)	
우	19	6	12	35	19	6	11	12	39	11	4	2	12	3	4	29	8	3	18	5	34	100
속	28	8	10	29	17	6	60	17	37	11	7	2	16	6	8	23	7	11	3	43	12	351(109)
병	122	35	264	77	19	43	150	67	106	10	27	6	61	18	25	74	21	3	46	13	102	301(100)
각 기질류형의 χ^2	△	□	○	■	▲	■	○	■	△	□	○	■	△	□	○	■	△	□	○	■	△	□
총체적 χ^2 차	△=P<0.001	□=P<0.01	○=P<0.05	()안의 수자는 평균수	인수의 차	인수의 차	인수의 차	인수의 차	인수의 차	인수의 차	인수의 차											

$\Delta = P < 0.001 \quad \square = P < 0.01 \quad \circ = P < 0.05 \quad ()$ 안의 수자는 평균수

도형 1: 기질류형의 분포비례도



《표1》과 《도형1》에서 조선족 소학생과 중사생 및 중소학교교원의 기질류형을 보면 인수비례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그 현저성은 $P < 0.05$ 이다. 주요하게는 소학생과 중사생간의 담즙질과 다혈질비례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학생의 담즙질비례는 중사생과 중소학교교원들보다 각기 17%, 14% 더 높으나 다혈질비례는 중사생과 중소학교교원들보다 각기 23%, 14% 더 낮다. 그외의 기질류형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이로부터 우리 조선족학생들은 소학교때에는 담즙질이 우세이고 중사시절(즉 고급중학교단계)에는 다혈질이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게 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2) 기질류형의 변화원인과 가변성특성

기질류형의 변화원인 및 그 특성을 밝히고자 우리는 중사생과 중소학교교원 320명을 선택조사하였는데 결과 126명이 정도부동하게 기질면에 변화가 있었고 그중 96명에게는 현저한 기질변화현상이 존재하였다. 아래에 그 변화원인과 특점을 보기로 하자.

표2: 기질류형의 변화원인과 그 특점

사호생활환경			폐제	특점
원인	인수	%		
가정원인	14 14. 6서		① 어머니가 재가하거나 계모가 들어온으로 하여 고독감을 느낌. 가정의 불화로 인한 역반심리현상이 산생. (7명) ② 가정경제난으로 학습에 실망감을 초래함. (2명) ③ 부모의 성격이 조폭하여 개성이 압제당해 고민함. (2명) ④ 물질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방식이 개변되고 자호감을 느낌. (3명)	① 가정의 영향으로 외향성 기질이 내향성 기질로 전이됨. (①②③) ② 가정의 영향으로 내향성 기질이 외향성 기질로 전이됨. (④)

조선족 학생과 교원의 기질류형 분포 및 가변성특성

학교교육방법의 원인 20 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초중 때 학습부담을 느꼈고 사범학교에 와서는 따라가지 못함. (5명) ②사범학교의 정향성 배양으로 자기의 전도를 고려 함. (5명) ③초중 때에 인간관계가 비교적 긴장했으나 사범에 와서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니 환경에 적응될 수 있어 대답해지고 활발해짐.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학교집단생활에서 받는 압력으로 외향성기질이 내향성기질로 변화됨 (①②) ②환경에 순응하기 위한 노력과 분투로 내향성기질이 외향성기질로 변화됨. (③)
사회적인 원인 42 4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문화대혁명시기》에 《혈통론》의 영향을 받음. (2명) ②대학시험에서 여러번 탄방되어 실망함. (18명) ③허위적인 인간관계, 부정기풍, 금전관계 등 사회모순을 회피하려 함. (8명) ④개혁, 개방시기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의식적인 창조적노력을 함. (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사회의 소극적인 영향을 받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외향성기질로부터 내향성기질로 전이됨. (①②③) ②사회환경에 적응하려고 창조적노력을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내향성기질로부터 외향성기질로 변화됨 (④)
개체실천에서의 원인 20 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생리적 성장으로 일정한 기질변화가 있었음. (10명) ②연애에서 실패하여 좌절감을 느낌(6명) ③교육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자 활약적인 데로 발전함(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원래 담즙질, 다혈질에 속했던 리트리직교원들이 점액질 또는 혼합형기질로 변화됨. (①) ②연애생활에서의 좌절이 외향성기질에서 내향성기질로 변하게 함. (②) ③성취감으로 하여 일부 내향성기질이 외향성기질로 전이됨. (③)

《표2》에서 보다 많이 개체의 성장에서 원 기질류형의 특점이 은폐되거나 변할수 있는데 그중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사회환경의

영향(정치, 경제, 인간관계 등)이다. 이 밖에도 학교생활 및 그 환경이 주는 영향과 가정의 영향, 그리고 자기의 직접적인 실천활동의 영향도 있다. 기질변화의 그 어떤 요인인가는 결국에 가서는 모두 인간의 내적요소를 통하여 작용하게 되는바 그 가변성의 초점은 바로 사회생활환경의 제 요인과 주관의식지간의 결합점에 있다고 본다. 기질류형의 특점이 음폐되거나 또는 변화하는 초점은 원 기질류형의 동력적특점상에서 변화(음폐 또는 변화)를 일으키는 외적인 환경조건과 내적인 의식간의 결합점이다. 이것이 바로 기질변화의 기점이라고 볼수 있다.

《표2》에서 볼수 있는 다른 한방면은 70%좌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 기질이 비교적 안정되고 기본상 변함이 없는데 이는 기질류형의 변화범위가 크지 않고 소학교시절로부터 로년에 이르는 시간내에 점차 변화되거나 성장과정중에 기질변화에 영향주는 일부 요소에 의해 변화발전하기때문에 그 속도가 매우 데디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기질류형의 특점은 유년기에 비교적 선명하게 표현되고 소년기,장년기,로년기에는 단계적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호남사범대학 진효단교수가 지적한 『기질은 유년기에 민첩하고 열정적이며 적극적인가 하면 조금하고 둘뜨며 장년기에는 동정심이 있고 굳세고 기민하고 활동을 즐기고 심각하며 로년기에는 침착하고 조용하면서도 견정하고 랭담하고 고독하다.』^⑧라는 판점이 바로 우리 조선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3)조,한 두민족의 기질류형의 분포정황 및 그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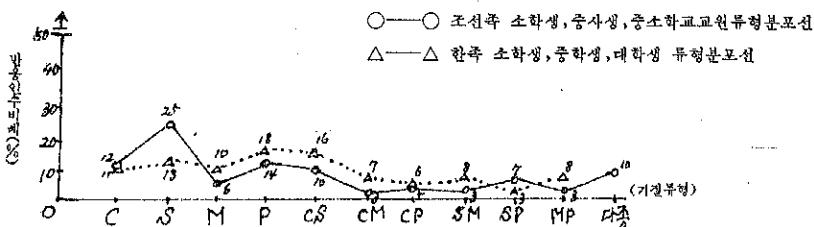
표3:조,한 두 민족의 기질류형의 분포정황 및 χ^2 검험^⑨

조선족 학생과 교원의 기질류형 분포 및 가변성특성

기 질 류 형		단 일 류 형				혼합류형
민 족	C(%)	S(%)	M(%)	P(%)		
	조선족	11.7	25.3	6.4	14.4	42.2
	한족	11.5	12.6	10.3	18.2	47.4
	합계	23.2	37.9	16.7	32.6	89.6
각 류형의 대비 χ^2 치	0.002	4.256	0.911	0.433	0.302	
단일류형지간의 χ^2 치			11.129●			
총체적 류형지간의 χ^2 치			5.914●			

● = $P < 0.05$ * 한족의 기질류형비례수자는 조학생, 중학생, 대학생수임

도형 2: 조, 한 두 민족의 기질류형분포 인수비례 대비도^⑤



《표3》,《도형2》에서 보다싶이 조, 한 두 민족 아동, 소년, 성년의 기질류형의 분포에서 조선족은 한족들보다 다혈질이 절제적인 우세를 차지하는바 두 민족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현저성은 $P < 0.05$ 이다. 그외의 류형에서는 별차이가 없으나 이로 인하여 두 민족사이의 기질류형의 총적추세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 점으로 보아 기질류형의 분포에는 민족성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3. 토론

(1) 기질류형변화의 기점 및 연구되어야 할 문제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기질류형의 가변성의 초점은 사회생활환경의 제 요인과 개체의식의 결합점이다. 이는 기질류형의 특점이 음폐 또는 변화되는 기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범학교 3학년의 한 학생은 원래 사회활동에서나 집단생활에서 매우 활약적이었을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비교적 뛰여나게 잘하였다. 성격도 활달하고 명랑하여 동창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재가한 후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늘 수심에 잠기고 고독해졌다. 2년후 그는 말수가 적고 떠들썩한 곳을 피해다니며 모든 일에 짜증을 내는 괴僻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였다. 이런 성격적변화로 인하여 원래 다혈질이던 이 학생은 가정의 불행으로 내적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우울질의 기질특점을 나타내게 되었다. 『수심에 잠기고 고독감을 느낀』 이 점이 바로 기질류형이 변화를 일으킨 『가정환경조건과 개체의식의 결합점』으로서 그의 원 기질류형의 특점을 음폐시켰거나 변화를 일으킨 기점으로 된다.

사회발전단계의 그 어떤 중대한 사건이든지 정도부동하게 개체의 기질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올수 있게 되는게 이것도 역시 사회환경조건의 영향과 개체의식의 결합점으로부터 인기된 것이다. 안휘사범대학 리봉(李鋒)이 쓴 『대학생 306명의 기질과 성격에 대한 조사와 분석』^⑩이란 문장에서는 『문화대혁명』전에 외향성기질에 속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약 40%가 그후 내향성기질로 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문화대혁명』이란 이 특수한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아 내적변화를 가져왔다는 이것이 바로 사회환경조건의 요인과 개체의식의 결합점으로서 원 기질류형이 변화된 기점이다.

상술한 내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몇가지 면에 특의하여 연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①기질류형에 대한 연구는 소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치중하여 어떤 조건하에서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문제를 둘어주고 연구되어야 한다.

②초중시기와 중사초기에는 매개 학생들에게 자기의 기질류형과 정반면의 기질특점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면을 발휘하고 소극적인 면을 극복하도록 인도하여야 하며 기질류형의 《결합점》을 제때에 인식하고 자기를 통제하도록 인도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2) 이미 앞에서 말하다시피 조선족과 한족의 기질류형분포정황을 대비해보면 조선족은 한족보다 다혈질이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한다. 이는 조선족의 문화역사배경과 풍속습관파도 관련되는바 개혁개방이 날로 심화되어가는 오늘날 자체의 이런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새로운 사물을 제때에 빨리 받아들이고 여러 면의 경로를 거쳐 새로운 정보를 많이 빨리 수입해들임으로써 단결, 우애, 협조 등 신형의 인간관계를 전립한 토대우에서 우리 민족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성과를 얻게 해야 한다.

4. 결론

(1)조선족 소학생, 중학생, 중교학교교원의 기질류형분포정황에서 소학생시기에는 담즙질이 우세이던것이 중학생시기부터는 다혈질이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한다. 중학생들과 중교학교교원들의 기질류형분포를 대비하면 현저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중사이후에는 기질류형이 비교적 안정된 분포망을 이룬다. 기질류형의 관전적인 변화시기는 초중과 중사초기인데 이 시기의 기질류형의 변화범위는 대체상 넓지 않고 변화속도는 아주 떠더다. 변화의 초점은 사회생활

환경의 제요인과 개체의식의 결합점으로서 이것이 기질변화의 기점으로 된다.

(2) 조선족과 한족의 기질류형의 분포를 대비해보면 조선족은 한족보다 다혈질이 절대적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로부터 보면 기질류형의 분포에는 민족성이 있다.

주해

①②주지현, 립충덕:《심리학대사전》(한문), 북경사범대학출판사 1989년판.

③진효선:《보통심리학》(한문), 호남인민출판사 1982년판.

④⑤《전국 아동, 소년, 청년기질의 분포와 연구》(한문), 《심리발전과 교육》(한문), 북경사범대학심리연구소, 1990년 3월.

⑥ 중국심리학회 제3차대표대회 및 학회전립10주년학술년차회 《론문선편》(한문, 하).

부록1: 두차례 학술회의 요지

《조선족교육의 특징 및 전망》 연구토론회요지

김영립 정리

국제고려학회 교육부회와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조선족교육의 특징 및 전망》연구토론회가 1992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연길시에서 열리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교육과학연구소,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연변대학,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위원회, 동북3성조선문교재협의판공실, 연변민족교육개혁판공실, 연변교육학회 등 10여개 단위의 민족교육 연구일군과 사업일군 3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 국제고려학회회장 최웅구교수와 중앙교육과학연구소에서 축사를 보내왔다. 회의에서는 4차의 학술보고가 있었고 17편의 논문이 교류되었다.

아래에 이번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을 간추려 종합한다.

1. 조선족교육의 특징에 대하여

회의 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의 특징에 대해 열렬하게 토론하였는데 토론에서 밝힌 그 특징을 개괄적으로 적으면 아래와 같다.

(1) 이중언어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조선족교육의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조선족중소학교(중등사범학교와 유치원을 포함)에서는 조선말과 글로 가르쳐고 조선문교재를 사용하여 과정안

에 조선어문을 배비하고 교수시간수를 보장하여 조선어문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조선족의 민족어문교육은 중국경내의 다른 소수민족의 어문교육에 비하여 민족언어문자사용의 광범성, 민족어문교육체계의 완전성, 민족어문교육역사의 안정성 등 특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족중소학교에서는 한어문교수를 민족교육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한어문교수의 질을 높이는것을 전반 민족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간주하고 학교에서 한어파목을 중요한 필수파목으로 취급한다고 하면서 조선족학교에서의 한어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적지 않은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어와 한어는 조선민족문화와 한민족(汉族)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될뿐만 아니라 각기 본민족문화를 표시, 상징, 표현하기에 이중문화교육(혹은 이중문화를 배움)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았고 아울러 조선족교육의 특징으로 보았다.

조선족교육에서 이중언어교육을 진행함으로 하여 한족교육을 비롯한 기타 민족교육에 비해 학제, 과정, 교수계획, 교재출판, 교원양성, 학교운영형식 등 면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게 되며 또 이로부터 이중언어교육은 조선족교육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된다고 공통으로 인정하였다.

(2)조선민족문화를 교수내용으로 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조선민족의 언어문자, 문학,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을 학파목 교수내용으로 삼고있는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3)학교운영형식에서 단일민족학교를 꾸리는것이 특징이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은 단일민족학교를 꾸려오면서 단일성을 견지하였고 단일민족학교를 꾸리기 어려운 산재지구의 향촌에서만 한족학교에 조선족학급을 설치하고 조선말파 글로 교수를 하면서 역시 단일성을 견지하여왔다고 인정하였다.

(4) 조선족교육은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족교육은 기초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보통교육으로부터 전문기술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으로부터 과외교육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민족교육행정관리도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5) 조선문교재를 자체로 편집, 출판, 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문교재의 편집, 출판, 발행사업은 주로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에서 맡고 있는데 조선족중소학교의 조선어문, 한어문, 외국어, 음악, 체육, 미술, 무용 등 교재를 자편(自編)하고 정치, 역사, 지리, 화학, 수학, 생물, 자연지리 등 교재는 전국통용교재를 번역하여 출판하며 조선족사범학교, 유치원 및 직업기술학교의 부분적교재를 편집, 번역하여 출판하는 외에 민족리론상식, 민족역사, 향토지리 등 교재와 교수참고서, 사전류, 교원연수교재, 학생과외도서 등을 편집하여 출판한다. 또 조선족은 조선문교재협의기구, 조선문교재심사기구도 갖고 있다.

(6) 조선족사범교육과 민족교원연수계통에 주로 의거하여 중소학교교원을 양성하고 강습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연변대학과 조선족중동사범학교에서 주로 민족문화자질을 소유한 중소학교(유치원포함)교원을 양성하고 동북3성교육학원 민족교연부와 연변교육학원 및 현, 시급의 교원연수학교에서 조선족교원들의 재직강습을 맡고 있다.

(7) 전 민족의 교육열에 의해 조선족교육발전이 추진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문화승상, 교육승상의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은 아주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민족의 드높은 교육열로 민족교육발전을 떠밀어왔는바 교육열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라고 공동히 인정하였다.

(8) 학교분포의 분산성과 분포지역의 변원성특징이 있다.

조선족학교분포의 분산성은 잡거를 위주로 하고 접거, 잡거, 산거가 결합되어 있는 조선족의 거주특징과 연결되어 분포지역의 변원성(邊遠性)은 조선족이 주로 중국 동북3성에 분포되어 있는 특징과 연결된다.

(9) 조선족교육은 국제성특징을 가지고 있다.

회의참가자들은 중국조선족은 조선, 한국 및 세계 각지에 있는 거례들과 혈연적, 문화적 연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 이로 하여 조선족교육은 국제성특징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어떤 회의참가자는 역사면으로부터 조선교육의 계승성, 해방전 조선족교육목적의 이중성을 제기하였으며 어떤 회의참가자는 해방전 조선족교육은 다른 소수민족의 교육에 비해 근대교육의 형성과 발전이 빨랐을뿐만 아니라 외민족의 강압적동화에 대한 항거성, 민족의 자주성, 민중참여의 평범성을 나타냈다고 지적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의 특징에 대하여 계속 폭넓고 깊이 있는 탐구가 있어야 한다고 일치하게 견해를 모았다.

2. 조선족교육의 미래발전에 대하여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의 미래발전을 구상하는 기본립장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다.

첫째, 조선민족교육에는 우리 나라 일반교육이 갖고 있는 공성문제외에 또 자체의 특수성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조선민족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공성과 자체의 특수성의 변증법적통일속에서 자기의 발전을 기해야 한다.

둘째, 조선민족교육은 다민족국가에서의 소수민족교육이다. 그러므로 조선민족교육은 반드시 민족적인 현대교육, 현대적인 민족교육

두차례 학술회의 요지

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조선민족교육은 조선민족의 발전과정에서 우선적인 지위에 놓여져야 할뿐만 아니라 그 발전결과에서도 조선민족발전의 하나의 주요한 정표로 되어야 한다.

넷째, 조선민족교육의 발전은 외부의 영향력을 내생력으로 전환시켜 민족자신의 주관능동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때에야 비로소 정확한 방향으로 부단히 전진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에 기초하여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의 특성을 계속하여 살려가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화가 추진되는 정세하에서 각국에서는 양성목표를 제정할 때 국체성, 민족성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민족화와 사회화를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고 제기되었다. 한 연구자는 조선민족 특색을 가진 중국인을 양성하는것이 조선족교육의 양성목표가 아니겠는가고 제기하였다. 다른 한 견해를 보면 우리 민족은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조선족인만큼 양성목표면에서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큰 전제도 있어야 하거니와 조선족으로서 자기 민족문화를 사랑하고 계승, 발전시킬 요구도 제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회의참가들은 이중언어교육을 견지하여 우리의 후대들로 하여금 이중언어를 겸통(兼通)하고 이중문화를 한몸에 융합시킨 적응력이 강한 인재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족어맹(民族语盲)》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것을 하나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민족어문교육의 조기화, 이중언어교육의 효율화, 민족언어사용의 사회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전의가 나왔다.

민족어문교육을 더욱 강화할것을 주장하면서 회의참가들은 몇가지 면에서 인식을 통일하였다. 첫째, 중소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고 학습하는것을 민족교육에서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삼고 드립 없이 견지해야 한다. 둘째, 과정안을 제정할 때 반드시 조선어, 한어, 외국어 이 세과목의 배정비례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셋째, 민

족교육의 전반 체계내에서 민족어 교수의 질적체고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조선어의 사회적지위를 높임으로서 조선어의 광범한 사용이 학생들의 조선어학습을 추진하게 해야 한다.

교육내용면의 민족적특성을 살려가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민족문화교육을 강화할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위주로 되었다. 회의에서는 민족교육내용의 완전성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본민족의 어문, 음악, 무용, 체육 등 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민족혁사, 민족풍속, 민족례절, 민족자아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계열화, 제도화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였고 조선민족파를 단독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전의가 나왔으며 조선어문파의 우세를 발휘시키고 조선어문파를 《종합파》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학교운영형식에서 단일민족학교를 꾸리는것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단일성을 견지하는 전제하에서 단일민족학교를 기본모형으로 하고 부동한 지구의 실제정황에 따라 여러가지 교육모형을 탐구해야 한다고 하였고 어떤 학자는 외국의 중간학교, 유아학교, 한글학교, 토요일학교 등 형식을 창조할수 있다고 제기하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다 다양한 모식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족교육체계를 보다 완벽화해야 하는바 직업기술교육체계를 세우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현대사회의 발전과 경제발전수요에 적응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를 박어야 하며 산업구조의 조절에 따라 교육구조도 조절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자체로 교재를 편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교재를 민족화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조선문교재건설에서 반드시 자체로 편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원인은 ①교재의 민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이고 ②우리 민족교육을 본민족의 특성에 맞

두차례 학술회의 요지

게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교재의 민족화에 대해 언급할 때 조선문교재에 우리 민족의 생활, 감정, 민속, 문화재 등 면에서 민족적 특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족교원양성과 강습에 대한 견해를 보면 교원의 자질을 제고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고 제기하였고 초중교원대오전설이 약한 고리라고 하면서 조선족초중교원을 양성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삼고 그 기지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민족교육열의 지속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육에 대한 민족사회의 광범한 참여를 확보해야 하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교육가치관념에서 가일종 탈피함으로써 웅시교육으로부터 자질교육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담보해야 한다고 인정하였고 우리 민족의 교육열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의 교육열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조선족교육분포를 조절하는 문제에서 인력, 물력, 재력을 집중하여 기숙제학교를 꾸리는 것은 교육효과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개혁, 개방의 열조속에서 국외의 겨레들과 교육면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며 조선족교육의 개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의 미래발전을 토론하면서 전망에 대해 미래학적인 연구를 진척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으며 이번 학술토론회는 현실적의의와 역사적의의를 가진다고 한결같이 인정하였다.

《언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학술토론회요지

김영립 계근호 정리

《언어교육의 현황과 전망》학술토론회가 국제고려학회 교육부 회와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의 공동주최로 1994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연길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교육과학연구소,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연변대학 등 10여개 단위의 교육 전문가들과 언어전문가들 및 교육행정부문의 지도일군 그리고 한국, 일본의 학자 도합 41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학교에서의 우리 말 교육현황과 과제》 등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한국, 조선, 일본의 언어교육상황; 제일동포의 언어상황, 국제교류중의 영어등 내용으로 5차의 학술보고가 있었고 조선어, 한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주제별 토론이 있었다.

이번 학술토론회의에 국제고려학회 회장 최웅구 교수와 중앙교육과학연구소 부소장 주남조가 축사를 보내왔고 연변대학 원 부교장이었던 정판룡교수가 축사를 드렸다.

아래에 이번 학술토론회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1. 조선어교육

(1) 조선어표준화문제

회의에서는 중국에서의 조선어표준과 규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1977년부터 조선어규범초안작성소조에서는 조선어에서 사규법과 언어규법을 다른 원칙에 따라 규범하였다.

우선 조선어에서 사규법은 여전히 조선을 따르는 원칙을 취하였

두차례 학술회의 요지

다.

다음 언어규범에서는 우리 나라 조선족인민들에게 널리 쓰이고 조선말발달법칙에 맞는 발음을 가려잡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어휘규범을 보면 『기존어휘들을 그대로 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중국에서의 조선어표준은 서사법과 표준발음법에서 조선과 기본적으로 일치시키고 어휘에서는 1966년이전의 조선어표준어 즉 6권 『조선말사전』의 어휘와 일치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표준어와 거의 일치된 것이다.

방언어휘처리원칙과 다듬은 말에 대한 처리제칙을 보면 조선에서 문화어로 받아들인 방언어휘들은 절대 대부분 그대로 쓰기로 하였고 다듬은 말은 한국과 조선에서 서로 함께 다듬었거나 어느 한쪽에서 다듬어진 말들은 받아들여 쓰기로 하였다.

한국과의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면서 하나의 원칙을 정하였는데 한국과 조선에서 다같이 쓰는 말은 우리도 그대로 쓰기로 하였으며 이 원칙을 학술용어처리에서도 적용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술용어는 점차적으로 그에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준어문제에서 아래와 같은 관점도 나왔다. 한국에서의 조선어표준어는 19세기말 20세기초에 서울방언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는 객관적존재이다. 평양말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표준어에 접근된다. 평양말은 19세기말~20세기초에 형성된 표준어를 떠나 만든것이 아니다. 평양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주 깨끗하다. 평양말도 역시 지나친 면도 없지 않지만 한글학회의 주장보다는 극단적이 아니다. 때문에 남에서도 북을 따라배울것이 아주 많다. 연변말은 서울말이나 평양말을 떠나서 독립적인 표준어로 형성될수도 없거니와 이런 표준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장에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혼란한것들은 반드시 학자들의 연구를 거쳐 점차 통일시켜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 민족언어의 이질화를 막고 동질성을 확보

하는 것이다. 조선어교육에서는 표준어를 배워주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에서의 조선어표준과 규범문제에서 발전방향의 차도로 제기된 견해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이때까지의 중국 조선어서사규법의 혁사를 보거나 또 조선족이 처한 지리적환경으로 보아 한국에 완전히 기울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큰 면에서 이때까지의 서사규법을 유지하되 과학성이 부족한 규칙들은 한국의것을 읽겨울수 있다고 본다. 한국과 조선이 통일되어 서사법을 고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② 어휘규법에서는 우리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한국에서 쓰는 어떤 표준어(가원이 다른)는 복수표준어로 인정할수 있다. 어휘규법은 한국과 조선이 통일된후에 절대 대부분은 통일시키되 중국에서 산생된 말, 중국특색을 떤 말은 우리대로 써야 한다.

(2) 조선어의 이질화상황문제

회의에서는 중국조선족의 언어생활에 혼란상태가 있다고 론의 되었다. 여지껏 조선을 따르는것을 위주로 하였는데 한국과의 교제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혼란이 조성되고있다는것이다. 발음법에서 《ㄹ》와 《ㅇ》의 구별문제같은것인데 《리산가족》을 《이산가족》으로 발음하는것이나 맞춤법에서 《여관》을 《여관》, 《녀자》를 《여자》라고 하는것과 같은것이다. 억양면에서 함경북도 억양에 대한 서울억양의 충격 등을 들수 있으며 외래어인입에서 주의하지 않기에 내용리해에 혼란을 조성한다고 제기되었는데 예하면 《헬레비촌극》——드라마, 《공중전화》——전화박스 등이다. 또 한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어어휘를 적수입해왔거나 한어말과 조선말을 뒤섞어 쓰는 혐성이 비일비재이다. 이런 혼란상태는 언어교육에 적지 않은 곤난을 조성해준다고 지적되었다.

(3) 조선문자전용과 조한문자혼용 및 교육문제

이번 회의에서 조한문자혼용이냐 아니면 조선문자전용이냐 하

두차례 학술회의 요지

는 문제를 둘러싸고론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다.

조한문자혼용론을 제기한 학자들은 1952년부터 사용된 조선문자전용체제의 리해특성을 따지면서 조선문자전용은 문맹퇴치, 문화수준제고, 과학기술지식보급면에서 큰 성과를 따내는데 공헌하였다 고 긍정하였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조선문자전용은 리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 몇가지로 제기하였다.

- ①학교교육에서 교수효률과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 ②아동시기 지능개발에 불리하다.
- ③조선어문의 발전과 제고에 불리하다.
- ④전통적문화유산의 소실을 초래하게 된다.

조한문자혼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조선문자체제의 금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한자락후론사상을 극복하고 그의 과학성, 우월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져와야 한다.
- ②한자는 배우기 어렵다는 사상을 극복하고 한자학습의 필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 ③한자가 외래어라는 인식을 바로잡고 그가 조선어문의 한개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조한문자혼용주장은 조선언어학자들의 거센 반론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학자들은 조한문자혼용주장이 일정한 근거가 있다는것을 승인하면서도 《우리의 실체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문자전용을 주장하였다.

학자들은 조한문자혼용의 손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다.

- ①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쓰기 어렵고 기억하기 어렵기에 민족문화수준의 제고에 불리하고 문맹을 초래할 수 있다.
- ②조선족학생들은 한어, 일어한자, 조선어한자를 배워야 하므로 학습부담이 가중해진다.
- ③조선어한자어와 한어어휘를 혼동하여 문자교체가 혼란하게

된다.

④ 조선어의 발음법, 맞춤법, 띄여쓰기를 위반하게 된다.

⑤ 조선어문취조론이 성행하게 된다.

어떤 학자들은 또 조선문자에 대해 잘 인식해야 한다면서 조선문자의 우점을 발견하였다.

① 조선문자는 과학적으로 창제된 우수한 문자이다.

② 조선문자는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문자이다.

조선문자전용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우리 글 전용의 제한성을 승인하면서 일부 대책을 제기하였다. 한어문파를 통해 이미 한자의 자형과 뜻을 배워 알고 있는데 우리 글 한자어와의 내재적연계와 음독, 결합법칙을 알려주면 된다. 한자어교육은 또 사전을 리용하게 하는 형식이거나 씨클형식을 통해 취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외 일부 학자들은 실천적각도로부터 출발하여 조한문자혼용 교재를 찍자면 자금이 꽤 많이 수요된다면서 이것도 큰 혼난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신문, 잡지에서 인명, 지명따위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 것은 더 연구되어야 할바라고 제기하였다.

(4) 언어교육에서의 방언의 위치와 작용을 밝힌것을 보면

① 방언은 민족어의 기초로 되는데 이로 하여 민족어교육에서 훌시할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② 생명력이 있고 전형성이 있는 방언어휘는 표준어구성속에 들어오기에 언어교육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

③ 표준어교육의 처음단계에서 흔히 방언과의 비교를 통해 표준어교육을 시작한다.

④ 방언연구와 교육은 조기언어가 어떻게 분화되었는가를 해석하고 언어내부의 차이와 현상을 설명하며 언어발전을 예측한다.

⑤ 일정한 지역에서의 언어교제와 지방적색채를 위한 특수한 서사생활에서 방언사용과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언어교육에서 방언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보

두차례 학술회의 요지

면

첫째, 대응되는 표준어휘가 없는 방언어휘는 표준어휘로 인상시킨다.

둘째, 대응되는 표준어휘가 있는 방언어휘도 뜻차이, 뜻舛
갈, 사용빈도와 생명력에 의해 표준어휘로 인상시킨다.

(5) 조선어문교원의 재직연수와 양성문제

회의에서는 연변의 조선어문교원의 재직연수의 상황이 소개되었고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조선어문교원재직연수에 존재하는 문제: ①유치원교양원의 자질제고를 위한 교재, 학습재료가 없다. ②몇년래 교수에서 언어표달, 어휘교수를 흘시하였다. ③교수용어장에서 사투리, 한어말, 접탕말이 의연히 써여진다. ④현대화교수수단(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어문교원양성문제에서는 표준어를 잘 장악시키는 문제, 언어표달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두어파를 설치할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문화적시각에서 언어교원양성에서의 문화심리갈등을 해소하고 중국조선족 문화와 언어교육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6) 조선어문교재출판문제

회의에서는 ①출판경비가 부족되는 문제, ②전재해원이 적은 문제, ③민족문화전통을 반영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는데 사회각계 특히 기업계에서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 할것이며 민족문화전통을 반영하면서도 또 교재의 요구에 부합되는 작품을 공모형식으로 모집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토의하였다.

(7) 교수효률문제와 교수법개혁방향문제

회의에서는 조선족의 조선어문교수총시수와 조선, 한국의 국어교수총시수와의 비교속에서 조선어문교수효률이 낮은 문제를 보아낼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교수효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조선족의 언어생활과 그 수요에 적응되는 교수목표요구체계를 잘 연구하여야 한다. 둘째로 민족어문교육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한족어문교수와 조선, 한국의 국어교수의 연구성과를 실정에 맞게 흡수하고 자기 특색이 있는 교수법체계를 세워야 한다. 셋째로 교수연구실험사업이 유력한 조직지도체계하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중소학생들의 언어표달능력현황을 분석하고나서 한족학생이나 한국, 조선의 학생들에 비해 언어표달능력이 낮다고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여러 면으로부터 조치를 대야 한다고 하였다.

(8) 조선어문교육과 관련하여 더욱 깊은 연구를 요청하는 문제들

① 조선문자전용과 조한문자혼용 및 교육문제. 새로 제기된것으로는 조한문자대조연구를 이중언어각도에서 하나의 연구과제로 삼고 기초리론연구를 해야 한다는 견해, 문화언어학의 각도에서 조선어로 사유하는것과 한어로 사유하는것과의 충돌 및 사유방식을 연구하자는 견해가 있다.

② 조선어문을 어느만큼 배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 조선어문을 고중에서 더 배우지 말자는 관점, 고중에서 선택과로 하자는 관점, 고중의 조선어문을 문학지식, 번역지식으로 하자는 관점이 있다.

③ 가정에서의 언어교육문제.

④ 비정규적인 교육형태를 통한 언어교육문제.

2. 한어문교육

(1) 한어문교수에 대한 다방면의 평가

교수법면에서 보면 한어문교수에서 해방직후에는 전통법, 직접법이 위주였고 50년대 중기에는 종합법으로, 60년대에는 구두어법으

두차례 학술회의 요지

로, 70년대에는 밀률법으로, 80년대에는 종합교수법으로 전변되었다.

한어문교수실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첫째로 한어문교수를 소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효과가 좋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둘째로 한어문교수의 입문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실험한 결과 구두어를 앞세운 것이 성과적이라고 인정하였다. 셋째로 산재지구, 잡거지구에서 자체의 특점에 근거하여 과문을 증가하여 《배부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과적이라고 하였다.

(2) 한어문교수의 문제점

① 효률문제. 한어문교수시간수가 국내의 다른 민족보다 많으며 따라서 부담이 커지는 데 이는 효률문제이다. ② 한어문교수개혁실험이 초중단계에서 《열》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주로 실험경비가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 ③ 한어문교수에서 어(语)위주나 문(文)위주나 또 모어교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성격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 ④ 한어문교수의 표준화, 과학화문제. 이는 학생들의 한어문수준을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⑤ 한어문교수의 조직형식문제. 이는 한어문파를 제외하고 기타 부분적 학파에서 한어를 교수용어로 하고 개념, 술어를 한자(漢字)로 쓰는 것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이다. ⑥ 한어문교원문제. 60년대에는 조선족학교에 한족교원이 있었으나 지금은 조선족으로 일색화되어 있는데 교수질제고에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는가 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3) 한어문교수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

① 교재출판에서 산재지구와 잡거지구의 특점에 주의하여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② 교원대오건설에서 현우의 한어문교원들의 자질을 힘써 제고하는 한편 한족교원을 받아들여 한어문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중학교의 일부 과목을 한어로 교수하는

것을 실험연구하여 경험을 모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④한어문교수에서 언어표달능력을 중시해야 한다. ⑤한어문능력평가에서 한어문 수준시험(HSK)을 도입하여 소수민족한어문수준시험에 대해 탐구해야 할 것이다. ⑥한어문과목을 수준시험(会考)과목에 넣고 대학입시에 조선어문을 선발시험과목으로 한다면 민족교육에는 더욱 유리 할 것이다. ⑦민족연합학교에서는 언어환경을 잘 이용하여 한어표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상술한것들에서 ②, ③, ⑤, ⑥ 등은 참가자들의 흥취를 자아냈고 또한 더욱 깊은 연구가 요청된다고 평의되었다.

3. 외국어교육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교육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하나의 열점으로 되었다.

(1)조선족인재출로의 제한성——《영어문맹》

회의참가자들은 세계적으로 영어사용범위가 넓고 사회교제공능이 충분하고 조선족이 영어교육을 홀시한탓으로 《영어문맹》이 많고 또 이로 하여 조선족인재의 출로가 큰 제한성을 받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영어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절박성을 강조하였다.

(2)일어위주로부터 영어위주에로의 과도문제.

회의에서는 외국어교육에서의 어종선택에서 단일성을 추구하여 영어만을 선택하자는 관점이 나왔는가 하면 다양성을 추구하여 영어, 일어, 로어 등 기타 언어도 선택하자는 관점이 나왔다. 대부분 대표들은 일어위주의 교육성과를 긍정하면서도 《영어세계》라고 할 만큼 영어가 세계성언어로 등장하는 추세에 비추어 일어위주의 외국어교육으로부터 영어위주의 외국어교육에로 과도해야 한다는데 일치한 견해를 보았다.

(3) 영어교육의 현실적 문제와 그 해결책

① 영어교원의 자질과 양성 및 연수문제. 회의에서는 연변의 적지 않은 영어교원들의 기초지식이 차하고 영어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여 교원들이 학력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낡은 교수방법에 묶매여 있는 현실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영어교원의 자질을 높이 는것이 급선무라고 인정하였다.

또 영어교원이 류설되고 교원대오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교원을 계속 양성하여 보충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영어교원재직연수가 따라서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밝히면서 단기, 장기 연수반을 꾸리거나 교수법연구센터를 세운다든가 등등 여러가지 방도를 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② 학생용 참고서적, 교수설비문제

조선족학생들에게 알맞는 체계적인 참고서적, 과외서적이 대단히 적고 영어록음태프와 비디오테프는 더욱 회소하다. 해결책을 제시한것을 보면 한문으로 된 참고서적이 많은 실정에서 출판발행부문에서는 영어교원들과 협력하여 알맞는것을 들어와야 할것이고 각급 교육지도부에서는 영어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데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③ 소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문제.

근년에 일부 소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어영음자모와 영어자모간의 교란문제, 어느 연령단계에서 시작하는가 하는 문제, 과정계획을 짜는 문제, 중소학교의 연결문제 등이 제기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신중성을 기하는 한편 연구를 다그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영어교수관리문제, 영어교재의 출판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연변에서는 영어교육에 대한 특별강화계획을 세우고 강유력한 조치를 대야 한다고 하였으며 영어위주의 외국어

교육으로 과도하기 위해 교원, 교재, 설비 등 여러 면으로부터 준비를 잘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4. 조선어, 한어, 외국어 교육의 관계와 상호조화

회의에서는 조선족중소학교의 언어교육과정총시수는 극한에 달하였는바 언어교육의 문제는 비충분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비효률성에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출로는 오직 언어내부의 상호관계와 상호보완법칙을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그 효률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지적되었다.

한태평양지역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언어인 조선어, 동방문화권 내에서의 중요한 언어인 한어, 그리고 외국어 특히 세계성언어인 영어를 겸통하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 중화민족문화, 인류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언어 능력둔화를 최대한으로 감소시키고 언어교육의 효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쇄선을 다 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인정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이번 학술토론회의는 언어학자와 교육학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조선족의 언어교육현황을 검토하여 학술성과를 거둔 회의였고 21세기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점에서 언어교육의 방향을 찾는 회의였다고 인정하였다.

부록2: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1. 소수민족교육면에서의 자주권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해당 지방의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위생, 체육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번영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119조(1982년)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사회주의건설의 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당시의 민족들 가운데서 각급 간부, 각종 과학기술전문인재, 경영관리전문인재 및 기술로동자를 대량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며 소수민족녀성들 가운데서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에 주의를 돌린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각종 전문일군들이 자치지방의 제반건설사업에 참가하도록 그들을 우대하고 격려하는 특수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 제22조(1984년)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교육방침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지방의 교육전망계획, 여러가지 류형의 각급 학교의 설치, 학제, 학교운영형식, 교수내용, 교수용어 및 학생모집방법을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 제36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주적으로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며 문맹을 퇴치하며 여러가지 류형의 학교를 꾸리고 초등의무교육을

보급시키며 중등교육을 발전시키며 민족사범학교, 민족중등전문학교, 민족직업학교와 민족학원을 꾸려 각 소수민족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소수민족목축구 및 경제가 곤난하고 분산적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간지구에 기숙과 조학금을 위주로 하는 공립민족소학교 및 민족중학교를 설립할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 제37조

2. 소수민족교육의 방침, 임무

인민정부는 반드시 각 소수민족인민대중을 도와 정치, 경제, 문화 및 교육의 건설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 공동강령》 제6장 《민족정책》(1949년)

국가건설, 민족구역자치의 수요와 공동강령의 민족정책을 시달하기 위한 수요에 의하여 중앙으로부터 유관성, 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신민주주의의 교육방침에 근거하여 보편적이고도 대량적으로 각 소수민족간부를 양성하여야 한다. 복전에 정치학교와 정치훈련반을 꾸려 주로 일반정치간부를 양성해야 하며 박절하게 수요되는 전업 및 기술간부도 겸하여 양성하여야 한다. 지식분자들을 될수록 많이 받아들여야 하며 원래의 간부들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간부를 양성하여야 하며 또한 자원적으로 소수민족사업을 하려는 한족간부도 적당히 양성하여 각 소수민족의 해방사업과 건설사업을 도와주어야 한다.

——《소수민족간부양성시행안》 1950년 11월 24일 중앙인민정부정부원에서 비준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1) 소수민족교육은 반드시 신민주주의 내용이여야 한다. 즉 민족적이고 과학적이며 대중적인 교육이여야 한다. 또한 각 민족인민의 발전과 진보에 적응되는 민족형식을 취해야 한다.

(2) 소수민족교육은 목전에 소수민족간부양성을 첫째 임무로 하여 각 민족의 정치, 경제와 문화교육 전설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동시에 소학교교육과 성인과외교육을 강화하여 소수민족의 문화수준을 제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수민족 각급 학교의 교원문제도 힘써 해결하여야 한다.

——《제1차전국민족교육회의 보고》(1951년 9월)

소수민족지구의 네가지 현대화건설과 번영발전은 대량의 건설 인재를 수요하므로 반드시 여러가지 류형의 학교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소수민족출신으로서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고 당의 령도를 견지하며 전업지식과 능력이 있는 간부 특히는 대량의 과학기술인재와 관리인재가 없다면 점차적으로 민족간의 사실상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민족문제를 철저히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소수민족을 도와주는 제일 원결성 있는 방법은 골바로 교육을 잘 꾸려 인재를 대량 양성하는 것부터 틀어쥐는 것이다.

——《민족교육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교육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1980년 10월 21일)

민족교육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선 민족교육사업을 강화하는 전략적의의부터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전반국면에 관계되는 큰 문제이다. 다음으로는 민족의 특점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각 민족은 고도로 민주화되고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해야 할 영광스러운 임무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족교육의 내용은 반드시 각 민족인민의 발전과 진보에 부합되는 민족형식을 취해야 한다. 반드시 점차적으로 민족의 특점에 부합되는 사

회주의 교육체계를 전립해야 하지 한족지구의 방법을 그대로 옮겨와서는 절대 안된다.셋째로는 각 민족지구의 실제정황으로부터 출발하여 실제로 부합되는 민족교육전망계획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나라의 지원과 소수민족지구의 자력갱생을 정확히 결합하여야 한다.

——《제3차전국민족교육사업회의 보고》(1981년 2월)

상급국가기관은 민족자치지방을 도와 교육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당지 여러 민족 인민들의 과학문화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민족학원을 꾸리며 대학에 민족반, 민족에파를 두어 전적으로 소수민족학생을 받으며 또한 목표를 정해놓고 학생을 모집하여 정해놓은 목표대로 학생을 배치하는 방법을 취할수 있다. 대학과 중등 전문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는 소수민족수험생에 대하여 합격 표준과 조건을 적당히 낮춘다.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 제65조

각급 당위와 정부는 당지의 경제와 교육의 부동한 발전수준 및 산업구조에 근거하여 본지구의 각급, 각 유형 민족교육사업의 발전규모, 속도, 교육구조와 학교운영형식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하며 노동자의 자질을 높이고 초급, 중급기술인재를 양성하며 교육률을 높이고 학교운영효과성을 중대시키며 당지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교육발전과 개혁의 중점으로 삼아야 하며 심입된 개혁을 통하여 본민족과 본지구의 실제에 부합되는 학교운영의 길을 점차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민족교육의 개혁과 발전은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실제와 특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교육법칙을 준수하고 실속있게 일하며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학교운영지도사상을 더 한층 단정히 하고 중등교육구조를 참답게 조절하여야 하며 기초교육, 직업기술교육과 성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인교육을 강화하기에 중시를 돌려야 하며 당지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지도하여야 한다. 조절과 개혁을 통하여 민족교육의 내부구조, 총차비례와 학교운영형식으로 하여금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의 수요에 적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민족교육 발전과 개혁 지도요강》(시행) (1992년)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점과 수요에 근거하여 각 소수민족을 도와 교육사업을 발전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제1장 제10조(1995년 3월 18일)

3. 소수민족교육의 행정관리기구

(1) 중앙인민정부 교육부에 민족교육사를 설치한다.

(2) 각 행정구인민정부 교육부 혹은 문교부는 사업의 수요에 의해 민족교육처(과)를 설치하거나 또는 유관처(과)에 전직인원을 배치한다. 그 편제와 인원은 원유의 편제와 인원내에서 조정한다.

(3) 각 유관성, 시, 전원공서, 현인민정부 교육청(처), 국, 과에서 는 반드시 본지구소수민족인구의 다소와 민족교육사업의 번잡정도에 근거하여 적당한 행정기구를 설립하거나 전직인원을 배치한다.

(4) 각급 인민정부교육행정부문의 민족교육기구와 그 부문의 고등교육,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기구는 적당한 분공을 한다.

①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행정, 경비, 교원, 학제, 과정, 교재 등 사항을 의연히 각 주관사, 처, 과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② 소수민족교육의 행정, 경비, 교원, 학제, 과정, 교재 등 면의 특수문제는 민족교육사, 처, 과 또는 전문인원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③ 쌍방에 모두 관계되는 문제는 유관사, 처, 과와 민족교육사, 처, 과 또는 전문인원이 협상하여 처리한다.

(5) 각급 인민정부교육행정부문에서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기구를 전립하고 간부를 배치하여 될수 있는한 소수민족간부와 소수민족교육사업에 열성이 높은 간부를 받아들여 사업하게 하여야 한다.

——《민족교육행정기구를 전립할데 관한 결정》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1952년 4월 16일)

(1) 각급 교육행정부문에서는 민족교육행정기구를 계속 충실히하고 전전히 해야 한다. 정무원의 『민족교육행정기구를 전립할데 관한 결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기구를 전립해야 하거나 전문인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아직 집행하지 못한 지구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하루빨리 기구를 전전히 하고 전문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구가 전전하지 못하고 인원배치가 충실히 하지 못한 지구는 반드시 정치상, 업무상에서 비교적 우수한 간부를 배치하여 빠른 시일내에 충실히 하고 전전히 해야 한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족간부와 청도물간양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부 민족자치구 또는 소수민족인구가 당시 총인구의 반수좌우를 차지하는 지구는 교육사업의 발전정도가 다른데 따라 일반학교가 수량상에서 의연히 절대다수를 점하기에 각지 교육행정부문에서는 실제사업가운데서 모두 주요한 역량을 일반교육사업관리에 쓸뿐 소수민족교육관리를 주요임무로 할수 없다. 때문에 당전의 민족교육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런 지구의 교육행정부문에서도 적당한 민족교육행정기구를 설립할수 있다. 유관성, 시교육행정부문에서 이미 설립한 민족어문교재편역기구도 충실히 하고 강화하여 사업질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타 부문에서 진행하는 민족어문교재편역사업에 대하여서도 교육행정부문에서는 될수 있는한 업무상에서 협조하고 관심하여야 한다. 민족교육행정부문의 편제인원은 일반적으로 원유의 편제내에서 조절하여 해결하도록 하여 일부 민족성분이 비교적 많고 사업이 번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접한 지구에서는 상술한 원칙하에서 성, 시인민정부에 청시하여 적절히 해결할수 있다.

(2) 민족교육행정기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각급 교육행정부문의 민족교육기구와 그 부문의 고등교육, 중등교육과 초등교육 등 기구의 분공범위는 원 정무원의 『민족교육행정구를 전립할 때 관한 결정』에서 이미 원칙적인 규정을 하였는데 그 정신은 지금도 의연히 적용된다. 민족교육기구 또는 전문인원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

① 민족교육방침정책의 관철과 집행.

② 국가의 통일된 교육방침정책과 법령을 민족교육에 관철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족특점에 의하여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의 연구와 처리.

③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학제, 교수요강과 교수계획 등을 각 민족의 구체정황과 결부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변통 혹은 보충사업.

④ 민족교육사업계획, 학교설치와 소수민족교육보조금을 주관.

⑤ 민족어문교재의 편역사업 및 새롭게 창제한 소수민족문자의 실험과 보급에 관계되는 사업.

⑥ 민족학교의 교원양성과 교원자격제고를 협조.

⑦ 민족학원과 민족공학에 관한 사업.

——《전국민족교육행정령도문제에 관한 의견》 교육부 (1955년 4월 28일)

1952년 정무원에서 민족교육행정기구를 전립할 때 관한 결정을 내린 후 교육부로부터 각 성, 지구와 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구를 설치하였거나 전문인원을 배치하였다. 1958년 이후 일부 지구에서는 민족학교를 취소한 동시에 민족교육기구를 약화시키거나 심지어는 취소해버렸다. 10년동란시기에는 민족교육기구를 아예 죄다 취소해

버렸다. 오늘에 와서 1952년 정무원의 결정을 다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각 민족자치지방의 교육기구에서는 반드시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을 주요임무로 삼아야 하며 소수민족인구가 비교적 많은 성, 지구, 현에서 반드시 교육행정부문에 민족교육사업기구를 설치하고 소수민족교육사업을 위하여 열성껏 복무하려는 동지를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사업하게 해야 한다.

——《민족교육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 교육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1980년 10월 21일)

각 지방에서는 민족교육행정관리기구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자치지방의 교육행정기구에서는 반드시 민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본지구교육사업의 중점으로 삼아야 하며 민족자치지방 및 소수민족인구가 비교적 많은 성, 지구와 현에서는 교육행정부문내에 민족교육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민족교육에 대한 경도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전국민족교육 발전과 개혁 지도요강》(시행) 1992년

4. 소수민족언어문자정책

반드시 국내 소수민족에게 완전히 민족언어문자를 사용하는 학교, 편집관(館)과 인쇄국(局)을 설립해주어야 하며 모든 정부기관에서 자기 민족문자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중국경내 소수민족에 관한 결의안》 중화로농병쏘베트제 1차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 (1932년 5월)

각 소수민족의 문화, 종교,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한어를 학습하도록 그들을 강박하지 말아야 할뿐아니라 각 민족 자신의 언어문자를 쓰는 문화교육을 발전시키도록 그들을 찬조해주어야 한다.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중공중앙 6차(화대)전원회의에서 한 모택동의 보고 (1938년 10월)

각 소수민족은 모두 자기 언어문자를 발전시키고 풍속습관 및 종교신앙을 유지 또는 개혁할 자유가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 공동강령》(1949년 10월)

각 민족자치구의 자치기관에서는 각 민족의 문화교육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 실시요강》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1952년)

분명히 민족특징으로 되는 언어가 있지만 문자가 없는 그런 각 민족에 대해 그들의 문자창제를 어떻게 방조하는가 하는 것은 절박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인바 주밀한 조사연구를 거쳐 가능한 계획을 각기 제정하고 점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교제도구를 획득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게 할 것이 수요된다.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한 경험에 관한 기본종화》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에서 비준 공포 (1953년 9월 9일)

각 민족은 모두 자기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에서는 직무를 집행할 때 당시 민족들이 통용하고 있는 한가지 혹은 몇가지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조 제71조 (1954년 9월)

문자가 없거나 혹은 통용문자가 없는 민족에 대하여서는 그들

의 자원선택에 근거하여 일정한 시기의 조사연구를 거친후 그들을 도와 일종 병음문자를 점차적으로 제정하거나 혹은 그들을 도와 일종 현유의 적용문자를 선택하게 한다.각 소수민족은 모두 자기 언어문자를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기 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할 자유가 있다. 아울러 이미 문자가 있는 민족이거나 아직 문자가 없는 민족이거나를 막론하고 무릇 한어문 혹은 기타 민족언어문자를 배우고 사용하길 원하는자에 대하여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모두 보장파 방조를 주어야 하며 모든 기관, 학교, 단체 등에서도 될수있는한 방조를 주어야 하며 기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아직 문자가 없는 민족을 방조하여 문자를 창제할데 관한 보고》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에서 채택 (1954년 5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에서는 본지방 각 민족이 모두 자기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 자기 풍속습관을 유지 혹은 개혁할 자유가 있도록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 제10조 (1984년 10월)

5. 소수민족언어문자교수

각 소수민족학교에서는 적당한 번역인원을 초빙하여 교수를 돋게 해야 하며 반드시 본민족언어문자로 수업해야 하는 학급과 교과목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자신들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기반의 소수민족학생들은 본민족어문을 잘 배우는외에 한어문도 잘 학습해야 한다.

——《소수민족간부양성시행초안》 1950년 11월 24일 중앙인민정부정무원에서 비준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소수민족학교에서는 마땅히 본민족언어문자로 수업해야 한다.』 『각 학과목교수에서는 실제정황에 따라 될수록 본민족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무릇 현행통용문자가 있는 민족 혜하면 몽골족, 조선족, 장족, 위글족, 까자흐족은 소학교와 중학교 각 학과목을 본민족의 습관적인 언어문자로 교수해야 한다. 독립적인 언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문자가 없거나 문자가 불완전한 민족은 문자창제와 문자개혁에 착수하는 한편 자원의 원칙에 따라 한어문 또는 본민족의 습관적인 언어문자로 교수를 진행해야 한다.』

——《제1차전국민족교육회의에 관한 보고》 중앙인민정부정부원비준 (1951년)

민족학교에서는 반드시 민족언어과정을 설치해야 하며 앞으로 각 민족의 조건이 성숙되면 각 학과목에서 민족언어문자로 교수하는데로 점차 과도해야 한다.

——《감숙림담초중에서 장족어문과정을 중설하는 문제에 대해 서북교육국에 보낸 교육부의 회답》 (1954년 7월 23일)

본자치구소속의 대학교에 지망한 소수민족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줄수 있으며 소수민족언어로 교수를 진행하는 민족중학교의 졸업생이 대학교문사류전공에 지원하면 고대한어시험을 면제한다.

——《고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소수민족학생을 모집할데 관한 교육부의 통지》 (1962년 8월 2일)

민족중소학교교육의 발전은 교육체제, 교수내용과 교수방법 등 면에서 소수민족의 특점에 알맞아야 한다. 무릇 본민족언어문자를 갖고있는 민족은 마땅히 본민족의 언어문자로 교수를 진행해야 하며 본민족어문을 잘 학습하는 동시에 한어문도 배워야 한다.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로동인사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교육부, 통일전선부의 〈변경지구과학기술대오전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에 대한 국무원의 회답》(1982년)

본민족의 언어문자가 있는 민족은 본민족언문을 잘 배우는 동시에 한어, 한문도 잘 학습해야 한다. 본민족의 문자는 없지만 독특한 언어를 갖고 있다면 마땅히 본민족언어로 보조교수를 진행해야 한다.

—《제3차전국민족교육사업회의 보고》(1982년 2월)

소수민족학생을 주로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말과 글로 교수할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제6조 제2항 (1986년 4월 12일)

교수가운데서 당의 민족언어문자정책을 정확하게 판철해야 하며 본지방의 실정에 알맞게 이중언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민족학교에서의 교수언어문자정책의 구체적인 실시는 주로 각 성(구)에서 《천법》,《민족구역자치법》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교류를 확대하며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발양하고 민족간의 과학문화교류와 각 민족의 교육질을 제고하는데 유리하게 하는 원칙과 당지의 언어환경, 교수조건 및 다수 대중들의 념원에 충아결정해야 한다.

—《전국민족교육 발전과 개혁 지도요강》(시행) (1992년)

소수민족학생을 위주로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조건이 되면 마땅히 소수민족문자로 된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며 아울러 소수민족언어로 교수해야 한다. 소학교고급학년 또는 중학교에서는 한어문과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목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말을 보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제37조 제3항 (1984년)

한어와 한자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에서의 기본적인 교수언어문자이다. 소수민족학생이 위주인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에서는 본민족 또는 당지의 민족이 통용하고 있는 언어문자로 교수를 진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제12조 (1995년 3월 18일)

본민족언어문자로 교수하는 민족중학교의 졸업생이 한어로 교수하는 보통대학교에 지원하면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한어문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따로 출제하는데 소수민족언어로 번역하지 않으며 답안도 한문으로 써야 한다. 기타 각 학과(외국어시험에서의 한어부분도 포함됨)는 본민족문자로 번역할 수 있으며 본민족문자로 답안을 쓸 수 있다. 한어문시험을 치는 동시에 관계 성, 자치구에서는 소수민족어문도 시험칠 수 있는데 출제는 자체로 책임진다. (시험지, 참고답안, 채점표준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내여 서류로 보관함) 한어문과 소수민족어문의 시험성적은 각기 50%씩 총점에 기입한다. 단 한어문성적이 반드시 합격수준에 도달되어야만 입학할 수 있다.

변경지구, 산간지구, 목축구, 소수민족집거지구의 소수민족수험생에 대해서는 당지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적당히 점수선을 낮추어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한족지구에 산재해 있는 소수민족수험생에 한해서는 한족수험생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보통고등학교 학생모집 잠정조건》국가교육위원회 (1987년 4월 21일)

민족중소학교교육의 발전은 교수체제, 교수내용과 교수방법 등 면에서 소수민족의 특점에 적합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민족언어문자를 갖고 있는 민족은 본민족의 언어문자로 교수를 진행해야 하며 본민족어문을 배우는 동시에 겸하여 한어, 한문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교육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 교육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1980년 10월 21일)

6. 소수민족교육경비

각급 각 류형 소수민족학교의 상용경비는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업경비안에 포함되어 있다. 소수민족교육보조비는 소수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을 돋기 위하여 일반사업경비외에 특별히 설치한 보조비용으로서 일반사업경비의 부족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이 『특별경비』가 있다고 해서 일반교육사업경비항목으로 조달해야 할 금액을 최소하거나 감소해서는 안되어 상용경비에서 지출할수 있거나 또는 마땅히 상용경비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 즉 일반교육사업비명목으로 지출해야 할 그 어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경비로 대체해서는 더욱 안된다. 오직 학교교육에서 민족특점에 의한 필수적인 지출로서 일반교육사업비의 범위 또는 표준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부분만 소수민족교육보조금항목에서 지출할수 있다. 그 지출범위는 아래와 같다. 소수민족 중등,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보조, 혜하면 서적, 문방구, 복장, 의료위생 및 특설된 조학금 또는 비례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초과한 인민조학금. 소수민족학교의 설비보조, 교원대우에 대한 보조, 혜하면 수요에 따라 교원들이 소수민족지구에 가서 사업하도록 고무격려하기 위해 월로임외에 주는 보조금 또는 일반적인 대우표준을 초과하는 지출부분. 소수민족사립학교 또는 대중들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이 자체로 꾸리는 학교(종교학교는 제외됨)의 설비와 경비에 대한 보조, 소수민족 농민, 목민들의 과외교육과 과외학습에 대한 보조 등이다.

——《소수민족교육보조비의 사용범위에 대한 지시》 교육부
(1953년 3월 21일)

(1) 금후 일정한 시기내에 민족지구소학교는 의연히 공영을 기본으로 한다. 오직 경제, 문화가 발달되고 과거에 대중들이 자체로 학교를 꾸리던 습관이 있거나 또는 확실히 민영을 실시할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지구에서만 적당히 민영학교를 꾸릴수 있다.

(2) 민족지구의 소학교학비수금문제는 당시 대중들의 생활정황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하는바 생활조건이 비교적 곤난한 지구에서는 학비를 면제해야 하며 원래 수금습관이 있었거나 또는 확실히 수금제도를 실시할수 있는 지구에서도 학비감면명액을 증가해야 한다.

(3) 민족중학교의 편제정원에 대해서는 적당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45명을 상한선으로 하며 15명좌우이면 학급을 편성할수 있다. 학교가 극히 분산된 지구에서는 전문보도원을 배치하여 순회하면서 재직교원들의 학습을 지도하게 해야 하며 기숙생이 있는 학교에는 취사원과 보육원을 배치해야 한다.

(4) 각지에서는 해마다 일정한 금액의 소수민족교육보조비를 담보해야 하며 당시의 경제 및 교육사업의 발전정황에 근거하여 1955년도 지표수를 기초로 점차 적당히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경제조건이 비교적 좋고 소수민족학생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지구에서는 기존액수를 유지할수 있다.

(5) 금후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예산체정시 소수민족교육사업의 발전수요와 민족특점에 근거하고 절약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실사구시적이고도 세밀한 계산을 거쳐 민족교육사업경비를 합리하게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배분해야 한다. 경비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적치, 탐비하거나 류용, 탐용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민족교육사업의 발전에 대한 경비지출의 담보작용이 더 잘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소수민족교육사업경비문제에 대한 지시》 국무원 (1956년 9월)

소수민족지구의 정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민족교육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경비가 수요된다. 예를 들면 동등한 규모의 소학교를 꾸리는데 목축구의 소요경비는 농업구, 도시보다 3~4배나 더 많다. 목축구에서 소학교기숙생 1명을 공부시키는데 드는 학부모의 부담은 도시에서 대학생 1명을 뒤바라지하는 것과 맞먹는다. 예문에 정상적인 교육경비외에 특수한 보조금을 제공해주어야 하는데 재정에서 소수민족교육특별보조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외에 미발달지구경제발전지원자금, 변경지구사업보조비, 변경지구기본건설설보조비 가운데서 일정한 비례의 자금을 떼내여 민족교육발전에 사용할 것을 전의한다. 국가에서 조달하는 민족교육경비는 반드시 소수민족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마음대로 잘라내거나 돌려써서는 절대 안된다. 여기에는 보조비를 헉대고 정상경비를 적게 주거나 또는 주지 않는 차법도 포함된다. 소수민족지구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질, 설비 예하면 교육전문용운수차량 등은 마땅히 참답게 해결해주어야 한다.

——《민족교육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교육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1980년 10월 21일)

국가는 교원, 재정 등 면에서 소수민족지구의 의무교육실시를 도와준다.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제12조 제6항 (1986년 4월 12일)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국가의 지원과 자력갱생을 서로 결합하는 원칙을 전지하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민족교육경비를 마련함으로써 민족교육에 대한 투입을 증가해야 한다. 민족교육 특하는 곤난이 비교적 많은 민족지구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에 조달하는 여러가지 특별경비항목에서 돌봐주는 외에 관계성(구)재정에서 《민족구역자치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민족교육특별보조경비를 설립해야 하는바 그 액수는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성(구)에서 확정할수 있다. 각 성(구)에서는 국가에서 민족지구에 조달한 도급경비중의 《3항》보조경비(민족지구에 비금, 변경지구사업건설보조비와 미발달지구발전기금)가운데서 민족교육발전에 사용하는 비례를 증가해야 한다. 국가에서 조달하는 민족교육특별경비는 규정대로 사용해야지 점용하거나 류용해서는 안된다.

——《전국민족교육 발전과 개혁 지도요강》(시행) (1992년)

소수민족교육사업을 중시하고 부축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에서 는 소수민족교육경비를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하며 특수한 곤난이 있는 소수민족지구에 대해서는 특수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에서 배분하는 소수민족지구의 각종 보조비 및 기타 빈곤부축자금가운데서 일정한 비례의 경비를 빼내어 민족교육발전에 사용해야 한다.

——《중국교육의 개혁과 발전요강》(1993년)

국무원 및 현급이상의 각급 지방인민정부에서는 교육특별자금을 설립하여 변경빈곤지구, 소수민족지구의 의무교육실시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제 56조 (1995년 3월 18일)

7. 소수민족교원양성

소수민족교원을 양성하고 그들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은 소수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바 관련된 각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에서는 이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1) 각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에서는 현유의 소수민족사법학교를 적극 도와 물질조건을 개선하고 교원자질을 높여주며 교재와 교수방법을 개진함으로써 소수민족교원을 더욱 잘 양성해내도록 해야 하며 사업수요에 의해 조건이 허락될 때 확장보충해주어야 한다. 사법교육발전전망계획가운데는 각 지구 소수민족의 다소와 교육사업의 실제수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의 소수민족사법학교를 창설하여 소수민족 초등교육과 로농파외교육에 필수되는 교원대오를 양성하는 것도 망라되어여야 한다.

(2) 소수민족지구에서는 초등교육, 로농파외교육 발전의 절박한 수요에 수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단기교원강습반을 꾸리고 지식인을 모집하여 3개월, 반년 혹은 1년간의 훈련을 거친후 소학교교원과 로농파외학교교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류번강습과 재직학습 등 방법으로 현임교원들의 자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3) 소수민족중등전문학교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성급이상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문에서는 소수민족인구가 집중되고 교육이 비교적 발달된 지구에다 소수민족사법학원 혹은 사법전문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여러 민족학원안에 민족교육학부 또는 사법연수과를 중설해야 한다. 그리고 몇개 사법학원 혹은 사법전문학교를 선정하여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과정을 적당히 증가하거나 이미 있는 각 학부에 민족교육조를 중설해야 한다.

(4) 각 대학교 연구부에서는 소수민족연구생을 받아들이는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중앙인민정부 교육부문에서는 류학생을 파견할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때 소수민족대학교교원양성을 위하여 일정한 수량의 소수민족 학생과 간부를 선발, 파견해야 한다.

(5) 각급 민족사범학교와 교원훈련반에서는 소수민족학생을 위주로 모집해야 하며 또 소수민족교육사업에 적합한 일부분 한족학생도 모집해야 한다. 이런 한족학생들은 관계소수민족의 어문화를 학습해야 한다. 그들에 대한 대우는 소수민족학생과 같아야 한다. 전국 각지의 각급 사범학교에서는 학생모집시에 소수민족학생을 받아들이는 데 중시를 둘려야 한다.

(6) 각급 민족사범학교의 학제, 과정, 교재는 모두 교육부의 규정에 기초하는 동시에 소수민족의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적당히 변동할수 있다. 과정방면에서는 적당하게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등 과목을 증설해야 한다. 학제, 과정, 교재를 개변 시킬 때에는 중앙인민정부 교육부에 보고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7) 사범학교의 소수민족학생에 대해서는 모두 공비대우를 주어야 한다. 그 표준은 따로 규정한다.

——《소수민족교원양성 시행안》 정무원 112차정무회의에서 비준 (1951년 11월 23일)

민족사범학교를 잘 꾸리는 것은 민족소학교교원을 양성하고 소수민족지구의 소학교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소수민족의 과학문화수준을 제고하여 변강소수민족지구의 현대화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의 하나이다. 당면 대다수 소수민족지구에는 교원수가 모자라고 그 질이 낮다. 이는 변강을 공고히 하고 건설하는데 아주 불리하다. 유관성, 자치구에서는 실제수요와 가능한 조건에 따라 민족사범학교를 발전시키고 잘 꾸려나갈데 대한 전망계획을 연구체정해야 한다. 인구가 좀 많은 주, 맹과 지구에서는 1~2개소 민족사범학교(유아사범을 망라)를 잘 꾸려야 한다. 이미 세운 민족사범학교에서는 정돈, 공고화사업을 침답게 잘하며 교육의 질을 힘써 제고함으로

써 점차적으로 소수민족소학교에서 합격된 민족교원이 교편을 잡도록 해야 한다. 민족사범학교에서는 소수민족학생을 위주로 모집해야 하며 편벽한 복축구, 산간지대의 자녀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민족사범학교에서는 반드시 민족어문화를 설치해야 하며 민족어문화 한어문에 다 능숙한 교원을 양성해내는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중등사범교육을 잘 꾸려나갈데 관한 의견》 교육부 (1980년 8월 22일)

사범교육은 교육의 공작기계이다. 지금 민족교육가운데서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비교적 합격된 민족교육교원대오가 결핍한 것이다. 때문에 민족사범교육을 대폭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당면의 급선무이다. 각 자치구와 소수민족이 비교적 많은 성에서는 반드시 일련의 민족사범학원, 사범학교를 설립하고 잘 운영해야 한다. 이런 민족사범학원, 사범학교에서는 소수민족학생을 위주로 모집해야 하며 소수민족교육을 위해 봉사하려는 지향이 있는 한족학생도 적당히 모집해야 한다. 민족사범학원, 사범학교의 학생모집과 졸업배치는 모두 교육기초가 낮은 농업복축구와 산간지대를 배려하는데 주의해야 하며 학생모집조건을 적당히 낮추어야 한다. 학제, 과정설치, 교수내용 등은 모두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한족지구 일반사범학원, 사범학교의 경험과 방법을 그대로 옮겨놓아서는 절대 안된다. 일반적인 사범학원과 사범학교에서도 민족사범반을 설치하고 소수민족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민족사범교육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여러가지 형식을 리용해 재직 민족교원을 강습, 제고시켜야 한다. 내지의 유관성, 시와 대학교에서는 적극 지원해야 하며 전문가, 교수를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강의하게 하고 재직교원을 접수하여 연수시키고 대리양성하는 등 방법으로 소수민족지구를 위해 대학전문학교와 중등전문학교 교원을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양성해주어야 한다.

——《민족교육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 교육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1980년 10월 21일)

민족사법교육을 적극 개혁, 발전시키고 민족교원대오전설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각급 민족사법학교와 소수민족교원강습센터를 잘 운영해야 한다. 당시에서 태여나고 자란 본민족교원을 대폭 양성하고 재직교원의 훈련, 제교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당면 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관건고리이다. 각급 정부에서는 민족사법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개혁하며 재직교원을 강습시키는 것을 민족교육발전의 한 날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잘 틀어줘야 한다.

——《전국민족교육 발전과 개혁 지도요강》(시행) (1992년)

8. 소수민족문자교재출판사업

각 소수민족지구의 중소학교와 사법학교들에서는 전국통용교재를 번역사용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외에 본민족어문교재와 민족학교 한어문교재 및 민족보충교재는 자편하여 사용해야 한다. 소수민족문자교재의 편역은 반드시 당과 국가의 교육방침을 지도사상으로 삼아야 하며 내용상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애국주의 사상으로 학생들을 교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소수민족출판사업회의 결정》(1959년 9월)

1975년 초기 새학기전으로 각종 주요교재를 편역, 출판해야 한다. 협작교재거나 기타 성, 시, 자치구의 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정황에 따라 중감, 수개하거나 또는 필요한 보충교재, 향토교재를 자편할 수 있다.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소수민족문자도서의 번역, 출판계획에 관한 좌담회의에서 한 보고》 국가출판사업관리국(1975년 3월 국무원비준)

(1) 민족문자교재의 편역은 각 민족지구의 특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2) 한어문과 본민족어문을 겸통한 불교도 전문화한 편역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당위원회와 교육행정부문에서는 경력을 들여 대학, 중학교에서 본민족어문과 한어문을 겸통한 우수한 교원을 선발해야 하며 대학졸업생 가운데서 우수졸업생을 선발하여 민족사업부문의 편역대오를 충실히 해야 한다. 민족교육사업일터를 떠난 유능한 인재는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되돌아오게 하는 동시에 이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도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 편역대오를 충실히 하고 확대할 경우 본민족인재양성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3) 결손을 감소하는 동시에 민족교재보조방법도 회복해야 한다.

(4) 민족교재편역일군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해주어야 한다.

—《소수민족문자교재사업좌담회 회의요지》 교육부(1980년 4월)

소수민족지구의 출판사업과 소수민족문자도서의 출판사업을 중시하고 부축해주며 그들이 본민족경제문화의 발전과 전국출판사업의 번영을 위해 공헌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특수곤난에 대해 칙실히 고려하고 인력, 물력, 재력 면에서 보다 많은 방조를 주어야 한다. 소수민족문자편역일군과 인쇄기술일군양성에 대해 관계부문에서는 중시를 돌리고 잘 배치해야 한다.

—《출판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결정》 중공중앙, 국무원(1983)

소수민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

년 6월 6일)

민족문자교재(음향교재를 포함)건설을 잘해야 한다. 몇개 성(구)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심사결정하며 성(구)내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성(구)교육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심사결정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은 교재는 일률로 사용하지 못한다.

중소학교 민족문자교재(음향교재를 포함)는 그 종류가 많고 인쇄부수가 적기에 원가가 높다. 국가와 유관 성(구)인민정부에서는 특수비용을 조달하여 부축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각 성(구)의 실제 정황에 따라 민족문자교재출판기구와 한어문중소학교교재출판기구에서 협합경영하고 통일해산하여 티윤으로 결손을 미봉함으로써 중소학교 민족문자교재가 제때에 수요대로 공급발행되도록 해야 한다. 《8차5개년계획》기간에 민족어와 한어 상호번역상의 명사술어에 대한 규범화연구와 민족학생들이 이중언어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교수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음향교재를 편역제작하는 사업을 바싹 틀어쥔으로써 교수내용을 풍부히 하고 민족교육의 질을 제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민족교육 발전과 개혁 지도요강》(시행)(1992년)

부록3: 조선족교육에 관한 법규

1.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

(1985년 4월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8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채택, 1985년 7월 31일 길림성 제6기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4차회의에서 비준)

제20조 자치주인민정부는 각 민족간부의 양성과 사용에 중시를 돌리며 특히 소수민족의 과학기술간부, 경제관리간부, 기타 전문간부의 양성과 사용에 중시를 돌린다. 그리고 소수민족녀성중에서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사용하는데 주의를 둘린다.

자치주인민정부는 특수한 조치를 취하여 자치주의 제반 전설사업에 참가하는 각종 전문인력을 우대하고 고무격려할 수 있다.

제51조 자치주자치기관은 교육을 개혁하여 학령전교육을 적극 발전시키며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직업기술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고중교육, 중등전문교육과 고등교육을 잘 꾸린다.

자치주자치기관은 시범교육과 교원양성사업을 강화하고 중학교, 소학교의 교수시설을 적극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자치주자치기관은 통일적인 보통교육제도에 근거하고 조선족교육의 특성에 비추어 조선족 중학교, 수학교의 학제, 과정안, 해당학과 목의 교수요강을 확정하며 각 과목의 교과서, 참고자료와 조선족어린이들의 과외도서를 조선문으로 편찬, 번역하여 출판한다.

자치주자치기관은 경제가 곤난한, 산재하고 있는 편僻한 산간지대에 기술과 조학금을 위주로 하는 공립민족중학교와 소학교를 점차적으로 설립한다.

조선족교육에 관한 법규

제52조 자치주자치기관은 실정에 따라 자치주내에 조선어와 조선문,한어와 한문으로 수업하고, 소학교를 각기 설립하여 또 학급을 갈라서 조선어와 조선문 또는 한어와 한문으로 수업하는 중학교, 소학교를 설립할수도 있다.

제53조 자치주내의 각급 각 류형의 학교에서는 모두 민족정책 교양을 정치파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자치주내의 조선족 중학교와 소학교에서는 조선어교수도 강화하고 한어교수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조선어와 조선문,한어와 한문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주자치기관은 한족 중학교와 소학교의 학생들이 조선어와 조선문을 배우는것을 제장한다.

제54조 자치주내의 대학에서는 국가의 교육계획과 자치주의 실지수요에 근거하여 전공파를 설치하고 조선족과 기타 민족의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대학의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은 마땅히 자치주의 경제, 문화건설과 밀접히 배합되어야 하며 자치주의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위하여 복무해야 한다.

자치주내의 대학과 중등전문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각 민족 수험생은 본민족의 말과 글로 시험을 칠수 있다. 조선문으로 시험을 치는 학생의 어문시험에는 조선어시험과 한어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주내의 대학과 중등전문학교에서는 자치주의 건설수요에 따라 지점율 정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배치하는 방법을 실시할수 있다.

자치주내의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 할 때 같은 조선에서는 조선족학생과 기타 소수민족학생을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졸업생배치에서는 자치주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킨다.

제55조 자치주자치기관은 정신문명건설과 물질문명건설의 수요에 따라 여러가지 중등전문학교와 기능공학교를 설립하여 조선족

및 기타 민족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제56조 자치주자치기관은 성인교육에 중시를 둘려 농민대학, 종업원대학, 헬레비죤방송대학, 통신대학, 간행물통신대학을 잘 운영하며 국가기관, 농촌, 도시 그리고 공장기업소와 사업단위들에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각종 류형의 정치, 문화, 기술 학교 또는 강습반을 운영하도록 고무격려하며 자습하여 인재가 되도록 고무격려하여 여러 민족공민들의 과학기술수준과 정치문화수준을 보편적으로 제고시킨다.

제67조 자치주자치기관은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위생, 체육 등 면에서 다른 지방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 진행한다.

자치주자치기관은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위생, 체육 등 면에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외국과의 교류를 진행한다. 그리고 외국의 전문가와 학자들을 자차주에 초빙하여 직무를 맡거나 강의하게 할수 있으며 류학생과 과학기술일군을 외국에 파견하여 교찰 또는 연수하게 한다.

2.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교육조례》

(1994년 2월 5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0기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채택, 1994년 4월 22일 길립성 제8기인민대회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비준)

제1장 총칙

제2조 본조례에서 말하는 조선족교육이란 문화전통, 학제, 학교 운영형태, 교수내용, 교수용어, 교수용도서, 교원대오, 학교운영조건 등 면에서 조선족특점을 가진 자치지방의 각급 각 부류의 교육을 가리킨다.

조선족교육에 관한 법규

제3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조선족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전략적 지위에 올려놓고 전체 공민의 교육의식을 실속 있게 증강하며 조선족교육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안정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6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조선족문화전통교양에 중시를 돌리고 조선족의 우수한 사상문화전통을 계승발양하며 인류문명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흡수하고 현대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여 민족자질을 높여야 한다.

제2장 학교운영형태

제11조 자치주내에는 조선족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특수교육학교, 사범학교(아래에 조선족학교라 약칭함)를 설립한다.

제12조 조선족인구가 당시 종인구가운데서 차지하는 비례가 비교적 낮고 단독적으로 조선족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운 지방은 민족연합학교를 설립하고 조선족반을 설치해야 한다.

제13조 자치주는 양성폭포, 전공과목설치, 학과내용, 학생원천에 근거하여 단독적으로 조선족 직업기술학교, 기능공학교, 중등전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다민족연합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다.

제14조 행정관할지구가 달라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입학할 수 없는 지방은 학교운영단위와 협상하고 협(시)급교육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행정관할지구계선을 타파하고 촌연합학교 또는 향연합학교를 꾸릴 수 있다.

제15조 거주지가 분산되었거나 학생들이 통학하기 어렵거나 민족반정원이 차지 않는 국경지대와 산간지대는 기술을 위주로하거나 조학금을 위주로 하는 조선족 소학교와 중학교를 꾸릴 수 있다.

제16조 외국국적단체 또는 우호인사는 비준을 거쳐 자치주경

내에서 돈을 기부하거나 합작하는 등 형식으로 유치원, 직업기술학교, 기능공학교, 중등전문학교를 꾸릴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교육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조선족문화전통교양

제17조 조선족학교는 반드시 조선족문화전통교양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특히 조선족의 어문, 역사, 음악, 무용, 체육, 미술 등 학과 교수와 민족전통미덕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제19조 자치주자치기관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반포한 과정계획에 근거하여 조선족교육의 실정에 비추어 조선족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수업시간계획을 확정함과 동시에 상급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조선족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는 반드시 자치주에서 확정한 수업시간계획을 엄하게 집행해야 하지 함부로 변동시켜서는 안된다.

제20조 조선족학교는 규범적인 조선언어문자로 강의해야 하며 직업기술학교와 기능공학교, 중등전문학교는 조선언어문자를 교수용어로 하는 외 한어로 강의할 수도 있다.

기초교육단계에 먼저 조선어문교수를 강화함과 동시에 한어문교수와 외국어교수도 강화하여 학생들이 조, 한 이중언어를 다 장악하게 하여 그들에게 여러가지 언어문자 학습과 사용에 기초를 닦아 주어야 한다.

제21조 조선족학교졸업생들이 직업기술학교와 기능공학교, 중등전문학교, 대학과 고등전문학교의 시험에 응시할 때 조선언어문자로 응시할 수 있다. 조선언어문자로 응시하는 학생들의 어문시험에는 조선어문과 한어문이 땅라되어야 한다.

제22조 자치주경내의 직업기술학교, 기능공학교, 중등전문학교, 대학과 고등전문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해당규정에 쫓아 조선

조선족교육에 관한 법규

족학생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며 졸업생분배면에서 자치주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제4장 교수용도서

제23조 자치주자치기관은 조선문교수용도서의 편찬, 출판, 발행 기구를 건립하고 전전히 해야 한다.

제25조 조선족학교의 각 학과목의 교재는 반드시 수업시간계획에 따라 교수요강, 교과서, 교수참고서, 교수용폐도, 지도자료 등 교수용기본도서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조선문교수용도서출판발행부문은 교재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제때에 교재를 공급해야 한다.

제26조 조선족학교는 반드시 국가교육위원회, 성교육위원회, 주교육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교수용도서를 사용해야 하지 비준을 받지 않은 도서, 자료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7조 조선족학교의 도서실(관)의 사람당 장서량과 도서, 신문, 잡지종류, 재학생당 열람실면적과 쪽석수의 비례 및 종업원수 등은 모두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5장 교원

제30조 조선족학교의 교원은 모두 국가에서 규정한 교원자격의 상응한 학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해마다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교원들 가운데서의 단과학력인원과 본과학력인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제32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성에서 규정한 민족학교인원 편제표준에 맞아 교원과 교수보조인원을 배치함과 동시에 조선족학교의 학교운영효과를 힘써 높여야 한다.

제33조 각 학교운영단위는 계획적으로 도시외 농촌 교원의 주택과 기타 사회복리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국경지대와 산간지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대의 교원들에게 보조금을 내주어야 한다.

제6장 조선족교육과학연구

제34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조선족교육과학연구사업에 중시를 돌리고 교육과학연구기구와 교육학회를 강화하여 전임연구일군과 겸임연구일군이 결부된 교육과학연구대오를 건립해야 한다.

제36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 및 교육행정부문은 교육과학연구성과와 교육개혁실험성과를 적극 보급하여 조선족교육의 현대화 속도를 힘써 추진해야 한다.

제7장 교육경비

제37조 조선족교육사업비와 교육기본건설투자는 각급 인민정부에서 책임지고 마련하여 정부재정지불금을 위주로 하고 부차적으로 교육세, 비의무교육단계학생의 학비와 잡비, 학교운영산업수입, 사회의 기부금, 접금 및 교육기금설립 등 여러가지 방도로 교육경비를 마련하는 교육경비체계를 건립하여 교육경비의 안정한 원천과 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38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해마다 교육지불금의 장성을 재정의 경제적수입의 장성보다 높게 보장함과 동시에 재학생인수의 인구당 교육비용과 인구당 공용경비를 해마다 늘여야 한다.

제39조 해마다 소수민족지구에 배정한 국가의 각종 보조금과 기타 빈곤부조자금가운데서 일정한 비례의 경비를 떼내어 우선적으로 조선족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

제40조 자치주경내의 국경지대와 산간지대의 조선족초급중학교와 소학교에서 공부하는 빈곤호가정의 기숙생에 대해서는 잡비를 면제함과 동시에 조학금을 내주어야 한다. 면제해주는 잡비와 내주는 조학금은 현(시)인민정부에서 책임지고 마련하여 교육행정부문

조선족교육에 관한 법규

에서 학교에 분배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41조 자치주인민정부는 경비를 점차 늘여 조선족학교의 교수용도서와 과외도서 출판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42조 각 학교운영단위는 조선족학교 운영조건을 힘써 개선하고 교수실험의기와 전기기계교수기재, 음악체육기재, 위생건강교육시설,로동장소 및 로동설비 등을 제대로 마련하여 점차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43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기업소,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력량과 개인이 학교에 자금을 기부하거나 집금하여 학교를 꾸리도록 권장하며 해외교포와 외국국적단체, 우호인사들이 조선족 교육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기증하는것을 환영해야 한다.

주,현(시)에는 교육기금회를 설립한다.

제8장 국내협조와 국제교류

제44조 자치주자치기관은 기타 성, 시, 자치구와 조선족교육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여 부동한 행정관할지구조선족교육의 학제년한과 과정계획, 교재건설, 교육과학연구, 교원양성 등 중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상한다.

제45조 자치주자치기관은 기타 지방과의 교육교류와 교육협조를 적극 벌려 국내 여러 민족의 교육개혁과 교육발전가운데서의 유익한 경험을 흡수한다.

제46조 자치주자치기관은 국가규정에 쫓아 국외와의 교육교류와 교육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

제9장 조선족교육의 관리

제47조 자치주자치기관은 국가의 교육방침에 근거하고 법률과 해당규정에 의해 조선족교육의 발전계획, 각급, 각부류 학교의 설치, 학제, 학교운영형태, 교수내용, 교수용어, 학생모집방법을 결정한다.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제49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조선족교육발전전망계획을 국
민경제 및 사회발전 종체적전망계획에 넣고 실시함과 동시에 정기
적으로 동급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조선족교육사업을 보고해야
한다.

제51조 교육에 관한 상급국가기관의 결정, 명령, 지시가 연변조
선족교육실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자치주자치기관은 그 상급국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변통적으로 집행하거나 그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4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조선족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본지구교육사업의 중점으로 삼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10장 장려와 처벌

(략)

제11장 부칙

(략)

3.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사업조례》

(1988년 1월 11일)

제18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어린이들에 대한 본민족 언
어훈련사업을 중시한다. 자치주내의 조선족 중학교와 소학교에서는
바탕히 본민족의 언어로 교수해야 하며 어문교수에서 조선어문교수
를 위주로 하고 한어문교수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조선어와 조
선문, 한어와 한문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선족 교원양성을 취지로 하는 주내의 각 사범학원,
사범학교, 중등전문학교들에서는 조선문교재를 사용하고 조선어로
교수하여야 한다.

조선족교육에 관한 법규

봉사업종의 종업원양성을 취지로 하는 주내의 중등전문학교, 기능공학교, 직업학교에서는 마땅히 조선어문과를 설치해야 한다.

제20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편僻한 산간지대에 산재하여 있는 조선족학생들이 조선어로 수업하는 민족중학교, 민족소학교거나 민족학급에서 학습할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부록4: 조선족학교교육 기본정황통계표

연변 조선족학교 기본정황통계표(1993년)

		학 교 수		재교생수	교직원수	
		계	민족현합학교		계	전문교원
소학교	337	136		83,898	5,055	4,153
중학교	초중	83	48	33,644	4,417	2627
	고중	18	3	8,439		881
사범학교	1	—		1,243	129	91
중등전문학교	7	—		1,891	509	265
고등학교	4	—		3,312	—	1,005

길림성 산재지구조선족학교 기본정황통계표(1993년)

	학교수	재학생수	교직원수
소학교	252	23,315	2,366
중학교	32	14,457	1,354

료녕성 조선족학교 기본정황통계표(1993년)

		학 교 수		재교생수	교직원수	
		계	민족반		계	전문교원
소학교	152	52		18,468	2,409	2,066

조선족학교교육 기본정황통계표

중학교	초중	19	—	6,995	966	715
	고중	11	—	2,236	457	306
사범학교		1	—	505	92	—
유치원		46	—	3,671	218	—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기본정황통계표(1993년)

	학교수	재교생수		교직원수
		계	민족 반	
소학교	380	34,975	11,038	3,891
중학교	초중	49		
	고중	19	16,925	8,941 2,576
사범학교	1	893	—	106

내몽골자치구 조선족학교 기본정황통계표(1992년)

	학교수	재학생수	교직원수	
			계	전문교원
소학교	25	1,541	176	171
중학교	초중	3		
	고중	1	761	142 99
유치원	9	212	—	—

责任编辑：金东勋
封面设计：金胜铉
版式设计：全明波
英文校对：张桂芬

中国朝鲜族教育的现状与未来

崔相录 池青山 金龙哲 主编

延边大学出版社出版发行
(吉林省延吉市延边大学院内)
延边新华印刷厂印刷

开本：850×1168毫米 1/32 印张：9.25
字数：231千字 印数：1—1.300
1995年6月第1版 1995年6月第1次印刷

ISBN 7—5634—0776—6/G·94
定价：10.00元

책 임 편집 : 김동훈

표 치 : 김승현

ISBN 7-5634-0776-6

9 787563 407767 >

ISBN 7-5634-0776-6/G · 94
定价: 10.00 元